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Contents

03	발간사
05	2019 Hello! Contemporary Art
06	Spot1.아외원림 권효정 '분수'와 김성수, 이상헌, 신강호, 김현준의 '나무조각'
14	Spot2.실내원림 이상헌
20	Spot3.실내원림 신강호
26	Spot4.실내원림 김성수와 김현준
34	작품평론_자연과 인공 그리고 초월의 세계 배태주
38	기록전시.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
94	전시연계 워크숍
97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展 참고자료 전시소개 글, 작가노트 기억공작소 작가 프로필
235	2019 Hello! Contemporary Art 작가 프로필 전시발문_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自然設計, 물과 나무의 정치 정종구

발간사

대구의 문화예술 1번지, 삶이 여유로운 문화중심 중구에서 운영하는 봉산문화회관이 2004년 개관한 이후,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지원공간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오면서 어느덧 1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동시대미술의 소개와 이해, 나아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Hello! Contemporary Art'라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Hello! Contemporary Art-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展을 개최하고, 전시를 진행했던 시간과 과정의 일부를 기록하며 관련되는 참고 전시의 이미지와 글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5명의 대구 출신 미술가를 초청하여 '나무조각'과 '설치미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중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우리시대의 실험미술들을 소개하고, 그 이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김성수, 이상헌, 신강호, 김현준, 권효정 작가와 기억공작소 기록전시에서 소개하는 50여명의 미술가는 예술 본연의 자유로운 감성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대중과의 예술 소통에 관한 이번 전시의 실험적인 행위들은 1970년대 대구 미술가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전시 참여 미술가들의 자연에 관한 본능적인 실험과 상상은 낙동강변이나 야외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과거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14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2014.10.1~10.14)과 "2017 Hello! Contemporary Art-아외설치 1977로부터"展(2017.7.21~8.19), "2018 Hello! Contemporary Art : 유리상자-아트스타 11년 설치미술로부터"展(2018.7.20~8.11)은 이들 전시와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지나온 대구 실험미술의 역사와 그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한 대구의 예술적 자산임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번 "Hello! Contemporary Art-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전시와 자료집 발간도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의 후반 부분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여건에 이르는 기억공작소 전시의 기록 이미지와 그 작업에 관한 소개의 글, 참여한 미술가의 작가노트 등 참고자료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 전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설계'라는 키워드로 동시대미술의 현장 일부를 기록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정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자료집에 실린 기록 내용과 작품 이미지 등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동시대 미술의 실험정신을 기대하게 하는 소중한 자료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시에 출품한 나무조각과 설치미술을 통하여, 실험적인 태도를 마주하고 미술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와 평론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에 참여하셨던 미술가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봉산문화회관 전시에 애정을 담아주신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관람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어린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기대하며, 이번 전시와 자료집 발간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2019. 7. 19 fri ~ 8. 10 sat

Spot1. 야외원림 권효정 '분수'와 김성수, 이상헌, 신강호, 김현준의 '나무조각'
1층 야외광장

Spot2. 실내원림 이상헌
2층 3전시실

Spot3. 실내원림 신강호
3층 2전시실

Spot4. 실내원림 김성수와 김현준
3층 1전시실

작품평론_ 자연과 인공 그리고 초월의 세계 배태주

기록전시.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
2층 로비벽면

전시연계 워크숍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2019. 7. 23 tue ~ 8. 8 thu
4층 강의실

2019 Hello!
Contemporary Art

SPOT1. 야외원림 권효정 '분수'와
김성수, 이상현, 신강호, 김현준의 '나무조각'
1층 야외광장

Kwon, Hyojung

Kim, Sungsoo Lee, Sangheon Shin, Kangho Kim, Hyunjoon





권효정_Fountain of life; WaterPark, 440x440x350cm, mix media, 2019

작가노트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은 현재의 나와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을 통해 새롭게 관계되어 의미를 만들어 낸다. 매 순간 변화를 느끼고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예술가가 삶 속에서 예술을 마주하는 이러한 태도 속에서 Fountain of life는 탄생했다.

이제 삶의 터전인 광장(미술관)에 자리 잡은 예술품인 분수(Fountain of life)는 삶 속의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 모습은 힘차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생명력과 시원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솟아오른 물은 다시 떨어지며 순환한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되는 것은 그 원천이 물이기 때문이다.

권효정





#생명력 #시간성과 움직임

저울 바늘과 짐볼, 식물들이 물의 흐름에 움직임을 가진다. 멈춰 있던 오브제들이 상단의 스테인리스 그릇과 샤워헤드에서 나오는 물로 마치 생기를 부여받은 것 같다. 야외에 설치된 삶의 분수는 설치된 광장의 공간과 자연의 풍경마저도 작업의 일부가 된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여름의 무더운 온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권효정



Exhibition View



김성수_꽃과 새
265x54x68cm, 나무에 채색,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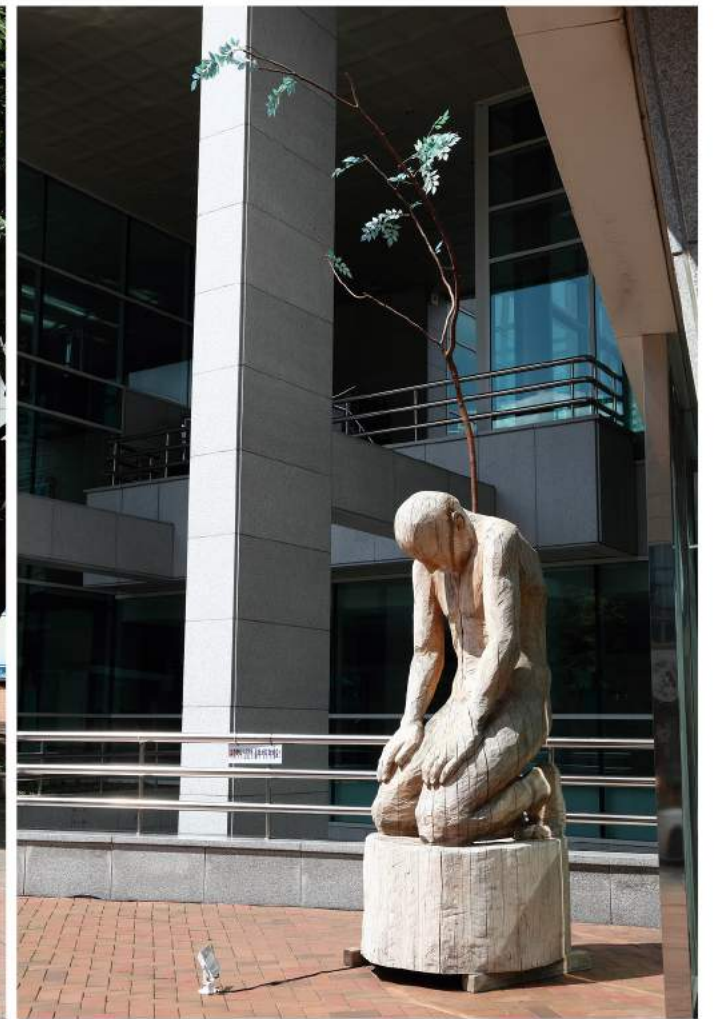


이상현_dance201805
120x110x265cm, 은행나무, 2018

신강호_Link-혼자 서 있는 나무정령, 45x65x340cm, 나무, 2019
Link-나무정령, 240x230x345cm, 나무, 2019
Link-나무정령, 480x120x315cm, 나무, 2019
Link-나무에 기대있는 나무정령, 130x130x345cm, 나무, 2019 (11p 하단)



김현준_나를 너라고 부르는 너는 누구니? 110x107x590cm, 나무, 2018



2019 Hello!
Contemporary Art
SPOT2. 실내원림 이상헌
2층 3전시실

Lee, Sangheon





못을 박다, 50x90x163cm, 은행나무, 느티나무, 먹감나무, 2018

작가노트

확실치 않은 미래, 불안한 현실, 작가의 삶과 가장의 삶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 이제 익숙한 생활이라 여겼는데 그러한 삶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 모든 무게를 나무를 깎듯이...

이상헌

떨어지다—두번째
90x61x195cm
느티나무, 먹감나무
2018





가위놀이, 220x90x70cm, 느티나무, 은행나무, 2018

작품의 모든 내용은 결국 나의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이기도 하다. 유년시절의 기억들을 시작으로 유독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각인되어 때때로 꿈을 통해 발현되기도 하는데 나는 그 기억들을 하나씩 꼬집어내어 나무를 통해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기억의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내면의 기억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또한 쉽지 않은 시도임을 안다. 나의 의도는 관람자들이 작품과 그 시공간을 통한 감정의 소통을 원하며 그 소통을 통해 아픈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이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며 다른 기억들을 간직 하며 살아가지만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료이기 때문이다.

이상헌



Flying man, 510x450x110cm, 편백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2019

2019 Hello!
Contemporary Art
SPOT3. 실내원림 신강호
3층 2전시실

Shin, Kangho





Link-나무정령들, 가변설치(H:210cm내외x8개), 나무, 2019 / Link-나무정령들, 가변설치(H:100cm내외x15개), 나무, 2019

작가노트

나무는 사람과 참으로 닮아있다.

작업실에 쌓여져 있는 나무를 무심히 바라다본다. 저 나무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나무들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난 제대로 알아들지 못한다. 오늘도 난 나무들과 끊임없이 씨름한다.

나무의 선과 형태들은 내가 만들어 낼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다. 나는 그저 잘 빛어낸 선들을 선택하고 조합할 뿐이다.

신강호





Link-나무정령들, 기본설치(H:100cm내외x15개), 나무, 2019

내가 원하는 것은 인공적인 느낌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스러운 나무의 모습을 통해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다. 연결된 부분들이 모두 노출되면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에서 느낌을 제대로 전달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기법들을 연구한 끝에 나무를 이어붙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나무가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을 표현하려 한다. 고대의 전설에 나오는 나무의 정령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강호

2019 Hello!
Contemporary Art
SPOT4. 실내갤러리 김성수와 김현준
3층 1전시실

Kim, Sungsoo Kim, Hyunjoon





Exhibition View
 김현준_응시, 67x26x74cm, 나무, 2014 / 60상념, 각 13x15x35cm, 나무, 2014 외

작가노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질문의 연속이다. 그 질문들은 늘 명확한 해답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생각과 추측들... 질문은 질문으로서의 가치만 추구할 뿐 해답을 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다 거대한 질문에 부딪치게 되고 그 난해한 시공간에 멈춰 서게 된다. 무엇을 찾아야 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 질문이 다시 되돌아올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무엇이 쏟아나지 않을까. 가지가 자라나고 꽃을 피우지 않을까.

김현준



김현준_?, 102x70x122cm, 나무, 2019
 who, 214x170x157cm, 나무, 2017

사람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 것, 그냥 지금 시대의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 간다면, 조금 더 자신이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약간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김현준



김현준_?, 102x70x122cm, 나무, 2019



김현준_somewhither, 76x70x202cm, 나무, 2019



Exhibition View
김성수_새를 탄 남자, 150x130x82cm, 나무에 채색, 2019 외

작가노트

우리의 전통인형 꼭두는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로 만든 나무인형으로 해학과 재치로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색채와 도가적인 사상은 꿈과 환상이 있어 근간의 내 작업의 모티브로 줄곧 사용해 왔다. 매끈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비면 빈 대로 나무의 생김새로 의해 인의적인 것 보다는 자연을 존중한 무심한 소박미가 지금까지 추구한 나의 조형세계다. 이번 작업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다.

김성수



김성수_사람을 만나다 124, 222×45×30cm, 나무에 채색, 2010~2019
 사람을 만나다 176, 260×51×30cm, 나무에 채색, 2010~2019
 꽃을 든 남자, 42×78cm, 한지 위에 아크릴, 2013



김성수_서 있는 여자, 40×50×227cm, 나무에 채색, 2019 외



김성수_서 있는 여자, 39×30×201cm, 나무에 채색, 2019



김성수_꽃을 든 여자, 43×32×140cm, 나무에 채색, 2019
 말을 탄 여자, 155×35×154cm, 나무에 채색, 2010 외



목적 없이 걸어가는 인물 군상의 무표정한 사람과 꽃을 들고 서 있는 남자, 바쁘게 걷는 남자, 꽃바구니를 들고 누굴 기다리는 여자,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이 어우러 지는 공간은 냉소한 이 시대의 상처를 서술적으로 담고 있다.
 6점의 큰 군상들은 통나무 판의 물성과 알록달록한 채색으로 정교하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특징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큰 원목의 두꺼운 판제를 부조와 같이 체인 톱으로 굵고 강한 선을 그려서 표현하고 일부는 색칠을 하기도 한다. 입체의 형태를 조각하다 보면 앞면과 뒷면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 앞면을 다하고 옆면을 보면 틀리고 이상한 형태의 자유로움이 더 멋있을 때가 있어 그대로 그 부분을 남겨 둔다. 이미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우리 삶이 그렇듯이 즉 이성적 이라기보다는 감각적 논리로 만든 조각이 원시성을 띤다. 때로는 이렇게 엄매이지 않고 즉흥적이고 유희적인 작품이 된다. 이번 작품 역시 현대인의 인물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김성수

자연과 인공 그리고 초월의 세계

동시대로 번역되는 ‘Contemporary’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잠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Hello Contemporary art〉라는 제목 아래 펼쳐진 이번 전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이 인식하는 이 시대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나무를 재료로 한 작품들이 불러오는 자연은 인간의 삶과 얽혀들어 숲을 이루듯 펼쳐진다. 인공의 도시에 자연은 낯선 것으로 함께 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 구축된 분수대로부터 솟구치는 물을 길잡이로 하여 나무 조각들을 마주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공의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나는 모습이다. 이것이 또한 인공의 숲에서 삶에 자리한 자연의 울림을 불러내는 일이다.

예술작품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예술작품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의미의 덩어리이다. 그것은 삶의 필요로부터 삶 너머의 세계와 가능 세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진다. 그런 까닭에 예술작품은 총체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경험의 주체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과 관점을 가지고 그 작품에 연루된 요소들로부터 하나의 경험을 완성해낸다. 예술작품은 그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술작품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일상에 함몰되어 사는 일상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가능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청준의 〈줄〉이라는 소설의 화자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조차 잃어버린 자가 된다. 대상에 함몰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 미끄러져 다른 것으로 옮겨 갈 수 있을 만큼의 틈은 시대를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그 틈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 시대에 발을 담고고 있으면서 틈을 만들어 무언가를 인식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틈으로부터 생성과 변화는 시작된다. 예술은 그렇게 욕망과 밀착된 시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동시대 예술에는 시대를 비판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에 밀착된 상태로 있거나 현실을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일 것이다.

틈이 불러오는 긴장으로 작품은 현실과 공존한다. 하지만 기술과학의 첨단으로 인공지능을 말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자연은 어느새 어둠 속에 갇힌 말이 되어 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스스로 있는 바 그대로의 것으로 기술로 포획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리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만물을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자연은 좀처럼 쉽게 다룰 수 없는 사태의 내용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하이데거는 자연의 본연한 존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기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에게 자연은 근본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사태 연관’과 더불어 있기 때문이다. 친숙했던 자연의 결을 담는 것은 전자장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한란한 소리보다 작다. 밖을 향해 질책하는 목소리보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리는 작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삶에 대해 말하는 그 자리에는 삶에 대한 진지함이 내재해 있다. 큰 목소리만이 목소리인 것은 아니다.

4차 혁명 시대를 말하는 시대에서 자연을 불러내는 일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한편 자연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 본연한 무엇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 없다. 기술과 예술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자연과 상대되는 개념의 말이다. 이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은 이러한 이질적인 개념의 공존을 통해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어가는 자연을 그리고 인간을 돌아보게 한다.

권효정은 자연이 가진 물성을 통해 인공적인 환경과 공존하는 삶을 표현하는 데 주목한다. 김현준은 생명체가 뻗어가는 것과 같은 리즘적 사유방식으로 작품을 전개 시킴으로써 자신의 작품들을 생성의 과정에 열어 둔다. 하나하나의 작품은 그러한 사유방식의 결정체로 드러난다. 한편 김성수, 이상현, 신강호는 자연물로서의 나무를 공동의 소재로 하면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만물의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해석적 어조로 던지는가 하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갖는 개체로서의 실존적 상황과 군집, 그리고 개체를 연결하는 관계성에 대한 탐구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순환하는 자연과 삶의 축제가 만나고 관계 속에 얽힌 집적인 인간 군상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 실존의 무게를 느끼기도 한다. 변화 속에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생성과 초월의 세계를 향한 열망이 자리하기도 한다.

인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세계

권효정의 작품, 〈삶의 분수 Fountain of life: water park〉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대형 드럼통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 푸른색과 흰색으로 인공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쌓여 있는 분수는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 서로 다른 인연의 결과로 모인 잡다한 물건들로 만들어진 바벨탑이다. 삶의 무질서함, 삶의 다양함 속에 자리한 사물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단순한 규격품이 아니다. 일상 속에 들어와 다양한 삶의 이야기로 다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물이다. 대형 드럼통이 쌓인 위에 고깃집이나 선술집에서 빙 둘러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주었을 양철로 된 드럼통 탁자가 자리해 있다. 양철 드럼통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사워 헤드를 달고 사방으로 시원하게 물을 뿜어낸다. 그 위로 어느 집에도 하나쯤 있을 법한 스테인리스 양푼이가 맨 꼭대기에 놓여있다. 여기에 일상의 가벼움과 가벼워진 삶을 담아 낼 플라스틱 꽃, 공, 저울, 컵, 우산, 어망, 플라스틱 의자 등이 곁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온 기술 세계의 징표로서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자신이 자라며 보아온 시장이라는 공간을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우리의 삶은 이미 인공의 산물들이 넘쳐나는 세계에 자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삶의 저변에 흐르는 자연적 존재가 직면하게 되는

삶과 죽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작가는 놓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를 보여주려 한다. 그리고 삶의 복잡다단함을 감싸고 도는 더 근원적인 것은 자연의 존재로 감싸고 흐르는 생태적 환경이다. 물은 드럼통 더미를 타고 흐르며 일상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일상의 사물은 그 양적인 크기로 인해 작품의 중심에서 있는 것 같지만 드럼통을 채운 물과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로 인해 분수로서 생명을 얻게 된다. 물이 중력을 거슬러 솟아오르기 위해 기술의 힘을 빌리지만 뿜어져 나온 물의 경쾌함은 다시 흘러진다. 자연을 거슬러 분수가 만들어 낸 환희는 구축된 사물들을 타고 다시 흘러내린다.

물은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그릇의 형태에 따라, 타고 흐르는 플라스틱 통의 형태를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 물은 각각의 오브제들의 쌓임 사이로 흐름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물은 일정한 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힘으로 대상을 정화하고 살아나게 한다. 권효정의 〈분수〉에서 물은 이질적인 것들을 잇는다. 일상과 예술을 한 자리에 끌어오고, 삶의 누추함과 경쾌함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 작품은 분수의 물줄기로 퍼지는 삶의 기쁨을 선사하는 동시에 무상함으로 서성이게 한다. 〈삶의 분수〉는 삶 가운데 예술이 주는 청량함과 휴식이 있는가 하면 삶을 감싸고 흐르는 생태적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

생성으로서의 작업

김현준은 나무를 깎아 들어가 인물의 형상을 만든다. 그의 작업은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물상을 통해 표현한다. 김현준의 작업은 이 시대에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성찰 일기를 쓰듯 깎아 낸 육십 개의 목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십이간지 중 하나인 토끼를 자신에 빗대어 바깥 세계를 향한 커다란 귀를 가졌지만 나약한 상태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 육십은 동양에서 인간의 일생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된다. 십이간과 십이지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가면 육십 번째 되는 해에 자신이 출생한 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연도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육십갑자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삶과 작업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빚어낸 〈60상념〉은 선명하고 단호한 선으로 조각되기보다 너무 덩어리 속에 갇힌 듯한 토끼의 형상이 드러난다. 〈60 상념〉은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되기 위한 잠재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 이유는 작품의 흐름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선을 확장하는 가운데 나와 타자, 나를 둘러싼 생활 세계에 대한 인식과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새로운 삶의 싹을 키워내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작품은 하나의 개체로서 완결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전의 작품이 안고 있는 고민과 특성을 안고 미끄러지면서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 겹침과 펼침이 무수히 반복되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나무라는 매체가 가진 생태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품들이 하나의 생명체가 생태적 연결고리 속에 펼쳐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응시〉에서 토끼의 형상을 지닌 조각상은 아직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관객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다. 사지를 땅에 붙이고 타자를 향해 달려가려는 것인지 몰라스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몸짓을 하고 있다. 이런 혼란의 상태의 원인이 작가는 외부에 있었다고 말한다.

〈Who〉에서 밴딩 처리된 리본 형태의 나무는 채색으로 인해 금속처럼 번쩍인다. 현실의 스펙터클에 몸을 내맡기고 살아가는 무중력 상태의 인간을 표현하듯 인물의 눈은 가려져 있다. 작가가 인식한 현실은 포장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타자들이다. 그것은 작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시대의 흐름에 맡긴 삶이란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몸과 자신의 감각을 맡긴 채 눈을 감는 것이다. 자연의 한 존재로서의 생명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가 있고 자본이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개별자들이 자신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음을 알게 된 작가는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린다. 김현준은 우리가 마주한 세계를 인과관계로 연결된 세계가 아니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인식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세계 속에서 펼쳐 보이며 한다. 작품 〈?〉을 통해 있는 듯 없는 듯 잡히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나를 너라고 부르는 너는 누구니?〉, 〈somewhere〉 등에서 나무를 재료로 한 인물 조각상이라는 접근방식을 통해 미세한 움직임, 즉 막 돌아서 오는 듯, 돌아서 나가는 듯한 사이, 일어서는 듯, 주저앉는 듯한 사이의 순간을 인체의 동세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담아 내려 한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린 생성의 세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인간존재가 가진 생명성을 표현하려 한다. 생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주침 속에서 전체 생태계와 관계 맺으며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who〉에서 판재를 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나무를 깎아 인물상을 만드는 것도 전체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어떤 시작점과 목표지점에 대한 약속된 답이 아니라 열린 질문과 답들 속에 과정으로서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미로 생성해가는 존재 앞에 놓여있다. 작가는 이를 보여주려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박제화시키는 것에 맞선다.

생태적 관계망에 있는 치료로서의 자연

나무라는 재료를 따라가는 작업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난다. 하나는 이상현의 작업이 보여주는 길이다. 이상현은 인물 조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치유한다. 그러한 그의 시선은 인간의 내면으로 향해 있다. 다른 하나는 신강호의 작업이다. 신강호가 주목하는 것은 관계이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나무

의 형상으로부터 얻어진 선을 통해 형성된다. 두 작가 모두 자연적 소재가 갖는 치유력을 믿고 작품의 재료를 기존의 화학적 재료에서 나무로 옮겨 왔지만, 이들의 작업은 인과 밖, 하나와 다수, 고독과 연결 등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기에 작품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다르다.

이상헌에게 나무는 재료인 동시에 작가 자신이다. 나무의 무르기과 단단함, 색깔 등 나무가 가진 결을 중요하게 살핀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성장과 관련한 생태적 환경을 짐작하게 된다. 재료를 고르는 일은 작품의 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단단한 나무를 고른다. 이런 나무 고르기는 비단 형태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나무를 작가 자신의 의지로 나무를 깎아 들어가기보다 나무가 지닌 결에 맞추어 작업한다. 나무와 인간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자연물인 나무는 그 자체로 생태계의 순환을 보여주는 재료이다. 그래서 재료를 다룰 때 그는 생태계의 질서 속에 있는 나무의 물성을 따르는 방식을 찾는다. 틀어짐이나 변형을 막기 위해서 화학적인 처리나 인위적인 장치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무 속을 파내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자연을 거슬러 자연의 본성에 개입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접근이다. 또한, 나무의 속을 파내는 고된 방식을 통해 가벼워진 작품은 크기라는 형태적 제약을 넘어 설치를 자유롭게 한다. 5미터에 달하는 《flying》을 천장에 매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나무는 그에게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담아내는 존재로 자신과 동일시된 대상이다. 일상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되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이 일상인 삶, 현실을 벗어난 꿈에서조차 《가위놀이》 당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비단 작가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실의 무게, 실존적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싶은 염원들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산다. 작가는 자신을 통해 오늘의 삶의 조건을 말한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과 나무를 하나로 보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나무 조각에 투영시킨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작품을 매개로 관객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작품 《flying》와 《dance201805》는 치유를 의미하는 작품이다. 자연을 매체로 한 작업에서 치유란 도구화된 이성에 의해 상실된 자연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하면 신강호에게 나무는 발견된 오브제이다. 선택의 과정이 작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작가는 작품의 제작을 위한 발견이 즉흥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져 자신은 주어진 것에서 선택할 뿐이라고 말한다. 자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물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은 그에게 작품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때 신강호는 나무에 자신을 투영하기보다 나무가 지닌 형태로부터 인간이나 다른 자연물의 형상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자연과 소통한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생각한 형상을 얻기 위해 다른 가지들을 덧붙인다.

발견된 오브제로서의 자연물인 나뭇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작가가 중요시하는 것은 자연이 간직한 선과 형태의 아름다움이다. 자연물의 형태는 인간을 위해 그러한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라 햇빛과 바람을 따라 생존하는 가운데 자연히 생긴 삶의 몸짓이다. 작가는 자연이 간직한 삶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선에서 인간이라는 또 다른 자연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가 자연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 전체 생태계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개입의 최소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말하기보다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에서 자연에 접근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세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발견된 나뭇가지를 군집을 형태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체로서의 자연물이 깊은 연관 관계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강호의 작품 《link-나무 정령》에서 보여주는 관계는 인과적으로 분명한 직선적인 관계라기보다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그리고 숲이라는 작은 생태계로부터 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또는 지구 너머의 우주 차원에서 생명이 자리한 관계망의 표현이다. 보이지 않는 관계망은 주위 온 나뭇가지를 이용한 예술적 행위를 통하여 군집형태로 서로를 지탱하며 작품으로 서 있게 된다. 비바람 속에 쌓여 온 자연의 선은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렇게 중첩된 선은 공간을 장악한다. 생명이 생성되는 공간이다. 생명의 힘이다. 양감이 주는 무게감을 뚫고 나온 선은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려준다.

3미터에 달하는 선적인 형태의 개체는 스스로를 지탱하여 서 있을 수 없다.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먹구름이 속에서 울고, 밤새 무서리가 내리고 나에게도 잠도 못 이루는' 밤이 있어야 한다. 전체가 하나와 관계하고 하나 속에는 만물이 있다. 나뭇가지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서 있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관계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의 은유이다.

이처럼 이상헌의 작품이 개체에 초점을 둔 관계망을 보여준다면 신강호는 생태계 전체의 관계망을 조망하게 한다. 생성의 자리는 어떤 것이 우위를 점유하거나, 타자를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배제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가 좋고 둘이 나쁘다고 셈을 하지도 않는다. 각 개체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의 잠재태로서 생태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체는 생태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인공의 삶에서 배제된 생명은 자연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시가 목표로 하는 자연설계는 결국 생명의 그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된다.

나무 작업에서 보이는 투박함이나 자연의 결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자연의 편안함을 느끼게도 하지만 낯설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세련된 인공의 이미지

에 익은 감성에 던지는 그 낯설음으로, 그 불편함으로 찬란함이나 성장이란 이름으로 타자를 끊임없이 포획하는 눈길을 거두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이때 작은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전복적이다. 훼손된 것들에 눈길을 돌림으로써,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힘으로써 자신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진지하고 정직한 사유를 주목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의 자연

신강호, 이상헌이 현실을 살아가는 개체로서의 인간과 생태계 전체 관계망 속에 자리한 인간의 의미를 통해 치유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김성수는 현실의 삶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현실 너머의 작용인 초월적 삶으로서의 자연을 말한다. 이때 초월은 나무, 물, 인간으로 실재하는 것들처럼 우리의 감성에 와 닿는 세계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펼쳐내는 세계에 대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김성수에게 자연은 있는바 그대로로 있음이다. 작가는 나무를 깎아 꽃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 소중한 무엇이고 누구이면서 또 특별히 누구라 할 바 없는 이름 없는 그들로 있는 이들이 새겨진다. 어떤 것이 우뚝 솟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일상에서 만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그려지고 세워진다. 판자에 거친 꼴질이 지나간 자리로 윤곽선을 새긴 인물은 막 도화지에 스케치하여 오려 세운 듯하다. 현실 속 인물인 듯 아닌 듯 텅 빈 눈에 단순화된 인물과 사물의 형태는 소박하다. 비어있는 것은 비어있는 대로, 거친 꼴질이 지나간 자리는 자리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작가는 오리를 타고 날아가고 싶다고 한다.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봉이 아니라 집 근처에 다니는 오리를 타겠다는 작가에게서 작품에서 느껴지는 해학과 소박함이 배어 나온다. 봉은 수천 리에 달하는 날개를 실을 수 있는 큰바람을 얻기 위해 구만리를 날아오르고, 여섯 달을 가셔야 숨을 한번 쉰다는 큰 새이다. 봉의 이야기로 표현된 장자의 절대 자유의 경지는 작가에게서 오리의 비유로 표현된 자유의 경지가 된다. 일상의 소소함에서 획득되는 자유와 절대적 경지에서의 자유는 같은 것이 된다.

인물의 옷을 원색의 선명함으로 채색함으로써 얻게 되는 밝고 화사함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에 고요한 어둠이 서려 있는 것은 '꼭두'의 형식을 빌려 왔다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죽어있으면서도 살아 있는 이 시대의 삶에 대한 김성수의 역설적 어법일 수 있다. 삶은 여전히 부조리와 모순 속에 있고, 복잡해지는 생활 환경은 불안과 긴장감을 높이고,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기술 문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삶은 더 제한적이다. 작가는 긴장된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지 않는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원인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적 상상력으로 이 부자유함에서 벗어나는 초월의 기저를 받아들인다.

《새를 탄 남자》는 장자에 대한 오마주이다. 예술적 상상력으로 현실 위에 현실을 초월하는 기저를 마련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현실과 공존하면서 부자유한 현실에 포획되지 않고 미끄러져 나간다. 작가는 삶과 죽음을 있고, 희망과 절망, 그리고 현실과 초월의 세계를 잇는다.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니고 절망과 희망이 둘이 아니며 현실과 초월의 세계가 둘이 아닌 세계를 통해 부자유한 현실을 초극한다. 일상의 순간이 꽃을 들고 있는 남자와 여자, 빨간 옷을 입고 걸어가 는 남자, 노란 티를 입은 여자 등으로 표현되어 흩어져 있는 것을 뒤로하고, 300명의 작은 군상을 빼곡하게 배치한 두 개의 판재를 이골 듯 공중에 매단 채 흰옷을 입은 남자는 흰 새를 타고 천장에 높이 매달려 앞서 나간다. 마치 시류에 몸을 맡겨 살아가는 현실의 소소한 즐거움으로부터 결연히 일어나듯 일어나 오리를 타고 날아간다.

인물의 다소곳함과 명도 높은 채색의 선명함으로 어긋난 지점에서 이질성의 공존이 주는 미묘한 울림이 있다. 작가는 스펙터클의 질주함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읽어내고는 무심하게 툭툭 다듬어 조각하거나 새긴다. 그 그림자를 인물들의 눈에, 긴장한 듯 조심스러운 손 위에 얹고는 밝고 생생한 색으로 채색하여 아무 일도 없는 듯 넘어간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경계지점으로 삶을 걸어 올리는 김성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시간을 관통하여 오늘을 말한다.

표현방식이나 매체의 새로움만으로 이전과 다른 오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복을 위해서 이전 시대와 다른 무엇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만으로 동시대를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삶으로부터 세계와의 어긋남을 드러냄으로써 그 이질성과 공존을 끊임없이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지점들로부터 시대는 생성된다.

미술평론_미학/예술철학 배태주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록전시, 기억공작소 10년 - 미술의 태도
2층 로비벽면

A spot of recollections

記憶工作所
2008, 2010 - 2019



2층 로비 벽면에 설치한 53점의 이미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더 정확히는 2008년에 시작된 싹 틔우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10년을 맞는 4전시실의 '기억공작소'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들의 태도들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의 설치 장면이 담긴 포스터를 전시하며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넘어서서 미술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실험하는 동시대 미술을 기록하려는 설계이다.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홍현기의 지팡이

Hong, Hyun ki

2008. 3. 1 - 4. 6

3 Exhibition Hall, Art Space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최병소 - 기억 공간

Choi, Byung so

2008. 4. 22 - 5. 25

3 Exhibition Hall



「여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이건용 - 나, 지금, 여기」 퍼포먼스

Lee, Kun yong

2008. 6. 13 - 7. 6

3 Exhibition Hall, Art Space



「꿈과 '가치'의 발견을 생각하는
'작지만 특별한 전시」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프로젝트 대구전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2010. 8. 5 - 8. 22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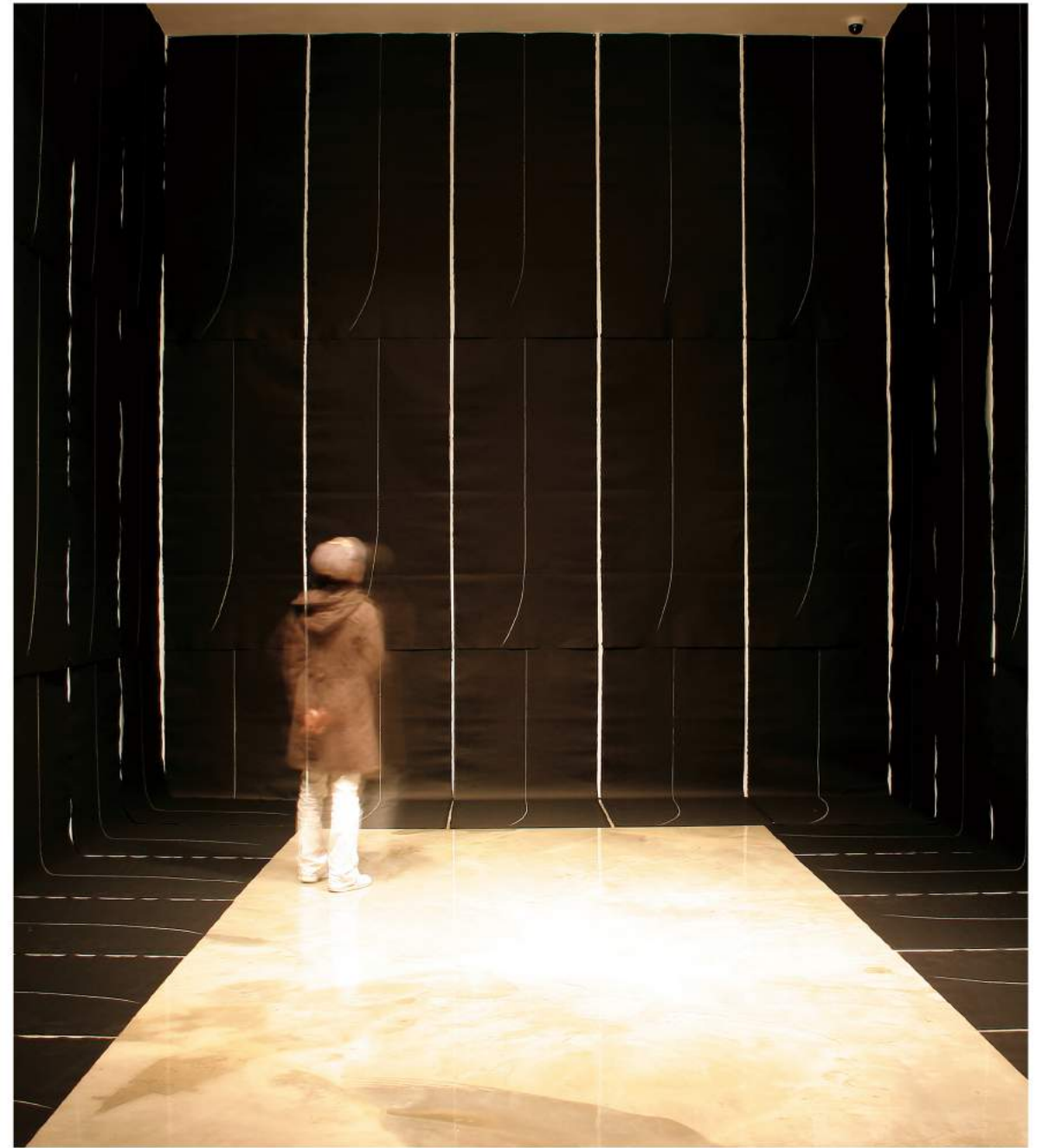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 I

「정병국」展

Jung, Byung guk

2010. 9. 2 - 9. 12

4 Exhibition Hall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 II

「김호득」展

Kim, Ho deuk

2010. 11. 4 - 11. 14

4 Exhibition Hall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II

「이명미」展

Lee, Myung mi

2010. 11. 25 - 12. 5

4 Exhibition Hall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IV

「류재하」展

Lyu, Jae ha

2010. 12. 16 - 12. 26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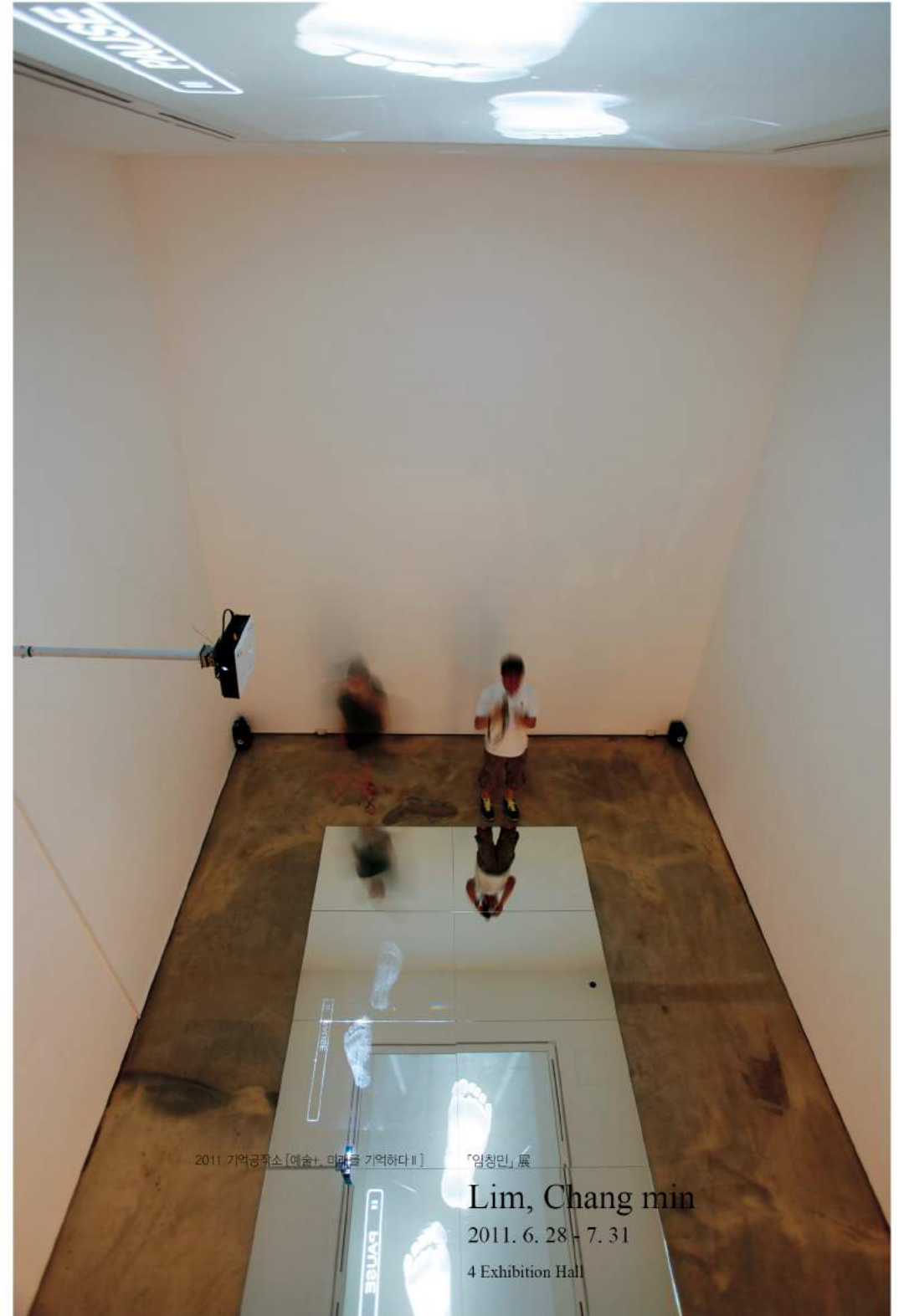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I]

「김성수」展

Kim, Sung soo

2011. 4. 29 - 6. 5

4 Exhibition Hall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II]

「임청민」展

Lim, Chang min

2011. 6. 28 - 7. 31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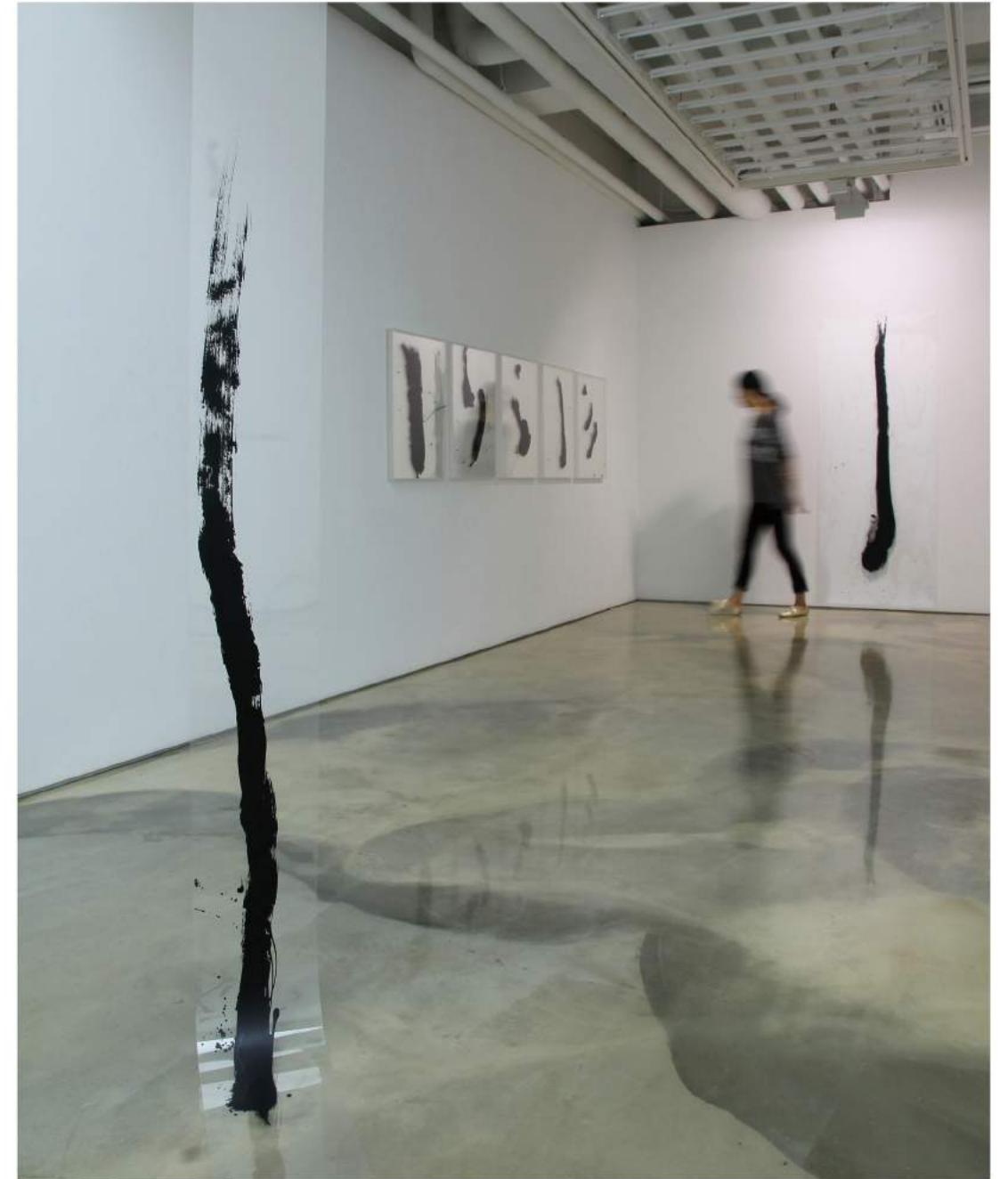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III]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오상택」展

Oh, Sang taek

2011. 8. 12 - 9. 4

4 Exhibition Hall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IV]

「1초 수묵」- 들꽃

Lim, Hyun lak

2011. 9. 23 - 10. 16

4 Exhibition Hall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V]

야생 | 野生 | Wildlife

Bae, Jong heon

2011. 10. 28 - 11. 27

4 Exhibition Hall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VI]

Tetris

Jeong, Eun ju

2011. 12. 9 - 2012. 1. 8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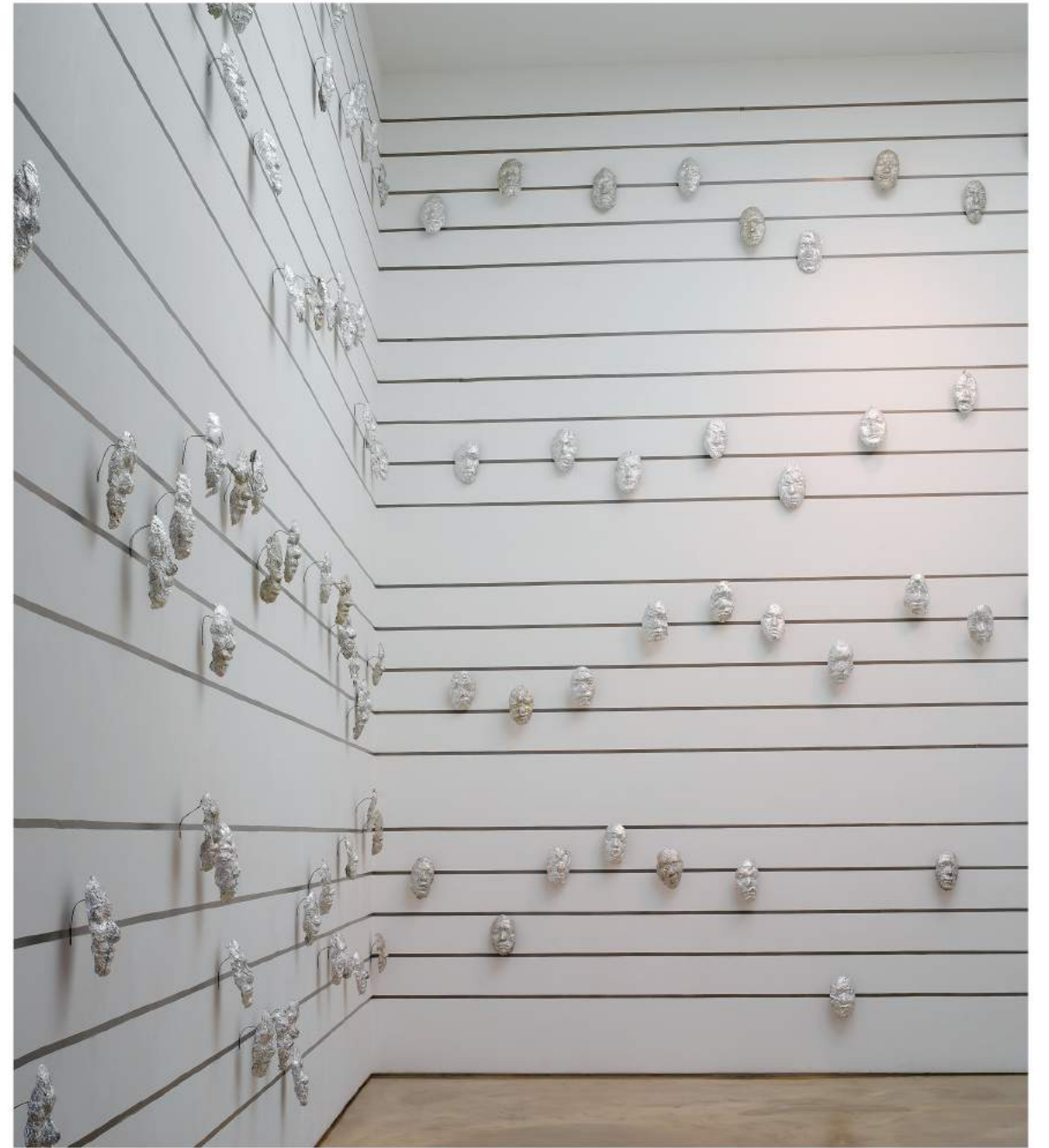
2012 기억공작소 I

dreaming books

Lee, Ji hyun

2012. 3. 2 - 4. 1

4 Exhibition Hall



2012 기억공작소 II

Nega-Posi 2012

Kim, Young jin

2012. 4. 13 - 5. 13

4 Exhibition Hall



2012 기억공작소 II

Anywhere

Jeong, Yong kook

2012. 5. 25 - 6. 24

4 Exhibition Hall



2012 기억공작소 IV

Truth in Non-Reality

Ha, Kwang suk

2012. 7. 6 - 8. 5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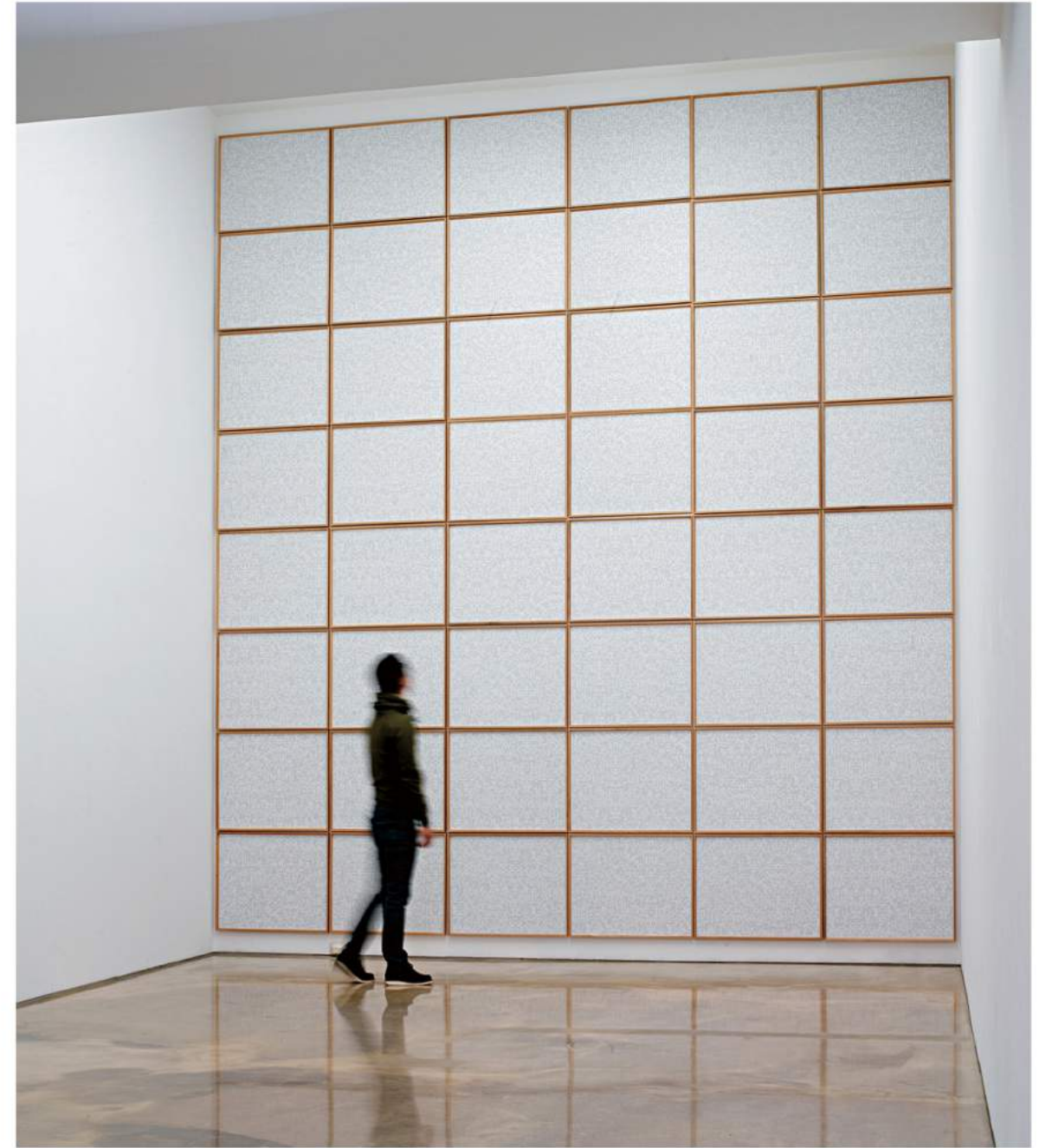
2012 기억공작소 V

Heritage / 유산遺産

Yoon, Young hwa

2012. 8. 16 - 9. 16

4 Exhibition Hall



2012 기억공작소 VI

Layers & Dimensions

Park, Jong kyu

2012. 11. 7 - 12. 9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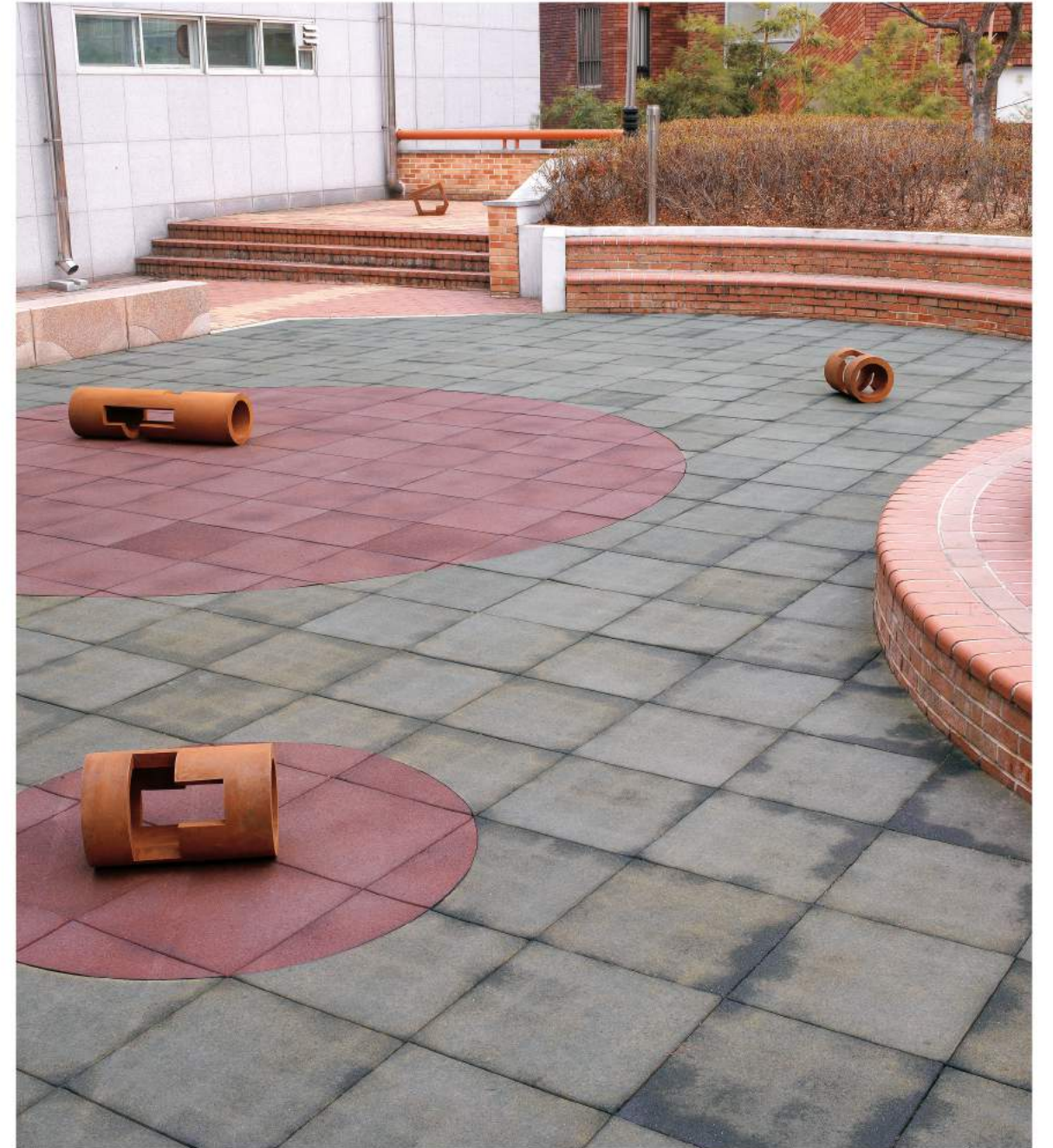
2012 기억공작소 6

Contemplation

Yoo, Young hwan

2012. 12. 21 - 2013. 1. 20

4 Exhibition Hall



2013 기억공작소 1

거주 Dwelling

Yi, Gee chil

2013. 3. 8 - 3. 31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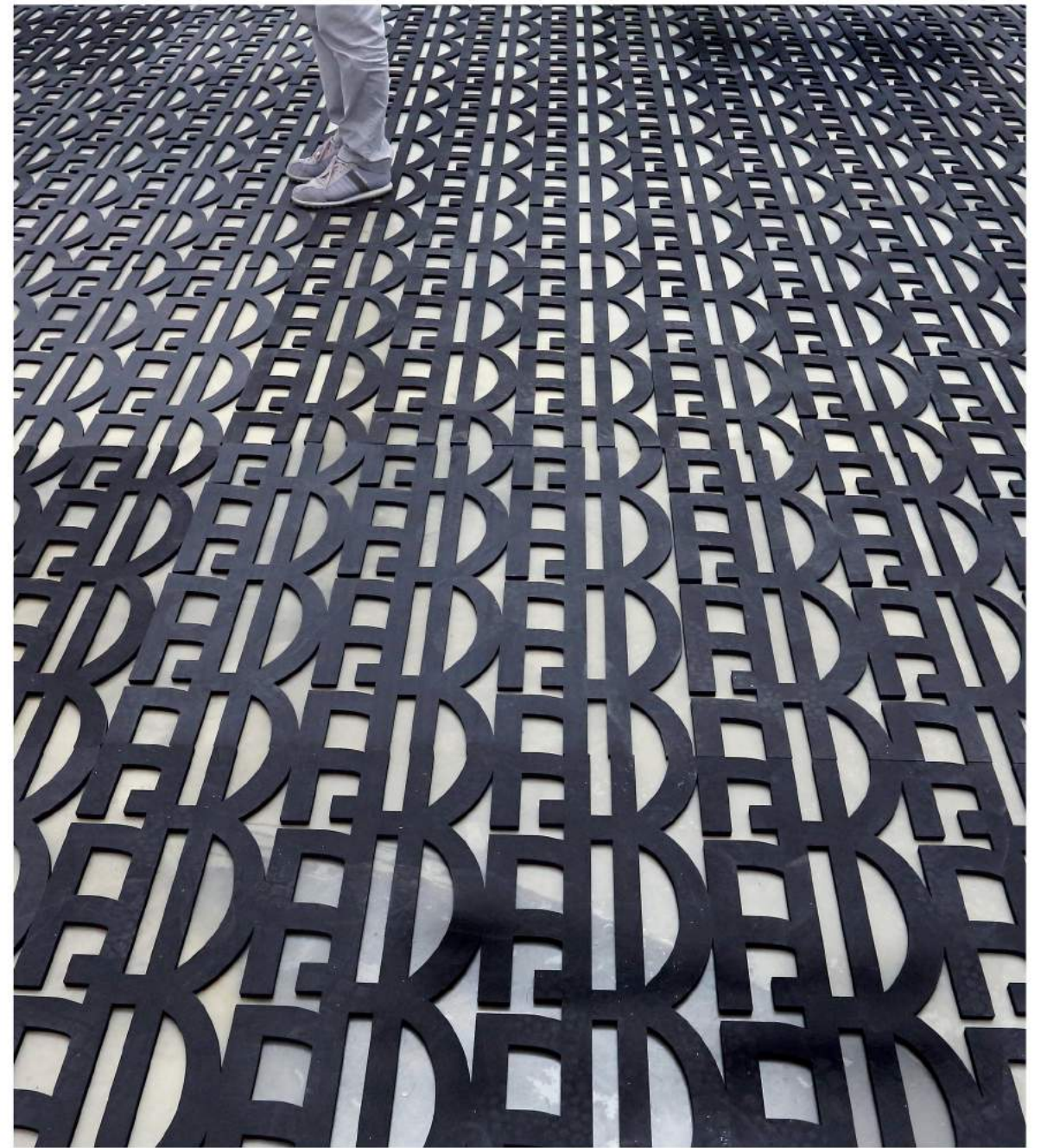
2013 기억공작소 II

유기체적 풍경

Kim, Ju yeon

2013. 4. 12 - 5. 5

4 Exhibition Hall



2013 기억공작소 III

Fantasiless

Jang, Jun seok

2013. 5. 17 - 6. 30

4 Exhibition Hall



2013 기억공작소Ⅳ

단 하나의 책상

Ahn, Kyu chul

2013. 8. 16 - 9. 15

4 Exhibition Hall



2013 기억공작소Ⅴ

FEEDBACK

Kim, Hee seon

2013. 9. 27 - 10. 27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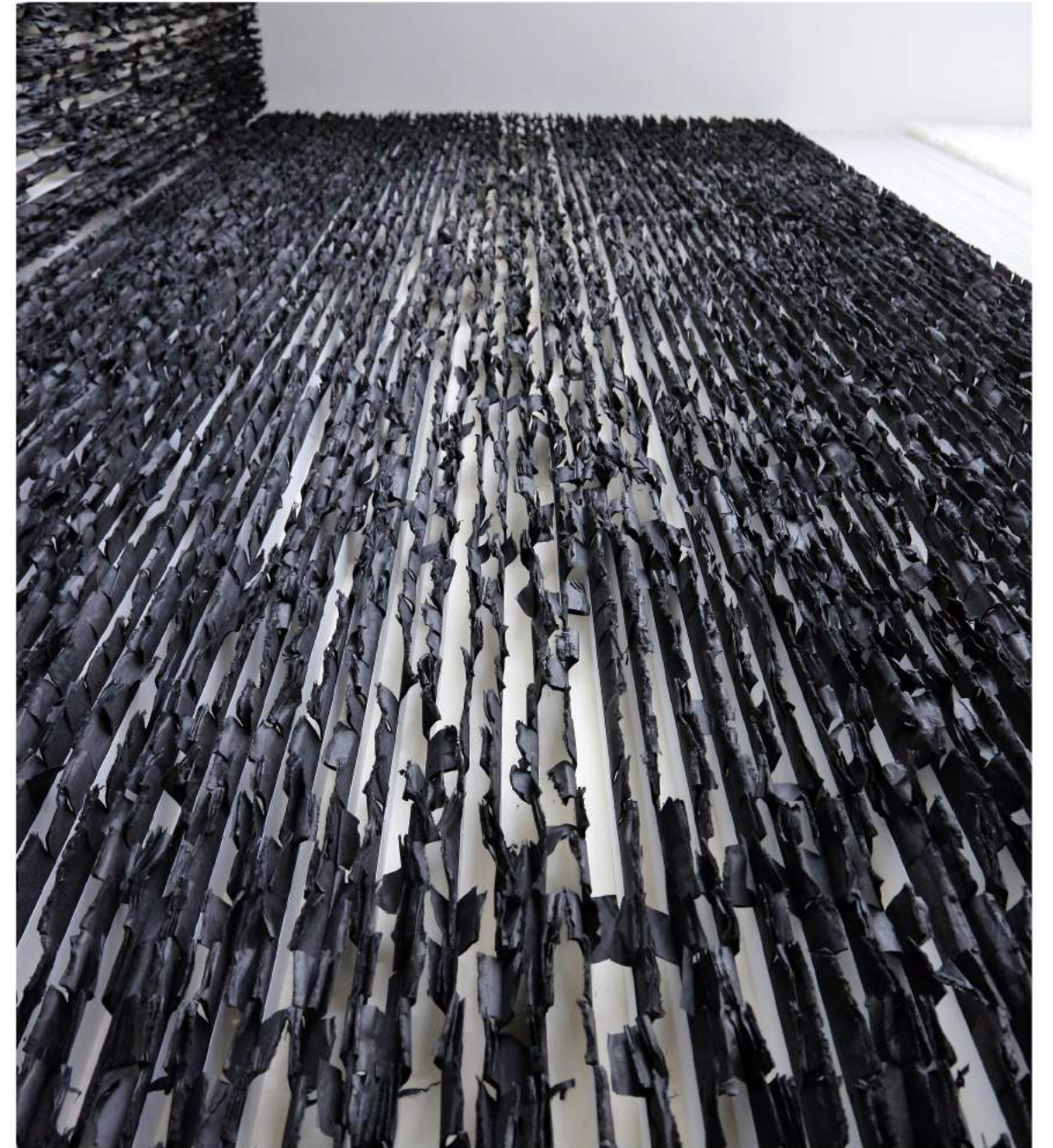
2013 기억공작소Ⅵ

군인들 1978

BOOMOON

2013. 11. 8 - 12. 1

4 Exhibition Hall



2013 기억공작소Ⅵ

지물紙物

Song, Kwang ik

2013. 12. 13 - 2014. 1. 19

4 Exhibition Hall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 I

關係

Ahn, Chang hong

2014. 3. 26 - 5. 25

4 Exhibition Hall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 II

김영진 | 박현기 | 이강소 | 최병소

비디오아티스트 1978

2014. 6. 11 - 8. 10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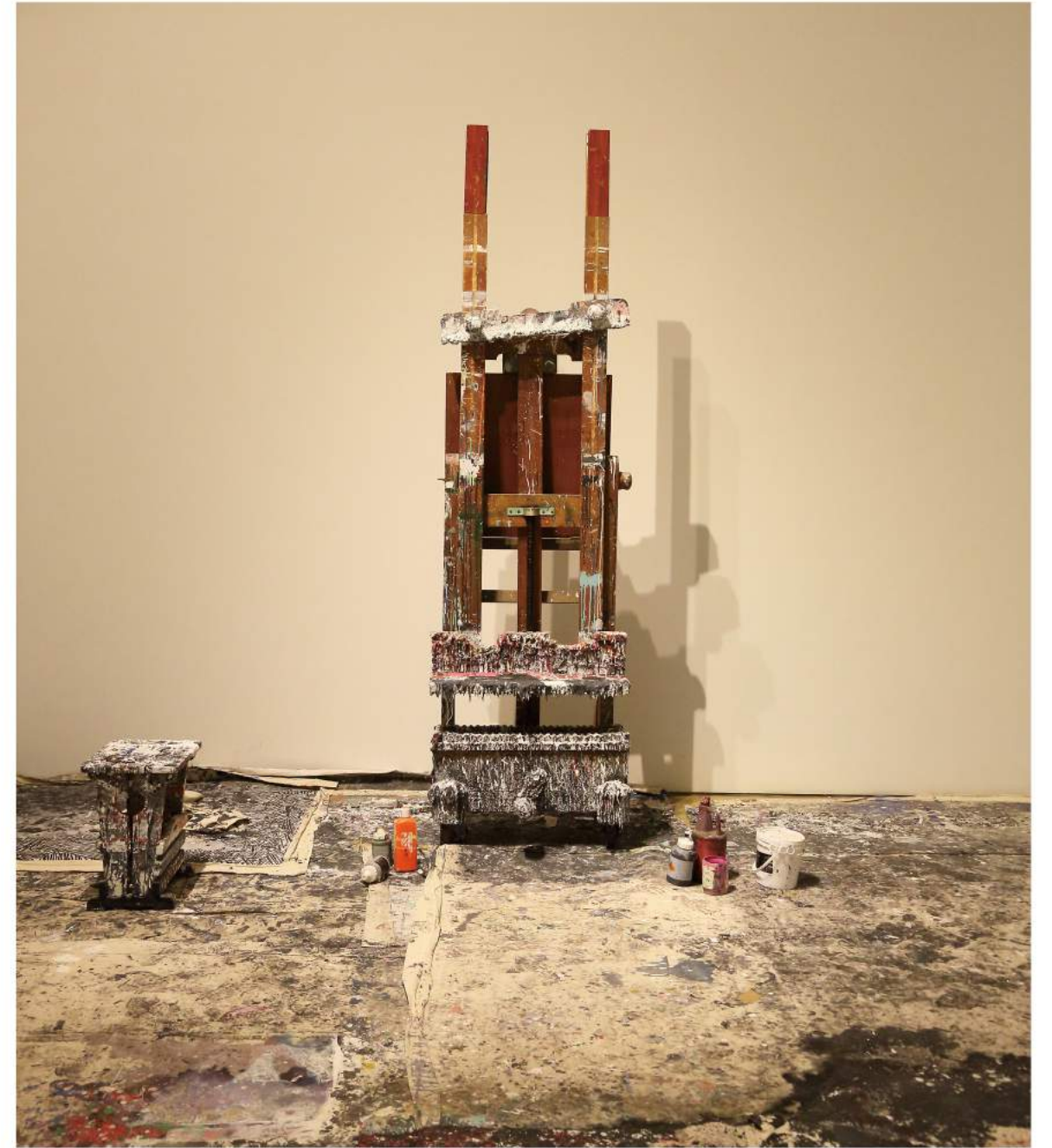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 III

길레 Wiping Cloth

Kim Kulim

2014. 8. 27 - 11. 2

4 Exhibition Hall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 V

「권오봉」展

Kwon, O bong

2014. 11. 19 - 2015. 1. 18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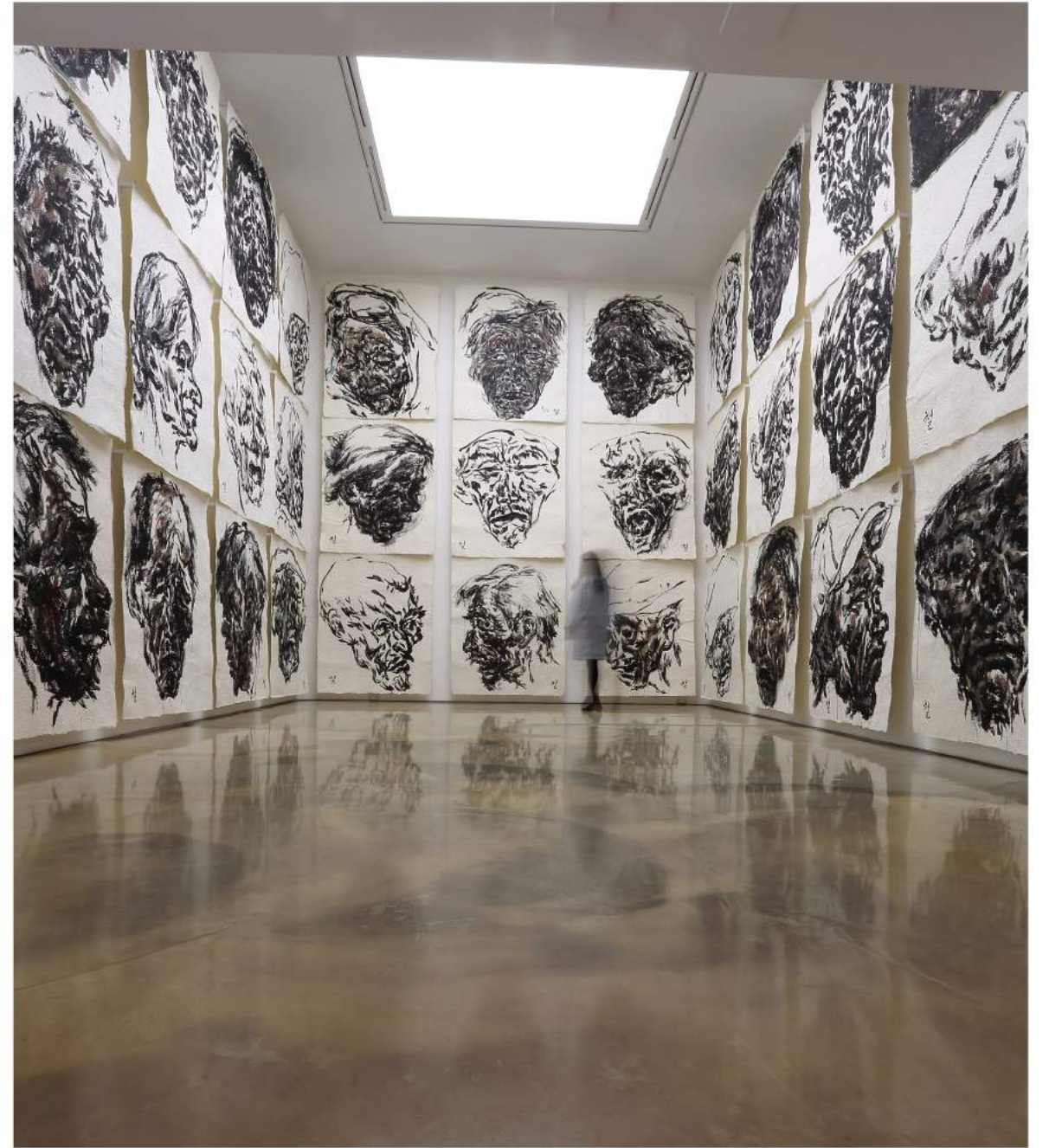
2015기억공작소 I

A Passage-창문 밖을 나선 풍경

Yoo, Geun taek

2015. 2. 25 - 4. 12

4 Exhibition Hall



2015기억공작소 II

얼굴 Face

Kwun, Sun cheol

2015. 4. 24 - 6. 21

4 Exhibition Hall



2015기억공작소 III

metal & tableau

Lee, Kyo jun

2015. 7. 3 - 8. 23

4 Exhibition Hall



2015기억공작소 IV

그림자

Ahn, Soo jin

2015. 9. 4 - 11. 1

4 Exhibition Hall



2015기억공작소V

Lip-sync

An, Jung ju

2015. 11. 13 - 12. 27

4 Exhibition Hall



2016기억공작소I

순환-깃

Park, Chel Ho

2016. 1. 15 - 3. 13

4 Exhibition Hall



2016기억공작소 II

실크로드 프로젝트-기록 2016

Jeoung, Jae choul

2016. 3. 25 - 5. 22

4 Exhibition Hall



2016 기억공작소 III

landscape in between

KAYIP

2016. 6. 3 - 7. 31

4 Exhibition Hall



2016 기억공작소Ⅳ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

Myoung Ho Lee

2016. 8. 12 - 10. 16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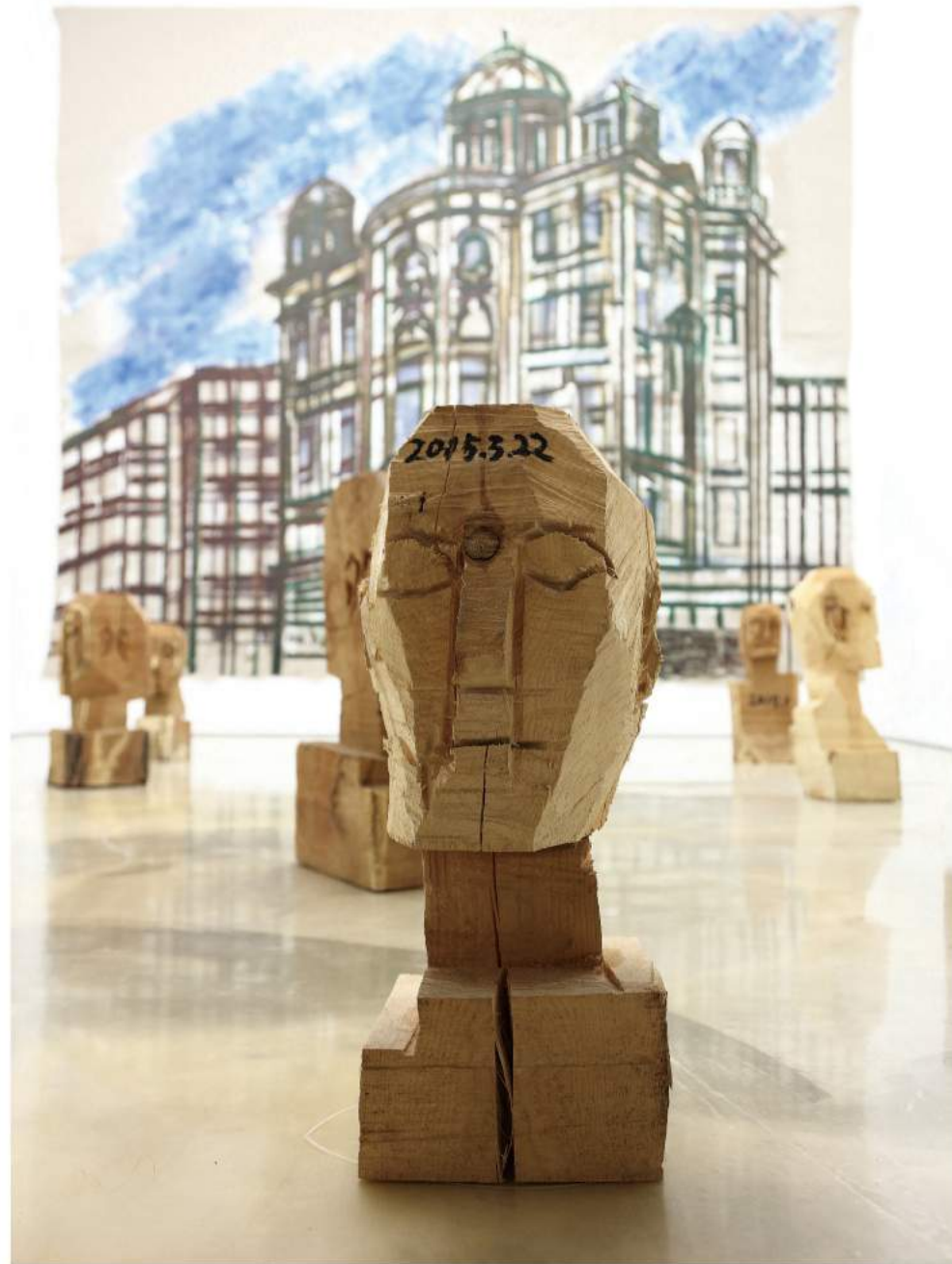
2016 기억공작소Ⅴ

지구를 걷는다

Okubo Eiji

2016. 10. 28 - 12. 25

4 Exhibition Hall



2017 기억공작소 I

생각이 그려지는

Suh, Yong sun

2017. 1. 13 - 4. 9

4 Exhibition Hall



2017 기억공작소 II

사람과 사람 없이

Yun, Suk nam

2017. 4. 21 - 6. 25

4 Exhibition Hall



2017 기억공작소 II

running railroad

Hong, Myung seop

2017. 7. 7 - 9. 10

4 Exhibition Hall



2017 기억공작소 IV

하얀 흐름 White flow

No, Byung yeol

2017. 10. 20 - 12. 31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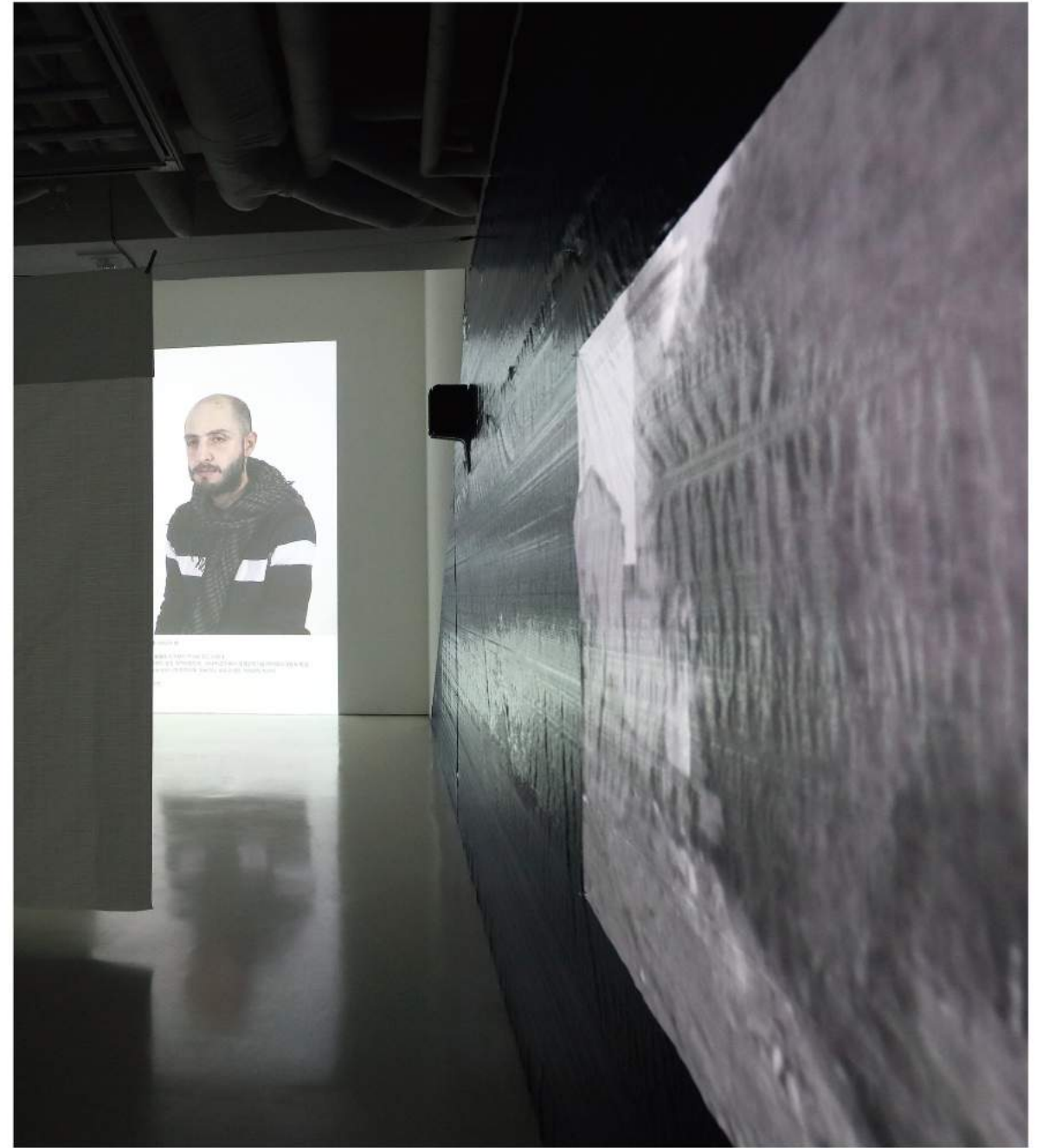
2018 기억공작소 I

애매한 기억

Kikuchi Takashi

2018. 1. 16 - 4. 1

4 Exhibition Hall



2018 기억공작소 II

영원한 기억

Ryu, Biho

2018. 4. 13 - 7. 1

4 Exhibition Hall



2018 기억공작소 II

눈물 The tear

Seo, Ok soon

2018. 7. 13 - 9. 30

4 Exhibition Hall



2018 기억공작소 IV

나는 하나가 아니다 / I Am Not One

Inhwan Oh

2018. 10. 19 - 12. 30

4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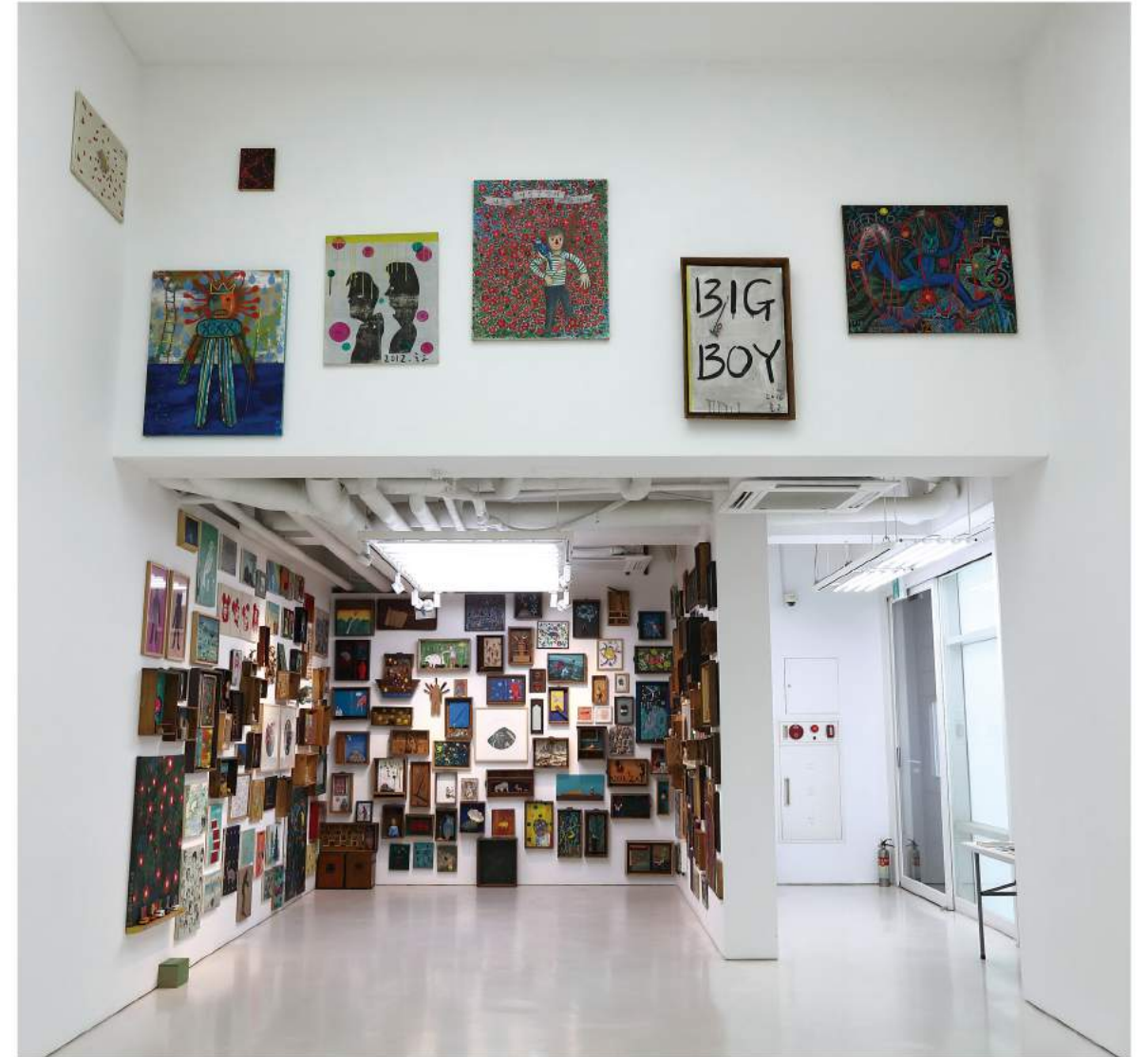
2019 기억공작소 I

흔적 - 비실재성

Kim, Seoung ryong

2019. 1. 17 - 3. 31

4 Exhibition Hall



2019 기억공작소 II

놀이

Kim, Tae heon

2019. 4. 12 - 6. 30

4 Exhibition Hall



2019 기억공작소 II

뉴욕 1985

kwonjungho

2019. 7. 12 - 9. 29

4 Exhibition Hall

2019 Hello! Contemporary Art와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

기간 2019. 7. 23(화) ~ 8. 8(목)
기간 중 매일 2회(소요일 1회 90분)

장소 1강의실 (4층)
•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A 10:30 ~ 12:00
•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B 13:30 ~ 15:00

에듀케이터 신재희, 이해운, 김동영, 김민지, 박지현, 임은경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주 대상으로 동시대미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족 단위의 전시 관람과 워크숍 참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미술관 혹은 전시장을 찾은 부모와 자녀가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나누는 대화의 한계와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미술가가 작업과정에서 접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궁리하며 생각하고 연구하는 태도들을 미술전시를 찾은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즉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를 수행한다면, 작품의 올바른 감상은 물론 가족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예술 감상 관련 대화의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번 워크숍 기획은 대구에서 전시연계 예술교육 활동을 해온 에듀케이터 신재희, 이해운씨에게 우리회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부산문화회관의 기획전시, "2019 Hello! Contemporary Art"에 연계한 워크숍에 대한 연구와 진행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 Hello! Contemporary Art와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은 부산문화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학시즌 '예술아카데미'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전시 감상을 위해 좀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운영 형태이며, 에듀케이터의 진행에 의한 전시작품 감상과 워크시트 작성, 실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워크숍과 연계한 전시, '2019 Hello! Contemporary Art-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展은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넘어서서 미술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실험하는 동시대 미술가의 상상과 독자적 설계를 시각화하는 '기억공작소' 10년 전사의 역사성과 그 태도를 공유하면서 동시대미술의 '원림(源林)'을 그리려는 '자연설계(自然設計)'의 호출입니다. 이 전시를 지탱하는 권효정의 '분수'와 김성수, 이상현, 신강호, 김현준의 '나무조각'에 투영된 '자연설계'의 태도로서 미술 '원림'은 2층 로비 벽면에서 선보이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기억공작소 53개 전시의 이미지 기록들을 떠올리면서, 1층 'Spot1.아외원림'에서 권효정과 조각가 4명의 작업을 시작으로, 2층 'Spot2.실내원림'의 이상현, 3층 'Spot3.실내원림'의 신강호, 'Spot4.실내원림'의 김성수와 김현준 전시로 이어집니다. 도심의 광장에 설치된 권효정의 야외원림 'Fountain of life: WaterPark' 분수는 플라스틱 공산품 사이로 흐르는 물의 생명성과 에너지의 순환에 관한 자연의 설계를 읽을 수 있으며, 이상현의 실내원림 설계는 기쁨, 슬픔, 희망, 꿈 등 순수한 인간 정서를 표현한 나무조각의 거친 질감과 향을 통하여 거대한 자연의 치유적 설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뭇가지 그대로의 선과 형태를 이용하는 신강호의 나무 인체조각은 조화로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계하는 실내원림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의 삶 속에서 자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김현준의 나무 조각상 설계와 현대인의 일상적 삶과 꿈을 '꼭두'에 비추어 원색의 투박한 나무조각으로 표현한 김성수의 설계를 매개로 실내원림과 야외원림이 어우러진 균형 있는 자연설계를 시각화합니다. 이 '원림'은 인위적



인 조건보다는 자연 상태의 균형과 변화, 순리의 질서에 기대어 배치하고 머무르며 감상하는 다양한 경험의 확장 공간으로서 '명원(鳴園)'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자연설계의 태도는 세계와 인간 정서에 대한 관찰, 진실과 사실의 탐구, 허위와 가식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미술의 공감과 경험의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자연으로서 '물과 나무'의 탁월한 정치성입니다. 따라서 미술가의 작업 태도로서 이번 자연설계에 대한 공유는 명확하고 세로워질 동시대미술의 어느 순간을 위한 우리들의 'Hello!'일 것입니다.

이 전시와 연계해서 예술가처럼 생각해보는 두 개의 워크숍, '내 모습 그대로 나무조각'과 '도심에 들어온 힐링 분수'는 나무에 관한 자연설계를 이해하며 조각하는 김성수, 이상현, 신강호, 김현준 작가와 물에 관한 자연설계를 매개로 분수를 만드는 권효정 작가의 생각과 태도, 작업 과정 등을 워크숍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미술 감상 및 예술 교육의 성과들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무조각'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나무판 인형을 만듭니다. 자연의 느낌을 대표하는 나무판재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선 드로잉으로 그리고 조각칼을 이용하여 외곽을 선형으로 조각하는 방식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참여자들이 나무를 다루며 잠시나마 자연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중에서 하나를 나무 조각으로 나타내면서 사회와 삶 속에서의 나에 대해 돌아보고, 자아의 이해를 탐구합니다. 참여자들은 나무를 깎고 매만지는 행위를 통해 예술가의 작업 태도를 직접 체험하고, 완성된 작품을 일상의 장소에 설치하면서 전시에 대해 이해하고, 동시대미술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발견하며 그 이해도를 높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워크숍 '도심에 들어온 힐링 분수'에서는 참여자가 자연과 함께 했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분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연과 관련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과 추억들을 떠올려보고 그 장소의 기억과 그 기억 속에 함께한 사물들을 그리기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 권효정 미술가의 야외분수처럼 플라스틱 용기들을 구축하여 간단한 형태의 분수를 만듭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미술가들이 작업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작가의 작업과정에서와 비슷한 고민과 과제들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의 문제해결 연구와 선택을 거쳐 결과로 만들어지는 작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는 예술가의 작업 내용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미술가에 의해 연구된 동시대 예술 세계의 폭을 공부하는 한편, 참가자 각자가 실제 전시된 작품의 효과적인 감상과 예술 교육으로서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체험 학습을 경험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열린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큐레이터 정종구

2019 Hello! Contemporary Art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A: 내 모습 그대로 나무 조각



1. 나의 일상 모습을 나무판에 그린 후 조각하여 자르기



2. 뒷면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그리고 다듬기



3. 채색하기



4. 받침대를 고정하여 완성하기



5. 완성작품 설치하기



6. 감상 및 마무리

2019 Hello! Contemporary Art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B: 도심에 들어온 힐링 분수



1. 자연과 함께한 추억의 장소 그리기



2. 함께한 사물이나 인물 드로잉하기



3. 재료를 탐구하고 분수 물줄기 설계하기



4. 분수 조형을 결합하기



5. 물을 부어 완성하기



6. 감상 및 마무리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展 참고자료

2008, 2010 - 2019

전시소개 글, 작가노트

기억공작소 작가 프로필

HISTORY

2008, 2010-2019

*참고자료에 실린 전시소개 글과 작가노트, 작가 프로필 등은 당시 전시 리플렛 내용을 그대로 실거나 요약하였습니다.

2008 싹 틔우기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흥헌기의 지팡이 (3.1-4.6)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최병소-기억 공간 (4.22-5.25)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이건용-나, 지금, 여기」퍼포먼스 (6.13-7.6)

2010 기억공작소의 시작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프로젝트 대구전 (8.5-8.22)

4전시실 개관기념전-기억 깨우기Ⅰ 정병국 (9.2-9.12)

4전시실 개관기념전-기억 깨우기Ⅱ 김호득 (11.4-11.14)

4전시실 개관기념전-기억 깨우기Ⅲ 이명미 (11.25-12.5)

4전시실 개관기념전-기억 깨우기Ⅳ 류재하 (12.16-12.26)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Ⅰ] 김성수 (4.29-6.5)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Ⅱ] 임창민 (6.28-7.3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Ⅲ] 오상택 (8.12-9.4)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Ⅳ] 임현락 「1초 수목」- 들물 (9.23-10.16)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Ⅴ] 배종현 야생 | 野生 | Wildlife (10.28-11.27)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Ⅵ] 정은주 Tetris (2011.12.9-2012.1.8)

2012

기억공작소Ⅰ 이지현 dreaming books (3.2-4.1)

기억공작소Ⅱ 김영진 Nega-Posi 2012 (4.13-5.13)

기억공작소Ⅲ 정용국 Anywhere (5.25-6.24)

기억공작소Ⅳ 하광석 Truth in Non-Reality (7.6-8.5)

기억공작소Ⅴ 윤영화 Heritage 遺産 (8.16-9.16)

기억공작소Ⅵ 박종규 Layers & Dimensions (11.7-12.9)

기억공작소Ⅶ 유희환 Contemplation (2012.12.21-2013.1.20)

2013

기억공작소Ⅰ 이기철 거주 Dwelling (3.8-3.31)

기억공작소Ⅱ 김주연 유기체적 풍경 (4.12-5.5)

기억공작소Ⅲ 장준석 Fantasilless (5.17-6.30)

기억공작소Ⅳ 안규철 단 하나의 책상 (8.16-9.15)

기억공작소Ⅴ 김희선 FEEDBACK (9.27-10.27)

기억공작소Ⅵ 권부문 군인들 1978 (11.8-12.1)

기억공작소Ⅶ 송광익 지물紙物 (2013.12.13-2014.1.19)

2014 개관10주년 기획

기억공작소Ⅰ 안창홍 關係 (3.26-5.25)

기억공작소Ⅱ 비디오타티스트 1978 (6.11-8.10)

김영진 | 박현기 | 이강소 | 최병소

기억공작소Ⅲ 김구림 걸레 Wiping Cloth (8.27-11.2)

기억공작소Ⅳ 권오봉 (2014.11.19-2015.1.18)

2015

기억공작소Ⅰ 유근택 A Passage-창문 밖을 나선 풍경 (2.25-4.12)

기억공작소Ⅱ 권순철 얼굴 Face (4.24-6.21)

기억공작소Ⅲ 이교준 metal & tableau (7.3-8.23)

기억공작소Ⅳ 안수진 그림자 (9.4-11.1)

기억공작소Ⅴ 안정주 Lip-sync (11.13-12.27)

2016

기억공작소Ⅰ 박철호 순환-깃 (1.15-3.13)

기억공작소Ⅱ 정재철 실크로드 프로젝트 - 기록 2016 (3.25-5.22)

기억공작소Ⅲ KAYIP landscape in between (6.3-7.31)

기억공작소Ⅳ 이명호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 (8.12-10.16)

기억공작소Ⅴ 오쿠보 에이지 지구를 걷는다 (10.28-12.25)

2017

기억공작소Ⅰ 서용선 생각이 그려지는 (1.13-4.9)

기억공작소Ⅱ 윤석남 사람과 사람 없이 (4.21-6.25)

기억공작소Ⅲ 홍명섭 running railroad (7.7-9.10)

기억공작소Ⅳ 노병열 하얀 흐름 White flow (10.20-12.31)

2018

기억공작소Ⅰ 기쿠치 다카시 애매한 기억 (1.16-4.1)

기억공작소Ⅱ 유비호 영원한 기억 (4.13-7.1)

기억공작소Ⅲ 서옥순 눈물 The tear (7.13-9.30)

기억공작소Ⅳ 오인환 나는 하나가 아니다/I Am Not One (10.19-12.30)

2019

기억공작소Ⅰ 김성룡 흔적 - 바실체성 (1.17-3.31)

기억공작소Ⅱ 김태한 놀자 (4.12-6.30)

기억공작소Ⅲ 권정호 뉴욕 1985 (7.12-9.29)

Hong, Hyun ki 홍현기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프로젝트
홍현기의 지팡이

2008. 03. 01 Sat ~ 04. 06 Sun

3전시실, Art space
갤러리 토크 초대 패널: 작곡가 김동준, 미술품컬렉터 이원기

홍현기의 지팡이 : 예술은 지팡이다

우리는 도시에서 생산·소비되는 다양각색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닌 공공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그 과정들을 소개하는 교육적 전시공간에 주목합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이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창의적인 '도심재생'을 제안하고자, '예술의 역할, 공공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홍현기의 지팡이'展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지팡이'를 통하여 작가의 예술적 신념인 '생활과 예술의 동화', '생(생명력)의 경외', '수작업의 복권' 등의 실천을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일부를 지탱하기 위한 '지팡이'의 존재처럼 예술이 인간을 위한 공공적 역할 도구로 기능함을 주장합니다.

지팡이는 노인·신체장애인·등산가·여행자 등이 보행용으로 사용하며, 때로는 존엄성과 권위의 상징으로 또는 호신용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본래 나뭇가지나 대나무 등의 막대기를 뜻하지만, 정확하게는 워킹스틱(walking stick·스텝stick)이며, 케인(cane)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이집트나 오리엔트의 유물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인간을 위한 오래된 도구로 기록됩니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네 다리로, 낮에는 두 다리로, 밤에는 세 다리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널 잡아먹을 것이고, 만약 킴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중에서 -

그리스 신화에서 �핑크스가 제시하는 수수께끼의 정답 속에는 지팡이를 인간 신체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인간'을 주제로 삼는다는 점,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아침·낮·밤'이란 단어가 인간 생명의 시간적 진행과 생활을 은유하는 점, 스텝스가 지나가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수수께끼를 내고, 테베의 여왕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다는 점, 이 신화가 우리 신체노동에 기반을 둔 기초경자생활의 생태를 은유하기도 한다는 점 등은 지팡이의 상징성과 매력을 새롭게 합니다.

1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작가는 예술가인 자신이 노모를 위하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산에서 주워온 나무로 지팡이를 다듬어드렸다고 합니다. 노모는 기뻐했고 지팡이는 곧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치유杖'와 '재생'의 의미로 해석되어졌으며, 작가는 작은 일상에서 느끼는 감동과 함께 생활과 예술이 서로 동화되는 접점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지팡이는 작업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고, 생활과 예술 작업의 화두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작가가 1997년부터 제작해온 지팡이(길이120cm) 1,300개 정도와 작가가 길러온 과일나무 1그루를 선보입니다. 제3전시실 바닥에 좌우 25cm간격으로 수직 고정된 1,300여개의 지팡이는 장엄한 감동을 던져줍니다. '생명'으로 은유되는 천여 명의 신화 속 인간 군상이 전시장 관객을 감싸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지팡이들 사이로 미리 터놓은 길을 따라서 몇 발자국 걸어 들어가면, 관객은 무수한 시간동안 인간을 위한 역할로 존재했을 다양한 지팡이들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관련된 인류의 역사와 신화 등 다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작가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회랑을 지나 4면이 유리로 지어진 아트스페이스 전시공간에 이르면 수년에 걸쳐 작가가 직접 길러온 과일나무 한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유리로 만들어진 현대 감성의 전시장에서 만나



화실앞 과일나무



Stick, each 90~120cm, wood, steel, enamel, 1996~2008

는 과일나무는 생경합니다. 그러나 생경한 만큼 메시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몇 개의 돌과 그 돌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휘어져 자란 가지에서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가능해줍니다. 이 설치물은 과일 농사를 짓는 이웃주민들의 지혜를 지켜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일나무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인간의 유익을 경작하는 농부의 태도에서 전시의 주제인 '예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지팡이와 나무는 작가의 일상생활에서 추출한 대상들입니다. 작가는 작업실 앞에 심어놓은 과일나무를 돌보고, 집 주위 산을 거니는 행위를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일상생활로 여깁니다. 산을 거닐다가 간혹 지팡이로 다듬을 수 있는 잡목을 발견하면 작업실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꺾질을 다듬은 후, 굵은 부분을 바르게 펴거나 손잡이부분을 새로 굽히고 손질하는 등 정성을 들여 쓸만한 지팡이로 지어냅니다. 마치 미술가 자신이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오래된 신화에 참여하는 농부인 듯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해석들 중에는 스텝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던 오이디푸스를 태양신으로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는 땅의 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해마다 땅의 아들로 태어나, 목은해인 아버지를 죽여 밀어내고, 어머니를 범하여 가꾸고 일구는 지아비가 되어 자연을 경영하는 네 자녀인 4계절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신화는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작가는 '신화-내재물'이란 제목의 평면작품을 전시하면서, 작업노트에 "역사보다 신화가 더 깊은 데가 있다. 신화 속에서 역사가 탄생하며 역사는 다시 신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적고 있는데, 작가의 말 그대로 그 자신의 신화는 인간의 깊은 곳에 내재된 진리와 섭리를 발견하고 또 이를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의 지팡이 하나하나는 인간을 위해 존재했을 수많은 예술을 상징합니

다. 작가에게 있어서 예술은 다양한 태도로 인간을 치유하고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과일나무는 예술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술은 인간을 위한 인공적인 태도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

창의적 예술가의 삶이 '전시'를 통하여 우리생활 속으로 편입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창의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전시는 나름의 교육적 의미를 획득하는 셈입니다.

이번전시는 대구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미술가 홍현기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통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그 '재생' 신화의 치유적 에너지를 도심 재생의 방향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예술과 삶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에너지는 공공성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그를 스타미술가로 칭하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작가의 '지팡이'에서 '치유杖'와 '재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팡이에 대입될 수 있는 예술을 떠올리며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문화예술도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역사, 문화, 주위 환경과 교감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의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시 한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공공성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도심재생'에 대한 희망을 실천하고, 활기 있게 변화하는 도시문화를 다시 한번 기원해봅니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Choi, Byung so 최병소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프로젝트
최병소-기억 공간

2008. 04. 22 Tue ~ 05. 25 Sun

3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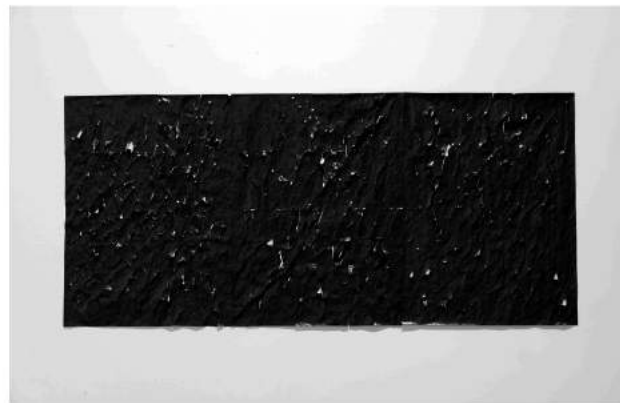
갤러리 토크 초대 패널: 미술평론가 류병학

기억 공간으로서, '도심'과 '전시' 그리고 '최병소의 작업'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생산·소비되는 각각각색의 문화예술 콘텐츠 속에서 공공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우리 삶의 터전이 '예술과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나아가 창의적 '도심재생'의 지향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기획전시 '최병소 - 기억 공간'展은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제안이다.

지난 3월 개최되었던 '홍현기의 지평이展'의 메시지가 '인간을 위한 예술, 인간을 위한 도심재생'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지속과 기억의 가치를 담은 예술, 도심재생'의 메시지를 전한다. 설명하자면 스타미술가 최병소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기억 공간화', '지속성' 등의 예술적 태도를 통하여 도심 재생이라는 조금 다른 공공차원의 실천을 제안하는 것이다.

작가는 평소 자신의 작업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지속'과 '기억 공간'에 관하여 탐구하고 은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글자가 인쇄된 신문지의 표면 위에 연필과 흑연으로 선을 긋고 또 긋는 지



Untitled, 종이, 볼펜, 연필, 240x110cm

속적인 작업행위를 해왔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전시장에 출품하였다. 인쇄된 문자 정보와 신문지 고유의 의미를 흑연으로 완전히 덮어서 전혀 다른 상태(얇고 검은 물질로서 정보를 기억하는 레이어 층으로 해석된다.)로 만들어 버리는 작가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술평론가 강선학은 최병소에 관한 평문「최병소-행위가 사물이 되고 사물이 정신이 되는 연금술」에서 "신문지 위에다 그린 연필선의 집적이 종이를 다른 사물로 변환시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흑색의 번들 거림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연금술이다. 단색의 드로잉이 종이 위에 축적되면서 종이가 찢겨나가고 물성이 전환된다. 그 물성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경탄은 행위가 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정신이 물질이 된다는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작가의 행위를 설명했다. '연금술'이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작가의 작업 목적과는 다르긴 하지만 앞의 설명대로 정신과 행위가 사물화되어 공간에 드러난다는 해석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정신과 행위는 무엇인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작가의 작업과정은 자신의 손을 이용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행위이다. 또한 신문지라는 매체는 회화의 지지체이며, 신체적 행위의 상황을 사건으로 담아내고 그 흔적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손이라는 신체 도구는 기억을 깨우는 행위에 적합해 보인다. 작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입되어, 혹은 딴 생각을 하며 신체 행위의 진행시간을 지속시킨 상태, 어쩌면 自然 그대로의 상태에서 새롭게 일깨워진 기억 단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김애령은 이를 "침묵과 절규가 공존하는 최병소의 지우기를 70년대 한국이라는 상황에 두고 볼 때, 통제된 언론에 대한 극히 사적인 검열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작가 스스로 '무모한 짓'이라 규정했으나 그의 절제되고 부단한 행위는 그야말로 무모해진 물질을 하나의 의미체로 재생하는 일이었



Exhibition View



Untitled, 책, 볼펜, 상자, 31x23x20cm

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기억은 좀 더 어린시절에 닿아있다. 아마도 6.25전쟁이 있던 국민학교 1학년 시절, 교과서가 없어 신문용지에 인쇄한 교과내용으로 공부하며 연필로 쓰고 줄을 그으면서 닳아 너덜너덜해진 신문지에 대한 작가의 생생한 기억을 우리에게 무심코 선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들은 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한 사적인 신화 만들기이며, 일종의 '기억 깨우기'로 해석된다.

작가는 젊었을 때 이러한 작업이 지닌 '지속'에 대한 지거움으로 작업 중단을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자신과 작업이 일치하고 있으며, '지속'이란 말이 '삶'의 다른 말일 듯싶다고 고백한다.

삶은 생명의 지속持續이다.

예술은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가치를 노래한다.

예술은 그 지속적인 삶과 노래의 기억 보고寶庫이다.

이 기억들은 지속적으로 재생되어 생명의 가치를 들려준다.

재생은 '기억 깨우기'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작업은 현장(지지체 혹은 그 표면 공간)과 행위가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재현미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현대미술의 출발로 이해되는 맥락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작가적 신념의 지속적 실천을 통하여 지금까지 대구현대미술의 큰 흐름을 형성해오고 있다.

작가에 관한 이 같은 설명은 평면성과 물질성, 레디메이드와 행위, 현장과 드로잉 등 현대미술의 쟁점 몇 가지를 꾸준히 탐구하는 작가의 '지속성'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기억공간화로 '재생'의 의미를 새롭게

게 발견해내는 작가의 예술적 해석을 제대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삶은 지속이고, 예술은 지속의 기억이다', '재생은 재활성화이며, 기억 깨우기이다'라는 스타미술가의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동의하려는 것이다. 이 전시는 이러한 평가와 동의를 비롯한 예술가의 생활 철학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도심 재생Urban Regeneration'의 지속적 태도와 지향을 제안한다. 기존의 대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적 행위들을 포함한 도심 재생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기획이 대구의 지역적 특성과 도심 속 문화의 독자적인 지향을 제시하고, 예술의 공공성 탐구에 관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Lee, Kun yong 이견용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
「이견용-나, 지금, 여기」 퍼포먼스

2008. 06. 13 Fri ~ 07. 06 Sun
3전시실, Art space

이견용의 '나,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행위미술을 논의할 때 손꼽히는 스타미술가 한사람. 그가 대구 도심의 한 전시실에서 대표적인 퍼포먼스 몇 개와 함께 신체드로잉 작업을 전시한다. 이 전시는 '지금, 여기'라는 현장의 장소성과 '신체'의 참여성에 주목하는 다매체예술가 이견용의 전시이다.

'예술이 도시를 재생하다'프로젝트 첫 전시로 지난 3월 개최하였던 '홍천기의 지팡이'展의 메시지가 '인간을 위한 예술, 인간을 위한 도심재생'이었고, 4월 개최한 두 번째 전시 '최병소 - 기억공간'展이 '기억과 지속의 가치를 담은 예술, 지속적 도심재생'의 메시지라면, 이번 세 번째 전시는 우리의 '신체'와 '지금, 여기'라는 텍스트가 결합하는 '참여적 도심재생'을 메시지로 삼는다. 설명하자면, 스타예술가 이견용의 신체 퍼포먼스에서 발견되는 '지금, 여기'에 대한 '창조적 감지'와 신체를 상황에 개입시키는 '참여성'에 관한 예술적 태도를 도심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견용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지금'과 '여기'라는 현재형 시공간에 관하여 탐구해왔으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미술창작에 본격적으로 내면화한 우리나라 초기 개념미술가로 평가된다. 그는 "예술작품은 그 스스로 예술적 범주로서 규명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소통'이라는 논리로부터 출발한다."는 행위예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당시의 앵포르멜과 모노크롬적인 한국현대미술로 이어지는 형식주의적 미술 전통과 스스로를 차별하였다. 그리고 삶의 총체성을 포용하는 포스트모던적 작업의 단초를 제시한 선각자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체적 언어의 원류를 형성하는 미술가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197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흙 구조물에 아름드리나무의 밀동치가 박힌 상태로 발표했던 '신체항-71', 1975년 백록화랑 '두개의 이벤트', 신체와 장소의 관계를 "저기, 여기, 거기"로 시간화한 1975년 국립현대미술관 '장

소의 논리', 1976년의 '신체드로잉',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를 통해 발표한 '달팽이 걸음' 등은 한국 개념미술이 정립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작업들로서 '장소성'과 '신체성'을 통하여 세계 지체를 현전시키는 연구 결과물이다.

그는 1974년에서 1979년 '대구현대미술제'에 ST그룹자격과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면서부터 대구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1980년 분도소극장 개인 이벤트, 1984년 수화랑 개인전시, 제8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 등으로 대구의 '지금, 여기' 상황을 예술창작의 장소로 논리화 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며 장소를 바꿔가고, 그 지점을 확인하면서 장소와 신체가 놓여진 '지금'의 상태를 통해 세계를 '여기'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행위미술 이론의 출발점이기도하다. 김복영은 "이견용에게 장소는 작가 자신의 존재 확인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이며,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설명한다. 장소를 통하여 세계를 확인하고 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설 자리를 가지며 따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작가와 만남' 시간에 소개되는 퍼포먼스 '달팽이 걸음'은 우리 인간 삶의 조건과 문명생활의 양태를 보여주는 생태학적 행위예술로 아트스페이스 전시실 한쪽 구석에 맨발로 쪼그리고 앉아 그 맞은편 끝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이동하며 발 앞의 바닥에는 드로잉 선을 좌우로 무수히 그어대는 행위이다. 그어진 드로잉 선 띠 위에는 뒤이은 발바닥에 의해 지워지며 지나간 자욱이 생겨난다. 그것은 손, 발이 행위하며 신체가 만들어낸 흔적에 불과하지만 시간과 더불어 이어진 '생명의 호흡'과 같은 사건 현장의 공간이다.

3전시실에 전시되는 작품 '신체드로잉'은 '지각행위'와 '행위행위'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상태를 신체에 의해서 표출하는 창조적 활동을 지칭한다. 그리하는 자의 시선 앞에 놓인 화면 위에서 눈과 뇌, 손동작의 작용에 의해



Exhibition View

신체드로잉 76-2-08-01, 천, 아크릴, 사진실사, 258.5x193cm, 2008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드로잉과는 달리, 작가는 그러한 회화 작업상의 인식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신체가 지각자요 표현자라는 새로운 회화인식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화가 그리는 자의 필연적인 신체적 조건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신체가 지각의 중심이라는 자각과 함께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 방법론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드로잉 행위와 그 결과는 제례와 의식의 참여로 새롭게 정의될 수도 있다. "사실상 나는 매카닉하고 거대한 현대 사회 속에 살면서 원시 부족사회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의 의미들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예술적 감동을 꿈꾸고 실현함으로써 세계와 나를 자각하고 나를 나보다 큰 세계에 편재시킴으로써 모든 언어의 시작의 순간에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있으려는 것이다."라는 작가의 지향처럼, 우리는 신체에 의거한 치유의 주장을 통하여, 신체가 원래 가졌던 스스로의 저항력을 회복하고 치유의 상태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전시된 신체드로잉의 바탕 이미지가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지하상업지구의 현장사진이라는 점은 '지금, 여기'의 도심과 재생을 해석하는 작가의 독자적인 감수성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가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대변하는 상업적인 구조의 한계에 대하여 인간 신체성과 호흡을 통해 행위하고 치유에 이르고자 한다.

이번전시를 위하여 처음 소개되는 '의자 빌려오기'는 '예술이 도시를 재생하다'라는 명제를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네트워크 계기를 제안하기 위한 퍼포먼스이다. 반월당 주변의 식당과 카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시와 퍼포먼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 사용 중인 의자를 빌려와 전시장에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퍼포먼스 촬영장면은 편집하여 전시장 한 벽면에 상영 예정이며, 관객은 빌려온 의자에 앉아 퍼포먼스 과정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작가는 도심 재생을 예술적 치유 차원으로 설정하고 그 의지의 소통과 확산, 증폭에 관심

을 두었다. 또 전시장 입구에는 대구 도심 항공사진 이미지를 이용한 200호 크기의 캔버스가 설치되어있다. "당신은 우주에서 대구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픈 텍스트에 신체를 호흡하십시오."라는 글귀와 함께 관객의 참여와 호흡을 통한 도심재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깃든 작품이다. 작가는 대구 도시를 객체화 시키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관객 모두가 도심 전체이미지와 호흡하고, 현장을 재인식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발적 자정의 힘과 치유의 시점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은 현장의 장소와 신체의 행위가 만나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작가적 신념의 실천을 통하여 지금까지 한국현대미술의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해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논리, 신체성을 통하여 사회적 소통과 관심의 증대, 한기 나아가 치유를 위한 매체로 기능하며 보다 넓은 예술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작가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개념, 신체, 이벤트, 행위, 드로잉, 설치 등 현대미술의 쟁점 몇 가지를 꾸준히 탐구하는 미술계의 스타로서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장을 보는 감성과 논리, 참여와 소통으로 '도심 재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내는 작가의 예술적 해석을 통하여 예술의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은 현장(세계)에 관한 보고서이다', '지금, 여기의 재생은 예술가의 치유적 태도가 요구 된다'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동의하려는 것이다. 이 전시는 이러한 평가와 동의를 비롯한 예술가의 창조적 생활 철학을 통하여 남다른 '도심 재생'의 태도와 지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2010. 08. 05 Thu ~ 08. 22 Sun
4전시실

'꿈'과 '가치'의 발견을 생각하는 '작지만 특별한 전시'
4전시실 프리오픈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프로젝트 대구展

전시소개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 형태의 전시를 마련합니다.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프로젝트의 초점은 아프리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대구전시를 통해,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팀이 아프리카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잠비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을 통해 아프리카의 참다운 모습을 이해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작품 감상과 참여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발견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꿈'에 관한 한두 사람의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모두의 '꿈과 가치'를 생각하는 큰 지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되는 사진작품들은 전문가적인 세련미는 없지만 촬영자의 순수한 감수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자유로운 구도와 언어적인 유희를 담고 있어 감상 중에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또한 꿈과 꿈을 연결하는 소통의 메시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Exhibition View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I like photos!"

일회용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나고 자란 집, 마을 오솔길을 한 장 한 장 정성들여 필름에 담은 아이는 오늘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꿈꾸는 카메라'는 아프리카의 내륙국 잠비아의 아이들이 일회용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통해 들여다 본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해 가을, 한국의 신부와 사진작가, 젊은이들은 잠비아의 난민촌인 메헤바로 갔습니다. 도시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문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골 난민촌의 학교를 돌며 아이들에게 이천 대의 카메라를 나눠주었습니다. 2주 후에 아이들이 직접 찍은 27컷의 필름을 한국으로 가져와 인화하였고 얼마 전 그 사진을 다시 잠비아에 보내주었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찍은 가족사진을 휴백에 걸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총 5만여 장의 사진 가운데 몇 장의 사진들을 골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편견과는 사뭇 다른 아프리카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주셨고, 아프리카가 절망만으로 가득한 대륙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꿈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팀 www.cumca.co.kr



Exhibition View

Jung, Byung guk 정병국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 I
정병국展

2010. 09. 02 Thu ~ 09. 12 Sun
4전시실

기억 깨우기 I 『정병국』展

'기억 깨우기'는 그리움에 관한 기명(記憶), 보유, 연상(聯想), 상상의 과정과 그 재생이다. 예술이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깨우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지역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 집단에 재인(再認)된다.

우리는 지난해 기획전시「미술-사람을 보다」의 소개 글에서 인용했던 멜빈 레이더와 버트람 제섭의 서술을 기억할 수 있다. "예술은 신에게 봉헌될 수 있으며, 옳은 행위를 하도록 북돋아주며, 지식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번영을 증가시키거나 사회개혁을 진행하거나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이 이러한 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잘 하는 데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것도 아주 잘 해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 활동의 어떠한 형태도 생생한 가치의 표현으로서의 예술과 비길 수 없다. 예술은 과학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우리의 사랑과 증오를, 높거나 낮게 평가함을, 정감적으로 중립적인 추상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느껴진 성질의 생생하고 감동을 주는 '언어'로 말해준다." 다시 말하지만 이처럼 예술은 기본적으로 그 생생의 사건을 기억하는 메시지이다.

부산문화회관 제4전시실(68.4㎡)의 개관기념 전시 '기억 깨우기'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대구의 가치를 기억하려는 자리이다. '꿈과 가치를 생각하는 작지만 특별한 전시'를 지향하며 대구미술과 대구 지역성의 가치를 관객과 나눌 것이다. 전시는 12월까지 개인전 시리즈로 진행되며, 정병국, 김호득, 이명미, 류재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억 깨우기 I 『정병국』展"은 그 첫 번째 전시이다. '화면과 공간을 장악하는 단순하고 거대한 원초적 이미지', '등장 대상간의 미묘한 불일치로 인

한 낯선 긴장감', '멈춘 기억인 듯 한 침묵의 순간들'등, 작가는 영화 스크린을 보는 장면 상황 같은 회화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대체적인 예술창조가 자아와 대상의 대면에서 시작된다면 작가가 대면한 대상은 인간이다. 예술 자체의 설득 구조와 이론적 내력들을 생략할 수 있다면 작가는 단지 인간 이미지의 기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 속의 기록과 현재의 현실 존재를 공존시킨다. 미묘한 불일치는 의도된듯하다. 대상은 서로 상대의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측면 혹은 등 뒤에서 조용히 걸터 앉아있다. 마치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바라지만 언어로써 표현을 망설이는 연인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떠올릴 수 있다. 작가의 기억으로 그려내는 이 특정 인간 이미지는 작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지역 문화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로움과 함께 느껴지는 인간의 생경함', '관객이 화면 안에 서있듯이 느껴지는 대담한 설정'등에서와 같은 시각예술의 힘과 전율의 체험은 관객이 작품에 몰입하도록 하여 집단의 기억을 깨우는 예술가의 예지적 특권일 것이다.

대구와 가치-기억 깨우기가 가능한가?

이 전시는 대구성을 떠올릴 수 있는 가치들을 찾아내고 연구와 아낌의 담론을 가꾸기 위한 제안이다. 거창하고 대단한 규모의 전시가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예술의 기본적인 실천으로서 '기억 깨우기'를 생각해 볼 것이다. 또한 우리시대의 '선택'과 미의 '진면목'이라는 가치의 담론도 함께 나눌만한 일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작가노트

이미지들, 존재와 사물의 그것들, 간결함과 행복과 망각의 이미지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며 만져지고 사랑받았다. 시선의 이 무게, 만짐의 이 무게, 미소와 목소리와 몸짓들의 이 무게, 그리고 엄격하고 아름다운 불일치, 사랑받았던 것은 비교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 위의 한 줄기 햇빛이 그 길을 달렸던 기억을 여전히 오랫동안 밝혀 주듯, 간직되어 있다. 지나감들, 돌들, 애무들, 세계는 그 영원한 극복의 비밀 안에 묻히고, 우리의 시선들이 놀라면서 그것을 닫고 그것을 열며 그것을 뒤집는다. 보려는 열정은 사물들이 우리와 함께 똑같은 달리기 속에 이처럼 있으며 이처럼 간다는 생각의 열정이다. 그리고 예술은 우리가슴 박동에 비하여 수세기나 늦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를 앞지름으로써 객관성의 아릇한 부족을 야기 시킨다. 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벽 위의 화폭이 눈먼 창문처럼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창문에 의해서 팔들과 다리들 주위에 얼마나 커다란 공허가 펼쳐지는가?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있다. 모든 바깥모양이 실제와 아주 안 맞아 떨어진 나머지, 마침내 지속 없는 한 순간의 희열을 일으킨다. 가끔 예술은 인간이 겪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겪을 줄 모르는 것만을 예고한다. 그리고 현실 속에 웅크린 인물은 사물의 단호한 귀환을 기다린다.

작업노트 중에서 / 정병국



들리지 않는 소리, Video projection, 5 mins, Video still, 2010



Untitled, Acrylic on Canvas, 218 x 291,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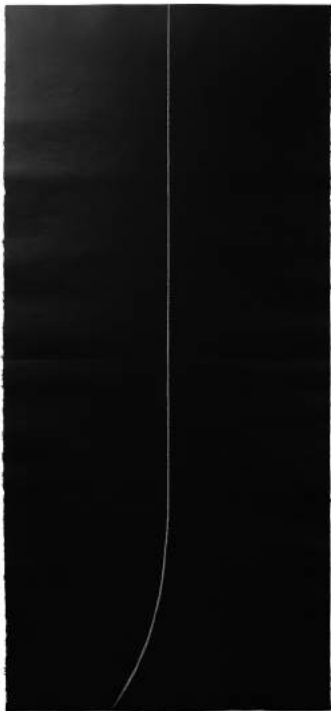
Kim, Ho deuk 김호득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II
김호득展

2010. 11. 04 Thu ~ 11. 14 Sun
4전시실

기억 깨우기II「김 호 득」展

'기억 깨우기'는 그리움에 관한 기명誌, 보유, 연상聯想, 상상의 과정과 그 재생이다. 예술이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깨우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지역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 집단에 재인再認된다.



문득-공간을 갖다
역철한 한지에 분필, 209x95cm, 2010

우리그림에 관한 실험의식과 그 실천적 의미들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폭포>, <흔들림, 문득> 등의 작업에서 우리그림을 향한 논의의 확대와 수묵에의 치열한 의식을 비롯하여 일회성, 즉흥성, 일필휘지로 이해되는 전통회화의 동시대적 해석 등 지속적인 자기수렴과 제안의 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다. 작업에 임하는 작가의 태도와 작업성향에 대해서는 김병종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재료의 선택이나 제작의 전 과정에 있어서까지도 타성적 태도와 규격화를 거부한다. 화선지 대신 화견畫紙도 아닌 울 굴고 투박한 광목을 즐겨 쓴다든지 중봉中鋒이 없는 편필로써 곧법적棼法的 묘사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의 작업은 또한 철저히 일회적이어서 하도下圖와 본화本畫가 따로 없고 설명적 지엄말단의 세기細技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의 작업형태를 굳이 변별한다면 사의寫意와 사실寫實의 중간적 형태로서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닌 작업들이 대부분이다.(1986년 관훈미술관 개인전 서문)"

이번 전시출품작은 작가의 이전 작업에 관한 기억을 깨우기도 한다. 먹빛이 가득 스며들어 깊고 현현한 직사각형 종이섬유질 표면, 그 가운데를 밝은 색 분필 선이 세로획을 그어 내려가며 J(갈구리꺾) 형태의 긴장 흔적을 남기고 있다. 5.2미터 높이의 전시장 벽면을 깊은 수묵과 J 형태의 긴 호흡 50여 단위로 가득 채운 몰입적 전시환경에서 <폭포>의 쾌감을 기억하는 것은 왜일까? 이 기억은 '우리그림'에 대한 현재적 사건인 작가의 제안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1997년 공간지 4월호 김홍남과 인터뷰에서 요즈음 미감에 맞는 조형성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겸재의 <박연폭포>와 자신의 <폭포>를 비교하였다. 거칠면서도 정감 있는 자연계곡의 사실적 덩어리와 이를 수직으로 가르며 한 선으로 쏟아져 내리는 흰색 폭포줄기는 겸재의 것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1997년작 <폭포>와 2007년작<폭포>, 이번 전시작으로 이어지는 김호득의 현재적 사건들과 맥락이 닿아있다. 내면의 에너지를 표출해내는 '직선의 동세', '일필휘지'의 생생한 즉흥, '기운생동'의 에너지 등은 우리그림의 정체성에 관한 작가의 직관적이고 실제적인 현재 추상들이다. 작가는 이를 '그리는'그림이 아니라, 선조들의 호흡법을 터득하여 '하는'그림의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는 그들(우리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며 분명 똑같은 호흡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남의 좋은 것을 흉내 내고 따라 잡기에 바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냉정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숨결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호흡법을 느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호흡법을 익히고 통해야 한다. 그리하여 건강한 우리의 호흡을 밑바탕으로 우리를 막무가내로 현혹하는 외세의 파도와 뒤편이 정면 대응하여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외면하거나) 그들에 함몰되지 말고 그들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1988년 토갤러리 개인전 작가발언)" <폭포>에 관한 압축된 기억은 '자연과 그 에너지의 표현으로서 물줄기'이다. 이는 우리 자연생명의 이형사신以形寫神적 전신傳神이고, 우리 미감의 정체성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신, 사상, 본질 등의 가치들에 대한 현재적 '기억 깨우기'일 것이다. 예술가의 기억으로 그려내는 이 특정한 융합(진동

과 현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공간과 오브제, 흑과 백 등)의 세계는 작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지역의 본연적 가치를 담고 있다.

다시, 대구의 가치 - '기억 깨우기'가 가능한가?

이 전시는 예술의 기본적인 실천으로서 '기억 깨우기'를 생각하고, 관객의 상상, 몰입, 전용의 체험을 통해 지역의 기억 깨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

작가노트

나는 요청받은 이번 전시, 즉 이번 전시장을 위해 하나의 음모를 꾸렸다. 전시장은 작고 길며, 한쪽 천정은 너무 높고 한쪽은 너무 낮다. 한마디로 참 유니크하다. 한참 동안 고심한 끝에 한 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한쪽은 확산-펼침, 다른 한쪽은 압축-쌓임으로 나타내 보기로 하였다.

우선 저번 전세(영천 시안미술관 개인전)때 설치작업을 위해 준비했으나 처음 의도대로 쓰지 못했던, 앞뒀면 전부 까말게 먹칠한 전주한지 100장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종이는 석자, 일곱자 짜리(96cm×210cm)로서 작지 않은 크기인데, 한 장 한 장 앞뒀면을 곱게 100장씩이나 먹칠을 한다는 게 장난은 아니다. 그러나 하얀 한지에 까만 먹을 입혀나가는 작업은 선긋기-그리기-칠하기-지우기-채우기-가득 채우기, 그러나 결국은 아무 것도 없게 만들기 작업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작업인데, 그 과정이 나름 재미가 쏠쏠하다. 항상 다니는 목적지를 매일 약간씩 다른 코스로 100일 동안 가볍게 산책한 느낌인데, 그러한 나름대로의 공간탐색 작업을 한 결과는 그냥 까만 먹 종이 백장이 내 앞에 남았을 뿐이다. 이것이 그림이나, 그냥 까만 종이냐, 그건 나도 모를 일이다.

참고로 이 까만 한지 100장은 그냥 하얀 한지 100장과 같이 까만 공간의 전시장 바닥에 다섯 달 동안 나란히 누워 있었다. 시체처럼(시안미술관 제 2전시장 설치)

나는 이번 전시에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해보기로 했다. 최소한의 행위로 최대한의 생명력 불어넣기. 너무 욕심이 과한가? ㅎㅎ.. 암중모색.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머리를 때렸다. "까만 墨 종이에 白墨으로 그리기!" 원래 紙, 筆, 墨, 硯은 文房四友로서 필기도구이기도 했다. 그 중 筆墨의 역할이 근대에 와서 소위 묘사어 말하는 粉筆이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었는데, 그 이름을 처음에는 白墨이라 불렀다는 것은 참 그럴듯한 발상이다.

한 우리시대의 '선택'과 미의 '진면목'이라는 가치에 관한 담론 나누기를 기대하며 '하는'그림을 그린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나도 그 뜻을 그대로 살려보자. 먹으로 다 칠해 까말게 되어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종이에 다시 백묵으로 그리자.

최소한의 흔적으로 그림 만들기 / 수평으로 접힌 자국과 중앙에 수직으로 그은 한 획 / 가장 간단한 풍경 이미지 / 직선과 곡선의 변주 / 죽 그어 내리다가 살짝 빠짐-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 / 바람 / 숨통 / 안과 밖 / 긴장과 이완 엄격함과 부드러움.

많은 것을 생각하며 70장을 그었다.

그리고 한 장의 까만 종이에 하얀 선을 수백 번 그었다. 까만 바탕이 하얗게 될 때까지. 넓은 쪽 공간에 한 선씩 죽죽 그어진 까만 종이 51장을 3층으로 천정까지 가득 채웠다.

반대편 작은 공간에 수백 번 선을 그어 白墨을 뽐낼게 머금은 까만 바탕 墨 종이 한 장만 달장 걸었다.

다 설치하고 나니 보는 사람마다 다 폭포란다.

나는 '폭포'와 '흔들림, 문득'이 드디어 합쳤다고 생각했다.

김호득



Exhibition View

Lee, Myung mi 이명미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Ⅲ
이명미展

2010. 11. 25 Thu ~ 12. 05 Sun
4전시실

기억 깨우기Ⅲ 「이명미」展

기억 깨우기'는 그림에 관한 기명(記名), 보유, 연상(聯想), 상상의 과정과 그 재
생이다. 예술이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깨우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지역의 가치를 근원
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 집단에 재인(再)된다.

부산Cultural Center 제4전시실의 개관기념 전시 '기억 깨우기'는 무수
한'생'의 사건이 축적된 대구의 가치를 예술을 통하여 기억하려는 시도이
다. 대구미술과 대구 지역성, 우리 것의 가치를 나눌 이 전시는 12월까지
시리즈개관전으로 진행되며, 정병국, 김호득, 이명미, 류재하 작가의 참여
로 이어질 예정이다.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展 참고자료

"기억 깨우기Ⅲ「이명미」展"은 그 세 번째 전시이다. '놀이'나 '은유', '게임'
등으로 설명되어 온 미술가 이명미의 작업들은 과감하고 강렬한 원색의 사
용과 원시적이라 할 만큼 단순하고 즉흥적인 드로잉으로 논의되어왔다. 또
한 미술 외부와의 소통과 관련하여, 그동안 자신의 논리를 세련시켜온 미
술이 자신의 성숙과 스스로의 완성을 위하여 관객의 공감을 필요로 하고
진실성(reality)과 사실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고 할 때, 이명미 작가
는 그 실천의 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순수
조형-그리기'와 '유희정신-놀이'의 지속은 일상의 사실과 행위의 진실성에
다가가려는 작가의 본능적인 자기수렴과 모색의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작업에 관한 작가의 태도와 경향에 대해서는 2002년 개인전 서문에 소개
된 남인숙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가 붙잡기 전에는 그저 있다가
흘러가 버리는 것들을 호출해서 작가는 그림이라는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작가가 빵집에서 빵을 산 것과 날마다 흘러나오는 대중가
요들 그리고 컵 화분 같은 일상기물 그리고 읽고 본 많은 풍경들이 은유의
바다를 이루어 작가의 호출과 함께 그림이라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은 색채, 오리기, 붙이기, 붓으로 지우기(덧칠하기),
바느질하기 등 정말 그림처럼 수공적인 것들이 모두 동원된다. 이렇게 해
서 전환된 한 그림이 기호들의 재빠른 탈주와 충돌 그리고 의미 확정을 곁
임없이 유보시키는 이 탈주의 놀이를, 하나의 공간에 통합해낸 것이다."

예술에 관하여 '예술은 본능적인 면에서는 유희적이지만, 예술이 성숙하
게 되고 의식적이 되면 그것은 메시지이다'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이
번 출품작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진실성-틈, 여유'를 메시지로 이해하
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5미터 높이, 흰색 전시공간의 한면 벽면에 세로길이 방향으로 놓인 빨강,
노랑, 주황색 색면 아크릴판(87×174센티미터) 12개가 보인다. 색 물감을
넓고 큰 붓으로 그어 내린 것 같은 플라스틱 색면판은 그 생경함 때문에
전시장 장소와 전시벽면이라는 표면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그리
고 벽면과 색면 판 위에 이전에 작가가 평면 회화를 구축하는 방식처럼 유
희적인 그리기 흔적을 남겨놓았다. 표면이라는 실체(여기서는 제4전시실
벽면과 아크릴판) 위에 작가의 유희적 행위가 만나는 사건 자체가 이 진실
성의 대략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태평개이 선택이 곧 메시지이다) 중에서
발췌한 "꽃을 찾는 벌 나비는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 같은 피꼬리는
버들사이로 이리저리 퍼얼떨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라는 문자와 단어를
이리 저리 섞고 꽃 그리기, 점찍기, 테이핑, 선긋기, 글쓰기의 거침없는 행
위를 표면이라는 현장 위에서 여유롭게 만나게 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색 표면 위에 놀이" 사건, 이 전시의 압축된 설명이 될 것 같다. 현상은 표
면과 놀이 행위이지만 진실은 '틈'과 '여유'이다. 놀이는 틈과 여유이고, 소
통의 도구이며 진실성 추구의 또 다른 방식이다.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표
면 위에 놀이를 진행한다. 진실성, 인간의 본연적 상처와 불안을 다독거리

는 일상의 기억 또는 흔적들을 작가의 숨소리가 담긴 행위의 산물로 고집
어내면서 작가는 '틈'과 '여유'에 관한 현재적 '기억 깨우기'를 전하고 있다.
아마도 작가의 예지적 기억으로 그려내는 이 메시지는 작가와 우리가 살
고 있는 시대, 우리지역의 집단적 지향 가치일 수 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사회의 틈과 여유로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성'에 관한
기억 깨우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작가노트

직접적인 글쓰기로 한 풍경을 드러냈다.
태평개 중의 한 대목이다.
벌, 나비, 피꼬리가 꽃과 녹음 사이를 분주히 드나들고 있는
풍경은 있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뛰어들지 않았으니 아직은 관조 이어서 여유가 있다.
그 여유 부분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동인(動因)이다
그러나 표현은 여름초입의 기후처럼 뜨겁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차갑게
나는 이중적으로 뜨겁고 싶다.



Exhibition View

이 전시는 예술의 기본적인 실천으로서 '기억 깨우기'를 생각하고, 작품 앞
에 대면하는 진실한 현장의 체험을 통해 관객의 상상이 집단의 기억을 깨
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대의 '선택'과 예술의 '가치'에 관
한 담론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정형적이지 않게 높낮이가 들쭉날쭉한
전시공간은 포장되지 않은 들길 같은데 마감은 아주 Cool하게 처리되어 있어
여기에 내 키치적인 재료를 섞으면 야릇한 퓨전 정도는 되겠다 싶었다.
즉,
Turn 또 Turn 몇미터 가다
또 Turn 이란 이야기다.

2010년 11월 이명미

Lyu, Jae ha 류재하

4전시실 개관기념전 - 2010 기억 깨우기Ⅳ
류재하展

2010. 12. 16 Thu ~ 12. 26 Sun
4전시실

기억 깨우기Ⅳ「류재하」展

'기억 깨우기'는 그리움에 관한 기억, 보유, 연상, 상상의 과정과 그 재생이다. 예술이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깨우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지역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 집단에 재인된다.

부산Cultural Center 제4전시실의 개관기념 전시 '기억 깨우기'는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예술을 통하여 기억하려는 시도이다. 대구미술과 지역의 정체성, 장소성의 가치를 나눌 이 전시는 9월부터 개인전시리즈로 진행하여 왔으며, 정병국, 김호득, 이영미, 류재하 작가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기억 깨우기Ⅳ「류재하」展"은 그 네 번째 전시이다. 회화적 영상과 미디어 디스플레이 설치미술을 선보여온 류 재하 작가는 동시대의 아름다움에 관한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과 욕망을 탐구하고 이를 전승된 미와의 관계 속에서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LED디스플레이를 소재로 '미디어 조각media-sculpture' 개념을 구축하여 동시대 미술의 지평을 확장해 가고 있다. 작가의 최근 작업은 조형의 기본단위인 점과 선, 면에 직접 자체 빛이 발광하면서 영상 조형의 '입체'화와 관객의 몰입 환경에 관한 다양한 설계를 실험한다. 그는 과학 지식의 성과와 지향, 본질을 꿰뚫는 예술적 감성의 동반을 조율하여 어떤 '실체'를 그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또한 그동안의 작업에서 미디어와 결합하였던 철, 나무, 돌 등, 기억이 내재된 자연 물성의 재료와 함께 자주 등장한 근대의 사진, 문자, 문양의 전통 이미지, 우주에 관한 전승의 상징이미지로 표출에서 존재의 소통과 관련된 '실체의 기억'을 자신의 작업 주제로 제안하고 있다. G20정상회담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냈던 '미디어 침성대'도 이러한 '실체'를 기억하려는 표현의 극대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전시 작업의 형태는 얼굴을 연상시킨다. 주로 전광판 재료로 사용하는 LED디스플레이 재료를 모듈별로 분리하여 5미터 높이 천장에서 늘어뜨리면서 전후좌우 부정형의 입체를 만드는 설계는 '기발하다'를 넘어서 경악스럽다. 가로세로 입방체의 모듈 사이로 전원과 영상을 연결시키는 전선과 와이어, 발광다이오드에 표출되는 가로2미터 세로4미터 두께1m 규모의 다양한 영상은 감동의 신비를 연출한다.

이것은 자생력, 일종의 생명력이 있는 실체를 표현하려는 작가 작업 '시리즈'의 일부이다. '미디어sky', G20정상회담장소의 '미디어 침성대', 부산 cultural center의 '얼굴', 포항시립미술관전시, 또 다른 장소(섬외 中)로 이어지는 이 시리즈 작업의 특징은 정형화된 구조에서 점차 부정형의 유기적 형태로 변화하는 '자율적 입체'를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는 평면회화의 다차원적 확장이다. 회화는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없이 외부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서만 볼 수 있고, 평면이며, 정적이었지만 이 '시리즈' 작업에서는 동적이고, 조절능력을 가진 발광체이며 입체로의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표현확장의 특징들이 실제의 생동감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특징은 대중과 소통의 문제이다. 작가는 예술 또는 예술가들의 집단성과 개별적 폐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작가는 대중적인 외부의 공공 공간으로 작업영역을 확대하여 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첨단매체의 자극적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변조하여 대중의 관심과 의견에 애정을 기울인다.

작가는 첨단기술을 결집한 창작과정을 즐기는 듯하다. 가치 있는 기억들을 그리며 노는 것, 그리고 기억 속의 영상이미지는 그 결과를 담은 물질 존재와 공존시킨다. 조금 투박하고 미묘한 것은 별게 아니라는 듯이 의도

하지만 실제로는 병적일 정도로 집착하고 정교하다. 천란함과 우울의 기억을 고집내듯이 각각의 다이오드 램프는 다양한 색상과 무채색의 감성들을 그려낸다. 이미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우리 생명체의 신경과 핏줄처럼 보이며 실체의 작동원리로 짐작되기도 한다. 단절과 소통의 동시성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인들이 각각 독립되어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단절과 소통을 진행하며 지속하고 생존하는 방식, 세계의 숨은 비밀처럼 보인다. 작가의 기억으로부터 그려졌을 이 특정 세계의 이미지는 작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문화의 상징일 수 있다. 그리고 상반되듯이 느껴지는 '전승과 동시대성', '실체를 표현하려는 가상의 몰입 설정'등에서와 같은 시각예술의 힘과 전율의 체험은 관객이 작품에 몰입하도록 하여 실체에 관한 집단의 기억을 깨우려는 예술가의 지혜일 것이다.

대구의 가치-기억 깨우기가 가능한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세계의 구조로서 비밀과 원리에 관한 기억 깨우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전시는 예술의 기본적인 실천으로서 '기억 깨우기'를 생각하고, 작품 앞에 대면하는 존재의 담론을 통해 관객의 상상이 집단의 기억을 깨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대의 '선택'과 미의 '진면목'이라는 가치의 담론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작가노트

작품의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대구 매일신문자료로 등록된 전후(6.25동란) 이름모르는 어린소녀의 얼굴이다. 아마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며 귀하신 부인이거나 평범한 아주머니,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려버린 얼굴을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쯤 머느리나 사위를 본다고 부산을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에게도 희미한 기억 속에 추론되어 피어나는 도상이며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아련함을 준다. 과거는 현재를 이루는 편린의 조각들로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사진의 이미지를 현대매체로 변조하고 조각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작업을 하였지만, 보는 나로서는 씁쓸함을 느끼며, 동시에 우리들의 현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류재하



미디어 비너스 sculpture 201012 | 300x120x100cm | LED, Wire | 2010

Kim, Sung soo 김성수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I]
김성수展

2011. 04. 29 Fri ~ 06. 05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 「김성수」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기억만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예술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역사를 공작한다.

「김성수展은 그 첫 번째 기억 공작소이다」

하나, 6개월 동안 온몸을 깎아낸 채로 병원에 반듯이 누워만 지냈던 11살의 기억.
둘, 친구들은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데 불편한 다리 때문에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지냈던 기억.
셋, 시골 외할머니의 장례 상여에 꽃혀있던 나무 꼭두를 바라보며 '헌 다리 가져가고 새 다리 달라'고 엄마와 함께 소원을 빌었던 기억.
이 기억들은 작가만의 공작 방식을 통해 전시로 제시된다. 방식은 '나무 꼭두(木偶)', 흔히 상어를 장식하거나 공연을 위한, 사람에게 의해 조종되는

인형으로서 꼭두를 통해 작가의 기억은 재생되고 공작된다. 전시장 벽면 5미터 높이에 설치되어있는 '꽃을 든 남자(160×100×50, 은행나무, 참나무, 철, 2011)'는 이상을 상징하는 듯 부처와 예수를 조금씩 닮아있다. 거칠게 드로잉 하면서 조각해 낸 인물형상에서 현실을 넘어 서고 싶은 기억의 정서가 묻어있고, 철제 가시관을 쓰고 눈이 뿔하니 뿔린 남자얼굴에서 이해와 관용이 읽혀진다. 또 앉은 자세의 짧은 다리와 꽃을 들고 있는 손에서 권위와 사랑, 겸손을 느끼게 한다. 생각해보면, 집안 벽면에 걸린 웃어른의 사진처럼 자주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설정의 인물조각상이다. 그 아래 좌측 하단 벽면에는 '꿈을 꾸는 남자(138×175×30, 은행나무, 육송, 2011)'를 그림 그리듯이 설치해 놓았다. 술 때문인지 꿈 때문인지에 취해 떠 있듯이 말 등에 타고 있는 남자 나무인형은 자유롭게 걷고, 달리고, 날고 싶은 기억의 현재적 공작으로 관찰되며, 말머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것으로 짐작해서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진행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다.

'꽃을 든 여자(162×153×38, 은행나무, 육송, 채색, 2009)'는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지향을 향해 진군하려는 상태의 기억 공작이며, 자연을 향한 여자 나무인형의 사랑이야기이다. 바닷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폐 선박의 나무자재 일부분을 조각해서 말 모양을 만들고 그 말 위에 꽃을 든 여인을 태운 형상이다. 꽃으로 은유되는 근원적인 자연에 대한 신뢰와 연인에 대한 존경, 사랑스럽고 당당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담겨진 목우조각이다. 이 조각상의 뒤로는 '꽃을 든 여자' 목우를 따르듯이 84점의 꼭두 소품들이 6개의 나무 선반 위에 줄지어 놓여져 있다. 꼭두들은 나무, 돌, 브론즈, 석고, 알루미늄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한결같이 나무를 깎아서 조각한 느낌을 주며, 나무를 닮은 작가의 모습을 잔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자연' 본성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듯이 곳곳에 그 성향을 꽃으로 상징



꽃을 든 남자(상), 꿈을 꾸는 남자(하) | 2011



Exhibition View

한 것이며,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 본연의 감성을 기억에 더해 공작하는 것이 김성수 작가의 작업 전모이다. 작가의 전시작품을 보고 있으면 시나리오에 따라 출연배우가 등장하는 파노라마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다. '꼭두'여서 그런가? 활동적이지 못했던 어린시절 기억의 작가는 전시를 통하여 꼭두 나무인형이 되어 서 있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하며 주변의 수많은 꼭두와 함께 어울려 꽃을 가지고 놀며 지낸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관람객의 미래 기억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환경이 될 수 있다.

작가노트

꽃을 든 남자는 겨울 들판과도 같은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나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꼭두 인형을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조각하면서 조형적 특성과 인간존재의 본질에 많은 것을 배웠다. 강렬한 색채와 해학은 비록 어설픈 조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혹적인 것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꽃을 든 남자, 새를 타고 나는 사람은 무거운 조각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키네틱아트와 모빌형식을 통해 삶에 대한 문제를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나친 조형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의식 속에 잠재된 꿈

「미래 기억이다」

"하나, 전시 사건이 전해주는 감흥과 진율. 둘, 꼭두 목우를 통한 기억 재생. 셋, 나의 꿈과 이상과 희망으로 그려보는 미래의 기억"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과 환상을 자극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꽃을 든 남자와 꿈을 꾸는 남자는 정적인 것과 긴장감이 있는 극적인 배열로 현대인의 희노애락을 표현해 봤다. 또한 작은 소품과 에스키스는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옆집 아저씨, 친구, 그리운 사람, 가족 등을 깎고 색칠하면서 일상을 즐기기도 했다. 작업실 곳곳에 흩어진 크고 작은 조각들이 어느 땐 유치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고 왜 이들이 나와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만 늘 씩씩하기만 하다.

2011년 3월 봄이 오기 전 김성수

Lim, Chang min 임창민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II]
임창민展

2011. 06. 28 Tue ~ 07. 31 Sun
4전시실



Exhibition View

기억 공작소II「임창민」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 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기억만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예술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역사를 공작한다.

「임창민展은 그 두 번째 기억 공작소이다」

1. 기억을 담은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은 하늘로부터 우주 본연의 기억깊이를 수면 위에 그대로 반사하고, 현재로 이해되는 존재의 이미지를 함께 반사시켜 새로운 기억영상을 생산한다. 우리가 만일 이 연못의 깊은 바닥을 통해 오래된 인류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모습은 삶을 상징하는 은유적 모습으로서 '길을 걷는 인간'의 면모가 아닐까 싶다.

전시장을 들어서면서 머리 위를 올려다보면 천정에 커다란 발바닥이 눈에 띈다. 한 방향으로 줄지어 걷고 있는 사람의 발바닥이 관람객을 밝기라도 할 것처럼 큰 스피커 소리와 함께 동작하고 있다. 발자국은 시간 차이를 두고 느리게 혹은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맨발바닥과 다섯 개의 발가락이 바닥의 표면에 닿으면서 생기는 눌린 피부의 흔적과 혈액 흐름의 반응들은 삶의 기쁨과 슬픔, 고단한 무게를 담고 있으며, 그 갖가지 표정들은 한 인간이 살아온 공간을 압축하여 드러낸다.

작가는 바닥에 약 2.4×3.6m 크기의 거울을 설치하고, 길을 걷는 발바닥 자국을 담은 영상 '흔적_foot print'를 거울로 반사하여 6m높이의 천정에 투영하고, 이 이미지를 다시 바닥에 있는 거울에 비추어 마치 맑고 깊은 연못 속의 이미지처럼 영상이 보이도록 설정하였다.

이 영상은 걸을 때 발바닥과 바닥 표면이 닿는 순간의 사건을 시간의 진행에 따라 더하여 축적한 것이며, 시간의 축적은 천정의 영상을 반사한 깊은 연못 속의 영상을 통해 공간적으로도 강화된 기억으로 현재와 만나고 다시 기억된다.

2. 사라져가는 기억의 스펙트럼이 있다. 이 스펙트럼은 원래 기억을 참조하고 반영하면서 피할 수 없이 개입되는 현재의 시공간적 변수와 그로 인한 변형과 망각 등에 관한 것으로 기억영상의 사라짐을 현재적으로 공작하는 것을 은유한다.

'기억을 담은 연못'이 있는 반대편 전시공간의 벽면에는 48개의 프린트 패널로 이루어진 약 3.5×1.6m 크기의 이미지 배열 '흔적_Hand print'를 발견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손바닥인 첫 번째 이미지는 1,000번으로 이어지는 재복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 '떨럭이는 깃발', '폭포', '점과 선' 등으로 변형되어간다.

작가는 인간의 손바닥 표면을 복사기로 복사하고 그 복사물을 다시 복사하여 원본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다. 원본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기억이 사라지고 공작된 다른 기억이 미래의 기억으로 재생될 수 있음을 은유한다.

3. 작은 모니터가 있다. 'Hand print'의 기억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공작된 흔적 전시이다. 전시는 과거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인간의 정서행위이며, 미래에 이 전시 환경을 기억해줄 것을 기대하며 기억을 공작한다.

기억공작소의 작가 임창민은 그동안 미디어 거울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과 욕망의 구조를 조망해온 작가이다. 최근에는 기계처럼 닫혀진 체계 안에서 입력된 행동을 무한히 반복해야하는 인간의 면모를 압축하여 은유하는 작업을 발표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확장시켜 우주적 '섭리' 혹은 '본성'을 설명하듯이 반복과 지속의 순간 곳곳에 사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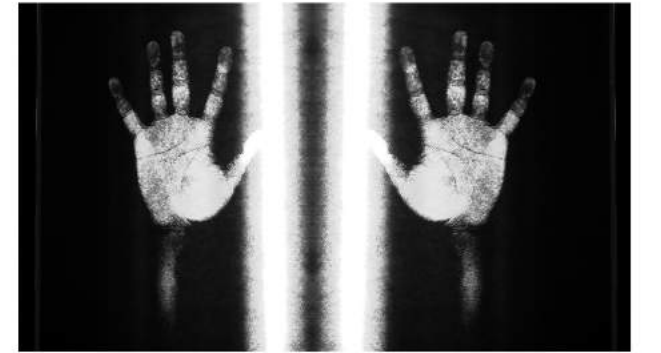
작가노트

흔적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말한다.

나는 이번 "기억 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라는 기획전시를 흔적의 속성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인간의 흔적을 상징할 수 있는 foot print와 hand print를 이번 전시의 오브제로 사용했다.

카세트 테이프의 등장으로 LP 레코더는 사라졌다. 또 카세트 테이프가 사라지고 CD가 등장했다. 그리고 CD가 사라지고 MP3플레이어가 등장했다. 최근 30여년간의 음반시장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적인 프로세스의 흔적이다. 흔적의 속성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형의 비물질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변화된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흔적의 속성은 남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또 다른 형태로 남을 수 있다. 나는 흔적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유보한 채 작업을 시작했다.

흔적_hand print | Single channel Video, 2011



로서의 '생'이 의미하는 새로운 매력과 은유를 상징화하고, 가상적 영상 매체의 감성에 '기억' 키워드를 더하여 다시 공작하는 작업의 전모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전시설정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었던 몰입환경 조성은 '깊이 있는 연못', '머리 위의 발자국' 등에서 실험되었으며, 전시라는 사건에 빠져드는 관람객을 위한 충분한 배려 가운데 하나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 기억과 흔적에 대한 작가의 탐구, 자유로운 상상의 영상과 몰입환경의 전시공작을 통하여 작가는 인간의 본원적인 기억과 관람객의 미래기억을 융합시켜 '생'에 관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미래 기억이다」

"1. 전시, 2. 본원적인 기억과 만남, 3. 깨달음으로 그려보는 미래의 기억"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무섭게 변화해가는 디지털 시대, 더해지고 사라져가는 흔적의 흔적들로 채워진다. 이토록 숨막힐 듯 밀려오는 디지털환경에서 손때 묻은 흔적과 그것의 속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진 복사기와 사람의 발바닥 흔적을 촬영하여 거울에 투사했다.

Hand print는 원본을 복사하고 복사한 이미지를 다시 복사하고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원래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했다. 1,000장을 복사한 결과 원본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원래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Foot Print는 제한된 공간에서 맨발바닥으로 걸음을 반복하게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바닥에 때가 묻어가고 지저분해져 가는 과정을 통해 흔적의 더해짐을 은유적인 영상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2011 6 임창민

Oh, Sang taek 오상택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Ⅲ]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2011. 08. 12 Fri ~ 09. 04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Ⅲ「오상택」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아보려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기억만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예술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역사를 공작한다.

「오상택의 SPORTS展은 기억 공작소이다」 일반적으로 SPORTS의 기억은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 경기의 총칭이며, 생의 균형을 위한 인류 지혜의 소산이다. 그 어원은 라틴어에 뿌리를 둔 disport로서 접두어 dis는 '분리(分離, away)'의 뜻이며, port는 '나르다(carry)'의 뜻이었다. 따라서 disport는 '자기의 본래의 일에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르다'는 것, 즉 '일에 지쳤을 때에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 '생활의 성실한, 또는 슬픈 장면을 떠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아마추어 스포츠가 진정한 스포츠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흔히 스포츠는 사력을 다해 이기고자하는 싸움이며, 힘겨운 준비과정을 거쳐 철나의 희열을 맛보는 드라마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일상과는 다른 특별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데, 일상의 고난과 슬픔, 무기력을 스포츠를 통해 떨쳐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상택은 'SPORTS'연작에서 운동경기에 몰두하여 사력을 다하는 실제 선수들의 모습을 화면에 포착한다. 그러나 그가 포착한 화면 속 배경에는 응원 관중도 승리의 감흥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일상적인 텅 빈 관중석과 넓은 하늘이 존재한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누구와도 분리된 채 자신만의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무명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일상과는 다른 일탈의 욕구와 전망으로서 스포츠가 지닌 낯선 전율, 경이로움, 아름다움 등의 기억을 공작하고 제시한다.

「회화 같은 기억,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생경하다」 'SPORTS'연작은 실재하는 상황을 충실히 기록하여 기억하는 사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기록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를 기준으로 경기장 안을 360도 회전하며 여러 시점을 촬영한 기록 중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두개의 장면이 하나의 화면 안에 오버랩 편집되어 있다. 작품 전경에 크고 강하지만 흐릿하게 처리된 경기선수의 모습과 후경에 작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텅 빈 관중석 혹은 경기와 무관해 보이는 인물들의 대비는 실재와는 조금 다른 생경한 기억장면이다. 작가는 화면의 배경 이미지로 무로하게 비어있는 스타디움을 제시한다. 그리고 아마추어 육상

선수들이 뿜어내는 근육의 긴장, 힘의 수축과 팽창, 한계에 도전 등 일상이 아닌 특별한 것들을 전경에 그려낸다. 또 승부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정과 몸짓은 잔뜩 힘이 들어간 근육을 제외하고 모두 초점이 흐려진 채 그림처럼 처리되어있다. 이 회화 같은 기억에는 그림 같은 구름, 맑고 푸른 하늘의 광활함으로 지시되는 '자연'과 넓게 펼쳐진 스타디움이 지시하는 '인공 구조물', 그리고 일상을 견고 있는 무심한 '사람'을 배경으로 치열하고 숨겨진 근육질의 특별한 주인공이 원색의 운동복과 함께 각인된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기억은 주인공인 선수의 특별함 보다 일상의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주목하려는 의도에 의해 생경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누구에게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자신만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있는 무명 선수들의 모습은 고단하게 이어지는 우리 일상적 삶에서 일탈하는 순간의

SPORTS

현대사회에서의 물질적 가치의 비대, 거대한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 소외, 상실감, 그러나 그 외중에서도 느껴지는 삶의 애착. 현대인의 삶은 그러한 이중적인 인간 삶 본연의 모순을 안고 진행되고 있다. 나의 작업에서 표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재들은 나의 주된 관심사인 이러한 우리 현대인의 삶, 그 삶을 인지하며 그 삶에 대한 애착을 형상화 하는 주제에 표현에 적합성에 있고, 또한 이러한 관심사는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한다. 연작 'SPORTS' 또한 이러한 큰 관심사의 연장선에서 진행 되고 있다.

Sports는 인간사 삶의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극대화되어 보여질 수 있는 인간 삶의 축소판(상징)이라고 생각된다.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음이 담보되고, 흘린다 한들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땀과 피를 요구하고, 게임은 시작되고 그 게임은 승부를 놓고, 드라마를 만들고, 감동과 희열과 애잔함과 여운을 남기고, 게임은 또 다시 새로 시작되고……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감흥을 준다. 어쩌면 나는 그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나의 아버지, 친구, 그리고 뛰어갈 나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충실히 기록하려 하는 것이다.

작업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측된 두 개의 공간(장면)이 존재한다. 전경에는 외로운 자신의 싸움을 수행하는 선수의 모습이, 후경에는 이 광경을 관람하는 듯 혹은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경꾼들 혹은 관중석의 모습이 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시점은 한 장의 평면(사진)안에서 오버랩 된다. 이 서로 다른 장면의 촬영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 지며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카메라의 화각 안에서) Reality가 아니라 그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 상황에 대한 Reality의 확장적 개념을 표현하려 기인된 방법이다. 사실상

전율을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한다. 그것은 바로 보통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과 특별한 순간의 격렬한 대비이고 전환이며, 인간 삶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려는 인류의 오래된 지혜이자 기억인 것이다.

「미래의 기억으로서 스타디움 가운데에 서다」 이곳은 관객인 '나'를 중심으로 선수와 빈 관중석의 기억을 사방에 둘러 배치해놓은 전시장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전율이 있는 아름다움 속에 묻혀있는 나의 이 특별한 감흥은 예술 감성을 교류하려는 기억의 지속이며, 일상의 고단함을 극복해온 인류의 지혜와 성장의 노력에 관한 기억이고, 나아가 미래의 기억으로서 현재의 만남을 살려내려는 공작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중구

연작 'SPORTS'의 내용적 관심사는 전작 'PROCESS'와 같은 맥락에서 연장되고 있지만 전작 'PROCESS'에서 장면을 구성하여 인위적으로 연출해 표현했던 방법론과는 달리 사진의 기본적 특성인 사실적 상황에 대한 기록(Document)에 그 표현 방법을 두고 있다. 이에 연작 'SPORTS'는 모두 실제했던 사실들을 기록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사진적 Reality의 재현이 많은 제한적 요소를 갖게 되고 이에 따른 Document의 확장적 개념 혹은 방법으로서의 재현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작업의 대상은 Sports 중 아마추어 운동 선수이며,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필요에 의해 탄생된 경기와 그 선수들이 그 대상이다. 비인기 종목인 셈이다. 그런 운동 경기만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상업적 목적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경기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상징으로서의 Sports와는 다른 모습일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의 경기 모습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열심히 경기하는 선수들과 그와 관련된 코치, 부모, 동료 그리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혹은 큰 관심을 갖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은 경기장안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낸다. 보여지는 그대로이다. 전경의 선수들은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상징으로, 후경의 사람들은 본인들에게도 그 삶의 치열한 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객관적 시선을 한 타자로 서… 혹은 그렇기에 그 선수들의 모습이 더욱 치열함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두 개의 시점은 작업(연작 'SPORTS')안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사진적 Reality (Document)의 확장이란 중요한 물리적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작업 안에서 내러티브를 만드는 중요한 내용적 요소이기도 하다.



Exhibition View | Photographic Color Print_2008



Exhibition View | Photographic Color Print_2010

Lim, Hyun lak 임현락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Ⅳ]
「1초 수목」- 들풀

2011. 09. 23 Fri ~ 10. 16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Ⅳ「임 현 락」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 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1초 수목」- 들풀 | 가변설치 | PET에 Ink & 혼합재료 | 2011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기억만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예술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역사를 공작한다.

「들풀의 기억스펙트럼」

자연의 야성을 간직한 들풀(Wild herb, 野草)은 하늘로부터 태양과 땅으로부터 물로 성장하며, 생(生)에 관한 우주 본연의 유전자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작가 임현락은 들풀의 성장이라는 사건의 현재 상태를 고갱이(심지) 형태의 획(畵)으로 긋고, 존재의 중심으로서 생명력을 그 획에 투영하여 삶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생산한다. 만일 우리가 이 들풀의 강인한 생명에너지들 통해 오래된 인류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다면, 아마도 거친 자연환경에서 야성을 발하는 순수 '본성적 인간'의 면모와 그 생의 상상일 것이다. 전시장입구를 들어서면 흰색 벽면을 배경으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검은 점과 획들이 눈에 띈다. 그것들은 천정의 밝은 빛을 향해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위를 향해 뻗어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태워버리고 남은 야생식물의 고갱이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3차원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거친 붓으로 추상적인 세로획을 그어 내린 수목 드로잉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도시 콘크리트 바닥 블록 사이를 뚫고 싹을 틔우며 살아나는 들풀의 강인한 생명력을 기억하게도 한다. 보이는 이 전경들은 작가가 상정한 들풀의 기억스펙트럼이며,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기억을 호출하는 듯하다. 작가는 천정에서 바닥 사이를 잇는 폭 3~8cm, 길이 100~400cm 크기의 획을 그은 투명필름 백여 개를 설치하고 바닥에 그 획의 시작점을 일치시켜 마치 들풀이 전시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솟아 자라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전시공간에는 좀더 작은 크기의 획을 그은 평면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이것 역시 바람에 나부끼는 들풀의 움직임과 그 찰나의 시각이미지이다.

존중받고 보호되기보다는 밟히고 찢기고 베이기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들판과 야생의 주인으로 자리를 지키는 들풀의 모습은 오래된 경외감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 시듦과 사라짐 등 생의 찰나들을 압축하여 우리 삶을 은유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들풀의 기억스펙트럼은 그 성장과 생명력 넘치는 움직임의 찰나사건을 도시의 한 공간에서 더 강조된 현재로 만나고 미래의 것으로 다시 기억 되는 장치이다.

「1초 수목」의 사건」

불교에서 1찰나(刹那)는 75분의 1초(약 0.013초)에 해당한다. 모든 것이 1찰나마다 생겼다 멀하고, 멀했다가 생기면서 계속되어 나간다고 가르치는

데, 1초는 그 생명의 찰나를 지속하는 생의 시간을 나누어 인식 가능한 최소 단위로 구분한 개념이다. 작가 임현락은 이 1초라는 시간과 생의 본질로서 호흡을 수목의 정신과 연결시켜 생명에너지의 절박함과 긴박함을 제시한다. 동양회화의 본령은 수목일 것이고 그 중심은 획이다. 획의 성격은 '일필휘지'의 순간성과 한 호흡에 관련된다. 작가는 획이 내포한 순간성에 주목하고 획과 획을 긋는 작가가 한 호흡이 되는 상태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 호흡의 상태를 '1초'로 임의 정의한다. 1획과 작가가 일체화 되는 경험은 수목그림에서 물리적 정신적 밀도를 집중시키는 긴장 상태일 것이다. 이 경우에 1획이 들풀의 사의를 담는다면, 작가가 1획으로 호흡하는 그 1초의 긴장 상태에 들풀은 작가와 한 몸이 되어 수목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작가는 '들풀'이라는 '생명의 결'과 교합이라고 설명한다. '숨에 늙다', '겨울나무', '나무들 서다', '들풀' 등 그간의 작업에서 알 수 있

작가노트

「들풀」

연구실 창문 밖에서 갑자기 '윙-'하는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들린다. 나가 보니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란 들풀들-그들에게는 이른바 '잡초들'-이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소리였다. 풀의 피내음이 주변에 진동한다. 그토록 그냥 두라고 부탁했던만... 총무과에서 보기 싫다고 정리하라고 했단다.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 어쩔 수 없지.'하다가 문득 화가 치민다. 며칠 전, 출근하면서 꺾어온 몇 개의 들풀을 보며 그나마 잠시 위안을 삼는다. '한 동안 기다리면 어느새 또 무성해지겠지...'

그 동안 나는 '나무들 서다' 연작의 설치 작업과 필획을 통한 공간 드로잉을 통해 전통회화의 평면성을 다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작업의 소재를 '나무'에서 '들풀'로 옮겨 표현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 늘 무심히 보아왔던 땅이 달리 보인다. 생명의 '결'이 느껴진다. 거기엔 늘 무성한 들풀들이 자라고 있다. 여기에 초형적 의미를 부여해서 보면, 서있는 나무의 길고 굵은 호흡의 선보다 들풀은 더 짧고 가늘다. 반면 그 생명력은 더 왕성하고 질기며, 모습은 더 다양하고 자유롭다. 시선을 낮추어 보면 더 넓은 하늘을 품고 땅에 밀착해 있다. 이것이 내가 들풀을 선택한 이유이다. 표현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視點)의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간 내 작업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나뭇잎의 떨림을 누워서 본 시선을 근거로 필획의 운율로 표현하다가(可行者, 可眺者, 구불거릿듯 직립한 우리 산야에서 자라는 나무의 선(線)을 직시하여 내 자신과 동화(同化)된 필선으로 구현하였고, 이제 그 눈높이 들풀로 내려오고 있다.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可遊者, 可眺者,

「1초 수목」

먹달이 '후두둑' 떨어진다. 바람이 '획-'지나간다. 일획, 한 호흡, 찰나, 순간... 그 동안 나의 작업에 있어서 행위에 수반된 시간적 개념들이다. 나의

듯이 작가는 생명의 근간인 '나무'에 기대어 '자연'을 말한다. 나무의 호흡과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을 그렸고, 이제 도심의 콘크리트 바닥 틈으로 자라나는 '들풀'의 자연에 주목한다. 들풀과 한 몸이 되어서 들풀의 야생성과 호흡을 같이하는 그 1초의 긴장은 본성에 가까운 야생의 표출이다. 겨울 나무가지와 마른 들풀 속에 숨은 최소한의 긴박한 생명력이 곧 이러한 야성일 것이다.

이번 전시는 '1초 수목'이라는 사건으로서 들풀의 매력과 은유를 시각화하고, 전시를 체험하는 관객의 감성에 '기억'을 더하여 다시 공작하는 기억공작소이다. 전시라는 또 다른 사건에 개입하는 관람객을 위한 기억과 생명에 대한 작가의 탐구,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작가는 인간의 본원적인 기억과 관람객의 미래기억을 융합시켜 '살아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보신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호흡과 신체를 통하여 화면 위에 실현되는 필획들은 느슨하게 혹은 길거나 짧게, 때론 빠르게, 어떤 경우는 완만하다가 급히 몰아친다. 단 숨, 한 호흡이라는 일획의 행위에 수반된 신체적인 시공의 개념을 초(超) 단위의 시간으로 변환하면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 1초에 100m 달리기 선수는 10m가 넘는 거리를 질주한다. 1초라는 시간이 공간으로 펼쳐진 길이다.

나는 이번 전시의 제목을 '1초 수목'으로 정하였다. 획이 내포한 찰나의 순간성에 주목하여 '1초'라는 시간적 개념을 행위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동양화에서 전통적인 획이 가지고 있는 호흡에 의한 유연한 시간성에 '초'라는 최소 단위의 분절된 서양적 시간 개념을 개입시켜, 한정된 시공간의 밀도에 나를 몰입시키고, 스스로 집중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였다. 절대절명의 무아(無我)에 근접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통해 나는 군더더기가 없는, 오직 획의 정수만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순수한 형태를 찾고 싶었다.

공간 속에 변주(變奏)된 집약된 '필획'들을 통해, 나는 생명의 호흡을 심고자 한다. 거기에서 생명의 결을 느끼고, 들풀을 모티브로 한 자연의 이상세계를 꿈꾼다.

'산수는 가히 갈 만한 곳이 있고, 가히 볼 만한 곳이 있고, 가히 노닐 만한 곳이 있고, 가히 거할 만한 곳이 있다. 단, 가히 갈 만하고 볼 만한 것은, 가히 노닐 만하고 거할 만한 것보다 못하다(山水有可行者, 有可望者, 有可遊者, 有可居者... 但可行情可, 不如可遊可居之爲得.)' -곽희(郭熙), 임천고치(林泉高致)-

노닐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지금', 곳곳하게, 마치 들풀 같은... 삶의 모든 것은 '순간'이다.

2011. 9. 15, 복현골에서, 현락

Bae, Jong heon 배종헌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V]
야생 | 野生 | Wildlife

2011. 10. 28 Fri ~ 11. 27 Sun
4전시실



Exhibition View | 야생 野生 Wildlife
단체별 영상설치, 나무, 합석, 자석, 합판에 아크릴릭, 특수잉크와 우레탄, 건물
이미지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
실사 웹지도 서비스에서 캡처, 00:03:40, 123x150(max.280)x120cm, 2011

기억 공작소 V 「배종헌」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창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 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기억만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예술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역사를 공작한다.

「극장, 기억공작소」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흰 벽면을 배경으로 공작물이 올려진 테이블이 보인다. 당구대와 막대, 바다 위의 군함과 대포, 분지를 둘러싼 산맥 같기도 한 이게 뭘까? 합판으로 가공한 다양한 형태들은 여러 개의 긴 나무막대와 함께 120×150×75cm 크기의 목재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단순하고 심심해보여서 아주 절제된 현대미술로 추정된다. 어렵군, 한숨 돌리며 전시장 동선을 따라 테이블 좌측을 돌면, 동물모양으로 재단한 어린이용 완구처럼 보이는 나무판조형들이 합판 층 사이로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테이블의 반대편 모습이 놀라운 광경으로 시야에 들어온다. 도시 중심가의 높은 빌딩과 상가건물들이 판재 위에 흑백으로 축소 프린트 되어 레이어로 세워져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사자와 말, 독수리, 토끼, 뱀, 노루 등 다양한 동물의 상징 로고들이 놓여있다. 동물 로고들은 긴 막대 손잡이의 끝에 달려있어 어떤 쓰임새가 짐작된다. 인형극 놀이기구 혹은 게임기? 맞은 편 벽면에 투사된 영상은 바로 앞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인형극 놀이 장면의 영상이다. 3분40초 분량의 영상은 도심 건물을 배경으로 누군가가 긴 막대 손잡이로 조종하는 동물캐릭터 인형들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 극劇이다. 앞에 놓인 테이블과 공작물은 인형극의 ‘극장’, 즉 작가의 사유와 경험, 기억을 중심으로 직접 인형을 조종해서 만드는 극 공작소이다. 작가는 관객이 기억할 내용과 형식을 이곳에서 공작한다. 주제는 ‘야생 野生 Wildlife’, 야생에 관한 작가의 기억은 이곳 극장의 현재와 만나고 다시 관객에게 기억된다.

「야생의 기억, 흉내 내기」 왜 ‘야생’인가? 회귀본능, 아마도 우리 자신이 야생이었기에 오랜 동안 그 기억을 흠모할 것이다. 인간은 ‘야생’자연을 즐

기거나 정복하거나 그리워하며 상상하고 기억한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본능으로 야생적 삶을 꿈꾸고 욕망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흠모하는 이 야생의 기억 이미지들이 즐비하고, 이들이 우리의 환경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한편, 야생은 전혀 다르게 문명과 자본의 흐름에 의탁한 욕망의 거래로 기억되기도 한다. 대기업의 로고와 상품 광고에서는 본능적인 ‘야생’의 기억을 판매하고 거래한다. 도시는 ‘야생’을 거래하는 장소이며 그 자본과 에너지로 도시는 재구축된다. 이 기억유전자로 도시는 자연을 흉내 내고, 그 속에서 우리의 하루는 시작된다. 작가 배종헌은 그 틈을 헤집고 자신만의 고유한 ‘흉내 내기-도시 다시보기’를 시작한다.

어둠과 별(스타벅스)이 사라지고 태양(SUN Microsystems)이 떠오르면, 참새(Twitter)가 재잘거리고 제비(제비포포인트)가 날아간다. 도시 주거지 위로 독수리(롯데캐슬)가 날아오를 때, 개와 강아지(블랙앤화이트)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가장인 독수리(SAAB)가 출근길에 오른다. 오전 일과의 시작, 속도경주를 하는 말들(페라리, 폴로, 포르쉐, 버버리)을 사자(ING생명)는 멀뚱히 앉아 지켜보고 있다. 독수리(Armani)가 건물 위를 날고, 뱀(셀비), 용(Alfa Romeo)들이 거리를 거닌다. 태양(동부화재)이 중천에 떠오르면서, 소(블랙야크)와 노루(JOHN DEERE), 사자(무조), 개(AZZYS), 퓨마(퓨마), 제규어(제규어), 토끼(플레이보이), 캥거루(Qantas), 곰(잭니클라우스), 악어

작가노트

도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니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나는 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들, 특히 야생의 동물들이 어떻게 인공적으로 건설된 도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눈여겨 봐온 야생의 동물들은 우리들에게 이미 각인된 이미지들이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라 도시의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간판 속의 도상, 혹은 건물 외벽에 붙은 기업의 상징 로고,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상품의 문장에 박힌 동물들의 형상이다. 이것은 도시민들에게 궁극적 탐욕의 대상이자 결핍을 메워주는 관념적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제화 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인공적 환경 속에서 자연적 삶을 꿈꾸는 우리들의 욕망이 어떻게 자본의 흐름에 절묘하고도 충실히 의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현대문명의 야만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아이콘들로 읽힌다. 언제부턴가 별이 사라진 도시의 밤하늘엔 그것을 대신한 인공적 별들, 일테면 스타벅스 로고 속의 별이라든가 갤럭시 폰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라코스테), 비둘기(도브)가 쫓고 쫓기는 바쁜 직장생활과 경쟁, 약속강생의 일상을 보여준다. 낯은 저물고, 퇴근길을 연상시키는 마차(에르메스)가 집에 도착하면 귀여운 고양이(헬로키티) 가족이 가장을 맞이한다. 이어 별(Converse)이 떠오르고, 페가수스(ETRO)가 하늘로 날면서 하루일과가 끝난다.

이번 키워드는 ‘야생’이고, 거론방식은 ‘흉내 내기’이다. 작가의 도시 야생 동물원 흉내 내기는 손바닥처럼 얇혀지는 뻘한 개인적 일상의 경험이나 체험, 사유의 기억으로부터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며 철학적인 거대한 주제의 담론을 도출해낸다. 하찮게 여겨졌던 작은 의미들이 생명과 가치를 얻어 더 크고 넓은 의미로 확장하는 것이다. 독수리와 말과 사자가 많은 역피라미드형 생태의 인공 동물원 ‘흉내 내기’, 작가는 힘없고 느리며 불품없는 동물보다 강하고 빠르며 아름답거나 귀여운 동물들만 있는 동물원의 기억을 통해 인간의 탐욕이 가공한 기형적인 형태의 도시 생태계를 제시한다.

인간은 자연을 흉내 낸다. 도시와 인간문명에서 보듯이 인간은 ‘야생’을 흉내 낸다. 이 흉내의 ‘흉내 내기’는 새로운 미래의 기억공작소이다.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은하수 등, 이 하늘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나 손바닥 위에서 반짝인다. 도시는 블랙홀, 엄청난 중력에 의해 포획된 그 어떤 것도 탈출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빨아들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본다. 우리의 도시는 우주를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별들의 탄생과 더불어 사라진 동물들의 재탄생, 아니 폭력의 근원을 본다.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동물원과 같다. 그 속에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역피라미드형의 생태계가 존재한다. 독수리와 사자, 그리고 말은 왜 그렇게 많은가? 대개, 힘없고 느리며 불품없는 동물들보다는 강하고 빠르며 아름답거나 귀여운 자태의 동물들이 상품의 이미지 속에 많이 자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도시라는 동물원의 생태계는 인간의 탐욕이 가공한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으니 말이다.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에서 천리를 내다보며 먹잇감을 찾아내고, 말처럼 지치지 않고 빨리 달려, 사자의 이빨로 재빨리 낚아채야만 살아남을 것이므로……, 우리의 도시는 야생野性 그 자체다.

배종헌

Jeong, Eun ju 정은주

2011 기억공작소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vi]
Tetris

2011. 12. 09 Fri ~ 2012. 01. 08 Sun
4전시실

Exhibition View
Tetris, 2011



기억 공작소 10년-정은주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 미래를 기억하다」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 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고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기억만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예술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역사를 공작한다.

「붉은 조각을 보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흰 벽면을 바탕으로 붉은 색 덩어리가 보인다. 색 덩어리는 붉은색 계열의 사각형 묶음의 조합으로서 전체적 인상은 기계들로 찍어놓은 붉은 젤리과자 같기도 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길이의 그림자와 각기 다른 반사광 색상이 눈에 지각 되면서, 이것이 입체이고 정육면체 4개로 디자인된 다양한 형태 12개를 결합한 '색 조각'임을 알 수 있다.

정면이 정사각형 모양인 45×45×36cm 크기의 '색 조각'은 순수 색 덩어리들을 접합시켜놓은 형태이다. 네 개의 꼭지각을 이루고 네 개의 선분으로 에워싸인 평면 정사각형으로써 정육면체를 만들고 정육면체 4개로 하나의 색 조각을 만든다. 정사각형, 정육면체, 여러 가지 모양의 색 조각으로 묶음을 만들고 이들을 구성하여 덩어리 형태의 사각 점 '붉은 조각'을 만든 것이다.

좌측 옆 벽면에는 색면 회화처럼 보이는 붉은 캔버스그림 6점이 3점씩 상하 2줄로 걸려있다. 캔버스 안을 들여다보면, 사각형태 4개의 조합으로 6개의 테트리스 조각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의 잔상을 위치와 색상을 달리 하여 겹쳐놓은 이미지이다. 그리고 점 같은 '붉은 조각'의 반대편 벽면에는 평면화된 붉은 조각이 움직이며 자기목적적 변화를 진행하는 영상이 투사되어 있다. 이상이 작가 정은주의 전시 '테트리스Tetris' 보기 사건의 전모이다.

이 전시 작품들은 어떤 서술보다 앞서 조형의 단순함과 색의 순수성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단지 '본다'는 사건의 체험을 우선시한다. 작가의 평면 회화에서 출발했던 '순수'의 보기는, 회화의 표면을 확대할 때 보이는 그 물감의 층위가 가지는 입체감처럼 자연스럽게 입체조형으로 이어졌다.

평면에서 입체로 이어지는 공간 전개에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개입한다. 작가의 시간과 관객의 시간이 이 사건을 체험하는 공간에서 만나 기억의 층위를 쌓아가는 것이다. 작가는 이번 Tetris 작업에서 게임이 내포하는 시간 속성과 함께 영상 매체를 통한 시간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다. 사각형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사건의 '붉은 조각'과 '회화', '영상' 전시는 작가의 사유와 경험, 기억을 중심으로 '시간', '움직임', '관계', '소통'의 담론을 만드는 기억공작소이다. '붉은 조각'에 관한 작가의 기억은 이곳의 현재와 만나고 다시 관객의 미래로 기억되는 것이다.

「Tetris의 기억」 '테트리스Tetris'는 '관계'와 '변화' 또는 '재배열'의 본능적 기억이 아닐까? 아마도 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순수한 색조각 사이에서 서로의 형태에 관한 '관계'의 문제제기는 이 용어가 게임을 지칭한다는 사실로 인해 대중적 '소통'에 관한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관계'의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Tetris는 게임 테트리스에서 유래된 신조 동사로서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공간 안에 조심스럽게 다시 배열하다'의 의미이기도 하다. 게임 Tetris는 1985년, 러시아의 연구원이 고대 로마의 퍼즐인 펜타미노에서 착안하여 만들었다. 4개의 정사각형을 조합해 만든 각기 다른 모양의 7가지 블록을 이용하여 하나의 빈틈없는 선을

작가노트

이제까지의 반입체의 사각형 작업에서 입체의 형태로 나아간다. 사각형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습성이 테트리스의 사각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테트리스는 4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들이다. 테트리스게임 속의 평면적인 형태들이 나의 작업의 테마로 떠오른다. 컴퓨터 속에서 평면적으로 움직이는 테트리스와는 다르게 나의 테트리스는 입체적이지만 고정된 형태들을 가진다. 하지만 입체작업으로 고정되어있는 듯하지만, 나의 작업속에서의 테트리스형태들은 반입체의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들로 변해 움직이고 있다. 작업을 살펴보기 위한 움직임에 의한 시점에 따라, 공간에 따라, 빛에 의해서 변화 가능함은 작업세계의 형식과 내용, 특징을 그대로 따른다.

동시에 캔버스화면에 테트리스게임의 그 움직임의 순간들을 겹침의 기법으로 표현한다. 단순한 사각형이 겹쳐짐으로써 또 다른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겹침에서 오는 색들의 표현은 두 개의 시각형색이 세 가지의 면과 색으로, 또 하나의 사각형이 더해지면 더 많은 면과 색으로 나누어짐을 즐기면서 작업을 하게 한다. 광택과 무광택의 겹침의 차이, 물의 농도에 의한 겹침의 차이들, 그 겹침의 표현들이 한 캔버스에 존재하면서 공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겹침의 표현이 힘들다. 붓작업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주지만 더 예민한 작업들이다. 캔버스 속에서 사각형들은 평면이면서 공간감을 보여준다. 하나 하나의 사각형들이

만들어야 하며 선이 완성되면 그 선은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천천히 진행되지만 갈수록 블록이 내려오는 속도는 빨라지며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 게임이 만들어지고 난 후 사람들이 테트리스 중독 현상에 시달릴 정도로 테트리스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80,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임 풍경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본능적 기억은 작가의 기억으로 다시 공작되어 현재와 만난다.

「靜中動하다」 전시의 키워드는 'Tetris'이고, 거론방식은 그냥 '바라보기'이다. 작가의 바라보기는, 끊임없이 변하고 재배열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순수한 순간을 보여주면서 순수 바라보기의 기억으로 제안한다. 영원한 순간의 기억, 자율성의 기억, 아주 단순한 형태와 색상에 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은 알고 나면 수월한 세상의 창문 구실을 하는 간결한 수학 방식처럼,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의 변화를 담은 순수한 '붉은 조각' 그 순간의 기억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한 순간의 고요한 긴장을 기억한다. 이 기억의 '바라보기'는 새로운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기억공작소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서로 다르게 겹쳐짐으로써 형태들 사이의 공간감이 다른 공간의 환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전의 아크릴색판작업에서와 같으면서도 한 평면 속에 갇혀진 사각형들이다. 갇혀져 있으면서도 캔버스 속에서는 자유로운 사각형들이다.

Red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색은 감성을 전달하는데... 누군가가'색이 나를 삼킨다'라고 표현했었다. 내가 색을 취하고, 내가 취한 색들에 의해 내가 삼켜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색으로 시작을 해본다. 하지만 마지막은 또다시 Red다. 언제나 하나에만 끌려가는 버릇이 색에도 나타나고 있다. 파란색계열에 몇 년간 빠져 있었던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다르게 시작해도 빨간색계열로 마무리가 되어 진다. 수없이 많은 빨간 색들.

사각형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 모른다. 앞으로 준비 중인 막대 작업은 선작업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각형이 한쪽으로 길고 가늘게 늘어난 형태이고, 면적이며, 입체적일 뿐이다. 사각형의 세계가 나의 작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표현되어질지 모르는 기대감으로 작업에 임한다.

정은주

Lee, Ji hyun 이지현

2012 기억공작소 I
dreaming books

2012. 03. 02 Fri ~ 04. 01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 「이지현」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책은 기억이다」

이지현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말 수 적은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지와 교감하는 애뜻한 매체로서 오래된 '책'이 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책 페이지의 부서진 글자 조각으로 퍼즐놀이를 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신문지를 가늘게 찢어서 화면에 붙이는 작가의 초기 실내풍경화 작품에 등장하는 글자들도 이 기억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책은 인류의 사상, 감정, 지식 등 모든 인간 활동 정보의 기록이며, 시대성을 담은 기억이 기도하다. 작업을 위해 작가는 주로 60~70년대 시간의 기억을 간직한 서적과 성경, 악보, 잡지, 사진, 고전 등 헌책들을 오브제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가 사회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를 깨달았던 시간의 기억, 자신을 만들게 해준 그 시대의 책들을 작품의 소재이자 주제로 선택한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책은 자신의 여러 기억을 묶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물건이다.

「책, 다르게 생각하기」

작가는 어릴 적 시골마을 도랑 한 구석에 죽은 토끼의 사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충격과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다. 해체, 책에 대한 작가의 '다르게 생각하기'는 해체와 재생이다. 책의 글자와 사진 이미지의 실체를 겨우 식별할 정도로 일일이 잘게 뜯어내어 해체하고, 그렇게 뜯어낸 조각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붙여 원래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상태로 재생 공작하는 것이다. 읽을 수 없는 책, 물질 혹은 촉각적 질료로서 이 책은 원래의 책과는 달리 정체성이 모호하고 무엇인가 밀도감이 부족하며 부유(浮遊)하는 보푸라기 질감의 독특한 아우라를 통하여 꿈꾸는 사물을 상상하거나 사물의 본질 혹은 실존을 질문하는 듯하다.

입구와 마주하는 5미터 높이의 전시장 벽면에 가로 10줄과 세로 9줄로 정렬하여 설치한 90권의 책(012FE0810 dreaming books-90 books, 333×380×9cm, 2012)은 신의 계시에 응답하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읽기 어려운 인류의 기억을 새겨놓은 기념비를 보는 듯하다. 가까이 다가서면 거칠게 해체·재생하면서 드러난 상처와 기억, 사실적인 존재감이 일어난다. 한편, 사물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관계와 그 공간에 관한 현대물리학의 설명을 예시하는 확대된 사물의 구조를 보는 듯 하기도하다.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며 수만 번을 뜯어내고 작은 조각으로 해체하는 행위에서 새로운 전망을 갈구하는 구도자의 수행을 감지하기도 한다.

그 벽면의 우측에는 붉은색 조명을 품은 성경책 한권(012FE1201 dreaming book-bible, 17×25×6.5cm, book, led, acrylic board, 2012)을 세워 구역의 경계를 짓듯이 설치해 놓았다. 짐작이지만, 이 작품은 '말', '글자', '책'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신성과 관계되는 어떤 것이 아



Exhibition View | dreaming books



012FE0810 dreaming books-90 books, 333×380×9cm, book, 2012

닌가하는 질문이다. 또, 뜯겨져서 해체되었지만 성경책이라는 자태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숙연함이 연출된다. 큰 벽면의 반대편 바닥에는 나비 형상을 닮은 제법 큰 크기의 사진(011DE1201 dreaming book-호랑나비의 꿈, 44×28×10cm, book, 2011)이 놓여있고, 벽면에는 미술사 책(011DE1202 dreaming book-Red Book(gogh), 40×30×10cm, book, 2011)이 펼쳐져 전시되어있다. 우리말의 개념과 서양미술사를 다시 생각하고 해체·재생하려는 것일까? 이는 아련하고 성스러운 혹은 역사성이 깃든 '다르게 생각하기' 기억 공작이며, 인류의 참에 대한 애정 표현이 아닐까싶다.

「미래 기억 공작」

작가의 공작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책의 낱장을 뜯어내고 이를 재구성하여 붙이고 쌓고 말아서 책이 가진 다른 조형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삶과

dreaming books –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

내 작업에서 텍스트보다 어떤 부분에선 이미지가 더 강하게 와 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작업방식이 매우 독특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미지가 먼저 와 닿지 않나 생각 합니다. 책을 해체하면 문자 즉 텍스트는 읽을 수 없게끔 사라지고 그냥 이미지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삼국지와 방금 출간된 소설책을 해체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내용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의 흔적인 칼라정도로만 남아 있을 뿐, 이미지가 앞서 읽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의 책 작업보다 한두 권의 책 특히 사진이미지를 포함한 책은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틀입니다. 책 내용이 타이틀로 들어가서 비슷비슷하게 이미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대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자신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도덕, 교련 같은 교과서로 작업을 한 것도, 내가 사는 도시의 지도를 뜯은 것도, 그

죽음, 생성과 소멸의 신성한 순환을 끊임없이 가시화하려는 작가의 공작성은 다름 아닌 미래의 새로운 기억을 위함이다. 작가의 전사작품을 보고 있으면 박물관의 오래된 유물을 관람하는 것 같다. '오래된 책'이라서 그런가? 작가는 인류의 오랜 기억을 해체하고 재생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연의 신성함을 지시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만의 다른 기억이면서, 동시에 관객의 미래 기억이 펼쳐지는 신성한 무대이며 환경이기도하다. 다시 말해, 가늘고 날카로운 도구로 책을 해체하는 작가의 다른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찾는 우리 모두의 전망이 되는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작가 이지현

Kim, Young jin 김영진

2012 기억공작소 II
Nega-Posi 2012

2012. 04. 13 Fri ~ 05. 13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I「김영진」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네거티브」

김영진 작가의 기억에는 1970년대 한국현대미술의 실험적 모색과 미술가 사이의 열정적인 교감 매체로서 ‘미술’이 살아있다. 그는 고 정점식선생이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계성중학교시절부터 화실을 운영하면서 ‘젊은 아트’ 클럽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당시 삼덕동화실에는 백태호선생을 교문으로 최병소, 손수광, 김간일, 문곤 등의 선배와 함께하였고, 이항미, 이강소, 이묘준, 박현기, 김기동, 황현욱, 이영미 등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의 확산 기반이 되었고, 현재까지의 현대미술 발전에 에너지원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영진은 1974~79년 대구현대미술제와

양대판당전을 통하여 실험자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현대미술의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74년 껍질을 벗긴 고양이의 시체를 스프링 저울에 연결하여 천장에 매달아놓은 상황 연출로 죽음과 관계된 것들의 무게를 생각해 보는 작품을 비롯하여, 1977년에는 요즈음 거리광고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동풍선을 제작하여 전시장에 설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1975년에는 풍선에 관람자의 메시지를 적어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 1984년에는 비디오 설치미술을 선보이는 등, 기존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실험미술가로서 자신의 흔적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아니 부정적이라 할 만큼 은둔적이고 뒤로 물러서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네거티브’는 실험적이고 은둔적인 작가와 작업의 성향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네거티브negative는 일반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와 상대되는 말로 부정과 거부 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잠상을 포착하기 위해 제작된 원본 필름과 음화 영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네거티브 이미지는 빛과 어둠에 대한 관람자의 기대를 전복시켜 매우 비현실적인 효과와 극단적인 감성을 담아내고, 사물의 표면을 투과하여 그 내면을 보듯한 엑스레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사물의 이면을 관찰하거나 초자연, 죽음, 공허감을 묘사하는 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978년 제3회 양대판당전에 출품한 ‘work-78’의 기억은 네거티브 작업의 전형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로 생성하는 이 명료한 작업은 콧구멍, 손, 팔과 가슴 등 신체의 표면이 만나 움푹해진 부분에 석고 액을 채워 굳힌 결과물을 그 사진들과 함께 전시한 것이다. 이것은 작업의 네거티브가 되는 신체를 다시 보는 개념적인 작업으로 국외까지 소개되었다.

「Nega-Posi」

19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가 자신의 얼굴과 작가가 만난 수백 명의 얼굴을 석고로 떠낸 음각 마스크 작품을 살펴보면 머리카락, 피부의 주름과 땀구멍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음각 마스크 형틀은 필름의 네거티브와 유사하게 양각을 떠낼 수 있는 원본이란 점에서 인체 네거티브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 혹은 주체가 아닌 다른 외적 부분의 ‘채움’을



work0012_2, video, installation, 가변사이즈, 2012
work0012_3, cast, installation, 가변사이즈, 2012

통해서 주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행위를 시각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사실, 최근 작가의 관심은 네거티브 보다는 더 진화·확장된 개념인 Nega-Posi이다. 이번 전시 작품들의 원형이기도 한 음각 마스크는 빛과 그늘에 의해서 양각으로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며, 음각과 양각의 인식적 공존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음과 양이 나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동양의 음양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음각 마스크에서 떠낸 400여점의 양각 마스크와 12점의 음각 마스크, 얼굴의 네거티브 영상을 담은 10개의 모니터를 소개한다. 희고 높은 전시벽면 3면 전체에 오선을 긋고 리듬감 있게 설치할 알루미늄 양각 마스크는 반대쪽의 모니터와 마주하고 있으며, 그 오른쪽으

작가노트

Negative와 Positive는 이즈음 나의 가치 체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어적인 의미로는 음화陰影와 양화陽影를 뜻한다. 거기에는 더 나아가 음과 양, 삶과 죽음, 외면과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개개의 외견에서 보이는 양면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양면성은 별개이면서 또한 하나이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서구의 대립적인 사고로는 풀리지 않는다.

이러한 양면성은 깊은 우수를 머금은 웃음, 미소를 품은 슬픔, 정중동, 끝없는 에너지가 끓고 있는 고요함, 내면의 현실과 외면의 현실의 교차점, 정신과 육체 등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밖이 없고 가장 작은 것은 안이 없다.

로 음각 마스크 석고 틀이 설치되어있다. 거기에는 음과 양, 삶과 죽음, 외면과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로서의 세계가 보여주는 수많은 양면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은 ‘리얼한 것’의 표현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이다. 이는 곧 ‘삶’이고 ‘일상’이며, ‘깊은 우수’를 머금은 ‘웃음’ 정도로 설명된다.

작가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 좌표의 끝 지점을 조금씩 진화進化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의 허허하고 텅 빈 층만의 사건을 은유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작가가 제시하는 미래 기억일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중구

마이크로 코스모스와 매크로 코스모스는 항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이크로한 영역 속에 매크로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추상이 질서를 추구한다면 혼돈은 무질서이며 또 하나의 無이다. 정자는 혼돈을 모든 생명들이 상호감응하는 ‘빈 중심’의 역동적인 그물이라 하였다. 음과 양이 모두 고정된 실제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합성된 것이 만물이며 생명은 하나의 과정이다. 실체를 자기원인적 무한자로 규정한다면 밖이 있을 수 없고, 밖이 있을 수 없다면 유일할 수밖에 없고, 유일하다면 전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업은 필연을 간직한 채 저절로, 우연히 나타난 결과물이다.

나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 좌표의 끝지점을 조금씩 진화進化해 나가는 일이며, 지금 이 순간 허허한 텅 빈 층만을 바라본다.

김영진

Jeong, Yong kook 정용국

2012 기억공작소Ⅲ
Anywhere

2012. 05. 25 Fri ~ 06. 24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Ⅲ「정용국」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94개 그림자의 기억」

어두운 밤에 숲 가장자리의 그림자를 살펴본 적이 있다. 가로등 아래에 있는 나뭇잎들의 그림자가 짙은 회색으로 바닥에 드리워지고, 조금 떨어진 곳의 가로등 빛을 받은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쳐지면서 짙고 얇은 변화를 짓는다. 그 위에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 상관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형상을 만들어 상상의 재미를 맛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작가 정용국의 회화를 마주하면서도 비슷한 연상을 찾을 수 있다.

정용국의 이번 작업은 ‘Organic Garden’에서 출발한다. 수목원의 정원수를 수목으로 그리면서 인체의 장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상상이 모티브로 이어져 기이한 정원의 풍경처럼 펼쳐놓았던 작업이다. 물론 그 이전 작업, ‘야생野草’, ‘반들에 서다’, ‘The Gray Forest’, 산수화山水에서 자연식물의 생명 원천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하는 다른 작업들이 있지만, 식물의 형태가 상상에 의해 중첩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변형과 증식을 통해 내연이 확장되는 형식의 작업은 유기체적 정원 풍경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재의 작업에 직접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작 ‘Anywhere’는 Organic Garden의 기이한 상상식물을 개별적 개체로 떼어 1개의 단위체로 설정하였다. 각 단위 개체는 34.5×27×1.8cm 크기의 화면에 새겨있으며, 이는 희귀약초의 표본이나 식물도감처럼도 보인다. 흰색 한지 바탕 위에 수목으로 그린 이 이미지는 각각의 기억 재생적 상상과 그것의 수목학적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그 이미지는 수목의 짙은 회색과 실루엣 형태를 강조한 외형 때문에 이름모를 식물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림자’에 담겨진 기억의 중첩을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명이 움트는 들판의 야생을 기억하고, 어두워진 반들에 서서 하늘과 맞닿은 들의 자연 실루엣을 기억하고, 물을 잔뜩 머금은 담목澤澤의 매력을 담은 회색 숲의 기복과 동세動勢를 기억하고, 수십 개의 산과 계곡을 이은 산수를 한 송이의 꽃으로 상상하는 유기적 기억들의 중첩이 ‘Anywhere’에 스며있다. “Anywhere-어디, 어디에나, 어디든, 아무데나, 어디엔가”는 네트워크의 깊이와 넓이를 통한 존재감을 직관하는 작가의 최근 화두이고, 이를 위해 94개 그림자의 기억을 수목의 한획 한획이 한지와 만나는 지점에 ‘생명’, ‘나무’, ‘정원’, ‘숲’, ‘세계’의 이름으로 중첩시키고 각자의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이미지로 읽어낸다. 물론 이 개체는 Organic Garden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변형된 장기로도 중첩되어 세포와 장기 사이의 독립 또는 연결의 의미를 탐구하게



Anywhere, 34.5 × 27cm, 한지에 수묵, 2012

한다. 작가가 제시한 이미지 형태들은 시작도 끝도 갖지 않고 언제나 중간에서 자라고 움직이는 리즘Rhytme형 관계 맺기 방식으로 존재한다. 수목의 겹쳐짐과 기억의 중첩, 식물과 동물 장기가 겹쳐진 94개 그림자 기억의 관계 맺기, 작가는 그 에너지의 중첩된 시너지와 인식 너머의 ‘심연’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선형 유기체」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동일 크기의 그림자 이미지 패널 92개가 90cm 높이의 가로 한 줄 선형으로, 마치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 진열을 보는 것 같은 풍경으로 설치되어있다. 인류가 발견하고 탐구한 자료를 축적하고 기념하는 행위의 일면처럼, 또한 부분과 개체의 연결로 전체 유기체가 생명을 지닌다는 상징 혹은 유기체의 생태적 상징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는 설계이기도하다. ‘Anywhere’는 작가가 수묵작업을 수행하는 태도처럼 자기 스스로 순환하고, 자기 논리성을 가진 일종의 자동적 상태의 표현이다. 자동 기술적이라 할 만큼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생명의 그림자에서 지향은 무엇일까? 균형?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체로 주변의 유기체

작가노트

명사名辭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보다는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형용사나 부사적 언어로 통찰하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형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작업은 회화적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맥락을 노정하고, 탈문법적 배열은 잠정적 상황으로서의 공간을 연출한다.

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생존 ‘균형’을 찾아가는 신비함의 은유는 아닐는지?

작가의 공작은 화면에 수목의 획으로 기억을 겹쳐 식물의 줄기나 잎, 뿌리 형상을 드러내거나, 혹은 인체의 장기, 허파, 간, 췌장, 십이지장, 위장, 신경과 혈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연결로, 세계의 모든 단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전하고, 이들 개체들의 에너지와 ‘균형’ 지향을 탐구하였다. 생명과 삶을 둘러싼 신성한 순환을 끊임없이 가시화하려는 작가는 인류의 오랜 기억들을 그림자로 재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균형’에 대하여 언급하려는 듯하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만의 다른 기억이면서, 동시에 관객의 미래 기억이 새롭게 펼쳐지는 장이기도하다. 다시 말해, 수목의 예민함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작가의 다른 생각이 새로운 균형감을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전망에 관계하는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정용국

Ha, Kwang suk 하광석

2012 기억공작소Ⅳ
Truth in Non-Reality

2012. 07. 06 Fri ~ 08. 05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Ⅳ'하광석'展

'기억 공작소'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나 멈추어 돌아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시물라크르의 기억. 전시장 가득 푸른색이 담겨있고, 심상치 않은 바람이 느껴진다. 바람에 따라 춤추듯이 일렁이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워져 관객의 온몸을 둘러싸고 마음 갑속한 곳의 서정을 떠올리게 한다. 머리 위에는 새벽녘 하늘 사이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둥근 달이 떠 있다. 마치 물속에서 수면 위에 비친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바닥에는 특별한 제의식의 신비를 준비하는 도구처럼 푸른빛을 발하는 투명한 유리 수조가 잔잔한 수면 파동을 품은 채 놓여있다. 이것은 작가가 마련한 시물라크르의 미혹 속이다. 현실과는 다른 가상현실, 그리고 실재가 아닌 파생 실재로 대체된 인위적인 풍경을 하나의 사건으로 펼쳐놓은 관객의 환경이다. 이 사건 'Reality-Ilusion'은 관객의 몰입 상황을 엄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며, '허상'에 관한 작가의 기억 혹은 질문을 공유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또 다른 기억 하나. 전시장 한편 바닥에는 한옥의 사랑방에 어울릴만한 등잔불이 켜져 있고, 그 빛이 주위를 밝히면서 전시장 벽면에 등잔대와 나비광배의 그림자가 비춰진다. 바람을 막거나 빛을 반사시켜 밝기를 더해주는 나비광배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흥미롭다. 조금씩 흔들리며 움직이던 나비의 날개가 몇 번의 날개 짓을 더하고 나비는 어느새 훨훨 날아간다. 'Reality-Shadow#11'은 날 수 없는 나비광배와 실재처럼 보이는 그림자 '허상'을 통하여 시물라크르의 기억과 질문을 공유한다.

하광석의 작업은 실재가 지닌 결핍의 주목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최근 발표했던 '불이 꺼진 촛대', '꽃과 잎이 없는 마른 나뭇가지', '사람이 빠져나간 옷' 등 'Reality-Shadow' 시리즈에서 실제 오브제가 지닌 결핍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오브제의 그림자 영상이 결핍을 해소하는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이 결핍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복제물로서 현실이 지닌 결핍이기보다는 오히려 들뢰즈가 생각하는 시물라크르의 대상 모델이 가질법한 상대적 결핍으로 이해된다. 들뢰즈의 시물라크르는 모델과 동일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뛰어넘어 새로운 독립성을 창조해 가는 역동성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광석의 작업에서는 결핍을 지닌 실제 오브제와 그것의 그림자로서 시물라크르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그림자 영상에서



Reality - Ilusion, Variable Size, Digital Video, Beam Projector, Dome Mirror, Water, 2012

촛불이 켜져 바람에 흔들리고, 나무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며, 옷을 입은 인물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것들도 모델 오브제의 결핍을 해소하는 시물라크르의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말하는 '모델과 시물라크르', '현실과 허구'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처한 현대사회의 구조를 은유하기도 한다. 장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보와 매체의 증식으로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고 현실의 모사나 이미지, 즉 시물라크르들이 실재를 지배하고 대체하는 곳이며, 더 이상 원본과 모사물의 구별이 없이 재현과 실재의 관계는 역전되고, 원본이 없어진 시물라크르들이 더욱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를 생산해낸다고 한다. 하광석은 이러한 시물라크르의 기억공작을 통하여 없어진 원본, 즉 실재의 '결핍'에서 나아가 실재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번 전시작중 'Reality-Ilusion'은 실재의 '부재'를 질문한다. 원본에 해당하는 모델은 어디에도 없으며, 영상매체에 의해 복제되어 바닥의 수면에 투사된 그림자 영상이 이 공간에서는 첫 모델이 된다. 물이 담긴 투명수조의 수면과 물 속 반사경에 투사된 영상들이 반사 복제되어 사방 벽면에 펼

허상속의 진리...

어느 깊은 산중 정적이 흐르는 연못 속에 비춰진 달과 나무들은 우리들이 무심코 보아오던 하늘 위 달보다 더 아름다우며, 더 자연적인 것에 감탄한다.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연못속의 달이 더 실재 같아 그 속으로 빠져든다. 그때 누군가가 연못 속으로 돌을 던져 수면의 파장을 일으키면

연못 속의 아름다운 달은 순간 사라지고 만다.

연못 속에 떠있는 아름다운 달이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대사회에 기술문명의 발달은 이러한 연못속의 달을 더 실재처럼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실재의 재현에 고민을 해왔었다. 그로 인하여 예술가들은 사진을 발명했으며, 또한 실재의 시간성을 추가하여 영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실재의 완벽한 재현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진이나 영상은 재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는 사라지고 복제된 대상(사진, 영상)만이 실체를 대신하고 있는 시물라크르이다. 현대인들은 현실과 비현실, 실체와 비 실체, 존재와 부재, 제한과 자유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유목민처럼 떠도는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나의 작업들(Reality 시리즈) 중에서는 실제 오브제인 촛대에는 불이 꺼진 초가 서있고, 은 실재 화병 속 나뭇가지에 나비와 꽃이 없다. 반

쳐진 영상, 그리고 물 표면에 반사되어 천정에 투사된 영상과 섞이면서 첫 모델 그림자와는 다른 새롭고 역동적인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물라크르로서 '실재가 부재'한 사건이다.

작가가 제시한 이 몰입 사건은 관객이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적 현실 환경이지만, 원본 혹은 모델, 실체가 없는 시물라크르란 점에서 '허상'이고 이 점에서 '진리'는 무엇인지를 작가는 스스로와 관객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진리와 삶을 둘러싼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시각화하려는 작가는 인류의 오랜 기억들을 결핍 혹은 부재와 역동적인 그림자의 관계로 공작하고 재생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실체'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만의 다른 기억이면서, 동시에 관객의 미래 기억이 새롭게 펼쳐지는 장이기도하다. 다시 말해, 몰입의 사건 기억을 재생하는 작가의 다른 생각이 세계를 향해 질문하는 인류의 전망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면 그림자(영상 이미지)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닌다. 에 설치된 오브제들은 껌대기처럼 남아 있는 의복들이다. 마치 옷을 입은 투명인간들처럼 보이는 이런 종류의 존재들은 통상 실체적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벽면에 비춰진 영사막의 그림자들이 더 실체적으로 보이고자 관객들을 유도한다. 대상이 빛에 의해 그림자를 드리운 실체의 철저한 재현처럼 보이지만, 유심히 보면 실제 그림자의 재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제 구실을 못하는 실체보다는 실체가 아닌 영상속의 그림자가 더 실체처럼 보이고자 한다. 이는 원본이 없는 복제가 실체를 대신하는 시물라크르를 암시 한다. Reality 시리즈는 재현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성에서 시작하여, 시물라시옹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실체와 비 실체 간의 구분이 불확실한 인간지각의 불완전함의 성찰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시도된 설치 작품에는 작은 연못 속에 투영된 자연의 대상이 물 밖으로 다시 투영 되어 전시장 공간을 채운다. 그러나 이렇게 투사된 복제 이미지는 실체의 물 파장에 의해 일그러지며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는 영상으로 복제된 실체가 다시 연못에 의해 복제되는 시물라크르를 시사하며, 실체 물의 파장이 이 이미지를 일그러트리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무엇이 실체이며 무엇이 허상인지를 관람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광석

Yoon, Young hwa **윤영화**

2012 기억공작소 V
Heritage / 유산遺産

기억 공작소 V「윤영화」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나 멈추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遺産 - 바다, 소금

지구 공간의 약70.8%, 육지면적보다 2.42배 넓은 바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동남풍의 천신天神에 의해 생긴 구멍으로 하늘의 빗물이 계속 쏟아져 바다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성서의 창세기에는 창조주가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작가는 이 바다를 모든 생명체의 시원淸源으로 설정하고, 격렬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역동적인 생명의 터전으로 이해한다. 또한 바다를 '자유' 지향의 가능태로도 기억한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는 인간 생의 모순과 부조리의 굴레이고 두려움이 연속되는 현실의 흔들림이기도 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며 내 몸짓을 삼켜버린다.", "폭풍우 속

2012. 08. 16 Thu ~ 09. 16 Sun
4전시실

흔들리는 배는 나를 썩 빼 닮았다. 일백 퍼센트 화이트로 바다와 하늘이 하나 될 때, 이제야말로 단 하나 가슴 속에만 남겨져 있는 내 그리운 섬으로 나는 노 저어간다."는 작가의 말에서 짐작되는 그의 바다는 지극한 현실이다. 인류의 현실적 삶과 과거를 은유하는 바다를 상상한다면 현재에 남겨진 유산은 무엇일까?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주하는 한 벽면 가득하게 바다의 영상이 보인다. 잿빛 바다와 심상치 않은 파도의 영상이 격렬하다. 알 수 없는 커다란 힘에 따라 휘둘러듯이 춤추며 일렁이는 파도와 물거품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잔여물을 씻어주는 속 시원함과 자유를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바다 영상 프레임의 사이로 표정 없는 연두 빛의 얼굴 몸짓이 짧은 시간 덧씌워지면서 오랫동안 바다와 함께한 인류의 삶이 기억의 레이어처럼 다시 재생된다. 벽면에 투사된 영상의 아래부터 설치된 소금은 전시장 바닥에 가득히 언덕을 이룬다. 고요한 적막, 정지된 찰나,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피안의 섬, 최후에 도달하는 '성화聖化'의 감성이다. 소금을 쌓아 만든 언덕 위에는 밧줄과 고기잡이용 부표, 오래된 나무뿌리가 삶의 기억을 대표하듯 남겨져 있다. 그리고 한편에는 배를 젓는 노모양의 네온 불빛이 세속의 찬란함을 상징하듯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멸하고 있다. 이것은 영상으로 투사된 차인씨蔡仁熙의 현세를 통하여 일상의 삶과 희노애락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노를 저어 도달한 숙연하고 정제된 저 너머의 피안彼岸 세계를 새롭게 확장하여 정의하려는 작가 내부의 몸부림에 관한 서술 구조이다. 저 너머의 언덕을 서술하는 이 소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리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사물이 썩는 것을 막고 음식의 맛을 나게 하는 점에서 사회도덕을 순화하고 향상시키는 참신자의 사명을 비유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힘 혹은 악귀와 부정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도 주목받는다. 만약 어느 순간에 바다가 사라진다면, 아마 새하얀 소금 언덕과 몇 가지 바다에 관한 기억만 우리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질지도 모른다.

그리드(Grid)의 기억

윤영화의 작업은 궁극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 세

상을 세속적 욕망과 관념이 씨줄과 날줄처럼 짜여져 진정한 자유가 억압된 세계로 잃어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작가는 200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사진 위에 철망을 덧씌운 '그리드' 연작을 해왔다. 작가의 표명대로 "그리드는 물질을 정신으로, 순간을 영원으로 여과시키는 통로로서, 차인과 피안의 경계에 존재한다. 그것은 또한 내면으로의 만남, 절대자와의 조우邂逅, 그리고 관계의 우주적 회복인 동시에 모순된 것의 궁극적 합일의 장소이다." 또 그리드는 이러한 합일의 유산을 연출하려는 도구이다. 작가에게 있어 그리드를 통한 전시설정은 "재현再現과 표현表現, 이미지와 물질, 실재實在과 환영幻影, 성형과 속후, 가시可視와 비가시非可視, 가변可變과 불변不變 등 상극相極의 개념을 조정하고 화해시켜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합일에 도달하는 지향"이다. 이번 전시에서

Heritage/유산遺産

-어쩔수 없이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떠안고 살아야하는 운명의 몸짓들... 매체와 형식에 과도한 집착증을 보인 동시대 미술의 제 경향들 속에서 미술(회화)이 어떻게 존립 가능한 인간의 소통언어가 될 수 있는가? 또한 종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미디어와 복제의 시대로 일컬으며 세속의 승리를 구가하는 지금 역시, 聖과 초월의 개념이 과연 미술을 통해 말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나는 성상과 십자가 상징 등의 종교적 도상을 회화에 극단적으로 적용한 1990년대 파리 체류기를 거쳐 왔다. 이후, 2000년 전후의 사진기반 작업으로 물코를 튼 그리드에 연작을 시작으로, 귀국 후 줄곧 회화의 재해석으로서 일련의 '포토드로잉 & 포토페인팅'에 이은 형식적 진화과정, 즉 영상·설치작업으로 진입하였다. 나는 예술행위를 통해 인간실존의 궁극적 자유구현과 해방을 위하여, 회화와 사진, 영상, 설치 및 퍼포먼스 등 접근방법의 형식적 토대로 그 외연의 확장을 기하면서, 차인씨蔡仁熙와 피안彼岸의 삶을 긴밀히 연결 짓는 존재의 근원적 명제와 그 서사敘事를 딛고 드넓은 聖의 영역에서 맘껏 유희遊樂하고 싶다.



Heritage 遺産_ 영상설치 3분_ 소금, 네온, 밧줄, 나무뿌리_ 가변설치_ 2012

작가는 이러한 합일의 지향이 우리시대의 유산이 아닐까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자유를 둘러싼 인간의 근원적인 모색 의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합일'을 인류의 유산으로 보고, 이를 시각화하려는 작가는 인류의 과거에 민감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 살아있고, 미래의 가능성에 촉수를 세운다면, 과거가 공작해낸 그 작품은 미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만의 유산에 대한 기억이면서, 동시에 미래 세계를 향한 인류의 전망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관객의 유산이 새롭게 펼쳐지는 기억이기도하다.

보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유산(遺産, Heritage) - 운명?
어쩔 수 없이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시대의 모든 유산을 떠안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그 원죄의 굴레로 허우적대는 몸짓들 속에서 과연 한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줄기 빛이 저 우주에서부터 다가와 우리를 감싸 안아줄 것인가?

현대예술은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광기어린 괴팍한 질문자로서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고, 내가 아직까지 예술의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어리석게도 바로 그 사실에 집착하는 까닭인지도 모를 일이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며 내 몸짓을 삼켜버린다.
윤영화

Park, Jong kyu 박종규

2012 기억공작소VI
Layers & Dimensions

2012. 11. 07 Wed ~ 12. 09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VI『박종규』展

'기억 공작소' 작업은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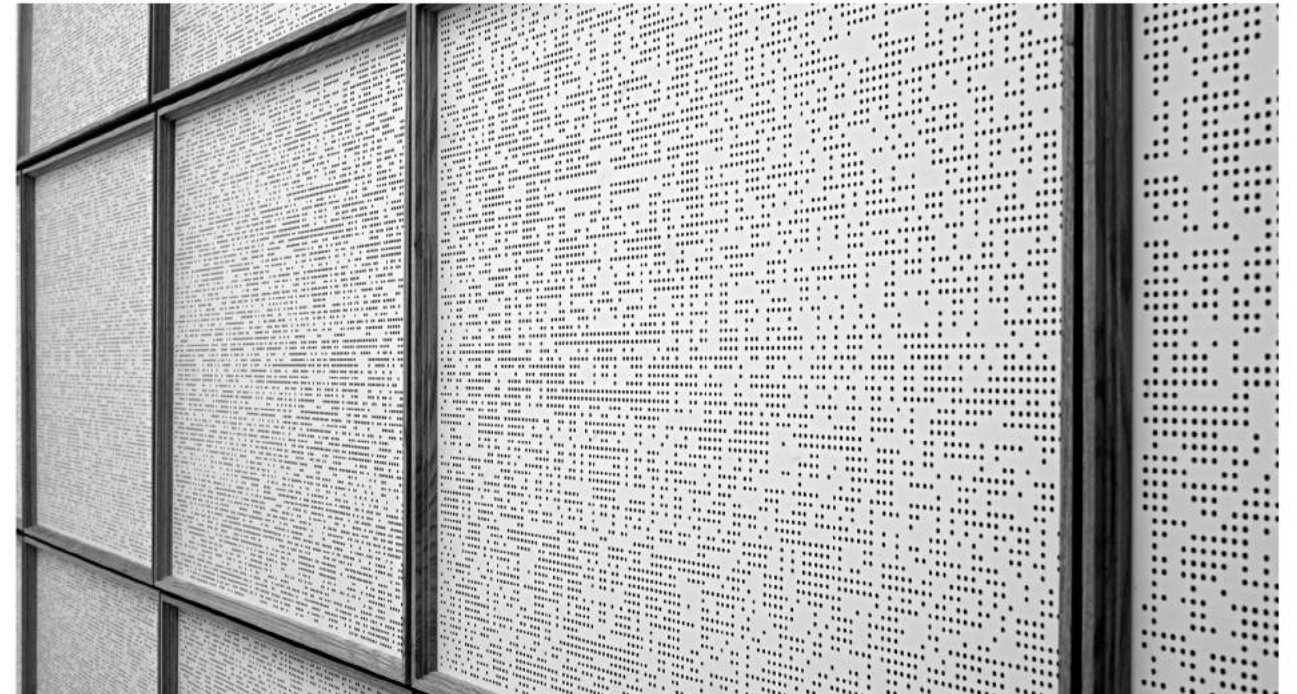
Layers & Dimensions_합판 코팅 CNC_120 X 80cm_2012

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Layers & Dimensions』

큰 벽면 가득하게 무수히 작은 점들이 찍혀있다. 점들은 일정한 크기의 면적 단위로 그룹을 이루며 관람객의 시선을 덮치는 화면 혹은 공간 차원으로 존재하며, 전체적 인상은 알 수 없는 외계의 문자 혹은 점자용 그래픽, 디지털로 처리된 신호, 인간의 유전자 정보 등을 집적한 거대한 기록 보관소의 단면 같기도 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았던 점은 벽면 위에 안료로 찍은 점이 아니라 일정 깊이로 뚫은 지름 3mm 크기의 구멍들이 집합을 이루고 다양한 비밀문양 형태로 눈에 아른거리며 지각되는, 그리고 이해와 접근이 어려운 막막한 상태의 신성(神聖) 속에서 미묘한 변화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벽 안의 점이다.

벽에 관한 이 상상은 작가 박종규가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했던 '벽에 구멍 내기'에 관한 것이다. 벽에 구멍을 뚫는 도발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가로80×세로60×두께0.5cm크기로 분할한 48개의 패널에 구멍을 뚫고 상하좌우를 연결하여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각각 7,000여개의 구멍을 뚫은 흰색 벽체는 액자를 씌워 용도를 제한하면서 선택된 오브제로서 회화의 영역에 가담한다. 당연하지만 이 패널은 표면 위에 질료가 만나는 사건으로서 회화가 아니다. 아크릴 수지로 된 표면 위가 아니라 표면층을 뚫어 구멍을 조각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작업이며, 조각과 회화의 특성이 적당히 융해된 애매한 경계에 위치한다. 이 같은 표면층의 문제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현대미술에서의 'Layers와 Dimensions'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의 재생과 뇌 혹은



Layers & Dimensions_합판 코팅 CNC_60 X 80cm 48개_2012

우주의 구조, 원리를 포함한 미지 세계를 설명하는 '층과 차원' 문제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또 작가가 감각적인 수작업 보다는 외부적 제어장치와 대항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흥미롭다. 원고 정보의 우연적 선택과 기계적 부호화, 마이크로컴퓨터 수치제어장치에 의한 공작기계의 가공을 통하여 흰색 아크릴 표면층을 원형 구멍으로 깔끔하게 조각하는 과정 등은 차원을 더한다는 설계와 선택의 의미 외에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작업의 시스템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전시장의 다른 한 벽면에는 점이 아니라 점의 연장으로선 선을 조각한 동일 개념의 가로80×세로120×두께1cm 패널 1개가 걸려있고, 바닥에는 석고 반죽을 짓이겨 던져놓은 우연적 형태가 표면층과 차원의 형식을 다시 강조하며 전시된다. 이 전시 작품들은 어떠한 서술보다 표면층과 차원의 형식 문제를 시각화한다. 회화의 표면을 확대할 때 보이는 그 물감의 층위가 가지는 입체감을 독립시켜 자연스럽게 입체 오브제로 이어졌고, 이제는 표면을 파내는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개 층의 표면에서 공간으로, 다시 여러 개의 표면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개입한다. 작가가 축적하였던 시간과 관객의 시간이 이 전시를 바라보는 현재에서 만나 기억의 층위를 쌓는 것이다. 'Layers & Dimensions'에 관한 작가의 기억은 현대미술의 현재와 만나고 다시 관객의 미래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노이즈의 기억』

인간의 기억은 사건, 물건, 파편화된 연민 등 잡다한 수집 정보를 저장한

Layers를 다차원으로 집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벗어난, 제한 범위 밖의, 제거되었던, 주목받지 못한 존재로서의 잡동사니 기억인 '노이즈'를 주목하고 기억 층 속에 이를 다시 각인시키고 있다. '노이즈'는 현대적인 선택과 변화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관계' 또는 '균형'의 예술적 기억이 아닐까? 아마도 이 용어가 '순수' 지향의 선택 밖에 존재했던 비주류를 지칭한다는 사실로 인해 민주적 '소통'에 관한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관계'의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주목은 이전 모더니즘 계열에서 한발 비켜선 자신의 태도를 대변할지도 모른다. 모더니즘의 진화적 형식 맥락을 따르면서도 다른 성격의 메시지로서 노이즈를 주목하여 작업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는 노이즈의 존재를 자신의 작업 태도에 견주어 기억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본능적이라 할 만한 이 기억 설정은 전시에 의해 다시 공작되어 우리의 현재, 미래의 기억과 만난다.

작가의 노이즈는 끊임없이 변하고 재배열되지만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정돈된 순수 표면층과 차원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건의 기억으로 제안된다. 구속이 없는 자율성의 기억, 아주 단순한 점의 상태와 그룹화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의 기억을 떠올린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변화를 잇는 한 순간의 고요하고 미묘한 긴장을 기억한다. 이 기억의 '바라보기'는 새로운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기억공작소이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규

Yoo, Young hwan **유영환**

2012 기억공작소Ⅶ
Contemplation

2012. 12. 21 Fri ~ 2013. 01. 20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Ⅶ「유영환」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Contemplation 1

그는 조각가다. 그는 가끔 한 곳을 바라보며 사색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상태는 머릿속으로 3D화면처럼 입체상을 투영하여 상상 속의 조각 작품을 설계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는 머릿속에서 설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사색, 명상, 응시, 관조, 심사숙고의 지적인 창작을 설계·진행한다. 머릿속에서 설계 중인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는 일체의 인간적·서사적인

관심을 떠난 무덤덤한 탈중속적 상태에서, 대상의 객체적인 현실과 관찰하는 주체의 관념적인 현실을 배제하고 행해지는데, 이때 대상은 물체, 물질을 중시하는 현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상의 시간, 공간, 이유, 목적에 대한 일상적 관찰이 중지되면서 대상의 순수한 본질을 직접 파악하는데, 이를 순수한 인식의 작동 상태라 할 수 있다. 대상의 본질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스스로 흡족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작가는 그 머릿속에 있는 대상을 물체 상태로 조각하여 현실 속의 자립된 실체로 창작해 내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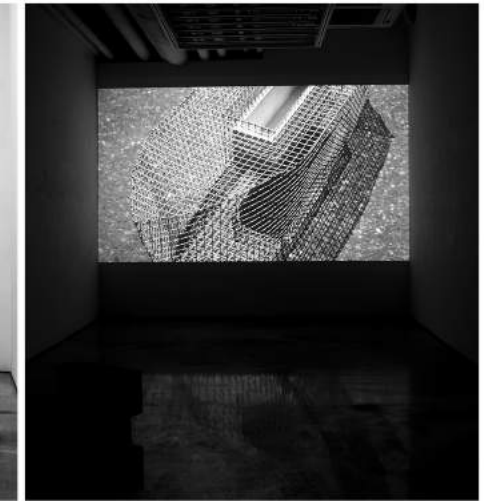
Contemplation 2

나는 관객이고, 가끔 한 곳을 바라본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정면의 흰 벽면 위에 평면체의 사각 덩어리가 보인다. 이 덩어리는 조각가 유영환이 행한 Contemplation의 결과적 실체이며, 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처리가 확인한 표면과 직선 면이 우선 지각되는 조형 창작물이다. 무게와 부드러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덩어리(290×24×180cm)는 두꺼운 세로형 직육면체 3개를 수평으로 연결하여 조합한 구조로서 전체적 인상은 하나의 반듯한 사각 덩어리이다. 좀 더 살펴보면 덩어리에 가한 최소의 표현 행위가 발견되는데, 우측 상단에는 돌출한 작은 크기의 직육면체 덩어리를 결합하여 기하학적 직선 형태를 강조하였고, 그 반대편 덩어리의 좌측면은 경쾌하면서 선명한 자율적 곡선 리듬으로 면을 처리하여 전체 덩어리의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 또 덩어리 사이의 틈은 배경 여백이면서도 연결의 매체 혹은 가늘고 긴 세로 띠무늬처럼 큰 덩어리의 일부분으로 가담한다. 작가가 내보인 이 사각 덩어리는 어쩌면 수많은 지식과 지각, 지적 체합의 기억 층들이 중지(中止)와 배제(排除) 상태의 Contemplation에 융해되면서 도출된 세계의 기억일 것이다.

고개를 돌려 좌측 벽면을 보면 흰색 회화처럼 표면이 평평한 또 다른 사각 덩어리(60×10×87cm) 1점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에 있는 사각 덩어리와



Work-1209_Mixed Media_60x10x87cm_2012 / Work-1210_Mixed Media_290x24x180cm_2012
Work-1201_Bronze_50x19x32cm_2012



Work-1209_Bronze_45 x 17 x 32cm_2012 / 영상아카이브

동일한 창작 방식이 작동한 물질 존재이며, 평면체 표면의 1/3 정도 하단에 가로로 파여진 부정형의 틈이 최소의 변화와 균형의 장치로 작용한다. 그리고 전시장의 바닥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짙고 중후한 덩어리가 놓여있다. 청동 재질의 이 미묘한 덩어리는 한 단계 더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존재감,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물성 존재 자체이다. 한편, 전시실의 다른 벽면에는 작가의 과거 작업에 관한 아카이브 영상을 소개하면서 작가의 '존재' 기억을 현재의 층으로 재생한다. 이상이 조각가 유영환의 'Contemplation'을 Contemplation하는 사건의 전모이다.

'존재' 기억

이 전시는 어떤 논리적(論理的) 사변(思辨) 보다 앞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공간의 조형 물질 혹은 물성적 존재를 체험하는 사건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진행되었던 순수한 '본질' 인식은 실체로서 입체 조형으로 이어지고,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 상황으로 파악되면서 시간적 기억으로 전

Contemplation

세계와 존재, 인간과 자연에 대한 끝없는 되물음.

일정한 두께를 지닌 직사각형 평면물체들을 기본 소재로 한 최근의 연작들은 물질적 대상체와의 교감을 통한 깊은 사색의 결과물이다. 조형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열려있는 사고와 통합적 시각을 지향한다.

시작과 끝, 근원적인 것과 궁극적인 결말을 항상 동시에 놓고 사고하며, 시간적인 전개와 공간적인 전개를 동시에 진행시킨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는 동시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사색을 통해 이러한 대립항 사이에 존재하는 사소한 감정과 정서들을

개된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하여 시작의 근원과 끝의 궁극을 포괄하여 물질 존재의 상태로 응축시키고,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시각적 조형을 전개한다. 그는 이번 'Contemplation'작업에서 물질 혹은 물체가 내포하는 존재의 다양한 변이를 구체화하고, 조각과 예술의 전형, 그 기억의 층에 관한 담론으로 해석의 폭을 확장한다. 이것은 인간 생존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 익숙한, 어디선가에서 보았음직한 단순하고 본질적인 순수 구조, 그리고 그것의 창작과 역사에 관한 담론이다. 전시 준비를 위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창작의 지향에 대하여 "어느 것에도 종속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 밝혔다. 그는 이 전시에서 Contemplation의 창작 기억이 순수한 본질 존재를 제시하는 현재 사건과 만나고 이를 Contemplation하는 관객의 미래 기억으로 다시 만나는 '존재' 기억을 공작하려는 것이다. 다시, 본질 그리고 존재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다 걸러내게 되는데, 아가지기한 것, 미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들을 모두 다 걸러내게 되는 것이다. 물질에 투영된 이미지는 물질 자체를 가린다. 진정한 물질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탈 이미지의 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사색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작품)은 극히 단순하고 함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많은 이야기 들이 융해되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단조롭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유영환

Yi, Gee chil 이기칠

2013 기억공작소 I
거주 Dwelling

2013. 03. 08 Fri ~ 03. 31 Sun
4전시실



거주hs1, 14x22x19cm | 거주sm1, 17x17x17cm | 거주sb1, 29x17x17cm, 철, 2011

기억 공작소 | 『이기칠』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 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밖과 안』

아외 바닥에 네 개의 덩어리가 놓여있다. 쇠로 된 이 덩어리는 구르다가 멈춘 지점 또는 처음 놓인 그 자리에서 변화무쌍한 시간과 공간의 현실적 스펙트럼을 마주하고 있다. 눈과 비, 바람, 태양, 새벽이슬과 저녁노을, 도시의 먼지와 소음, 어른과 아이들, 어둠과 적막을 만나며 그 자리에 있는 이 쇠덩어리는 표면이 붉게 산화된 녹과 흔적을 통해 그 장소에서의 시간적 실존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덩어리는 안이 뚫려 비워져있고 외형이 오



거주Dwelling, Exhibition View

각형이나 원형의 관 형태이며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듯 도려낸 기하학적 절단면 때문에 축을 통해 서로 연동되는 기계부품 혹은 사용처는 알 수 없지만 구멍을 통해 주변 환경이 들여다보이는 희한한 물건 정도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낯설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안을 뚫어놓은 형태 그대로를 철 주조로 채우거나 원형의 특수 강관을 도려내어 딱 찬 쇠덩어리 무게감을 드러내며 허구 없는 진정한 물질감을 보여주고 있다. 바깥 야외공간에서 이어진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3줄로 길게 진열된 27개의 또 다른 덩어리를 볼 수 있다. 마치 기하학적인 쇠덩어리의 중심적 매력을 상찬하고 이와 연결된 그 이상의 세계와 소통하는 신전 의식을 보는 듯하다. 바깥 야외의 덩어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크기가 좀 더 작고 소중한 존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으며, 구멍이 없는 집모양의 덩어리도 섞여 있다는 점이다. 27개의 사각기둥으로 받쳐진 강건한 표정의 이 존재들은 각자 다른 기억의 울림으로 실존적 중심이 되고, 자신이 탄생하게 된 긴 호흡의 '작업실'과 '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거주 Dwelling』

조각가 이기칠은 초기에 단단한 자연석의 물리적 저항을 뚫고 파내는 '작업' 연작을 통해 조각 작업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돌 속의 조그만 내부 공간으로 집약되어 해소되는 자신만의 실존적 공간체함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업실을 짓고자 하는 건축 계획을 조각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는 '작업실' 연작을 전개하면서 조각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최근, 그는 온갖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며 조형하는 조각의 행위가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조각가라는 사회적 역할과 본분 자체를 자신이 살아가는 거주지로 간주하면서 그의 생각을 시각화한 '거주' 연작에 이르게 되었다. 이 '거주' 연작에서 작가가 머무르는 공간의 외연은 더욱 넓어지고 추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에 의하면, 육중한 쇠덩어리 조각은 하나의 물질

이라기보다는 삶과 예술이 일치되고 비움과 채움이 교차되는 상징적 장소에 대한 물화라고 설명한다.

'작업'과 '작업실', '거주'로 연속되는 이 사건은 작가로서의 삶 안으로 향하려는 지향과 동시에 밖으로 현실 거리를 유지하려는 균형에 관한 동기와 결과로 짐작되며, 안과 밖의 변증법적 교차를 이루려는 지속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이 시도에서 '거주'라는 사건의 실재는 비어있고 물화된 조각 덩어리로 남게 된다. 속이 뚫려있는 조각 덩어리 형태는 사건의 상황에서 공백을 뵈는 상태를 고착화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아마도 지금은 상태로 남아버린 사건의 상황에 대한 기억과 비어있는 공백의 의미가 아닐까? 비어있는 것, 즉 안과 밖이 통하는 공백은 아마도 삶의 조건과 환경, 태도와 방법이 응용된 시간과 공간의 스펙트럼일 것이다. 그의 거주 장소는 예술이라는 추상적 공간으로 확대되고 예술가로서 자신은 의지와 경험, 기억들을 이야기와 노래로 바꾸어 전달한다. 의사소통의 예술적 형식은 이렇게 완성되어 새롭게 기억되는 것이다.

작가의 직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되지만, 추상적으로 확대된 '거주' 사건은 정돈된 흔적, 순수 형식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밖과 안'의 '거주'에 관한 작가의 기억, 조각가로서의 의지와 실현에서 비롯되는 그대로의 현실적 흔적을 기억하고 다시 공작한다. 한 예술가의 '거주'는 우리를 미래의 어떤 순간과 잇기 위한 최선의 기억공작소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Kim, Ju yeon 김주연

2013 기억공작소 II
유기체적 풍경

2013. 04. 12 Fri ~ 05. 05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I 「김주연」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 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 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김주연_유기체적 풍경 II_사진_41x61.5cm_2011/2013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혁, 살아있다

이번 전시는 '살아있음'의 본능적 매력을 다루는 3가지 형상을 선보인다. 하나는 초록색 싹으로 덮여 있는 2.3m높이의 커다란 신문지더미 축대이고, 둘은 천정에 매달려 자라는 듯 보이는 탱자나무 가지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구본 그리고 남극의 도둑갈매기 스쿠아와 빙산을 찍은 사진, 셋은 움직이는 낙지가 있는 정물사진 그리고 시간성과 생명성을 중심으로 제작한 작가의 주요 작업 영상물이다. 이들은 개별적이면서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전시 공간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부분과 전체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유기체적 상태의 풍경으로 조직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김주연_정물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I_사진_60x90cm_2009/2013

가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과거이거나 기억하고 싶은 미래의 예견이며, 아마도 생명성에 관한 새롭게 창조된 현재 풍경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숙(異熟)'은 김주연 작가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성장한다는 동양철학적 의미인 '이숙'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한 이번 전시, '유기체적 풍경'은 구체적인 자연의 부분들이 상호간에 관계되면서 생성하는 일련의 사건이며, 전시를 통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들은 사건 속에 출현하는 시각적 형상 풍경들이다. 풍경 속의 세계는 생명성에 관한 '생성, 성장, 소멸'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과 그 실재인 '살아있음'이 서로 교체되는 상태에서 현실적 존재들 서로간의 질서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진행 과정에 있다는 세계의 사유를 담고 있다.

하나, Metamorphosis VI

무, 배추, 겨자 등 8종의 식용식물 씨앗이 4,500부의 신문지더미 위에서 생존과 그 변화 과정을 드러내는 이 작업은 시간성과 세계와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으며 과정 중심의 진행형 작업이다. 전시 몇 개월 전부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집하여 모았던 한신문은 W365x D41x H230cm크기 선반 위에 지층의 겹을 만들며 커다란 산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작가는 이 형태가 벽면에 전시된 사진 속의 남극 빙산을 닮았다고 했다. 신문을 싹 틔우는 지반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가는 신문의 원료가 나무라는 유기적 연결성이 있기도 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지구환경의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는 신문이 생명체의 생존 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씨앗은 일정기간 비춰오는 간접 자연광과 할로겐 빛, 적당한 온도와 습도, 주기적으로 분무되는 수분에 의해 싹을 틔웠다. 신문을 모으고 물을 공급하는 수고와 애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여건들이 씨앗의 발아에 관여한다. 생명체의 활기, 설레는 김격의 진동이 느껴지는 새싹의 변화는 생명성과 다음 과정의 성장을 위해 움직이는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씨앗이 초록 무성한 식물이 되는 형상 풍경은 '발아, 성장, 소멸'에 대한 감각 경험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각성시키고, 그 공간과 시간을 기억하게 한다.

둘, 유기체적 풍경 I, II, III, IV

천정에 매달려 거꾸로 자라는 듯 보이는 탱자나무 가지가 있다. 생존의 영역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시달린 가지를 뺏어 가는 생존 양식은 상태를 아프게 하면서도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은유하였다. 가시 사이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는 지구본은 지구환경과 생존에 관한 또 다른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그 옆 벽면에 걸린 세 점의 사진액자는 작가가 직접 촬영한 남극 풍경이다. 남극 스쿠아(South Polar Skua)는 먹이가 적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펭귄의 알을 훔쳐 먹고산다. 또 남극의 빙산은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녹아내리면서 형태와 장소가 변화되어 움직이는 유기체



Metamorphosis VI_앵글산반, 신문 약 4500부, 씨앗_2013

처럼 보이며, 그 해수면의 높이 변화와 너울을 만들어 지구의 기후와 생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셋, 정물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그리고 Metamorphosis of Every Lives

정물이 놓인 탁자 위에서 낙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머물 곳을 찾는다. 16분47초짜리 비디오 'Metamorphosis of Every Lives'는 살아있는 것의 변화와 생명의 생동성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생존과 생명성에 관한 자연의 에너지 변화를 한정된 전시 형태로 집약시켜 놓은 유기체적 풍경이다.

이 전시는 우리의 삶이 상투적이고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는 위기감으로부터 예술적으로 제안된 세계와 관객의 유기체적 연결고리이다. 일상 은 상투적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근원적 일상이 세계의 섭리를 예견한다. 예상치 않았던 물리적인 현실 공간에서 생명을 싹틔움으로써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상투성을 새롭게 공작한다. 김주연의 작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거를 기억 속에 간직하고 미래를 예견하면서 새로움의 창조를 재생하며, 창조된 새로움을 그것이 출현했던 세계에 추가시킴으로써 확대된 세계에 기여하고 기억될 것이다. 시간성과 생명에 관한 작가의 기억, 작가로서의 의지와 실현에서 비롯되는 그대로의 현실적 흔적은 우리들 미래에 현재적으로 지속하는 새로운 순간과 이어진 '살아있음'의 기억공작소일 것이다.

보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Jang, Jun seok 장준석

2013 기억공작소Ⅲ
Fantasiless

2013. 05. 17 Fri ~ 06. 30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Ⅲ「장준석」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래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래!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동,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꽃을 밟다」
단정하게 정돈된, 그러나 적막하고 생기를 찾기 어려운 전시실은 폐허의 조형논리를 직감하게 한다. 우선, 바닥에는 검은색의 기호로 가득 채워진 반복 문양들이 보인다. 동시에 벽에서 하늘거리는 종이 위의 꽃을 발견한다. 얇은 반투명 종이에 목탄으로 그려진 '꽃'은 속씨식물의 생식기관을 일컫는 자연의 꽃 이미지가 아니라, 한글 'ㄱ, ㄴ, ㄷ'으로 이루어진 글자 '꽃'이다. 나무를 태운 숯으로 그린 검은 색의 이 '꽃'은 꽃의 관념적인 상징과



Fantasiless, 40 x 70cm, charcoal on tracing paper, 2013

정서적 기억, 즉 작가가 전시 제목에서 언급한 판타지들을 거부하고 흩어 버리면서 글자 '꽃'만을 보여준다. 마치 바람에 날려가고 남은 실체의 허무함, 나아가 어떤 비장한 각오를 느끼게 한다. 그 왼편 벽면에는 180x180cm 크기의 액자가 걸려있다. 이 Landscape(scale 1:150m) 작업은 대지 위에 배치한 '꽃' 조형물을 부감 풍경으로 축소해 놓은 것이다. 역시 실제 꽃이 아닌, 정육면체의 검은색 플라스틱 '꽃' 글자 수 만개를 화면 중앙의 한 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도록 설계하여 부착한 이 작업은 글자 조형이 꽃을 대체하는 의도성과 더불어 실제 크기로 대지 위에 설치되었을 때의 거대한 규모와 장관을 상상하면서 정서적 상실감과 신선함을 함께 맛볼 수 있다. 다르고 낯선 풍경은 관람자 자신이 밟고 있는 바닥을 살



Exhibition View

펴보면서 한층 다양하게 경험된다. 바닥에 채워진 문양이 '꽃' 글자의 연속처럼 보이기도하고, '끝', '꿈' 글자로도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의 부산물인 합성고무로 만든 검은색 '꽃' 글자는 꽃이 꺾이는 시각적 충격을 패턴화하며, 관객의 밟는 행위와 밟을 때 발끝에 닿는 감각을 대상화하고 개념화한다. 꽃을 밟는다는 행위는 무시, 방치, 폐기, 소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인데, 예를 들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와 같은 환상은 사라지고 더 이상 꽃밭이 아닌 폐허를 걷고 있는 관객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설정이다.

꽃은 향기롭고 화려하며 아름답다. 그러나 작가는 아름답지 않은 '꽃'을 내밀면서 'Fantasiless'를 말한다. 작가에 의하면 사회적 통념들은 '꽃'이 상징하는 'fantasy'를 부정하도록 재촉하며, 꽃은 그냥 '꽃'일 수밖에 없다고 떠밀어낸다. 일체의 상상을 무시하고 제시되는 '꽃'은 죽은 꽃이며, 검은색의 죽은 꽃을 밟는다는 의미는 죽음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다시 인식하는 행위이다.

어쩌면 작가는 꽃처럼 상징의 의미가 관습화된 대상의 환상을 거부하고 밟으면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야성 혹은 살아있는 생물적 감각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규범에 갇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폐허 위를 다시 거닐기를 권하는 배려일 것이다.

「그 너머의 꽃, 꽃에 물을 주다」
장준석은 '꽃'이라는 텍스트 기호를 통하여, 'Fantasy'와 'Less'를 합성한 Fantasiless를 주제로 환상이 없거나 제거된 상황을 탐구하면서, 실재와 상징화된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허무를 주목하고, 진정한 실체의 인지를 질문해왔다. 또한 작가는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을 살피고, 사회 통념에 의한 '구획 짓기' 혹은 '범위의 한정'을 걷어차는 미술의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이전까지 작가의 '꽃' 작업이 꽃의 아름다운 색상에 기댄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전시는 화려한 색상의 '꽃' 작업들에서 도외시했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삼는다. 작가는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서 얼마 후 시들고 소멸하는 그 생태적 현상의 진실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고심하였다. 그는 이번 Fantasiless에서 꽃들이 죽고 소멸되어 끝난 상황을 연출하고, 그 너머에 있을 새로운 꽃을 기대한다. 스테인레스 거울판을 파낸 '꽃' 글자는 작품 반대편의 풍경과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표정을 담아내면서 새로운 꽃의 희망을 가능한다. 또 작가는 검은 '꽃' 바닥 위에 주홍빛의 '꽃' 글자 입체조형을 놓고 그 위에 직접 물을 뿌린다. 전시 때마다 진행한다는 퍼포먼스인데, 그 장면의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장 한 벽에 전시한다. 개념화된 글자 '꽃'에 물을 주는 행위는 새로운 '꽃', 꽃 너머의 '꽃'의 생성을 희망하는 주술적 의미로 읽혀진다.

작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아마도 환상의 부정과 생태적 소멸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폐허를 관객이 밟아보는 사건과 그 너머에 있을 희망에 관한 기억이 아닐까? 확대된 'Fantasiless' 사건은 생태적 진실, 정돈된 폐허의 흔적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간 욕망의 'Fantasy'와 사회적 거부의 'Less'에 관한 작가의 기억, 예술가로서의 의지와 실현에서 비롯되는 흔적들을 기억하고 다시 공작할 것이다. 지금 한 예술가의 'Fantasiless'는 우리를 미래의 어떤 순간과 이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기억공작소일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Ahn, Kyu chul 안규철

2013 기억공작소Ⅳ
단 하나의 책상

2013. 08. 16 Fri ~ 09. 15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Ⅳ 안규철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나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낮선 풍경을...*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展 참고자료

그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집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열려있는 질문」

전시장에 십여 개의 책상이 놓여있다. 이 책상은 네 개의 다리와 위를 향한 상판, 어떤 것은 서랍이나 덮개 판이 있기도 하고 예술적이지 않은 형태의 그냥 숨겨 좋은 목수가 잘 만들어놓은 일상의 책상 정도로 여겨지는 사물이다. 이것이 예술이라면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미술은 지난 세기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논쟁해왔다.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 작가는 말한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은 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열려있는 질문이다. 세상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며 생산이다." 조각가 안규철에게 예술은 현실과 진실을 일깨우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일'이다.

열일곱 개의 책상은 각기 하나의 세계이며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깊이 알 수 없는 '다른 기억'의 질문이자 사물이다. 책상 위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지식과 정보를 쌓고 꿈을 꾸고 고민하며 토론했던 질문의 기억들은 각자의 생각 혹은 의견이며, '개별'이고 '다름'의 사람 사는 이야기, 즉 다른 기억들이다. 이 다른 기억들은 높이가 다른 여러 형태의 다른 책상이라는 사물 속에 깃들여있다. 동시에 작가의 대표적인 질문, 화보 속에 나무 의자를 심은 '무명예술가를 위한 다섯 개의 질문'이나 3벌의 외투를 연이어 붙여 만든 '단결, 권력, 자유' 등의 질문들처럼 책상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질문으로 작동한다.

나무로 만든 이 책상들은 무대 위에서 '관계'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멈춘 지점 또는 처음 놓인 그 자리에서 변화무쌍한 시간과 공간의 기억/현실/상상적 스펙트럼을 마주하고 있는 언어적 개념이 되었다.

「낮선 풍경, 단 하나의 책상」

전시장에 하나의 책상이 보인다. 높이가 각기 다른 책상과 테이블을 모아서 이들의 평평한 상판들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도록 한,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의 같은 일에 동원되도록 한, 단 하나의 책상을 볼 수 있다. 낮선 풍경이다. 세상의 테이블, 책상, 콘솔, 협탁, 소반들을 가지고 하나의 동일한 평면을 만드는 실험적인 일, 마치 수평/수직의 퍼즐 조각 맞추기의 매력을 상찬하고, '협동', '연대', '합의'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또는 그 이상의 '전체' 혹은 '같음'의 세계와 서로 통하는 신전 의식을 보는 듯하다. 책상 윗면의 수평면을 맞추기 위해 각각의 책상 다리 아래에는 수권에서 수십 권의 예술 인문 관련 책들이 높이 조절용으로 조심스럽게 쌓여있다.

작가는 이 책상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과 똑같이 비예술적인 노동으로 만든다. 그는 일상적이고 비예술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단 하나의 책상_가변크기_나무, 책_2013

인 본질이 살아남는지를 실험한다. 이것은 질문을 위해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작한 일종의 무대 '세트', 즉 단 하나의 책상이라는 낮선 풍경을 연출하는 세트인 것이다. 이 질문은 "책상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에 개입하는 작업대라면, 우리는 각자 다른 책상 위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다. 각자의 세계는 서로 다르고 대립하고 상충한다."라는 작가의 위기의식이다.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책상'을 '수평선'이란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로 한다면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주위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져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책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주장하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할 수 있

작가노트

수십 개의 책상을 모아서 커다란 하나의 책상을 만든다고 상상해봅니다. 먼저 주변에서 탁자, 식탁, 소반, 테이블, 작업대, 데스크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을 무작위로 수집합니다. 책상의 크기와 재료, 용도와 디자인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고가구점, 버룩시장, 재활용센터 같은 곳에서 형태만이 아니라 사연도 제각각인 책상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글을 배우고 숙제를 하고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던 그 책상들은 이제 버려졌지만, 아직 세상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임박한 소멸의 운명으로부터 구해내 하나의 미술품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이 작업의 첫 번째 미덕이라 하겠습니다.

책상의 공통점은 책상 판의 평평한 윗면에 있습니다. 모든 책상은 이 평면을 각각의 정해진 높이로 떠받치고 유지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수십 개의 책상으로 하나의 책상을 만드는 것

다. 작가는 고립과 소외에서 진전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차원의,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소통의 부재를 '단 하나의 책상', '단 하나의 수평선'을 통하여 전하려는 듯하다.

작가의 작업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되는 '도전'이고 '모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낮선 수평선 풍경을 보는듯한 열려진 질문들을 우리들 미래의 어떤 순간과 잇기 위해 우리를 또한 세상을 향한 신선한 질문과 한결같은 기억 공작을 가까이 바라본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달리 말해서 이 책상들의 윗면을 매끄럽게 이어지는 단일한 평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각각 다른 이 책상들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일상의 평범한 물건들을 참침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일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수십 개의 책상이 마치 스크럼을 짠 군중처럼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며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낮선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대한 하나의 책상을 만든다는 공허하고 단순한 목표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복잡한 과정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 그 불균형한 관계에 대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가 사라지고 과정만이 남은 부조리한 세계의 풍경입니다.

안규철

Kim, Hee seon 김희선

2013 기억공작소 V
FEEDBACK

2013. 09. 27 Fri ~ 10. 27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V 김희선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장치 1에서 4」

장치1: "입장"-초대장에 도장(입장, 년, 월, 일)

"환영합니다." 싱글채널, LCD모니터
"FEEDBACK 방명록"-전시장 입장에 대한 서명,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장치2: "누적된 피드백(Cumulative Feedback)", 23인치 LCD모니터,
황동액자, 웹캠, Mac Mini

장치3: "관계자 출입금지", 표지판, 붉은색 암막 커튼
장치4: "황금 꽃이 피었습니다." Full HD 싱글채널, 빔프로젝터,
스테레오 스피커

전시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는 것은 작가의 지시문이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 공간의 입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서 촬영되고 조작되는 모든 이미지는 관리자께 사용 권한이 있으며, 당신은 이에 동의한 것입니다./ 주의, 입장을 허가하는 스탬프는 항상 소지하십시오(관리자 김희선)"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지시에 동의하며, 초대장에 '입장' 확인 도장을 찍고 방명록에 서명을 한다. 이어서 좌측 전시 공간으로 이동해 신발을 벗고 벽에 설치된 황동액자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액자의 영상 화면에는 지금 서 있는 전시공간이 그대로 재생되고 그 영상 속 벽면에 걸린 액자 속에는 황금색 돼지머리가 빠르게 번쩍이고 있다. 잠시 후, 액자 근처로 걸어 들어가는 조금 전 관람객 자신의 모습이 화면 위에 겹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웹캠과 연결된 이 액자 모니터는 관람객을 촬영하고 그 피드백 영상을 20초 지연시켜 재생하면서 최대 20컷의 이미지들을 누적시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이미지들이 서로 섞여 액자 속의 돼지머리 영상이 가려지도록 장치되어있다. 우리는 이리 저리 기웃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피드백하는 모니터를 다시 피드백하면서 즉흥적인 흔적남기기 퍼포먼스를 해볼 수도 있다. 몇 걸음 물러나 뒤돌아보면 거창하고 우아해 보이는 붉은색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있고, 그 입구 위에 '관계자 출입금지' 팻말이 매달려 있다. 나는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부담 없이 들어간다. 돈을 세는 기계소리와 함께 조금 전에 액자 속에서 가려졌던 황금색 돼지머리 영상, '황금 꽃이 피었습니다.'가 숨 가쁘게 재생되고 있다. 싸구려 티가 물씬 나는 키치적 봉황무늬 사이로 돼지머리와 오버랩 되는 얼굴은 혁, 돼지를 닮은 '그'이다. 대략, 작가의 직설적인 풍자를 낱설어하면서 주섬주섬 전시장을 빠져나온다.

「피드백(feedback)으로부터, 낯선 풍경」

피드백은 제어 대상의 동작에 대하여 목표치와의 차이를 끊임없이 검사하고 그 결과 신호를 제어 장치에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서, 자동조절을 뜻한다. 피드백이 낯설지는 않지만, 전시장 안의 황동액자 화면에는 전혀 낯설지 않던 '나' 자신이 행한 조금 전의 동작이 되돌려 재생되면서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보고자 했던 실체를 하나씩 덮어 지워가는 나의 동작 피드백들은 긍정적이지 않은 자동 제어장치의 낯선 풍경일 수 있다. 해석의 폭을 넓힌다면, 이 사건은 마치 시·공간의 '지연'과 '누적'이 지닌 낯선 매력들을 일깨우고,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매체 상호작용 관계를 시각화하는, 또는 막후세력이 조정하는 협상 테이블을 풍자하는 낯선 풍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작가는 자신의 장치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신문,

TV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수신자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 후 피드백하거나, 또 개별 반응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신되는 피드백을 누적하고 집합해서 함께 피드백 한다. 우리사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연되고 누적되는 피드백의 특성을 그럴듯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도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신뢰하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사실은 실체를 덮고 진실을 외면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설계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한 예술가의 질문일 것이다.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작가는 일상적일 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통하여 예술적인 경험이 생산될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은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들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신을 신뢰해야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신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작가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한다. 이번 '피드백'은 서로에게 피드백 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

작가노트

전시공간은 일종의 축소된 사회 놀이 형식을 갖추게 된다. 입장부터 허가과 승낙이라는 형식절차를 거친다.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것 없이 일종의 약속 속에서 많은 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는 '어떤 일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제어 원리인 피드백 시스템'도 지니고 있다.(자연이 그렇듯이)
수많은 컨트롤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대중매체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대중매체는 관람자의 피드백에 매우 민감하다. 쌍방향적인 소통이 원활이 이뤄져야 대중매체의 진정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한가'라는 머리식은 질문을 던져본다. 이러한 질문을 작업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방법인 것 같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사회의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를 알고 할까? 의식의 부재를 떠나 근본적으로 믿음이 상실된 사회는 알고 싶지 않는 이 복잡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수많은 불안의 요소를 제공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그저 하루하루 생활을 잘 연명해 나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을 것이다.



"누적된 피드백"(Cumulative Feedback), LCD모니터, 황동액자, 웹캠, Mac Mini, 2013

게 피드백하는 적절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조작과 왜곡에서 진전된,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실한 차원의, 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상상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또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 속에 이만하기 다행이라 위로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지난 세월 소수 권력자들이 남긴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들과 여러 사회 정치적 정황들은 우리들을 경악케 한다. 마치 소위 막장 드라마 속의 스토리들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듯도 하다. 너무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받는 대중은 어느 순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그런 착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받는 이러한 정황들에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진실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진실이란 결국 진실일거라고 믿고자 하는 입장에 의해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어떠한 믿음의 입장을 가져야 할지……!

너무도 평화롭게 느껴지는 초가를 늦은 오후에 세탁기가 탈수모드에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슈베르트의 '송어' 멜로디가 울리며 세탁원로를 알린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랫말은 사실 매우 암울하다. 흙탕물을 일으켜 송어를 잡는 인간들의 탐욕을 맑은 물에 살고 있는 송어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다. 그 소리를 듣다보니 저 세탁기는 정말 깨끗이 세탁을 다 했을까? 빈번히 그렇지 않았는데……!

김희선

2013 기억공작소VI
군인들 1978

기억 공작소VI「권부문」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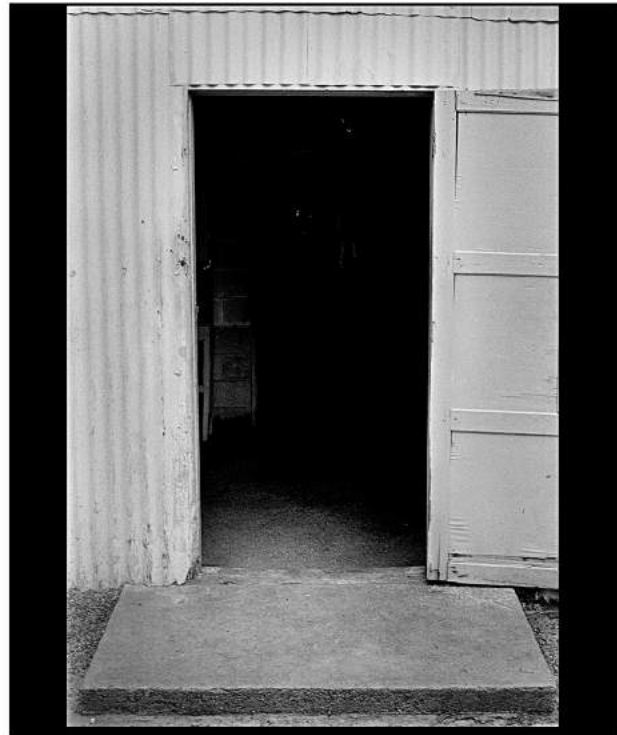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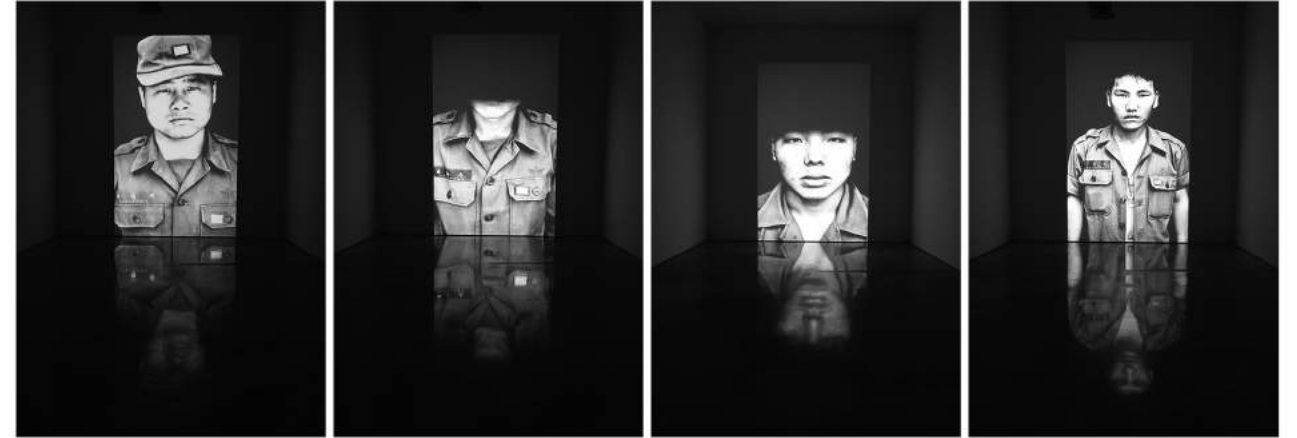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1978, 사진적 대면」

날씨 흐린 일요일 오후, 전방 5군단 소속 사진반 출입문 앞에 서니컬한 표정의 군인이 카메라를 향해 서 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문턱에 서있는 군인을 마주보고 있는 또 한 명의 군인이 있다. 카메라를 들고 상대를 응시하던 그 군인은 자신이 기다리던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활짝 열려진 문 너머로 보이는 사진반 실내의 어둠은 사진 이미지로 남길 군인의 상반신이 잘 드러나도록 해주는 검은색 배경



막이 되고, 출입문 나무틀의 하부와 높이를 같게 만든 회색시멘트 발판은 촬영을 위한 조명 반사판 구실을 해준다. 1976~1978년 기간 동안 사진 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작가 권부문은 자신과 만나 서로를 알아가던 이 군인들과의 '사진적 대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누구나 기억을 떠올리듯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은 대체로 무표정하다. 대개의 '군인들'은 20살 전후의 어린 감수성의 시기, 혹은 정신적 성장과



군인들1978, 비디오설치, 8'40" (스틸), 2013

자기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청년시기에 '군'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의 상황에 처해지면서 자기답지 않은 시간과 자존적 인격에 대한 위기,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을 사진이미지로 남긴다는 것은 나라의 분단 역사와 사회 환경에 연관된 의무 병역이라는 특정 상황, 그 한계적 일상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심리적 부담과 자유롭지 못한 생활의 면면이 드러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권부문은 '사진적 대면'이라는 태도(態度, attitude)로 자신이 처한 특정한 세상과 주변을 이해하였다. 가치나 대상, 상황에 대하여 경험과 기억을 통해 준비된 반응 상태를 '태도'라 한다면, 작가의 '사진적 대면'은 개입이 아니라 그들의 면면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용도로부터도 벗어나는 '지워내기', 어떤 설명이나 해석도 덧붙이지 않는 '그대로 마주보기'이다. 그의 태도는 군이라는 상황적 요소와 결합하여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작가가 만난 이 군인들은 '사진적 대면'이라는 태도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기억/현실/상상적 스펙트럼 속에서 사진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작가는 "군대 생활은 어쩌면 피안의 경험이었다."고 회상한다.

「낯선 군인들」

전시장 어둠 속에서 대면한 빛 사이로 인물을 발견한다. 나를 마주 응시하는 5미터 높이의 인물은 까칠한 냉소를 담고 있는 군인의 초상이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는 검은 막을 사이에 두고 순차적으로 투사되는 23장의 군인 이미지들은 바닥에 반사된 역상의 이미지와 함께 나를 감싸는 환경인 듯 펼쳐져 순간적인 전율을 느끼게 한다.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이 청년들의 생김새는 개인의 역사를 상상하게도 하지만, 한결같은 무표정은 멀리 우주적 시간 감각의 축수를 불러일으키는 알 수 없는 힘을 동반하고 시간의 총위와 거리 경계를 넘어 나에게 낯설음으로 다가온다. 관객인 나는 시간을 지나는 통로로 이동해서 35년전 카메라가 서 있던 사진반의 출입문 앞에서 '군인들'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군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없는 익숙한 설정이겠지만, 우리가 전시장에서 대면한 '군인들1978'에서는 그러한 설정이 제거되어있다. 중성화되고 무표정한 이미지들은 '선입견과 쓰임을 걷어내기', '효과와 강조를 없애는 지워내기', '당연하고 뻔한 것으로부터 거리두기' 등의 의도된 작가적 태도로 인해 낯선 상황 속으로 관객을 안내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사진이 어떠한 의미망의 연결이나 이데올로기의 변화에도 견고하게 버티는, 표현 방식이나 메시지의 개입에 견뎌내는,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이유만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태도에 의한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낯설음을 느끼게 하며, 군인들 개개인의 존재를 더 실감하게 하고, 그 존재감이 모여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압도되게 한다.

권부문의 '군인들'은 그의 풍경작업과 마찬가지로 '본연'을 드러내는 담당한 '태도'의 이미지들이며, 너무나 익숙한 '일상'에서 반응한 '낯선 기억'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환기시켜준다.

부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Song, Kwang ik 송광익

2013 기억공작소Ⅶ
지물紙物

2013. 12. 13 Fri ~ 2014. 01. 19 Sun
4전시실



Exhibition View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중력만큼이나 어쩔 수 없는」

몇 가지 혁신이 있다. 혁신(革新, innovator)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주도적 개념이지만, 미술가 송광익의 혁신은 조금 다르다. 회화를 전공한 그는 경험을 통하여 예술에서 노동(勞動, Labour)의 가치를 파악하였고, 탐과 시간이 담기지 않는 예술 활동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예술가로서 생존과 생활을 위한 자발적인 행위로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예술 활동, 즉 노동 행위를 신뢰하고 있다. 그의 노동은 자신의 예술행위, 특히 '그리기'보다 '만들기'에 의하여 외부 자연의 질료 변화를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이 자연과 자신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혁신과정이다. 그는 단시간에 시각적 매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 노동의 혁신 과정을 어쩔 수 없는 '고행'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아무튼, 이번 전시에서 그의 첫 번째 혁신은 '벽을 작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높은 벽면 가득하게 수직 팽창과 종만의 긴장 에너지를 마주할 수 있다. 벽면에 검은색과 흰색의 세로 선들이 불룩을 지어 꽂혀있다. 선들은 바닥에서 천정을 잇는 5m 길이 단위로 두 가지 무채색 톤의 그룹을 이루며 관람객의 시선 움직임을 덮치는 거대한 일렁임 혹은 물 입 공간 차원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기복, 칼날처럼 곧게 세워진 선(線), 촉각을 자극하는 지(紙)이며, 전체적 인상은 거대한 할렘의 흔적 같기도 하다. 우리가 보는 선은 화면 위에 안료로 그린 선이 아니

라, 몇 겹의 한지와 판화용지를 벽면에 수직이 되게 5~6cm 깊이로 꽂고 세로로 이어서, 이 세로 선을 좌우 3cm 간격으로 반복시키면서 그 크기가 가로 6.8x세로 5m에 이르게 만든 입체적인 선이다. 또한 이것은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태의 신성(神聖)으로 미묘한 변화의 울림이 느껴지는 작품으로서 '벽'이기도하다.

날을 세운 한지 '선'을 벽에 박는 이 혁신은 벽 전체가 거대한 화면으로 탄생하여 새로운 회화의 영역에 가담하게 한다. 이 회화는 표면 위에 질료가 만나는 회화에서 나아가, 작가가 행하는 오랜 시간의 노동이 벽 표면층 혹은 공간에 질료 변화를 만드는 다차원적 사건이며, 조각과 수공예, 회화의 경계 너머 영역에 위치한다.

벽 작업의 건너편에는 작가의 두 번째 혁신 '바닥에 눕어서'가 있다. 바닥에서 20cm정도 띄워서 눕어놓은 가로 2.2x세로 2.4m 크기의 작품인데, 가로 2x세로 4cm 정도의 백색 한지를 패널 표면 위에 일직선으로 세우고, 그 선을 무수하게 반복시키면서 한지의 끝이 자연스럽게 구겨진 평면이 되도록 한 작업이다. 무수히 많은 기원들을 모아놓은 서낭 마당의 상징처럼 보인다.

세 번째 혁신은 '구멍을 뚫어서'이다. 앞에서 설명한 두 작품 사이에서 공간 균형을 저울질하는 검은 색감의 작품은 첫눈에 '여기저기, 어디에나, 드나들, 비움, 포용력, 전면 균질적인, 흔적 제거 등'을 떠올리게 한다. 여러 장의 신문지와 잡지에 먹물을 입히고, 그 위에 날카롭고 둥근 기구로 압력을 가해 구멍을 뚫은 작업이다. 이것은 사물을 해체시키거나 구멍을 집적시켜 이전의 작업 개념인 '집적'을 진전시키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노동'과 '시간'은 '혁신'에 이어 전시를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이다. 이것은

작가가 노동으로 집적한 시간과 관객의 시간이 이 전시를 바라보는 현재에서 만나 기억의 층위를 쌓고, 다시 관객의 미래로 기억되는 사건이기도 더욱 그렇다.

「문풍지, 자연을 대하듯」

송광익의 작업은 '자연'을 기억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의 근원에 대하여 "어릴 때 창호지를 바른 방문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소리, 그 얇은 종이의 떨림과 부딪힘, 햇살에 비쳐진 격자 문틀의 직선적 그림자, 문틀 본체와 그림자의 미묘한 음영 관계와 빛의 투과를 느낄 수 있는 하얀 한지와와의 조화"로 설명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문종이 사이에 오려붙인 꽃모양이나 여러 형태의 기하학적 문양의 요철, 창호지에서 느껴지는 반투명의 느낌, 저편에 보일 듯이 들려오는 소음과 고요함의 진동"을 기억한다고 했다. 작가는 '문풍지'와 '자연'의 기억을 주목하고 우리들 기억 층 속에 이를 다시 각인시키고 있다. 본능적이라 할 만한 이 어쩔 수 없는 기억은 전시에 의해 다시 공작되어 우리의 현재, 미래의 기억과 만난다.

작가의 혁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배열되지만 기본적인 차원과 태도를 통하여 '원래의 자연을 대하듯' 사건 기억으로 제안된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기억의 자율성, 아주 단순한 선의 울림과 노동의 흔적에서 '자연'에 관한 작가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는 고요하고 미묘한 긴장을 기억하게 된다. 이 기억의 '대하기'는 새로운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기억공작소이다.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자 정종구



지물紙物_680 x 500cm_한지, 먹, 캔손지, 나무_2013(정면) / 지물紙物_75 x 90cm_신문지, 책_2013(우측) / 지물紙物_240 x 220cm_한지, 캔손지_2010(하단)

Ahn, Chang hong 안창홍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 I
關係

2014. 03. 26 Wed ~ 05. 25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 「안창홍」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남과 북」
안창홍의 전시를 찾은 관객들은 보통, 당혹스러운 장면 속 인물의 냉소적 시선에 사로잡히는 사태(事態)를 기대하겠지만, 이번에 전시되는 드로잉 속의 인물들은 서로에게 시선을 마주하고 있어 다소 상감다. 벽면 가득히 세로로 길게 설치된 드로잉 속, 남자와 여자 인물의 시선은 작가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선과는 아랑곳없이 서로에게 대항하듯 마주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 관객의 시선은 스스로의 기억

을 깨우고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질문을 하려들겠지만, 작가의 설정은 어설픈 정황 설명 대신 오히려 관음적인 욕망이 섞인 관객의 시선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해온 안창홍 작가의 주요 대표작 60여점의 스틸 이미지를 비디오설치 형식으로 보여주는 반대편 벽면의 영상 아카이브와는 달리 광목 천위에 검은 색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 ‘남과 북’은 소박하고 담담한 걸개그림 형태로 5미터 높이 벽면에 설치되어있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마주하기이다. 얼룩무늬 군복 상의만을 어깨에 걸친 여자의 자연 그대로 알몸과 그녀의 배꼽 아래에 장식한 작은 크기의 파란색 문신(文身, tattoo)은 약자로서 거친 세상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보통 인간의 생생한 존재감과 더불어 합의(合意)할 수 없는 원가에 반항하여 맞서는 당당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맞은편에 서서 여자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마주하고 있는 남자는 옷통을 벗고 얼룩무늬 군복 하의를 입고 있다. 슬리퍼를 끌고 있는 여자와는 다르게 남자는 제대로 갖춘 신발을 신고 있으며, 체격이 좋은데다가 양팔과 배에 넓고 화려한 문신을 새기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고 대등하게 서 있는 당당한 자세이지만 남자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듯하며, 만약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라면 아마도 남자 쪽일 것이다. 한편, 이 드로잉과 일정 거리를 둔 벽면에는 다소 불편해 보이는 ‘개’ 그림이 있다. 소외되어 방치된 듯 바짝 마른 개는 ‘남과 북’ 드로잉을 보는 관객의 진실한 해석을 증용(증용하듯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짐작컨대 이 드로잉은 우리 개인의 삶과 지난 역사 그리고 인간 존재와 욕망, 기억에 대한 환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을 위해 마련한 이곳, 기억공작소에서 작가의 태도를 다시 엿보게 한다.

「태도, 關係를 바라보게 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안창홍의 작업은 동시대 인간의 사건(事件)들

을 담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불편한 현실적 삶과 그 당당한 진실을 작품 속에 담아내면서 ‘노골적인 알몸’, ‘죽물적인 몸’, ‘현실 삶을 담은 몸’ 등 인간 존재와 심리를 주목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가 일관되게 이해하는 안창홍의 ‘태도(態度, attitude)’가 갖는 기능은 ‘권력’과 ‘지배’에 대해 이미 익숙해진 허위적 ‘합의’를 부정하고, 가려진 다른 존재 즉, 삶을 증거하는 ‘상처’와 ‘모순’의 가시화를 겨냥하며 냉소하고 ‘치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을 우리들 역사 속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기억되게하려는 작가의 태도는 관객으로 하여금 불신의 사회적 관계(關係)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작가는 주로 ‘몸’을 통하여 ‘관계’를 말한다. 성원경에 따르면 대체로 작가의 작업 속에서 세계 관계는 ‘고통을 주는 자’와 ‘고통을 받는 자’ 간의 몸을 통해 일한다. 그리고 작가는 그 세계의 한구석에서 이러한 비극을 엿보면서 역사나 인간에 대해, 그 폭력과 황폐함에 대해 증오로 맞서고 침 뱉기를 서슴지 않는 존재로 설정된다. 안창홍은 화면 속 등장인물과 세계, 그들 서로, 예술가와 대상 사이의 끊임없는 저항 혹은 공격성에 주목하고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관계의 매력을 다루는 것이다.

작가의 태도는 가식이 없는 생존의 본능으로서 ‘야생’, 가려진 원초적 ‘힘’의 관계에 대한 제안일 것이다. 그는 2013년 이종섭 미술상의 수상소감에서 “미술의 힘이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절대적 힘이 될 수는 없다하더라도 지치고 피폐한 영혼을 일깨우고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출구로 인도하는 역할쯤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 또, 2001년 월간미술과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방식은 집단이나 권력에 안주하거나 움츠러들어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끝없는 치열함으로 자신을 버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다.”라고 밝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란 구원이지 절망이고, 순결이며 간통이고, 단맛 나는 빵이면서 배설이기도 한 극과 극의 존재이다. 해방과 자유인 동시에 감옥이며 저주이고 자기 성찰의 희열, 고독, 반역이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나와 타자가 만나는 장소이며, 지적 여행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다. 그리고 삶이자 죽음인 동시에 행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때론 스스로 자극 받고 채찍질하며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세상에 대한 공격적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다. 나에게 있어 그림이란 이런 욕구를 분출시키는 도구이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태도를 서술했다.

‘남과 북’은 작가의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야생’을 기억하는 담담한 미술 ‘태도’이며, 너무나 익숙해진 사회적 ‘합의’ 관계에 반항하는 또 다른 ‘낯선 기억’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환기시키고 있다.

동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개 / 캔버스 위에 유화 / 54 x 65cm / 2009
비디오설치, 7'45" (스틸) 中일부:1996년의 사랑 /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73 x 92cm / 1996
Exhibition View : 영상아카이브

비디오아티스트 1978

김영진 | 박현기 | 이강소 | 최병소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 II
비디오아티스트 1978

2014. 06. 11 Wed ~ 08. 10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비디오아티스트1978,

“비디오아티스트1978”은 봉산문화회관의 개관10주년을 기념하는 2014년 기획 “기억 공작소”展의 두 번째 전시이다.

이 전시는 1978년 당시 김영진, 박현기, 이강소, 최병소 등의 미술가들이 사진작가 권중인 소유의 대구 대신통 K스튜디오에 모여서 촬영한 비디오 영상 중 3편과 이강소의 작업실에서 촬영했던 비디오영상 1편, 또 이번 전시를 앞두고 당시 전시 참여 작가 중 김영진, 이강소, 이현재, 최병소를 인터뷰한 영상, 사진 자료 등을 소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1978년의 실험적인 비디오영상들은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이 1963년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최초의 비디오 작품을 제작한 시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69년 김구림이 16mm필름으로 엮은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 초의 의미”에 이어 비디오로 촬영한 한국 최초의 “비디오아트”일 것이며,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 작업들을 선보였던 당시 미술가들을 국내 최초의 “비디오아티스트”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편으로 구성된 비디오아트 영상에는 당시 동시대미술가로서의 실험적인 시도들이 담겨있다.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실험적인 비디오아티스트 4명은 1978년 9월23일~30일 사이에 대구시민회관전시실에서 개최된 제4회 대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展 참고자료

구현대미술제(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리플릿에 표기된 3부 “비디오&필름”전의 출품 미술가 9인(김덕연金徳年, 김영진金永鎭, 박현기朴炫基, 유근준劉根俊, 이강소李康昭, 이상남李相男, 이향미李香美, 최병소崔秉昭, 이현재李鉉燾) 중 4인이며,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대구현대미술제에 5회 모두 참여했던 미술가 8인(김영진, 김용민金容民, 김용익金容翼, 박현기, 이강소, 이건용李建鏞, 최병소, 황현욱黃鉉旭)에도 속하는 미술가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 당시 미술계의 대형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집단적인 미술 실험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이들이 실험했던 비디오아트는 당시 미술가들의 실험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김영진(金永鎭 Kim Youngjin, 1946~, 대구생, 계명대 회화과 졸업)의 비디오영상 Drawing(Video Art, Single Channel, 15min 38sec, 1978)은 100×100cm 크기의 투명한 유리 표면에 작가 자신의 몸 일부분을 밀착시키고 유리외 몸이 닿는 부분에 생긴 압착 자국의 외곽을 따라 유성펜으로 그리는 드로잉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다. 손, 팔, 발바닥, 등, 배, 어깨, 가슴, 발, 엉덩이, 종아리, 얼굴 등의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행위와 흔적과 비디오의 시간성을 결속시킨 이 작업은 이후 작가 자신의 신체와 신체가 맞닿아 생기는 틈을 의료용 석고로 떠내는 “1978-10-2, plaster”작업과 신체 퍼포먼스 작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박현기(朴炫基 Park Hyunki, 1942~2000, 대구생, 홍익대 회화과 수료 및 건축과 졸업)의 비디오영상 Untitled(Video Art, Single Channel, 25min 01sec, 1978)은 사진인화용 바트에 담긴 물에 반영되는 조명기구의 이미지와 물 표면을 촬영한 것이다. 누군가의 손으로 물을 휘저어 일렁거리는 물결에 의해서 온전히 반영되던 물그림자의 형체가 일그러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실체와 허상의 관계를 질문한다. 이후, 그는 “물”과 “반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비디오영상을 비롯하여, “돌탑”과 다양한 주제로 작업의 폭을 넓히는 비디오아트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선각자적인 비디오아티스트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강소(李康昭 Lee Kangso, 1943~, 대구생, 서울대 회화과 졸업)의 비디오영상 “Painting(Video Art, Single Channel, 29min 45sec, 1978)”은 작가가 투명 유리판들 사이에 두고 카메라의 반대편에 마주서서 유리 표면에 물감을 페인팅하는 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이 작업은 바닥과 수직으로 세워진 유리판에 백, 적, 황, 녹, 청, 흑색 물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칠하면서,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행위 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 감춰지는 사태를 연출하여,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확산에 대한 대응 시선 혹은 관객과의 소통에 관한 행위적 사건을 다루는 비디오 영상이다. 이 영상은 행위 자체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그의 회화와 입체, 드로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최병소(崔秉昭 Choi Byungso, 1943~, 대구생, 중앙대 서양화과 졸업, 계명대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의 비디오영상 Drawing(Video Art, Single Channel, 11min 35sec, 1978)은 촬영카메라 혹은 모니터의 반대편을 향해 뒤돌아선 작가 자신이



이강소, 초점이 흐려지는 농동자를 비디오로 촬영하는 장면사진, K스튜디오, 1978

칠판의 원면에서 오른쪽으로 흰색 분필 선을 그어가면서 칠판 표면을 흰색으로 덮어가는 행위를 보여준다. 선을 긋는 행위자의 어깨가 들쭉이는 미묘한 움직임이 지루하게 연속되는 이 비디오영상에서 우리는 작가의 회화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면서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중심의 미술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당시 국내 처음으로 소개된 집단적인 비디오아트 전시는 우리나라 최초 비디오아티스트로 미술사에 기록되고 있는 박현기를 소개하면서 함께 언급해야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미술가의 태도를 주목하는데, 전시 작품과 인터뷰 영상을 통한 이들 비디오아티스트들과의 만남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당시 미술인의 태도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지형과 의식에 관련한 예술적 에너지를 신뢰하고, 이 지역을 세계적인 미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상정하였고, 미래를 위해 동료들의 생각과 행동을 서로 연대하였으며,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연구하고 아이디어와 징비 등을 능동적으로 결합하여, TV 등 대중문화의 위세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주변 일상의 침예한 문제의식들을 공감하고 **몸(행위)으로 소통하려는 ‘실험’의 태도**”이다.

이러한 실험적인 정신과 선구자적인 미술가들의 행위는 이번에 전시되는 비디오아트 작업과 4인의 인터뷰영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에 소개되는 비디오아트 영상 중에 최병소의 비디오영상 “Drawing”은 2011년 “이인성미술상 수상기념 개인전”에서 소개된 적이 있고, 이후 작년 12월에는 김옥렬이 기획하고 동시대미술가 24명이 참여해 1970년대를 기억하는 전시 “대구현대미술제 2013展”에서 김영진, 박현기, 이강소의 비디오 영상 3편과 함께 4편의 비디오 작업으로 출품되기도 했다. 이미 선보인 작품들을 이번에 “비디오아티스트1978”이란 이름으로 다시 소개하는 의미는 1978년 당시의 집단적인 미술실험 에너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나아가 그 실체가 참여했던 미술인들의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에 관한 검증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정통한 박물 자료들을 조심스레 들춰보듯이 당시 비디오아티스트의 실험적인 태도를 선택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시대 대구현대미술인의 “태도”에 관한 원류를 유추해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 인터뷰와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이번에 소개되는 이강소의 비디오영상이 K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실에서 박현기와 함께 별도로 촬영한 것이며, 그가 K스튜디오에서 동료들과 함께 촬영했던 영상은 분실되었고 자료 사진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전시에서 그 자료 사진 5점을 소개한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그때 그 영상의 내용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시는 작가 자신의 얼굴 모

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술기운에 의해 눈과 얼굴이 변화하고 농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제4회 대구현대미술제를 소개하는 신문기사(1978년9월26일자 5면, 한국일보, 정훈기자)에서 “지방화단에 ‘실험’ 열기-4회 대구현대미술제의 ‘회화한 전시’로프”라는 제목으로 박현기와 이강소의 작품을 함께 기술한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대구현대미술제 관련 신문기사들을 찾아서 조사하였지만, 이 기사의 세부 기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아무튼 기사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다. “(생략)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제3부 비디오·필름은 입체·평면을 보고난 후인자 비교적 충격이 덜했다. 박현기의 작품 비디오·필름은 물속에서 무언가 어른거린다는 느낌이다. 컬러TV로 비디오를 통해 방영된 이 작품은 10여분을 계속 반복, 지리한 감도 들었다. 취재 기자가 재미있다(?)고 느껴진 작품은 유리창 안에서 노란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밖에서 촬영, 페인트칠을 하는 사람이 노랑색 속으로 사라져 버린 장면이다.(생략)” 이 기사는 국내 최초로 비디오아트 전시가 개최되었다는 행사 개요만을 보도한 다른 언론기사와는 다르게 당시 전시작품의 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귀중한 미술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1978년 당시 대구현대미술제에서 **이현재**李鉉宰 Lee Hyunjae, 1947~, 대구생, 건국대(가)가 출품한 비디오영상과 제4회 대구현대미술제를 소개하는 1978년9월30일자 KBS방송 영상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박현기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현재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KBS대구방송에 근무하면서 K스튜디오에서의 비디오촬영을 위해 영상장비와 촬영인원을 지원하기도 했던 이현재는, K스튜디오에서 병에 든 검은 색 음료를 테이블 위에 놓인 세 개의 컵에 나누어 따르고 다시 원래의 병으로 옮겨 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음료의 양이 줄어들어 소멸되는 상황을 퍼포먼스 형식의 행위로 담은 비디오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을 제4회 대구현대미술제 전시에 출품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 준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비디오영상을 선보일 수 없게 된 사정이다. 아마도 이현재의 비디오영상은 다른 전시나 연구 기획에 꼭 소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기억공작소 전시는 우리시대 예술의 다양한 경향들 중에서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의 태도”와 맥이 닿을 것으로 짐작되는 36년 전의 비디오아트작업을 소개하고, 그들 예술가의 남다른 “태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기억하고 재생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Kim Kulim 김구림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III
걸레 Wiping Cloth

2014. 08. 27 Wed ~ 11. 02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III「김구림」展

'기억 공작소' 작업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Exhibition View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걸레 1973」

1973년 봄, 대구백화점 전시실, 한국현대미술전이 열리는 전시실에는 '김구림'이라는 작가 이름표만 바닥에 붙어있지 그의 작품은 볼 수 없었다. 최병소(崔秉昭, 1943생)는 기억공작소 '비디오아티스트1978' 작가 워크숍에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때, 그 작업은 파격적이고 실험적이었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술'인거죠. 전시실에서 우연히 만난 황현욱(黃鉉旭, 1948생, 작고)으로부터 '바닥을 마른 천으로 닦고, 그 흔적인 빈 바닥을 전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그 작업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김구림과 인터뷰에 의하면 그 당시의 작업이 '걸레'였으며, 비슷한 형태의 설치 작업을 같은 해 일본의 시로따 화랑에서도 발표했다고 한다. 시로따 화랑의 전시실 바닥이 시멘트와 자갈 쇠석을 섞어서 만든 인조 대리석이어서 청소가 쉽지 않았고, 거무스름하게 때가 낀 바닥의 일부를 작가가 흰 천으로 계속해서 닦았더니 하얀 천이 시커멓게 변하고 닦은 바닥 부분은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드러났으며, 닦는 행위 이후에 걸레를 그 자리에 그냥 놔 둔 작업이라고 한다.

그 후 41년의 세월이 흐른 후, 새로운 장소에서 재현되는 동일한 개념의 '걸레Wiping Cloth' 작업은 바닥에 묻어있던 이물질과 먼지가 닦이면서 바



음과 양 Yin and Yang, single channel, digital video, 9min 4sec, 2012



1/24초의 의미 The Meaning of 1/24 Second, single channel, digital video, 8min 51sec, 1969

닥이 처음의 모습대로 깨끗해지고, 깨끗하던 흰 천이 더러운 걸레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사건 전후의 현재와 과거를 반전시켜 시간의 현재성을 주목하고, 사물의 본질을 보려는 작가행위와 '음과 양'의 세계 운동을 가시화 한다.

「전위와 실험의 태도, 기억하는」

김구림은 1969년을 기점으로 파격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킨 미술가로 기억된다.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방식과 파격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던 그의 '태도'는 평면, 설치, 영상,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무대미술, 공연연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선구로 활동했으며, 기성(既成)을 끊임없이 해체해온 한국 아방가르드, 즉 전위와 실험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해 그는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와 최초의 메일아트 '매스미디어의 유품'을 발표했으며, '앵글 562'를 연출하고 '바디페인팅'을 발표했다. 또 다음해인 1970년에는 한국 최초의 대지예술인 '현상에서 흔적으로'를 발표하였으며, 1970년에 결성한 제4집단의 동령, 아방가르드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70~80년대의 개념미술을 거쳐 최근에는 음양사상을 근간으로 다양한 세계의 조화와 통합을 모색하는 작업을 펼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구림의 전위와 실험의 태도가 느껴지는 '걸레Wiping Cloth'(1973)를 재현한 설치작업 1점을 중심으로, 16mm필름으로 제작한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1969)와 비슷한 구성 방식의 최근 비디오 작업 '음과 양Yin and Yang'(2012)을 싱글채널 영상으로 선보인다. 또한 한국 실험미술과 작가의 태도를 기억할 수 있는 주요 대표작 80점의 스틸 이미지와 작가 인터뷰를 비디오 영상 형식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바닥에 설치한 '걸레'작업은 김구림의 작업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작가의 60~70년대 작업은 "회화

가 아닌 회화, 즉 그리지 않은 회화를 만들어 보려는 새로움을 향한 실험'이었으며, 그가 통령으로 있었던 제4집단의 선언문에 포함된 "무체사상-형태가 없기에 자유롭고, 우주를 아우르기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상"과 후기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음과 양Yin and Yang'을 연결하는 실험 태도의 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작업으로 '걸레'작업의 상징성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 태도는 이미 죽은 기성 언어보다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생을 사는 현재의 사물과 이미지를 통하여 동시대의 삶, 본능적 상상력, 잃어버린 감수성, 진정한 인간 생의 본질을 새롭게 기술해가는 기억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소환과 동시대적 재구성으로서 이번 전시 '걸레'는 그 같은 작가의 기술 기억이고, 원래의 모습을 찾고 기억하려는 '음과 양'의 운동일 것이며, 또 다른 '낯선 기억'으로서 우리를 미래의 어떤 순간과도 이어지는 우리들 태도의 환기 장치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Kwon, O bong 권오봉

개관10주년 기념 2014 기억공작소Ⅳ
권오봉展

2014. 11. 19 Wed ~ 2015. 01. 18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Ⅳ「권오봉」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나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하나, 선과 무의미

권오봉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캔버스 위에 거침없이 질주하듯 그은 선線들로 연결된다. 2005년 시공갤러리 전시 서문에 남긴 전회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선은 “구체적 대상을 증발시킨 순수 가능태로의 환원을 말하는” 외침이고, 그의 행위는 “작가를 지워버리는”, “이미지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해체하는” 격렬한 파괴행위이며, 자유에 동승하는 순수유희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기존의 가치에 대한 거부와 부정의 실천이라고 이해한다면, 왜 권오봉은 회화라는 고전적인 가치의 무의미를 회화라는 방식 안에서 대응하려는 것일까?

둘, 분비물

권오봉의 작업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다른 해석 기반에서 살펴보더라도 ‘신체행위’라는 플랫폼에서 서로 해후邂逅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체행위’를 떠올리면 얼마 전의 단호한 진술이 기억난다. 이강소는 “비디오아티스트 1978” 전시 인터뷰에서 머리맡만 하는 논리 중심의 서구 개념미술과 구별되는 자신과 동료들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신체행위와 정신과 세계를 유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상태의 작업태도를 ‘신체적인 예술’이라 표현한 적이 있다. 이처럼 ‘신체행위’는 동시대 미술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할 요소이며, 권오봉의 신체행위는 전방위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듯 격렬하고, 마치 ‘행위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 일치의 그리움을 토로하듯이 열정적이다.

이번 기억공작소 전시는 특정 장소의 사태를 정교하게 옮겨 그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온통 물감 범벅이 된 이젤과 테이블, 간의의자, 물감을 개는 그릇과 그것들을 씻던 개수대와 그 위의 선반, 넓은 캔버스면에 물감을 펴 바를 때 사용하는 밀대와 막대걸레, 캔버스 표면의 물감을 긁는 갈퀴, 그리고 바닥에는 오랜 세월동안 흐르고 뿌려지고 흩어졌던 물감 자국들이 묵혀놓은 듯 쌓여있다. 권오봉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정병국은 이 전시 사태를 한마디로 ‘분비물’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했다. 분비물分泌物, secretion...? 분비물은 배설물과는 다르게 세포가 섭취한 외부물질을 대사하여 밖으로 방출하는 생체에 유용한 물질이다. 살아있는 식물은 토양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각종 유기물을 분비하며, 천연 향료인 사향麝香, musk과 조개의 체내에서 생기는 진주眞珠, pearl가 대표적인 분비물 성형체이다. 곤충의 변태과정에서 생기는 고치cocoon도 분비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생존하려는 목적으로 생성된다. 이런 면에서 권오봉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물을 ‘분비물’이라 불러도 좋지 않을까?

셋, 그 태도

권오봉은 자신이 회회繪畫, painting에 적극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속사



Exhibition View

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평면 위에 색을 섞고 윤곽을 구획하는 회화의 심지, 즉 회화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유사성과 심증을 좇아 끊임없이 화면을 긁고 지우고 긁은 것이 아닐까? 그가 내뱉는 ‘무의미’는 자신이 찾고 있는 그것이 자신을 빌어서 세상에 나가기에 더 이상의 의미를 보태지 말아달라는 겸손이며,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원초의 신체행위와 그 숨은 뜻을 눈치채는 유희를 감추려는 심사가 아닐까싶다.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의 태도’들을 소개하려는 이 전시에 작가는 보이지 않는다. 변태를 향한 고치를 닮은 이번 사태에 관객이 몰입하면서, 과연 작가의 그 태도를 감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의 힘

힘을 발휘하고 성취한다는 쪽에 두고서 힘과 무력함을 나눌 때 우리의 힘에 대한 이해는 아직 편협하고 웅졸하기만 하다. 승리의 쾌재가 패배의 두려움을 모면했다는 안도감과 다를 바 없다면 힘의 확인 과정은 무력함의 은폐 과정과 다르지 않으리라. 그런데 자신의 힘에 속거나 배반당한 이는 많아도 자신의 무력함에 속거나 배반당한 이는 없으니...

누구나 무력함보다는 힘을 원한다. 아무도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진실로 열리는 창이니, 누가 알리오, 인간은 힘을 원하는 가운데 진실로 열리는 창을 닫고 있을는지, 아무도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는 까닭은 바로 무력감은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폭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력감에 의한 폭력이며,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폭력이다. 무력감에 의한 폭력은 자신을 제물로 가해지는 반면, 힘에 의한 폭력은 타자를 제물로 하여 가해진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줄 모르는 자일수록 타자에게 폭력을 가하기 마련이다.

그의 작업 태도는 이미 껌질이 된 기성 언어를 끊임없이 거부하려는 혼신의 신체행위를 통하여 회화의 본성, 자유와 순수유희, 진정한 인간 생의 본질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기술한다. 삶의 소환과 동시대적 해석으로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업과 태도에 대한 기억이고, 또 다른 ‘낯선 기억’으로서 미래의 어떤 순간과 이어질 우리들 태도의 환기구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무력함에 사로잡혀 보지 아니하면 실로 무엇이 힘이 되어주는지 알지 못하며 또 실로 힘이 되어 주는 것을 찾지도 않는다.

무력함은 힘이 뜻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요, 또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힘일수록 뜻에 미치지 못한다. 무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엄습해오는 것이리라.

꿈은 뜻은 있으나 뜻대로 할 수 없음에 따라 피어나는 것이기에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피어날 뿐이다. 예술은 인간의 꿈을 통해 열리는 영역이기에 오직 무력한 이들과만 어울릴 수 있는 영역이다. 꿈은 무력한 이들과만 특권이다.

“자연은 언제나 같은 자연이지만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부터 남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세잔느)

권오봉

Yoo, Geun taek 유근택

2015기억공작소 I
A Passage-창문 밖을 나선 풍경

2015. 02. 25 Wed ~ 04. 12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 「유근택」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상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나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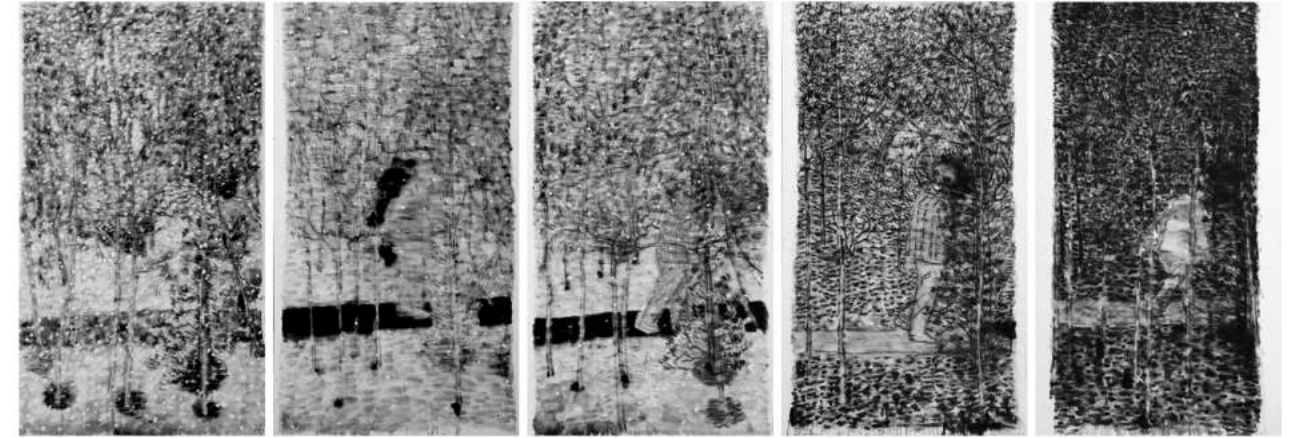
「낯선 길, 1999」
무심히, 창문 밖 오솔길을 바라본다. 일정한 크기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간혹 숲 사이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 보인다. 순간 한 호흡으로 다시 보면, 자전거를 타고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아이, 유모차를 밀면서 아이를 어르는 할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츠리며 걷는 아저씨, 운동복 차림으로 뛰어가는 남자, 시장에 다녀오는 아주머니의 모습들을 실제로 알아차리게 된다. 내가 알아본 낯선 풍경이 창밖을 나선 것이다. 그냥 친숙하게 지나쳐왔던 그 길과 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소리와 흔적이 낯설게 살아 숨쉬는 사건이 되고, 나는 사계절이 바뀌도록 그 창밖을 관찰하고 스케치하면

길 혹은 연기 A Passage or Wisp of Smoke
147x187cm black ink and powder of white and gouache on Koren paper,1999



서 낯설고 놀랄만한 현실 풍경을 나의 회화 언어로 옮기기 시작했다.

1999년, 당시 흥대 앞에 있던 자신과 아내의 작업실, 그리고 살림집을 합치면서 일산에 조금 넓은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하고 생활과 작업을 함께 하던 작가 유근택은 자신과 '창밖을 나선 풍경(The Scenery Outside Window)' 연작이 만나게 되는 일상의 한 지점, '낯선 길'을 이렇게 나서게 된다. 이 일은 친숙한 일상으로부터 만나는 하나의 새로운 '사건' 현장을 자신의 화면 위에 옮기고, 그 장면을 정지하거나 움직이도록 화면에 고착시키는 시간성을 실질적인 역사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리얼리티의 궁극으로 기대하는 출발점이다. 그의 화면에서 시간성은 운동성과 함께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듯이 화면의 공간에 매력적인 현실감을 주는 울림이다. 이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쿼크 입자의 운동성처럼 풍경을 구성하는 대기와 낱알의 나뭇잎이 서로 스치며 흔들리거나, 풍경 속 등장인물이 움직이는 동작으로, 때로는 흐려지거나 재생된 기억들의 시각적 중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과 운동의 표현은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인의 하늘 길을 열기 위하여 소지품을 불태우는 장면을 그린 1999년 작 '길, 혹은 연기(A Passage, or a Wisp of Smoke)'에서도 역사의 흐름과 삶, 연기와 비가시적인 것의 움직임으로 포착되기도 한다.



창밖을 나선 풍경 The Scenery Outside Window, 78x149cm(1piece), 15ea, Black-ink and gofun on Korean paper, 1999 中 5ea

「眞, 善, 美」
지금, 전시장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응시하는 장면들은 '창밖을 나선 풍경'이다. 좌에서 우로 장면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면 순차적으로 시간성과 운동성을 투사하는 14개의 장면들이 바닥에 반사된 역상의 이미지와 함께 나를 감싸는 숲인 듯 펼쳐져 순식간에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 장면들은 어느 한 순간의 일상에 이어 삶의 실제 역사를 상상하게도 하지만, 한결같은 진동은 멀리 동양예술의 시공간적 감각의 축수를 깨워 일으키는 알 수 없는 힘을 동반하고 시간의 층위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나에게 낯선 매력으로 다가온다. 반대편 벽면에는 조금 전의 장면처럼 일상 풍경을 옮긴 또 하나의 대표작 '길, 혹은 연기'가 자리하고 있다. 열은 푸른색 하늘과 구름, 산과 나무들 사이로 길을 잇고, 그 위에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의 열기를 옮긴 이 장면 역시 현장의 실재감 있는 진동과 이해하기 어려운 기승 먹먹한 기운을 전해주는 낯선 매력의 통로이다.
관객인 나는 시간을 지나는 통로, '낯선 길'로 이동해서 십여 년 전 회가가 나서서 바라보던 '창밖의 풍경'과 '길, 혹은 연기'를 다시 보고 있다. 우리가 이번 전시에서 대면할 수 있는, 빠르고 짧은 붓질로 종이를 스치는 속도감과 운동감, 문질러져 불확실해진 형태의 진동과 전율, 거칠게 이겨진 종이표면 질감의 촉각과 스며들거나 멈춘 얼룩의 감성적 깊이감들은 작가의 분능적인 작화 태도로 인해 낯선 철학적 장면 상황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작가노트

나의 작업은 간혹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사물에 대한 궁금증으로 부터 시작 된다.
그 궁금증, 혹은 '모른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각은 내 그림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모필 소묘를 통하여 그 대상을 읽어 내리기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틈새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경험과 기억을 통해 가지나 대상, 상황에 대응하는 상태를 '태도'라 한다면, 일상을 낯설게 말하는 유근택의 태도는 자신의 개인사를 꿰뚫는 자화상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진眞: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였고, 예술이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그 절실한 현장 호흡의 경이로움을 담는 것이어야 하겠다는 '선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천하여, 흔히 관념이나 이상화의 경향에 치우치기 쉬운 전통수묵화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삶의 리얼리티와 전통 수묵화의 매개 가능성을 실험하는 탁월한 '미美'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관념적 전통의 회화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현실 대상의 면면을 그대로 살린 '진경', 어떤 설명이나 논리에 앞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리얼리티이고, 일상 세계를 바라보는 현장성과 결합하는 신체적 행위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기억, 현실, 상상적 스펙트럼 속에서 유근택만의 회화로 남게 된다.

작가의 'A Passage-창문 밖을 나선 풍경'은 역사, 인간, 삶, 사건, 사물의 상황을 다루는 그의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본연'을 드러내는 담담하고 낯선 '태도'의 회화이며, 너무나 친숙한 '일상'으로부터 다시 기억하는 '낯선 길'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틈새에 대한 발견은 결국 예술가가 삶에, 시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 무섭게도 일상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시간과 호흡들에 대한 환기와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증폭시키고 싶은 것이다.

2015년, 유근택

Kwun, Sun cheol 권순철

2015기억공작소II
얼굴 Face

2015. 04. 24 Fri ~ 06. 21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II「권순철」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나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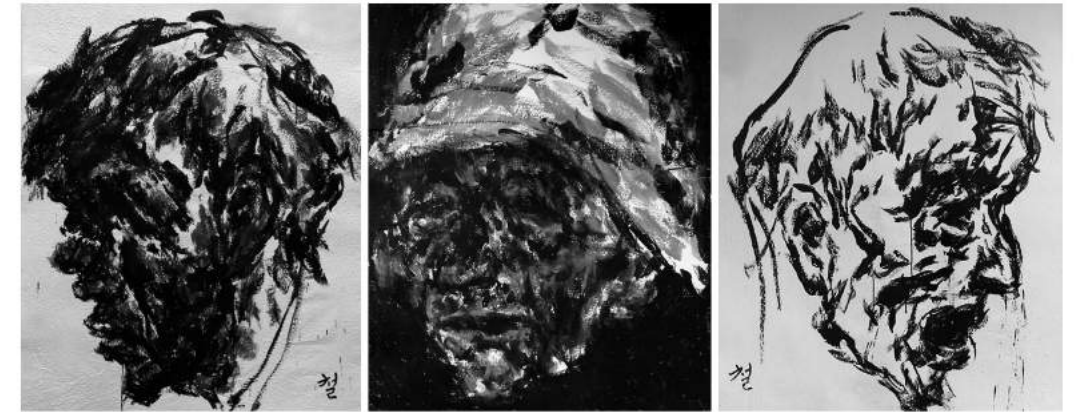
낯_얼, 162x130cm, oil on canvas, 2003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33인의 얼굴」

권순철의 대표 작품에 대해 보통, 어두운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물감이 두텁게 쌓여 만들어진 큰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이번에 전시되는 얼굴들은 조금 다른 면모의 공간적 긴장감과 다소 활달한 붓질의 생경한 두려움이 어려 있어 좀 더 넓은 작가의 스펙트럼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3개 벽면 가득히 채워진 한지 드로잉 속, 얼굴 이미지는 주인공 각자가 짊어준 생존의 시간과 작가의 기억 성찰 이후의 윤리성, 또 초월적 송고미로 인도될 수 있는 작가의 오래된 아이콘의 또 다른 버전이다.

지금까지 발표해온 권순철의 주요 작업 이미지 스틸을 보여주는 디지털 모니터를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130x162cm 크기의 두터운 한지 드로잉 33점은 높이 5m 흰색 전시 공간에 33인의 개별 얼굴들이 서로 의지하며 하나의 큰 바탕을 형성하는 강인하고 숭고한 에너지의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 울림의 체험으로 열리는 새로운 장소는 작가의 '마음'과 신체 '행위'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시간 층위의 재질감들을 기록하고 지나온 기억의 구획들을 펼쳐냄으로써 화면의 바탕, 신체 행위, 작가의 숨결 등이 일체화된 몰입 환경으로 작용한다. 아마도 이 몰입 환경은 '한국성' 탐구에 관한 작가의 직관이 조형해내는 '얼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술평론가 김윤수는 권순철이 그려온 '얼굴'에 대하여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아온 한국의 노인네들 얼굴이고 그 표정이다. 늙고 주름진 얼굴, 순박한 혹은 근엄한 얼굴, 기나긴 인고의 노동이 새겨진 얼굴, 수심에 지친 표정 등,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이 땅의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의 진지함과 엄숙함이 있다."라고 했다. 그 얼굴들은 살아있는 약자로서 거친 세상을 힘겹게 생존하는 보통 인간의 존재감과 더불어 동의할 수 없는 뭔가에



얼굴 Face, 162x130cm(33ea 중 일부), 한지 위에 먹, 1997

저항하면서도 처연함을 엿보이는 인간 관계적 윤리성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송고미라는 초월적 차원으로 열려있기도 하다.

「신체 행위, 1919로부터」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서민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캔버스 바탕에 물감으로 두텁게 그리는 권순철의 지속적 행위에서 작가의 태도(態度, attitude)를 짐작할 수 있는데, 태도로서 이 신체 행위는 작가 내면과 외부 세계가 관계하는 소통의 매개이며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체(要體)로서 주목된다. 즉, 권순철의 태도는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생존의 기록으로서 지속되는 신체 행위에 핵심이 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결과 흔적을 남기게 되고, 심지어 그가 프랑스에서 활동하게 되는 1988년 이후에도 한국에서 그랬던 그림과 비슷한 한국인의 얼굴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1919년 3월1일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의 '생존' 울림을 마음에 두고, 그 바탕에 1970~80년대 작가가 거리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애잔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뎌낸 서민들의 '생존' 울림으로 겹쳐 기록하는 자신의 신체 행위 흔적들을 선보인다. 그리고 이 드로잉 공간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검은색 바탕 위에 불편하게

무릎을 꿇은 채로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며 허리를 세운 자세의 인체 그림을 소개한다. 하늘로 향한 영혼을 탐구하는 작가의 신체 행위를 기록한 것일까? 두텁게 바른 다양한 물감 색상과 재질감이 돋보이는 이 회화는 33점의 '얼굴'이 지닌 생경한 두려움에 대응하듯 평안하고 조용한 무게감을 만들며, '얼굴'이 곧 '영혼', '넋'일 수 있는 동일성을 암시한다. 짐작컨대 마주보는 이 두 작업의 관계는 우리 개인의 삶과 지난 역사, 동시대 시간성에 대한 질문의 기록과 축적 그리고 현실 존재의 인간과 영혼의 관계 기억에 대한 환기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제껏 작가의 관심사가 발전시켜 온 '얼굴', '산', '넋' 작업들은 한국전쟁(1950-53)의 기억과 그 이전 일제 강점기(1910-45)의 기억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파고든 비애의 한층을 호출하는 신체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얼굴'과 '넋'은 작가의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생존'을 기억하는 담담한 미술 '태도'이며, 너무나 익숙해진 관계에 대응하는 또 다른 '낯선 기억'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환기시키고 있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작가노트

오늘의 작가라면 과거나 현재도 깊이 생각해야 하나 또한 미래의 인류생활이나 문화의 향방에 대해 이렇게 될 것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예술 정신을 통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피 흘리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 아래 인류의 고통을 형상화해야 할 것이다. 작가들이나 평론자들, 대중들이 치열하면서도 부드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다.(1982. 11. <공간>)

한국에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들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을 전하지요. 노동과 고통, 시간은 영혼의 아름다움

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보다 더욱 강한 그 무엇입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나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바로 이 아름다움의 수호자들입니다. 영혼이 맑은,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도시에선 미국식으로 지구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작가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지요.(2004. 9. 파리, 프랑스 소와즈 모넵과 대담 중에서)

권순철

Lee, Kyo jun 이교준

2015기억공작소III
metal & tableau

기억 공작소III「이교준」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Untitled, Color inlaid on Aluminium plate, 120x60cm, 2002

2015. 07. 03 Fri ~ 08. 23 Sun
4전시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Metal & Tableau」

'금속'과 '타블로'에 대한 주목은 완전한 평면회화의 지향일 것이다. 전시장 벽면에 일렬로 자리 잡은 직사각형의 '금속판'들은 관람객의 시선이 맞닿는 높이에서 전시공간의 내부를 분할하고 점유하는 평면 판재 그림, '타블로'로 존재한다. 전시의 전반적인 인상은 이성적인 절제와 엄격함이 주도하는 논리적 평면 혹은 섬세하고 미묘한 감수성으로 차갑게 다듬어진 금속 오브제와의 대면 사태이다. 눈앞의 대상에 좀 더 다가가 살펴보면, 그 평면 오브제는 납이나 알루미늄 금속이며, 화판 표면에 안료를 칠하듯이 지지체 위에 금속판을 덧입히거나, 금속판 그대로를 지지체처럼 사용하는 평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나뭇잎처럼 얇게 화판에 부착한 납은 금속 중에서도 강도가 무른 성질과 어두운 청회색의 색감으로 인하여 미묘하고 감성적인 심리 변화들을 떠올리며, 은색 알루미늄 판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균질적인 표면 질감으로 엄격성을 신뢰하게 한다. 이들은 우선, 논리적인 평면 위에 이미 실현된 이성의 욕망과 새롭게 생성되는 감성의 욕망 사이에 이중적인 모순의 긴장을 선보인다. 그리고 지지체의 표면에 질료 층이 만나는 사건으로서 타블로라는 논리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질료를 지지체와 밀착시키는 상태로 평면성을 강화한다. 작가의 최근 작업들이 회화의 지지체와 그 표면 위 질료 층 사이의 공간 스펙트럼을 확대하려는 경향인데 비하여, 이번 전시의 주요 출품작인 1999



Exhibition View

99년에서 2006년 사이 작업들의 특징은 지지체와 질료의 밀착과 일체화라 할 수 있다.

이들 밀착된 금속판은 평면회화의 논리적인 설계와 선택된 오브제로서 타블로의 영역에 가담한다. 이 오브제는 어떠한 서술보다 표면층과 질료의 결합 형식 문제를 시각화하며, 질료의 밀도감을 강화하여 완전을 향하는 평면 타블로로 상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전시 출품작의 표면에서 규칙적으로 그려진 가로, 세로 직선을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분할된 면과 면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이 생성되거나, 기계적으로 직선을 그어 화면을 분할하는 양상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선은 사물의 형태를 지각하게 하는 단위요소이며, 사각형의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고, 그 반을 다시 분할하고, 또 다시 반을 분할하는 자기 참조적인 방법론으로 화면 내부의 논리성을 쫓는 작업 과정의 필수 도구이다. 작가의 '분할'은 타블로 구조의 논리를 현실로 이행하는 기본적인 작업 태도와 더불어 작가의 중요한 작업 과정이고, 타블로의 논리적 구현 외에 작업에 관한 작가 자신의 의지를 배제시키면서도 '신체행위'를 중요시하는 작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금속과 타블로'에 관한 구상은 1987년 윤갤러리 전시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시연했다. 철판을 전시장 벽에 기대어 세우고 폐기름을 채운 드럼통을 그 앞에 설치한 'Untitled' 작업은 무겁고 견고한 평면 철판을 이용한 공간의 '분할'과 '균형'에 대한 작가의 실험이었다. 이어서 1997년부터

2001년 갤러리M 개인전시 발표 전후에는 알루미늄과 납을 사용하는 타블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시도는 모더니즘의 진화적 형식 맥락에 연계하면서도 공간의 '분할' 또는 '균형'을 작가 신체 행위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타블로의 개념을 작가 자신의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작업 태도에 견주어 기억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즉, 작가는 절제와 침묵, 배제의 엄격성과 분할의 신체행위를 통해 타블로의 논리를 이행하고자 한다.

주목해야할 이교준의 태도는 타블로의 평면성을 꿰뚫는 논리적 호흡을 지속하면서 평면회화를 탐구하고, 환영보다는 실물 오브제의 호흡을 담은 신체 행위를 통하여 회화의 지평을 확장시키며, 리얼리티와 순수 평면화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탁월성의 제시이다. 그래서 작가의 타블로는 완벽할 정도로 정돈된 평면과 순수한 금속 질료를 선보이면서 타블로 체계의 논리, 자율성, 충만한 밀도감, 분할과 균형, 이성과 감성의 긴장이 있는 평면 회화를 기억하도록 한다. 이 기억에 대한 '바라보기'는 새롭고 분명해질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기억공작소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Ahn, Soo jin 안수진

2015기억공작소Ⅳ
그림자

2015. 09. 04 Fri ~ 11. 01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Ⅳ「안수진」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낯선 움직임」

하나, 전시장 입구 좌측 벽면에 두 개의 붉은 색 나무문이 문틀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두 개의 문중에서 어느 한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 몇 초 뒤에 다른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힌다. 가끔은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가 확실히 놀라며 재빨리 닫히기도 하고,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다른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한 듯 다시 문이 활짝 열리고 닫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예민한 심리적 감수성을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한 움직임으로 담아

낸 이 '2doors'는 개인적인 삶의 공간과 폐쇄적인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이 이웃한 옆집을 대면하는 현장의 심리적 시간과 주변을 더 인식하는 강박적 순간을 시적으로 함축한 작업이다.

둘, 그 우측 옆, 전시장 바닥에는 수평과 수직의 기준을 과시적으로 적용한 평행봉 형태의 낯선 기구와 그 위로 축수를 가진 제어장치 문치가 설새 없이 구르는 ‘관성의 평균대平均臺’ 작업이 있다. 앞뒤 구르기를 반복하고 어느 순간 정적인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가, 긴 축수를 움직여 무게 중심을 바꾸는 자체 반동의 도움닫기 동작으로 평형을 깨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구르기를 시작한다. 이 평균대는 삶의 균형과 변화의 순간을 위해 애쓰는 인간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강제된 평등과 균형을 깨고 변화하려는 찰나의 물리적, 심리적 시간에 관한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있다.

셋, 시선의 정면 벽에는 자기 신장의 세배가 넘는 크기의 짐을 들고 걷는 사람을 형상화한 ‘작업자’가 있다. 이 작업자가 옮기는 높고 큰 짐은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 약 4도정도 앞뒤로 번갈아가며 기울어지기를 반복하는데, 들고 있는 짐이 자신의 뒤편으로 기울어지면 작업자는 뒷걸음질을 하고, 짐의 무게가 앞으로 기울면 작업자는 앞걸음을 걷게 된다. 현실 삶 속에서의 균형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넘어질 듯 말듯 아슬아슬한 찰나의 시간에 대하여 관람자도 자신의 심정인양 일체적 상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한 작업이다.

넷, 또, 우측 벽면에 밀착된 두 개의 판을 겹친 조각 작업 ‘시간의 변주-쌍둥이’는 관람자의 시선 반대편 벽에 설치된 조금 더 큰 ‘시간의 변주’와는 크기와 개수가 다르지만 동일한 개념의 키네틱아트이다. 실제로는 상하로 설치된 2개의 사각형 검은 그림자 판이 상하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관람자의 눈에는 검은 그림자 위에 같은 크기로 덧씌워진, 벽색과 동일한 흰색 판이 그림자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혹은 관람자의 시선방향이 달라지는 듯 착시를 일으킨다. 이동하는 주변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듯이 보이는 대상의 착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관람자의 고정된 위치가 움직이듯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는 흰색 판 아래의 변화하는 그림자 두께의 움직임을 통해 착시와 공간차원이 변화하는 시간 그물망 층의 중첩 구조를 설명한다.

다섯, 그 옆 벽면에는 철선으로 만든 지름60센티미터 정도의 원형 링 두개를 일부분 서로 겹치고, 그 사이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한 ‘교집합 다리’가 있다. 모니터에는 교량과 교량 위를 건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벽면에 설치한 두 개의 원이 겹쳐진 교집합의 위치와 교묘히 일치된 영상 속 교량의 중간지점에는 다른 시공간 차원이 있는 듯 좌우의 어느 방향에서든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거나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 움직임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라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한 교집합 그룹을 선택하는 현실 삶의 순간적인 시간들을 다룬다.

좌로부터

1. 2 doors, 1050×290×75mm, 나무, 모터, 전자제어장치 등, 2015
- 2.관성의 평균대 Blance beam of inrtia, 2000×1400×300mm, 나무, 모터, 스테인리스, 수평계, 제어장치, 2009
- 3.작업자 the Worker, 320×2100×60mm, 나무, 모터, 전자제어장치, 동판, 2015
- 4.시간의 변주-쌍둥이 Variations of the time-twins, 300×670×45mm, 스테인리스스틸, 철, 스텝모터, 전자제어장치 등, 2013
- 5.교집합 다리 Intersection of Bridge, 740×400×180mm, LCD모니터, 스테인리스스틸, 2004



「시간을 보는 조각」

안수진의 키네틱 아트는 우리가 대면한 삶의 현장성 있는 서사叙事 구조를 보여주는 시공간적 장치이다. 전시 공간에 구축한 5개의 시작裝置 장치들은 최근 그가 주목하고 있는 조각에서의 ‘시간’을 ‘움직임’과 함께 구성한, 우리의 감수성을 압도할 정도로 예민하면서도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힘의 이미지 구조에 관한 것이다. 시간과 무관해 보이는 3차원 공간의 입체를 다루는 조각에서, 작가가 작업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는 ‘시간’은 움직임이라는 물리적 운동을 순열 속의 작동 원리로 해석한 정교한 이미지이며, 조각에 덧입혀지는 살아있는 현장 현실의 ‘시간’이고, 조각을 통해 시각화하려했던 순수한 ‘시간’이다. 그것은 키네틱 조각의 ‘움직임’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시간 그물망들의 중첩으로 인식하는 ‘시간’의 이해이기도하다. 이번 기억공작소의 ‘낯설게 말하

작가노트

오랜 시간 ‘움직임의 시학詩學’ 또는 ‘시작裝置’ 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장치는 키네틱 조각이지만 일반적인 키네틱 작품들의 시지각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와 대면한 세계 또는 시스템에 대한 편안함 속에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분명히 갈등적 요소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어떤 장치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한히 소급되고 확장되는 세계이며, 본인 또한 거대한 장치 속으로 빠져 들며 피아斐斐를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서사구조를 포기하고, 파편화된 삶, 끊임없이 변경되고 재구성되고 재의미화 되는 삶이 주는 가능성을 생각 했습니다. 그 즈음 다시 복원시킨 것은 ‘시간’이라는 추상관념이었습니다. 지난 본인의 졸작 ‘평면의 시간’(2005)에서 시간을 인지하는 것은 두께면(Thickness)을 인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그것을 노골화 시킨 것입니다.

공간을 다루는 조각가에게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대로 영속성을 갖는 조각은 시간에 대한 고찰이 필요치 않은 것이니 말입니다. 플루서는 ‘조각은 시간성 없는 입체’라고 설명하지요. 그러나 조각은 메두사를 대면한 찰나가 아닌 것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는 움직임을 시간의 중첩으로 인식하는 작가의 ‘태도’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잇을 정도로 대상과 관람자가 물입하는 일체적 상황의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중첩되어 그 두께로서의 시간을 인지하는 작가의 낯선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낯선 키네틱 아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기억되는 것이다.

작가의 이번 전시 ‘그림자’는 시간을 조각의 움직임에 반영함으로써 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세계와 인간, 역사, 삶, 사건의 현실 상황을 포함하는 그의 다른 조각 작업과 마찬가지로 근원적 ‘구조’를 밝히려는 ‘태도’이며, 너무나 친숙한 ‘일상’의 현실로부터 다시 기억하는 낯선 ‘움직임’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볼륨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 좌표를 부여받고 만들어지고 놓인 제 역할을 충분히 할 따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놓여진, 또는 만들어진 좌표와 함께 착점點點과 중점點點이 존재하는 시간의 그물망 속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판(layer)들이 중첩된 것으로 봅니다.

벽에 납작하게 은폐된 형상은 그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자신의 존재를 언뜻 보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림자의 이동이 원근법을 변화시켜 관람자의 절대좌표를 또한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표면만을 대면하는 것, 주변을 움직여 주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 주체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하는 것, 실체를 뺀 움직임만으로 현실세계를 은유하는 것, 관람자의 움직이는 감각을 유발시켜 찰나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림자를 최대한 강조하여 주체를 보지 않게 하는 것, 3차원과 2차원을 넘나드는 것 등 그간 기계 시퀀스가 서사구조에 맞게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현재의 작품들은 보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적세계를 지향합니다.

안수진

An, Jung ju 안정주

2015기억공작소V
Lip-sync

2015. 11. 13 Fri ~ 12. 27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V「안정주」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소리'

전시장 입구 벽에 걸린 사진 1점, 일부 형태들을 오려낸 브뤼셀의 독립문 기념사진이다. 어린 시절의 종이인형 오리기가 떠오르는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쉽게 읽기는 어렵다. 오려낸 공간을 채우는 할로겐 빛의 그림자가 무심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오려낸 모양이 자동차와 나무, 깃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소리를 내는 것들의 이미지이고, 전시장 안쪽에는 비디오 영상 속 한 장면의 사진을 같은 의도로 오려낸 작업이 3점 더 있다는 사실을 조금 후에야 알게 된다.

안쪽 벽면의 영상에는, 담배를 피우려고 베란다에 나온 흰 셔츠 차림 남자의 움직임이 보인다. 붉은색 벽을 배경으로 담배를 피우는 화면 속 인물의 호흡과 미세한 움직임에 덧씌워진 소리는 '만지작 만지작', '피~후', '물끄러~', '풀석' 등 상황에 잘 일치하지만, 원래 현실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들이다. 조금은 어설피고 웃음이 새나오는 이 한국말 립싱크는 무심한 일상 행위들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묘한 매력이 있다. 2007년 핀란드에서 제작한 이 'Smoking'과 'Fishing', 'Crossing' 등 3편은 2분30초 정도 간격으로 연속하여 반복 재생된다.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는 이미지에 결합시킨 립싱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과 주변 광경을 담은 이미지를 립싱크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지에 가려 보지 못했던 소리의 존재를 눈여겨보게 된다.

뒤돌아 보이는 반대편 벽에는 가운데 모니터와 좌우로 3점의 사진이 전시되어있다. 모니터에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유럽의 유명 관광지과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그곳은 의미심장한 역사 현장의 기념비적인 건축물, '문'이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지나치는 사람의 행동과 주변 움직임의 소리는 유쾌 발랄, 생기 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소리, 단체 여행자의 감탄사, 카메라 셔터 소리, 바쁜 발걸음 소리, 깃발의 무심한 펄럭임과 나뭇잎의 마찰 소리 등은 가볍게 스치는 일상 풍경의 소리들이며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이다. 베를린, 브뤼셀, 마드리드, 파리, 인스브루크, 로마 등지의 역사적 건축물을 각각 촬영한 6편의 영상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며, 작가는 이 비디오 영상에서 그 장소 원래의 현장 소리를 모두 제거하고, 촬영한 지역의 국가 출신 참여자들의 언어와 목소리로 화면 속의 움직이는 대상을 묘사하는 립싱크로 'Harmony'를 보여준다. 2007년보다 좀 더 진전된 2008년의 립싱크 'Harmony' 연작은 소리에 대한 주목과 함께 각 민족별 언어습관과 표현이 다르고 소통이 어려운 문화적 이질감 혹은 인류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조화에 대한 탐구를 더한 것이다.



Harmony at the Poort (Independence gate at Brussel), 111x78cm, 2008

Smoking, 2'35", single channel video, stereo sound, 2007
Fishing, 2'35", single channel video, stereo sound, 2007
Crossing, 2'35", single channel video, stereo sound, 2007

'립싱크'

원래 립싱크는 화면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의 입술 움직임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일이지만, 2007~2008년 사이에 제작한 안정주의 'Lip-Sync'는 본래의 현실 소리를 대신하는 인공 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그는 친숙한 비디오 영상 이미지 위에 새롭게 가공된 소리를 덧입히는 자신의 작업에서 소리 자체는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오히려 현실의 내러티브를 깨고 사라지게 하거나 인공적인 현실로 그 자리를 대체하여, 세상의 어딘가에 가려져 소외되어 있을지 모르는 소리를 발견 해내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그의 비디오 영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소리에 대한 오랜 사유와 상상, 자유롭고 리듬감 있는 미적 시도는 고등학교 시절의 밴드 활동, 동양화를 전공한 대학시절, 군악대의 행진 지휘 등의 경험 기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소리가 가진 속성을 확장하고 영상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려는 이 'Lip-Sync'의 매력은 침묵을 관찰하고 소리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며, 언어와 소리가 가지는 문화적 소통과 단절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여행을 통하여 작가 자신이 촬영한 자연 상태의 소리와 이미지 덩어리로부터 소리를 제거하고 사람의 입으로 구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 등의 언어적 소리,

작가노트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경한 이국의 풍경은 익숙하지만 낯설다. 화면 안에서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나를 둘러싸고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그 풍경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 움직이는 것은 소리가 된다. 준비된 그들의 풍경에 대한 해석은 너만의 소리 안에서 풍성해 진다.

모든 움직이는 것을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는 것.
나는 프로젝트 '립-싱크'를 내가 보았던 이국적인 이미지에서, 그들이 보

는 즉 인공의 소리로 대체하여 풍경화면 속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깨어나게 하는 자유분방하고 만화적인 유머가 있는 이미지+소리의 재조합은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안정주는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사건의 관계와 논리에 가려진 주관적인 호흡과 개인적인 관심이 담겨진 소리를 확대한다. 그는 세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다루면서, 이제껏 시각적 경험이 소홀히 했던 소리, 그에게는 시적 영감과 음악적 존재감을 강화해주는 소리에 대한 미적 경험들을 호흡으로 즐긴다. 또한 소리의 존재를 친사하려는 가볍고 우회적이고 예술적인 자유를 공감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한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리의 상상과 결합한 비디오 영상의 시각적 충만을 만족할 수 있는 시각예술의 다른 가능성들을 제안 받고 있다.

마치 칼로 오려낸 밀그림 위에 빛으로 굵고 색을 덧칠 하듯 다층적인 소리를 입히는 시각예술의 다른 가능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여주는 그들의 이미지로 심화했다.
두 번째의 '립-싱크'프로젝트에서 각각의 하모니를 비교하고 싶었다. 견고하게 쌓인 문화는 서로를 공유하면서 배척한다. 수용하는 듯하다 어느 지점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 소리 없는 풍경은 폐허나 유적과 같다. 같은 음을 공유하면서 다른 음을 가진 고유의 화음은 그들이 쌓은 게이트와 음으로서 풍성해진다.

안정주

Park, Chel Ho 박철호

2016기억공작소 I
순환-깃

2016. 01. 15 Fri ~ 03. 13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 「박철호」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성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깃, 1997

1997년 비오는 어느 날, 가족과 떨어져 홀로 머물던 뉴욕의 작업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흰 깃 비둘기 한 쌍의 다정한 몸짓에서 위로와 희망의 절실함을 발견하고, 그 옆 건물 창틀 위에서 웅크려 앉은 비둘기 한 마리의 젖은 날개 짓에서 자신의 처지를 견주며 절망을 되뇌었던 기억들이 이 작가의 작업에 스며있다. 판화가로도 알려진 미술가 박철호의 1999년 작품 'Despair & Hope'는 뉴욕에서의 기억과 연결된 새의 형상을 통해 인간생명의 위기를 경고하는 작가 의식을 비롯하여 동시대 회화의 실험적 해석과 경계를 넘는 재료의 실험 등 자기제언과 수렴의 진정성이 담긴 작가의 대표작 시리즈이다. 이 작업에 임하던 작가의 태도와 작업 성향에 대해서



Despair&Hope, 36x51cm,
Mixed media, 1999

는 1999년 전시 도록에 수록한 작가노트를 참고할 수 있다. "최근 '새' 시리즈는 내 자신의 존재(存在)에 대한 회의(懷疑)와 실존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생명체의 본질적인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되풀이 하였던 예술에 대한 믿음과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이었다. 굵고, 부식하고, 만들고, 그리고 하는 보람을 통해 실존을 확인하고 내 작업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Despair & Hope'에 관한 압축된 기억은 자연 생명체와 그 에너지의 실존적 표현으로서 '깃'이다.

'생성과 소멸의 기록', '대자연의 신성한 섭리에 대한 교감'으로 읽혀지는 박철호의 작업은 그동안 '찰나와 영원, 절망과 희망 등 반복하는 생명체 존재의 순환'을 다루거나, '자연의 순환에서 자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의 회노애락(喜怒哀樂)을 치유하는 과정'으로도 논의 되어왔다. 특히 그에게 새 '깃'은 자연에 내포된 '자유'와 작가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순환-깃, 가변크기, Mixed media on linen, 2015

순환 - 깃

이번 전시는 가능성으로서 '깃'에 관한 시간과 공간의 기억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먼저, 흰빛의 '깃'을 담은 붓질이 5.2미터 높이의 전시장 두 벽면에 가득하고, 반대편 벽면에는 붉은 빛의 '깃'을 연상하는 얼룩이 가득하다. 작가의 '깃'은 자연의 바람결 혹은 파장과 같은 '빛의 흐름'으로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듯 겹겹이 포개지면서 도드라진 사각형 아마포(亞麻布)의 섬유질 표면은 물론이고 그 위를 자유분방하게 그은 드로잉 선과 획에서 자연 상태의 본연(本然)과 긴장, 기억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작가의 긴 호흡으로 채운 물입(物入)적 전시환경에서 '깃'의 부드럽고 자유로운 쾌감을 기억하는 것은 왜일까? 이 기억은 자신의 작업에 대하여 '순환(Circulation)'을 언급한 작가의 설정에서 비롯될 것이다. 작가는 거칠면서도 광활한 자연 생태의 두려움과 더불어 임시적이며, 한시적이고, 불안한 상태들이 영원과 희망과 평화의 '순환' 구조에 연결되는 상황들을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일종의 '순환' 차원의 유기적 호흡으로 생각하고, 그 호흡에 따른 신체 행위의 '하는' 미술을 작업의 근거로 이해한다.

새로운, 다른 미술의 가능성을 찾는 미술가의 태도는 대체로 생경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긴장과 개척자의 더듬이 같은 무엇이 우리 몸 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이번전시 '순환-깃'에서 박철호는 잊히거나 사

순환 Circulation

순환(Circulation)을 나타내는 드로잉의 선(Line)들은 자연의 결과 파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현실의 다양한 일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과 선 사이 경계는 시간에 대한 영원을 기록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나의 작업에서 순간과 영원, 절망과 희망, 전쟁과 평화의 대칭적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라져가는 사건 혹은 사물의 기억처럼 선명하지 않고 흐려진 이미지들을 겹치고 쌓고 이어붙이는 신체 행위를 통하여 깊이 잠들어있는 감성들의 가늠을 잡아 흔들며 깨우듯이 미술의 다른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작가는 갈기로 찢겨 끊어질 듯 이어진 물결 같은 선 드로잉 속에서 관람자가 말이나 새, 나무, 얼굴, 총, 폭탄, 군함 등의 이미지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작가의 행위는 선으로 무엇인가를 그려 놓고 감광하고 찍는 판화기법과 덧칠하고 지우고 굵는 회화기법, 각각의 드로잉 단위체를 겹치고 배치하는 조형 설치 방식 등의 결합을 통하여 마치 기억의 편린(片鱗)을 어루만지고 공작(工作)하려는 듯 짐작된다. 세상 곳곳에 정처 없이 흩어져있는 물질과 비물질적 구성요소들을 불러 모으는 주술사의 주문이나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전파매체의 파장과 그 켜의 결을 연상시키는 작가의 이번 작업은 세계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시작으로 인간을 향하여 소리치는 세계의 근원적 순환 논리를 기억하게 해준다.

박철호의 태도와 그의 회화는 '본연' 그대로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리얼리티이고, 일상 세계를 바라보는 현장의 사회성과 결합하는 회화의 신체적 '행위'에 의해 기억, 현실, 상상적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만의 회화로 남게 된다. 또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다시 기억하게 하는 '깃'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위들을 환기시키는 장치이기도하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박철호

Jeung, Jae choul 정재철

2016기억공작소II
실�크로드 프로젝트 – 기록 2016

2016. 03. 25 Fri ~ 05. 22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II「정재철」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여행, 또 다른 조각」

작은 글씨의 수기手記 문자와 관념적인 구획 드로잉을 포함한 3장의 세계지도, 연계 지역을 그린 이 3개의 커다란 종이 지도 사이를 수평으로 잇는 수십 개의 액자와 사진들, 천장 형광등 빛을 가린 현수막 천 햇빛 가리개, 그 너머 벽면에 투사한 비디오 기록 영상과 다양한 현장의 소리 등 전시실 곳곳에 배치한 기록 행위와 그 사물들은 원래의 시공간적 맥락과는 분리되어있지만, 얼핏 보아도 어떤 ‘수행 과정’의 기억과 그 시각화이며, 이를 참조하는 관객의 ‘자기 기억’ 재생을 비롯한 우리의 의식 확장에 관계하는 개입개사, 간여干與, 매개媒介적 지점들이다. 이번 전시 ‘실�크로드 프로젝트-기록2016’은 제한이 없는 미술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한 작가의 태도로부

터 파생한 여행 흔적들의 주요 목록이며, 그의 ‘생각’과 ‘행위’를 간추려 짐작하는 ‘또 다른 조각’이라는 사건의 전달遞達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3월1일 서울에서 시작하여, 7년여 동안 1~3차에 걸쳐 서쪽으로 중국,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 런던에 이르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수행은 조각가 정재철의 개인 여행사와 폐현수막을 매개로 기획한 미술적 소통 행위이다. 1차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서울에서의 폐현수막 2,000매 수집과 세탁, 포장, 퍼포먼스 그리고 실�크로드 길 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4개국 22개 지역 현지인에게 폐현수막 전달과 현지인들의 필요에 의한 사용례 기록을 위한 2회의 현장 여행과 전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중첩의 현장 사례로 볼 수 있었던 중국 쿠차 수박농가의 햇빛가리개, 대문커튼, 파키스탄의 오토리샤 커튼, 모자, 인도의 노천이발소 천막, 고마모자, 네팔의 가방과 방석 등은 대표적인 소통 참여적 사물이다. 정재철은 우리가 ‘또 다른 조각’이라 짐작하는 자신의 7년 행위에 대하여 “돌이켜보면 나의 작업은 나무에서 사물로 그리고 폐현수막으로 관심이 바뀌었고, 공간과 물질→장소와 기억→현장과 사람으로 내용은 변화해 갔다. 그때마다 나는 어딘가를 향해, 불안을 품고 공간을 이동했고, 안정된 장소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면서 길 위에 있었다. 작업실을 바람 부는 길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다. 그 길은 성장하는 장소다. 그 길은 실�크로드였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여, 현지인들과 공동작업의 형태로 폐현수막을 이용한 실생활 활용기능 오브제로 만들어 현장에 배치하였다. 3차에서는 작가가 선택한 특징 여행지에 폐현수막으로 만든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조각의 마무리 작업처럼 미술가로서의 간여와 매개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행위의 기록들은 1980년대에 작가가 신뢰해온 ‘조각’, 즉 나무 내부를 파내다 멈추는 조각에 대한 형식적 틀을 깨고, ‘여행’, ‘우연한 만남’, ‘수집’과 같은 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조각 작업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깎고 새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조각’ 작업이 아닌, 여행을 통한 현장에서의 소통과 작가가 수집하고 만나는 오브제들의 재조합이며, ‘시간성’, ‘역사성’에 집중하고 ‘문화적 중첩’ 등 추상적인 문제들을 조형언어로서 담아내려는 실험적인 시도, 나아가 작가와 관객, 중심과 주변, 창작과 감상 사이의 전통적이고도 일방적인 구조의 틀을 깨는 것에 대한 실험적인 실천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조각’의 또 다른 가능성을 호출한 것이라 해석된다.

지금, 여기 ‘실�크로드 프로젝트-기록2016’에서 정재철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생경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긴장과 함께, 보이지 않는 사물 혹은 태도와 제도적, 사회적 관계 같은 개념들을 겹치고 쌓고 이어붙이는 신체적 소통 행위를 통하여 깊이 잠들어있는 본연의 감성들을 흔들어 깨우듯이



2st Silk Road Project Route Map, 380x120cm, Acrylic on Screen Paper, 2008 / 1st Silk Road Project Route Map, 380x190cm, Acrylic on Screen Paper, 2006
3st Silk Road Project Route Map, 210x190cm, Acrylic on Screen Paper, 2010

조각의 다른 가능성을 찾는다. 이번 전시는 가능성으로서 ‘또 다른 조각’에 관한 기억을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작가의 행위에 관해 박숙영은 “과거에는 고도로 개체화된 예술가가 나름의 분명한 메시지를 관람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재철의 프로젝트는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이 현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것은 관람자가 시각적 오브제를 감상하는 관조의 영역에서 행위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예술의 물리적이면서도 개념적인 영역의 경험이다. 작가가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맥락을 제공하고 예술의 ‘전개’는 대중이 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크로드 지역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신과 감정을 자극하고 행위를 촉발시켰으며, 마침내 새로운 정서를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실�크로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삶이 예술이고 여행이 미술이다.” 라는 생각을 실행한 것으로 서울에서 런던에 이르는 육로 여행과 사잇길 여행들로 이루어졌다. 교역과 전쟁, 화해와 평화의 길이자 문명의 이동로였던 실�크로드의 동단에서 서쪽 끝에 이르는 구간을 관통하는 여행을 통해서 동과 서, 중앙과 주변을 연결하고, 국경으로 단절된 경계를 해체하며, 다름과 차이가 공존, 수용, 변화하는 소통의 길로써의 실�크로드의 역사적 상징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살피고, 그 문화적 접미와 중첩 그리고 혼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의 과도한 소비문화와 우리의 문화적 과정의 단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 사물인 ‘폐현수막’을 각기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행루트 상의 주민들과 함께 재활용하여 새로운 사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문화적 중첩이 이루어진 사물로 거듭나면서 재활용의 의미를 보다

정재철의 태도와 그의 행위는 일상 세계를 바라보는 현장의 사회성과 결합하는 예술의 신체적 ‘행위’에 의해 상상, 현장, 기억의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만의 조각으로 남게 된다. 또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여행-조각’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위들을 환기시키는 장치이기도하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중구

넓게 확장하여 일상적인 일들이 창조적 활동으로 승화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창작과 감상의 소통구조를 양방향 역할혼합이 일어나도록 의도하는 형식 실험이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과정들의) 상호작용이 점점적으로 반복되는 수행적 작업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 2004-2011
1차 프로젝트: 한국, 중국, 파키스탄, 인도, 네팔 (22개 지점)
2차 프로젝트: 파키스탄, 이란, 터키 (13개 지점)
3차 프로젝트: 터키,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10개 지점)
꽃그늘 키우기: 중국, 티벳,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정재철

KAYIP 이우준

2016 기억공작소Ⅲ
landscape in between

2016. 06. 03 Fri ~ 07. 31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Ⅲ「KAYIP」展

‘기억 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소리로 그린 풍경」

적막한 어둠을 이후, 서서히 펼쳐 광활하게 그려지는 대지大地 풍경의 매끈하거나 거친 질감, 가볍거나 무거운 색조, 저 멀리 하늘과 희미한 산 능선이 맞닿고 여러 겹의 산등성이가 멀거나 혹은 가까이 겹치고 포개어 계곡溪谷과 능선稜線과 평원平原으로 이어진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따라 풍경의 음영陰影이 변하기도 한다. 이때, 무채색은 풍경의 사색적이고 정연하며 섬세한 논리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적절하다. 정면에 투사한 풍경 영상의 좌우측 벽면에는 351개의 거울 판이 세계의 반영과 복잡성을 은유하고, 그 거울에 반사되어 변주된 여러 풍경 이미지들이 정면의 영상과 횡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의 풍경으로 재조직되고 드넓

어진다. 바닥에 반사된 풍경의 역상 이미지와 관객이 바라보는 정면의 반대편 벽면에 투사되는 풍경의 역상 이미지 영상은 자기방식으로 반영하는 거울처럼 상하가 바뀐 모습을 반복하며 공간을 확장한다. 이쯤에서 관객은 풍경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서 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의 영상들은 전시공간을 가득 채운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관객이 빠져들 수 있는 공감각적인 풍경을 창출한다.

우리가 빠져든 이 사태事態는 작곡을 하듯, 소리로 그려낸 KAYIP의 풍경이다. 그는 소리를 통하여,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그려내는 일에 관심을 둔 현대음악 전공의 작곡가이다. 그는 주로 전자음악을 다루며, 선율보다는 음향 자체의 질감과 색조에 주목해왔고, 최근에는 이번 풍경 작업처럼 사운드와 그것의 시각화를 통해 기존의 공간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KAYIP은 현실의 공간, 실제의 풍경을 담은 2편의 영상과 소리를 선보인다. 풍경을 그리는 느낌으로 소리에 접근한 ‘작곡’과 그 소리를 시각화한 ‘조형’ 작업, 그리고 그것의 감성적 통합이다.

2016년 작 ‘landscape in between’은 해가 뜨고 지기까지의 시간과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각기 다른 4개의 광활한 풍경으로 담아 5분 분량의 영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첫 번째의 계곡 풍경은 화면의 좌측 중간 정도에 원통형 관의 단면을 자른 링 모양의 투명 도형이 회전하면서 마치 확대경으로 보듯 겹쳐진 대상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 속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까? 이 도형과 포개진 뒷부분의 풍경은 표피가 벗겨진 격자 모양의 구조물처럼 보인다.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가상 혹은 현상과 표면이 아니라, 실상 혹은 근원과 심층이 드러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가상현실과 실제의 경계가 드러나는 상황은 다음 풍경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두 번째 풍경은 정육면체의 투명한 도형이 허공에서 회전하는 돌사막이다. 세 번째 풍경은 투명한 구가 떠다니는 구름지역, 네 번째 풍경은 투명한 다면체가 떠있는 평원이다. 직가에 의하면 이 영상들은 2012년 고비 사막을 여행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소리를 만들고, 다시 그 소리에 적절한 풍경 공간을 만든 것이라 한다. 이어지는 영상은 앞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기억에 의해 제작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들이다. 4분가량의 2015년 작 ‘in the land of nowhere’는 지평의 끝에서 태양의 빛줄기가 이동하는 첫 번째 풍경과 모래바람이 사납게 부는 사막 풍경, 흐린 구름 사이를 뚫고 빛줄기가 지상을 비추는 계곡의 풍경,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이 신비스러운 돌사막 풍경 등 4개의 풍경으로 이루어져있다.

작가가 제시한 2편의 풍경 영상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 즉 가상假想과 실재實在 사이의 경계, 언어와 진실 사이의 구분 혹은 원본의 부재에 의한 결핍의 문제를 다룬다. 전시실 전체에 배치한 이미지와 사운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사공간의 맥락에 처한 실재인 듯 감각되

고 인지되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재구축된 기술 현상이며 가상의 세계이다. 작가는 자신이 그린 풍경의 일부에 대하여 실제 구조를 노출하면서 이 문제의 키워드를 풍경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객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참조한 스스로의 의식을 확장하며, 이 가상의 세계에 공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질문보다 우선하여 정서적으로 몰입沒入하게 된다.

이번 전시 ‘landscape in between’은 제한이 없는 미술의 또 다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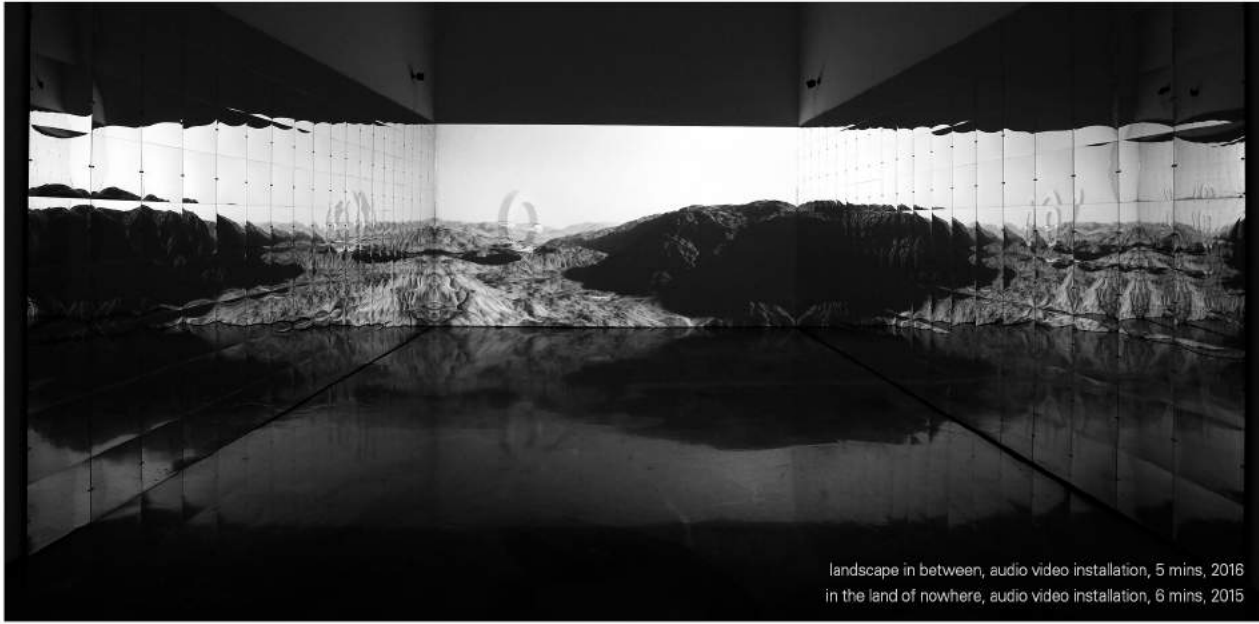
작가노트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감각 자료들을 통해 조절되고 조정되는 현실 세계의 한 모형이다. 현실 세계를 다루는 데 유용하도록 구축된 모형이다.”
“색깔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자연에서 뇌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시광선은 연속적인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기에 인간이 지각하는 고유의 색깔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에드워드 월슨

(2016)은 (2015)에 이은 네 번째 풍경작업으로 2012년 고비 사막으로 떠났던 여행의 기억을 재료를 한다. 공간의 크기를 가능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이내 혼란을 느꼈고 계속해서 한 지점을 향해 걸어갔지만,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의식 안과 밖의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풍경 속에서 의식 밖으로 걸어 나와 안과 밖을 함께 바라보는 것 같은 경험이었다. 그 때의 기억을 재료를 하여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환경음처럼 존재할만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병치했다. 불확실한 기억의 결과물인 이 풍경들은 내 의식에 비친 현실의 상, 안과 밖의 경계에서 실재하는 풍경들이다.

KAYIP



landscape in between, audio video installation, 5 mins, 2016
in the land of nowhere, audio video installation, 6 mins, 2015

Myoung Ho Lee 이명호

2016 기억공작소Ⅳ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

2016. 08. 12 Fri ~ 10. 16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Ⅳ「이명호」展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나무와 신기루, 행위」

작고 소박하며 절제된, 18×12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2장이 전시실 좌측 벽면에 가로로 연속하여 붙어 있고, 이어진 우측 벽면에 10인치 모니터 영상 하나, 그 우측 옆으로 다시 가로로 이어지는 15×10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33장과 또 다른 10인치 모니터 영상 하나, 맛맛하고 심심하며 특별해 보이지 않는 전시 상황이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기념비적인 대형 나무와 사막의 사진들을 생각하고 이명호의 전시를 찾아온 관객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낯선 설정이다. 이에 대하여 작가는 전시의 또 다른 가능성, 즉 완성작으로서 ‘사진’이 아니라 결과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행위’에 주목할 수 있는 전시를 생각한다. 이 전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래

된 질문과 그 탐구에 관한 작가 스스로의 해명이기도 하다.

‘나무’ 행위에 관한 기억, 나무 한 그루가 거대한 캔버스를 배경으로 들뜬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다. 그 한 그루의 나무는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회화 繪畵처럼 캔버스 화면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뒤편에는 하늘, 그 옆으로는 한두 그루의 작은 나무들이 멀리 보인다. 이 낮은 풍경은 거대한 캔버스 천을 야외 들판으로 들고 나와 실제의 나무 뒤에 세워 두고 촬영한 작가 행위의 결과이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예술의 ‘현실現實’ 재현再現을 탐구하기 위한 ‘나무’ 시리즈의 기억은 전시실에서 이렇다. - 2012년 시화호 근처, 한밤중에 시작한 촬영 준비, 영화 촬영에 사용하는 대형 조명과 천막, 15×15미터의 캔버스 천, 그 천을 바닥에 폼다가 버드나무 뒤에 설치하려는 장면, 여러 대의 카메라, 오전 7시경 저 멀리 동이 뜨고 저무는 달도 함께 촬영, 갈대밭을 분주히 움직이는 52명의 스태프, 12센티미터 굵기의 철봉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캔버스 천이 나무 뒤편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 작가의 ‘나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등, 작가는 12장의 사진과 영상으로 ‘나무’ 행위를 기억한다.

‘신기루’ 행위에 관한 기억, 은빛 파도를 실은 바다의 수평선이 광활한 모래 해변을 넘어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다. 바다 저 멀리 가운데에는 흐릿하게 섬이 보인다. 낯설지 않은 이 바다 풍경은 사실 수백 명이 천을 들고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연출 장면을 멀리서 촬영한 작가 행위의 결과이다. 예술의 ‘가상假象’ 재현再現의 면모를 탐구하기 위한 ‘신기루’ 시리즈에 관한 일부 기억은 전시실에서 이렇다. - 2009년 고비 사막, 중국에서 서역으로 가는 관문 둔황敦煌, 작가의 손가락 세 개, 손가락 네 개, 결과적으로 바다 위의 섬으로 남게 될 명사산鳴沙山, 참여 스태프와 기념사진 촬영,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막 동물의 머리뼈, 스태프들이 이동할 때 타고 온 여러 대의 버스, 표지 말뚝을 박아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장면, 아무것도 없이 높고 높은 하늘과 사막,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시끄럽게 떠돌고 있는 스태프들, 10미터 간격으로 한 줄로 서 있는 320명의 스태프, 메가폰을 잡



Exhibition View

은 진행 관계자,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천 뒤로 숨기 시작하는 수평선 주변 스태프들, 180센티미터 폭과 3킬로미터 길이의 천이 수평선으로 보이는 순간, 촬영 후 철수 장면, 개미같이 작게 보이는 사람들, 스태프들과 기념사진 촬영, 뿔아서 모아 둔 표지 목 등, 작가는 33장의 사진과 ‘2010년 아라비아 사막’ 설치 준비 영상으로 ‘신기루’ 행위를 기억한다.

회화의 역사가 실체實體의 재현으로부터 실체 자체를 지향해 왔다면, 회화는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실체 자체로서의 ‘평면성’을 찾아 대체하였고, 대신 실체를 다루는 자리를 사진에 넘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상용이 이명호의 ‘나무’ 작업에 대하여 쓴 2007년 글에서 “사진이 실체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로 그 인식에 의해 사진과 실체와의 관계를 재맥락화하는 방향”이라며, “끊임없이 실체의 역사로부터 소외되는 제도화된 ‘사진행위寫眞行爲’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바로 그 문제 제기예 의해 ‘사진행위’는 자기 인식을 생성하고 보강한다.”라고 평하였다. 이명호는 이 문맥에서 자신의 사진이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실체로서 ‘신체행위身體行爲’ 자체에 주목해 왔다. 그는 실체를 지향해 온 지금까지의 회화와 사진 미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

지난 십 수 년간 나는 ‘예술-행위 프로젝트Art-Act Project’라 명명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행위 프로젝트Art-Act Project’에는 여러 개의 연작Series들이 있는데,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술이란 물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나무 뒤에 캔버스를 설치함으로써 나무의 모습을 오묘하게 드러내는 ‘나무 연작Tree Series’과 ‘나무... 연작Tree... Series’은 그러한 드러냄, 즉 ‘재현再現, Re-Presence’에 빚대고 있고, 캔버스를 설치한다는 방식은 동일하나 사막 저 멀리서 넘실거리는 바다 혹은 오아시스와도 같은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신기루 연작Mirage Series’은 그러한 만들어냄, 즉 ‘재연再現, Re-Product’에 빚대고 있다. ‘예술-행위Art-Act’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결과물結果物로서의 작업을 지양하고, 축적물蓄積物로서의 작업을 지향한

술의 역사에서 나아가,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구하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동안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사진-행위’ 혹은 ‘예술-행위’로 명명하며 예술의 개념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과 답을 던져 온 것이다.

이번 전시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는 제한이 없는 미술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한 작가의 태도로부터 파생한 ‘신체행위’의 주요 흔적이며, 작가의 생각이 세계의 현실 현장과 결합하는 행위 과정에 의해 상상, 현실, 기억의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예술로 구현되는 ‘또 다른 미술’이라는 사건의 전말顛末이다. 또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다시 기억하게 하는 ‘행위의 기억’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위들을 환기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다. 과정과 결과는 별개가 아니라 과정의 축적이 곧 결과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본 전시에서 나는 행위가 축적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재현再現, Re-Presence’, ‘재연再現, Re-Product’ 등과 같은 용어는 미학이나 철학 등의 그것과 사뭇 다를 것이며, 그저 나의 뜻을 언어와 짝짓고자 해도 그게 적확히 달라붙지 않아 내가 임의로 지어낸 용어임을 미리 밝혀 둔다.

이명호

Okubo Eiji 오쿠보 에이지

2016 기억공작소 V
지구를 걷는다

2016. 10. 28 Fri ~ 12. 25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 V「오쿠보 에이지」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지구를 걷는다, 행위」

전시장 입구에는 오쿠보 에이지가 대구시 봉산동에서 가창면 우록동까지 20.5km를 걷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작은 모니터 1점, 작가가 살고 있는 오사카의 중이지도 위에 평소 걸었던 경로를 그린 드로잉 1점, 일본 도쿠시마에서 남쪽으로 140km를 걷고 다시 서쪽으로 96km를 걸으며 끌었던 나뭇조각과 그 닳은 나무의 단면을 인장印처럼 찍은 종이 작업,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채집採集한 오브제를 콜라주한 화첩이 보인다. 전시장 안으로 더 들어가면, 시코쿠四國의 길을 걷는 동안 채집한 오브제를 콜라주한 작고 오래된 책 10점과 지도 드로잉 1점이 있다. 또 정면 벽과 그 맞은편 벽면에는 130×87cm 크기의 사진작업이 보이는데, 작가가 촬영한 우록동의 자연풍경 사진 위에 현장에서 채취한 흙으로 ‘수평’과 ‘수직’을 상징하는 사각도형을 드로잉한 것이다. 이 드로잉의 오른쪽 벽에는 봉산동에서 우록동까지 걸어가며 줄에 매어 끌었던 나뭇조각 2점과 그것이 달기 전·후의 단면을 인장한 종이 있다. 그리고 우측 아래에는 걷는 도중에 채취한 흙과 나뭇잎을 콜라주한 화첩이 1.5m정도 길이로 펼쳐있다. 또 우록동까지 걸으며 채집한 것털, 날개조각, 쇠조각 등의 오브제들을 작은 투명비닐에 담아 4m 정도 길이의 흰으로 벽에 설치한 작업도 보인다.

이 전시는 “걷기가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미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작가의 ‘걷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이번 ‘지구를 걷는다’ 전시는 일본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와 대구 근처 우록동에서 삶을 마친 김충선(金忠善 1571~1642)에 관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의 글을 마주한 것에서 시작된다. 2016년 10월15일, 오쿠보 에이지는 김충선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걷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공간, 나아가 자신의 또 다른 미술적 태도를 나뭇조각, 사진, 드로잉, 흙 등으로 시각화한다. 대지미술가 혹은 지난 40년 동안 미니멀 아트의 정신을 잇는 활동으로 알려진 오쿠보의 ‘걷는 행위’는 시코쿠四國지방 88개소 순례 길을 따라 걷는 프로젝트(1998~1999)와 일본 열도 홋카이도에서 돛토리를 거쳐 한국으로, 그리고

더 서쪽으로 나아가려 한 유라시아 아트 프로젝트(1999~2004), 또 에도 시대에 일본 전국을 행려한 하이쿠俳句 시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와 2천개의 불상 제작을 기원하며 전국을 돌아다닌 승려 모쿠지키 쇼우닝長生 같은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바쇼 2009, 모쿠지키 2005, 2007) 등 지속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오쿠보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걷는 행위’는 그가 일과로 삼는 자연 ‘산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그가 이 행위를 또 다른 미술의 가능성으로 선택한 태도, 다시 말해 백지 위에 3mm크기의 동그라미를 여러 색상으로 겹쳐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마지막에는 흰색으로 덮어 그리면서 결국 백지만 남기는 작가의 1970년대 미니멀 작업과는 달리 자연 대지 위를 걷는 신체 행위를 자신의 미술 작업으로 선택하는 태도를 이 전시를 통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술가로서 자신의 ‘걷는 행위’는 우연히 거기에 있는 길을 그저 아무 의도도 없이 걷는 것이다. 이는 오쿠보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행위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만감과 그 시각적 흔적으로서 오브제의 물리적 변화와 만남을 채집하는, 즉 무작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려는 작가의 태도 그대로이다. 이러한 작가의 ‘걷는 행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수직’과 지구를 걷는 ‘수평’이 융합融合하는 현재, 여기에서 자신의 실존存在을 상징한다.

오쿠보 에이지-지구를 걷는다 大久保英治-地球を歩く

나의 한국 여행은 1980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술가로 사는 길을 택한 나에게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장소의 역사, 문화의 유래가 나 자신의 미술 표현의 근간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에서 대륙에 대한 동경을 계속 안고 있었다. 역사와 문화를 잇는 대륙의 길을 걷고 싶은 그 마음이 나를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게 했다.

이후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많은 장소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대구는 친한 친구들 덕분에 자주 방문을 하고 있다.

한편 나는 작품 속에 시간과 장소(환경)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2000년경부터 내 나뭇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최근 몇 년은 그 정리의 시기에 있다. 내 나뭇의 표현 그것은 “걷기”로 시작하는 미술이다. 나에게 “걷기”는 “미술” 그 자체이다. “걷기”가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번 도전의 무대는 “우록동으로 가는 길”이다. 일본에서 바다를 넘어 우록동에서 그 삶을 마친 김충선金忠善, 그가 걸어 간 길을 나 또한 “걷기”를 통해 그 흔적, 시간, 공간을 나뭇조각, 흙 등으로 표현한다. 같은 방법으로 과거의 일본의 위인들, 쿠우카이空海와 마츠오 바쇼松尾芭蕉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를 통해 얻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 하나, 오쿠보의 ‘걷는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오브제가 있다. 그것은 일본 전국을 걸어 다니며 수많은 목조 불상을 만들었던 모쿠지키 쇼우닝이, 때때로 그 지방의 아이들이 그가 만든 불상에 끈을 달아 끌면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을 그려 흐뭇해하며 바라보았다는 기록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에 오쿠보는 끈에 매단 나뭇조각을 질질 끌면서 걷는다. 이때, 그가 끌고 다니던 나뭇조각은 대지, 즉 지구와 마찰하여 굽히고 닳아서 작아지고 둥글게 변화하며 그 흔적을 남긴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나뭇조각이 닳은 만큼 나무를 고는 미술가 자신에게 정신적 충만감을 전해주는데, 이 상태를 자신의 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작가의 ‘걷는 행위’와 나뭇조각을 끌 때의 ‘저항’과 ‘진동’의 연동連動은 끈으로 연결된 작가의 몸이 그 상황의 시공간적 정보와 함께 기억되고, 함께 채취한 흙, 나뭇잎, 오브제들과 나뭇조각으로 남겨져, 김충선과 시바 료타로와 오쿠보 에이지가 공유하는 탁월한 충만함의 기억으로서 우리들 기억 속에서 또 다르게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중구

私の韓国への旅は1980年に始まった。それは、美術家として生きる道を選んだ私にとって、必然であったといえる。私は、生きてきた場の歴史、文化の流れが、自らの美術表現の根幹をつくりだすという考えに立ち、大陸への憧れの想いを抱き続けていた。歴史と文化をつなぐ大陸への道を歩いてみたい、その想いが私を大陸への旅へと駆り立てた。

以来2016年の今に至るまでに、韓国内の幾多の場で作品制作、そして発表する機会を持つことができた。中でも大邱では、親しい友達に恵まれ、頻りに訪問を重ねている。

一方私は、作品の中に、時間と場所(環境)を表現するということに重きを置いてきた。2000年頃からは私なりの形ができ、ここ数年はそのまとめの時期にある。私なりの表現、それは、「歩くこと」から始まる美術、「歩くこと」は「美術」そのもの、「歩くこと」が、人間の生命を美しく表現できるかに挑戦したい。

今回の挑戦のステージは「ウロク洞 への道」、日本から海を越え、ウロク洞でその人生を終えた金忠善、彼が歩いたであろう道を「歩くこと」で、その痕跡、時間空間を木片、土などで表現する。同様の手法で、過去の日本の偉人達、空海や松尾芭蕉の足跡を「歩くこと」で得たものを表現します。

오쿠보 에이지 大久保英治

Suh, Yong sun 서용선

2017 기억공작소 I
생각이 그려지는

2017. 01. 13 Fri ~ 04. 09 Sun
4전시실

기억 공작소 I | 서용선展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려지는 손, 72.5x60.5cm, Acrylic on canvas, 2015, 2016
베를린 성당, 400x500cm, Acrylic on linen, 2006, 2011

머리 21, 아카시아나무, 63x19x30cm, 2015 의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생각이 그려지는」

"작업은 재주가 아니지요, 재주보다는 공감과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는 것보다 그릴 준비를 갖추는 게 어렵지요...", 서용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화상', '도시', '역사', '신화'를 소재로, 화면 밖으로 쏟아질듯 표출하는 강렬한 원색들과 거칠게 그은 붓 선들의 긴장감을 떠올린다. 그것은 전쟁직후의 작가가 성장한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과 결핍감에 관한 문제의식이며, 그림을 넘어서 현실로 뛰쳐나가려는 욕구, 사회와 인간관계의 압박 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작가의 태도는 무엇일까? 작업에 관한 작가의 기본 태도는 인간 탐구이다. 그리고 작가 스스로를 살핀 자아와 전쟁이후 파괴되었던 서울의 도시화라는 현실적 삶 속에서 겪은 도시와 일상, 그 도시 공간과 공유해온 현실 참여적인 역사,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뿌리로서 신화, 그 흔적과 상상력 등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생각'과 그 감수성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신체행위'로 구성된다.

'생각이 그려지는'이란 제목의 전시 입구에는 서용선의 작업실 장면과 인터뷰 동영상 등을 담은 작은 모니터 1점이 보인다. 안으로 들어가면, 전면 벽에 500x400cm 크기의 천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회화 대작 1점이 있고, 바닥에는 통나무를 조각한 인물 두상 12점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다. 파란색 구름이 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수직과 수평의 굵고 거친 선들을 교차시켜 구조화한 비자연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공 세계의 기하학적 형태는 2006년에 이어 2011년에 그린 '베를린 성당'이다. 1747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베를린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거의 다 붕괴되었다가 이후 새롭게 복원한 역사적 도시 공간의 일부이다. 작가는 1990년 중반 이래 몇 차례에 걸쳐 베를린에 체류하면서 전쟁이후 서울과 베를린 두 도시의 구체적인 정치 상황과 역사성을 환기시키는 도시공간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대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도시공간의 시각적 체험과 생각에 주목하였다. 베를린 도시공간에서 마주한 일상들은 작가가 체험한 70년대 이후 급속히 도시화한 서울의 그것과 비교되고 그러한 비교들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이다. 작가는 일상의 도시를 주의 깊게 보며 그곳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는 작가 자신의 감수성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그림 앞의 바닥에는 20x30x70cm정도 크기의 나무 조각 '머리'들이 가로 3줄, 세로 4줄로 놓여있다. 전기톱으로 대략 거칠게 조각하고 먹 선으로 표시를 한 '머리'는 인간의 감수성을 현실적 물질 형태로 생성하는 작가의 원형적(原型的) 행위를 상징하려는 듯, 인간에게 친숙한 나무의 자연성을 그대로 살려 조각하였다. 이들 '머리'에 대하여 작가는 "사람의 머리를 조각하는 일은 그 복잡한 두뇌의 기능을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는 행위지만, 인간의 형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다."라며, 동일성을 위한 재현이 아니라 감수성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한다. 나무 '머리'의 원편에는 60.5x72.5cm 크기의 2015, 2016년 작 '자화상' 그려지는 손'이 걸려있다. 노랑바탕을 배경으로 짙은 푸른색의 웃을 입은 작가의 모습은 오른쪽을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동자와 붉은색 얼굴과 함께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전시의 장면들은 어느 한 순간의 도시 일상에 이어 삶의 실제 역사와 자아를 상상하게도 하지만, 그 진동은 이곳과 멀리 떨어진 도시의 시공간적 감각의 축수를 깨워 일으키는 알 수 없는 힘을 동반하고, 시간의 총위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관객에게 낯선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어 뒤돌아 보이는 반대편 벽면에는 전시실에 설치된 설정에서처럼 작가의 생각이 그려진 100여점의 대표작이 영상 이미지로 선보인다.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은 잘못된 시대의 잘못된 언어이다.
그것은 시각 예술이거나 형태예술이어야 한다.
내게는 그냥 그림이나 입체, 조형, 사진예술같은 것이 더 낫다.

그림은 생각이 머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그림은 멈추어 있다.
작가가 멈추게 한 것이다.
생각으로, 그리고 물질로
관세음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몸의 역사는, 현실 이해를 소통하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미디어현실의 환경 속에서, 현실이 아닌 대리 현실, 이미지, 형상이라는 지시 현상을 생산해 냈다.

그림은 그러한 모습의 역사와 현재를 엮어내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의 몸에 저장되어 있다.

그것들은 자연으로부터의 상처와 그 방어후련, 먹이 수집의 본능적 투쟁과 사회화과정에서 성의 욕망과 얽혀진 권력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아름다움은 그 표면 감각의 해방출구이다.

이 전시는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작가의 태도와 그 신체 행위로 인한 물질적 현실화의 사태로 이루어져있다.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는 구조와 감수성 사이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현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기에서 '베를린 성당'은 '구조'를 상징하고, 12개의 '머리'는 인간의 '감수성'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회화에서 캔버스가 '구조'의 역할을 하고 물감이 '감수성'을 담아내는 것과 유사하다. '감수성'이라는 그리는 행위의 원초성(原初性)을 몸에 각인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는 행위를 통하여 역사라는 개념적 해석과 현실이라는 현상의 지속 상태를 구조적으로 엮어 낼 수 있다. 서용선에게 있어서 '그림'은 '생각'이 머문 것이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 그 자체이다. 그에게 '생각'은 순간순간 깨닫는 '감수성'과 다르지 않으며, 그의 그림은 세계 구조와의 만남이라는 작용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그려지는' 사건인 것이다.

이 '생각이 그려지는' 전시에서 작가는 어떤 구조와 인간 감수성 사이의 대응과 그 균형이 지닌 탁월(卓越)한 힘과 공감(共感)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를 예술의 힘 혹은 총만감이라고 부르곤 한다.

bonsan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그러한 기억하는 몸이 현실,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의 기억하는 몸은 현실을 판단하는 의지의 힘으로 시간 속을 헤쳐 나간다.

시간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몸의 기억 때문에 끊임없이 재해석된다. 그림그리기는 이러한 몸의 물질적 현실화이다. 그리는 행위의 원초성을 몸에 각인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는 행위를 역사라는 개념적 해석과 현실이라는 현상의 지속 상태를 엮어 내야 한다.

도시는 자연과 단절되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건축을 우리는 역사와 분리할 수 있을까? 베를린 도시의 건축을 전쟁과 종교 이념과 재현이미지의 재현 주체인 욕망과 분리할 수 있을까? 베를린 교회는 어떻게 그림의 대상으로 도시 속에 있다.

서용선

Yun, Suk nam 윤석남

2017 기억공작소 II
사람과 사람 없이

2017. 04. 21 Fri ~ 06. 25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 II「윤석남」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성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사람과 사람 없이, 7번설치, 나무에 아크릴, 2017, 1,025:사람과 사람 없이, 2008 중 일부설치
늘어나다, 216x200x30cm, 나무에 아크릴, 1996

*그러나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1. 1979년4월25일,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려고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절박한 질문을 시작으로, 가부장제 속에서 한 가정의 주부라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자의식이 40세의 그녀로 하여금 화가로서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했다. 윤석남이 가장 먼저 그리기 시작한 대상은 그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이었다. 윤석남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6명의 자식을 여성 혼자 힘으로 키운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 즉 소외된 여성의 슬픔과 애환을 투영하는 어머니이며, 작가는 자신이 체감한 모성의 긍정적인 힘만이 아니라 사회의 중심에서 비껴있는 주변인으로서의 여성,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잡초처럼 질긴 끈끈한 생명력과 억척스러움을 가진 여성 내면의 힘을 그리기 시작했다.

2. '사람과'는 어머니와 여성, 나아가 사람들과의 소통에 관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는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태도이다. 사람과의 소통을 희망하며 기다랗게 팔을 쭉 뻗은 여성 신체로 투영시킨 작업, '늘어나다'는 마음이 따뜻하며 외모는 남성적이었고 키가 커서 어릴 적의 별명이 '키장다리'였던 어머니를 기억하려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가는 버려진 나무토막의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촉감과 웅이나 균열 같은 결함을 그대로 살려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여, 모진 풍파를 겪어온 어머니의 상처와 강인한 삶, 그리고 자애로움을 표현하며, 우리의 몸이 모성의 은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확장하였다. 이 시기에 작가는 마모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간절한 슬픔과 숨은 욕망, 여성들끼리 소통하려는 열망 등을 담아 신체를 길게 늘이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나는 정말이지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신체가 길게 늘어나서 누군가에게 닿고 싶다." 작가의 이러한 열망은 고카츠 레이코가 전하는 2012년 작가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평소에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깝게 숨 쉬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의 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일이 참 쉽지 않고 힘들 때 나의 힘든 것을 말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견하지도 않았던 위로도 받는, 그래서 가끔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예술을 저는 지향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가보지 않은 길을 예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예술에 관한 이 말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윤석남의 '여성주의' 작업이 보다 확장된 스펙트럼으로서

'사람과' 공감共感하고 유대連帶하려는 작가의 태도이다.

3. '사람 없이'는 윤석남의 '여성주의' 작업이 2003년을 기점으로 인간을 넘어, 자연과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지평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확장을 설명하는 시적 언어이다. 작가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이애신 할머니를 접한 충격 이후, 5년에 걸쳐 그 개들을 조각으로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도감圖鑑과 실제 할머니의 개를 바탕으로 수많은 드로잉을 거듭하고, 반지름 120cm 정도의 나무를 잘라 표면을 다듬고 바탕을 칠한 후 물감과 붓으로 형태를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30~100cm 높이의 나무 개들을 완성해갔다. 이러한 노동 집적의 신체행위는 자연생명의 일부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생명체들 간의 소통을 모색하는 자유의 기대이다. 버려져 죽거나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의 무리는 그 자체로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이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과의 공감과 유대의 촉구이다. 우리는 소외와 가려진 슬픔이 응축된 한 마리의 나무 개에게서 '약자'를 배려하는 감수성과 그 치유의 힘을 마주할 수 있다. 어쩌면 '사람과'의 결핍 때문에 태어나고, 과잉 소비로 유기되어 '사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설치작업은 이기적인 인간에 대한 환멸과 윤리적 반성이며, 죽음에 직면한 생명체를 모성의 힘으로, 또 그 모성을 일깨우는 예술의 힘으로 소통하고자하는 예술의 실천적 제안이다.

4. '사람과 사람 없이'는 모성의 소통으로서 어머니와 여성과 작가 자신을 은유하는 '늘어나다' 나무 여인상 1점과 2008년에 선보인 '1,025 : 사람

작가노트

나는 40년 전 작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성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놓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당신은 여성이라는 한정된 주제에 집착하는가? 통상적으로 예술이란 무한한 자유를 구가하는 것인데 "여성"이라는 화두로 작업의 주제를 제한하느냐 라고! 나는 대답한다. 나는, 남성은 곧 인간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개념으로 불릴 때, 여성은 그 인간 속의 한 부류로 분류되는 시기에 여자아이로 태어났고, 여자 아이로 키워졌고, 그렇게 자랐고, 교육받고,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결혼해서 며느리로 살았다.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여성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는 커다란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그림을 시작한 결과가 된 셈이다. 그러므로 나의 작업의

과 사람 없이' 중에서 고른 나무 유기견 102마리와 이애신 할머니 나무조각상, 그리고 여성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드로잉 1점을 설치한 전시이며, 이 전시는 몰입 상태의 연극성을 탐구하는 윤석남의 작업 특징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사람을 향하던 자애로운 표정의 어머니는 슬픈 표정의 개들을 감싸듯이 팔을 길게 늘어 간절히 소통을 희망하고, 정면으로만 그려진 나무 유기견의 표정과 시선은 관람자를 향하며, 늘 응시凝視의 대상이었던 개들이 응시의 주체가 되어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생명마저도 일반적으로 소비되고 폐기되는 현대문명의 폭력성에 저항하듯 바라본다. 특히 그들의 얼굴 표정과 가슴에 뚫린 구멍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여성주의 작가의 신체행위와 만난 공감과 소통의 상태이며, 여기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해, 여성이라는 존재를 말하며, 또 다른 가능성의 모색으로 확장하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와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전시는 '여성의 힘'에 관한 작가의 태도와 그 신체 행위에 의한 물질적 현실화의 사대로 이루어져있다. 윤석남에게 있어서 예술은 자신으로부터의 소통이며,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신체행위는 그것의 실천이다. 그에게 '소통'은 순간순간 깨닫는 촉각적 '감수성'과 다르지 않으며, 그의 작업은 세계와 감수성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행위로서 '사람과 사람 없이'의 소통이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사회 구조와 인간 감수성 사이의 대응과 그 균형이 지닌 탁월卓越한 힘과 공감과 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를 예술의 힘 혹은 충만감이라고 부르곤 한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중구

화두는 언제나 "여성인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 "사람과 사람 없이"도 한 여성과 유기견과의 놀랄만한 유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3년 개인전 도중에 접한 한 신문기사의 내용은 실로 놀랄만한 내용이였다. 한 여성이 유기견 1,025마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기사였다. 그 기사를 읽은 순간 나의 놀람과 슬픔 또는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였고, 곧바로 이 이야기를 다음 나의 작업의 주제로 결정했다. 그렇게 약 5년간 이 작업에 매달리고 그리고 5년 후 작업이 완성됐다. 어쨌든 완성은 된 것이다. 그 일부분을 여기에 소개한다. 작업이란 완성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한다.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보여주는 관객과의 끊임없는 유대가 결국 작업을 완성시킨다고 나는 믿고 있다.

윤석남

Hong, Myung seop 홍명섭

2017 기억공작소Ⅲ
running railroad

2017. 07. 07 Fri ~ 09. 10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Ⅲ「홍명섭」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 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불화의 유머 – shadowless, artless, mindless」

“본다는 것은 시지각視知覺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身體的 행위行為이다. 공간에 노출되거나 포획된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이고 몸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를 처단하는 드로잉 속을 배회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의 환각적이고 몽상적인 곡예이기도 하다.”라는 홍명섭 작가의 명확한 설명을 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대개 뭔가를 눈으로 보고 대상의 형태적 특징이나 존재의 가치, 의미 등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가의 ‘러닝 레일로드’ 전시 또한 이제까지처럼 난해한 개념과 정신의 예술적 승화와 진지한 미학으로 둘러싸인 어렵고 특별한 세계의 무엇으로만 파악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작가의 제안적 설명에서처럼 본다는 것의 신체적 행위는 작품

과 관객 사이의 ‘정신과 신체’, ‘시간과 공간’ 관계의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매개적 수행이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작업의 태도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면서, 눈높이 정도에서 무심하게 시작되는 길이 27m정도, 폭 5cm 정도의 검정색 종이테이프 2가닥을 평행으로 이어 붙여 칼로 그려내는 철길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두 개 선의 철길로 출발하여 흰색 전시실 4벽면을 수평으로 횡단하면서 중간 벽면쯤에서 하나의 철길로 합쳐지고 다시 슬며시 나누어져 두 개의 철길로 마무리되는 이 이미지는 두께가 없으니 그림자를 찾을 수 없고, 별스럽게 가치를 꾸미지 않아 소박하며, 특별히 예술적 작동의 의미를 담은 것 같지 않은 그런 홍명섭만의 유머이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흑백의 격한 명암대비에 의한 눈의 어른거림과 함께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는 환경으로도 작용한다. 작가는 이에 대해, “철길 이미지는 내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미지에의 동경과 같은, 비약이 없는 미지로의 표현장력, 문명과 혁명, 광야와 개척, 모험과 일탈, 유혹과 외경, 만나고 헤어짐, 심리적 방황 그리고 속도 등을 일깨우는 문화적 모티브인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관객으로 하여금 신체운동을 유도하는 이 전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작가의 ‘생각’과 그 ‘신체 행위’로 인한 물질적 현실화의 사태로 이루어져있다. 철길 형태의 테이프드로잉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관객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데, 관객은 작가가 제시한 무거운 ‘무쇠 슬리퍼’를 스스로 신고 중력의 저항을 감지하며 시각과 몸이 결합된 걸기라는 신체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관객은 더 이상 정신과 영혼만의 주체가 아니라, ‘몸, 시간, 공간’의 융합체로서 ‘드로잉’과 ‘무쇠 슬리퍼’가 되는 변태의 창발적 체험을 경험한다. 이 상황 속에서 시각에 신체가 더해지고 공간에 시간이 개입되며,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으로 해체되고, 사물의 질서정연한 의미들이 교란되어 불화不和하는 것이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running railroad’는 1982년부터 진행해온 topological한 공간운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업. 이 작업은 관객의 시선뿐만 아니라, 관객의 몸 자체; 걸음걸이의 감각, 호흡과 속도, 중력에의 저항 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이 작업의 흐름을 창출하는 조건이 된다. 관객의 준비되지 않은 몸의 리듬을, 그래서 몸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지력이 촉발하게끔 낮설고 꺾끄러움으로 유발되는 중력과 몸의 불화의 감성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마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처럼, 익숙하지 않은 몸 씬의 이질적 흐름들에 맡겨지는 비자발적 감성, 일상적 인식의 틀과 겹도는 시각과 몸 감각의 충돌들, 내 몸의 감각이 새로운 보철을 체험하듯 낯선 변종의 감각을 꿈꾸며, 그래서 우리의 몸의 비자발적 감각의 각성을 통해 또 다른 생명환경의 사유를 도모한다.”라고 한다.

홍명섭의 작업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작업에 대하여 예술 개념의 모호한 경계 제시와 거친 당혹감, 저항과 불편함, 불화를 촉발하는 긴장



running railroad, taping, iron slippers, 2017

감을 떠올린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사유와 지각이 달라지고 새롭게 배열되는 타자적 지점을 향해 고정된 정체성의 인식에 교란을 주어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꿈꾸는 체험을 관객에 의해 더불어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그 전략이기도한 작가의 기본적 태도는 우리 의식의 동일성 원칙을 해체하려는 ‘불화’이다. 작가가 제시하는 이 ‘불화’는 작업의 내적 불화에서부터 작업이 끼치는 외적 불화까지 포괄하여 작업과 관객 사이는 물론 작업과 작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이다. 이 때 불화는 사람들 사이가 나뉘는 감정적 대립이나 적대시하는 반목의 유형이 아니라, 동일화되지 않는 이질감의 경험이면서 힘의 밀림과 당김으로, 준비되지 못한 감성의 마찰을 견뎌야하는 그런 ‘저항’과 ‘불편함’일 수 있다고 한다. 그

내 작업을 가로지르는 개념들의 창출

다음 3가지 개념들의 발견은, 결국 내 작업의 형식적 특성들이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가만 보면, 내 작업을 구축하고 이런 작업들을 유지하는 유머러스한 감응들을 뒤늦게 산출하는 내재적 사후원인이 아닐 수 없다.

〈shadowless, artless, mindless〉 ;

두께가 없는 “표면” 뿐인 “creeping pieces”들. 벽은 물론 바닥에의 설치까지도 두께나 높이가 거의 없거나 무시되는 그런 설치물들, 미술품들이 지나는 견고성이나 유일성 따위의 고정된 가치 개념들을 이미 여과해 버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닐 수 없는 일회적 신체성, 마치 귀신처럼 조각적 실체가 없는, 즉 고정적일 수 없는 작업의 예술적 작동은 미적 오브제 자체가 발산하거나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그때

것은 결국 삶의 감각을 변화시키고 확장하게 하는 힘으로서, 개념의 바깥을 지각하고 각성시키고자 하는 생기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꿈꾸는 경험의 창출을 염두에 둔 이번 전시, 기억공작소 ‘러닝 레일로드’에서 작가는 고정된 예술의 경계와 인간 감수성 사이의 불화를 비롯한 그 균형적 대응이 지닌 탁월한 긴장과 공감共振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를 예술 확장의 총만감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창의적 접촉들과 그 감응들이 빚어내는 “마당”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는 “temporality”라는 “인연 시스템”이 차이(조건)지우는 것만을 누리거나 그렇게 열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처지, 능동적 나레이티브나 의지가 배제된, “의명적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지, 나의 주체를 굴절하고 변용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것이 되어가는 감각들을 촉발한다. 개념들의 저편, 또는 비개념적 발상/발동들, 사회적 이슈와 통념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질적 사고 형태들의 잠재력을 실험하기, 자기 주체적 시각을 거스르는 타자적 감각들과의 조우를 꿈꾸는 공공이, 나의 작업은 흔히, 그 의도나 개념의 통제를 벗어나 내 의식으로는 지배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의도-계기를 잉태하는 것으로 뒤집어져서 나타나곤 한다. 작업의 근거를 배반하는 작업의 됨됨이들.

홍명섭

No, Byung yeol 노병열

2017 기억공작소Ⅳ
하얀 흐름 White flow

2017. 10. 20 Fri ~ 12. 31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Ⅳ「노병열」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가치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하얀 흐름과 숲」

텅 비어있다. 다시 보니, 6m 높이의 하얀 벽면 가득하게 무수히 작은 돌기들이 솟아있다. 돌기는 일정한 면적 단위로 그룹을 지어 관람객의 신체와 대기空氣를 사이에 두는 공간 차원으로 존재하며, 전체적 인상은 간결하고 정갈하지만 어떤 재현과 감정感情 없이 허망하기도한 '하얀 흐름'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았던 돌기는 벽면 위에 물감으로 그리거나 찍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길이로 자라나온 지름 10mm 크기의 물감 고드름이고, 미묘한 빛의 흐름으로 눈에 일렁거리듯 지각되는 집합체를 이루며, 대상으로의 이해와 접근이 막막하고 불편한 낯선 상태 속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의 축적이 반복되는 살아 움직이는 듯 현기증이 느껴지는 공간의 환경적 구성요소이다.

'하얀 흐름'에 관한 이 같은 상상은 미술가 노병열이 이번 전시를 위해 설계했던 '백색 고드름의 흐름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관한 것이다. 벽 전체를 자신의 물감 고드름으로 덮는 실험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가로122×세로245×두께0.5cm크기로 분할한 28개의 패널 표면에 고드름을 만들고 상하좌우를 연결하여 세 개의 벽면 전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1999년부터 지속해온 작가의 고드름이 원래의 조형질서와 형태를 바꾸지 않고 영역을 확대하여 자라나온 흰색 패널은 벽에 설치되면서 거대한 공간적 회화의 영역에 가담한다. 당연하지만 이 공간은 표면 위에 질료가 만

나는 사건의 입체적 총체이며, 회화의 본질적 특성이 적용된 공간으로서 회화이다. 이 같은 회화 표면층의 문제는 작가가 그동안 다루어온 현대미술에서의 개념과 바탕의 밀도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플록Jackson Pollock(1912~1956)의 액션 페인팅 이후, 완성품에서 미적인 가치를 구하기 보다는 예술가가 현실의 장場에서 표출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며, 그한다는 순수한 '신체행위' 자체로 회화를 환원시키는 평면 표면 위의 사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크릴 수지로 된 표면층에 물감을 자라게 하는 창조적인 시간과 반복적인 신체행위를 더하여 작가만의 서사인 고드름을 집적하는 또 다른 차원의 회화이기도하다. 또 작가의 작업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힘으로서 중력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흥미롭다. 작가는 재료의 선택과 물감을 칠하는 신체 행위와 물감이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흰색 아크릴 표면층에 중력의 힘으로 고드름 돌기가 더해진다는 설계 외에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전시장의 다른 한 공간에는 벽의 연장으로서 바닥에 수용한 동일 개념의 가로340×세로340×두께0.5cm 패널이 회화 표면과 사건의 형식화를 다시 강조한다. 이 전시 작품들은 어떠한 서술보다 회화 표면과 사건의 형식 문제를 가시화한다. 회화의 표면을 확대할 때 보이는 그 물감의 층위가 가지는 입체감을 독립시켜 자연스럽게 물감 고드름이라는 입체 오브제로 이어졌고, 다시 여러 개의 표면층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중층적 연쇄적 개입은 이제 공간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작가가 축적한 시간과 관객의 시간이 이 전시를 바라보는 현재에서 만나 '하얀 흐름'을 느끼는 것, 그리고 회화 '표면'과 '사건'에 관한 작가의 창조적 기억은 현대미술의 현재와 만나고 다시 관객의 미래로 기억되는 또 다른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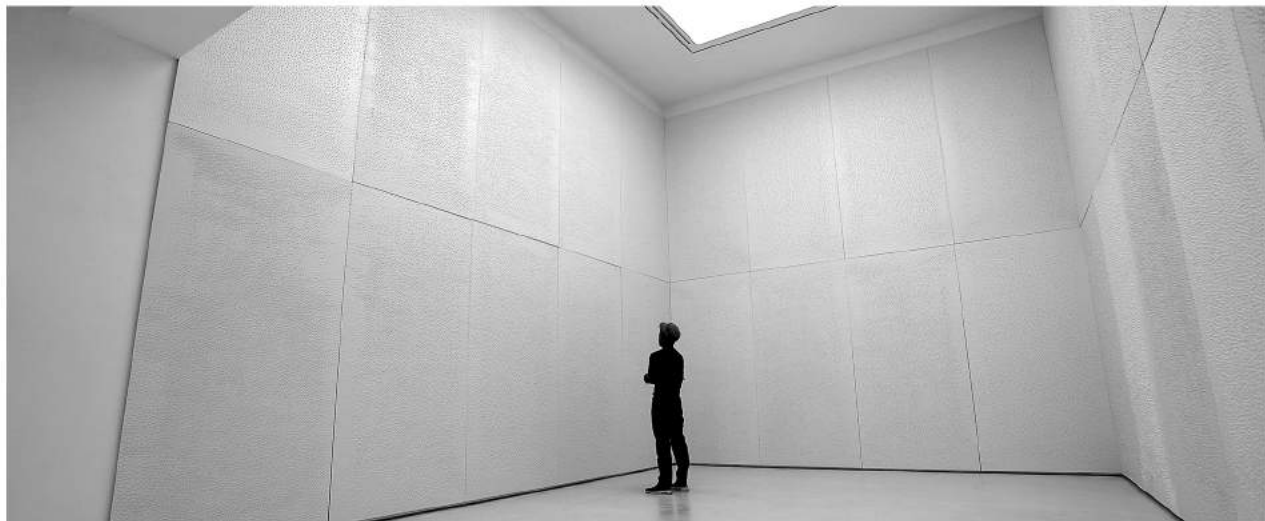
작가노트

본인의 작업은 평평한 화면(포맥스, 캔버스, 판넬 등) 위에 물감을 전체적으로 칠하여 뒤집어서 걸쳐두면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마르면서 굳으면 또다시 이전의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여 물감 고드름 형태의 형상을 완성해나가는 기다림과 느낌의 작업이다. 물감 고드름은 적당한 부피나 무게가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자연의 순리, 법칙)에 의지하여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자연현상으로서 그 형태가 흡사 실제 중유석이나 고드름의 형성 과정과 결과물이 유사하다. 나는 물감 고드름이 맺혀서 자라고 마지막엔 성장을 멈추게 하는 작업을 실행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비롯한 수많은 인간들과 인간 자신이 일궈낸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과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대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서 성장하여 사라지고 또다시 나타나는 자연순환 속의 흐름에 놓여있음을 느낀다. 물감 고드름은 그 형태가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론 겨울에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고드름과 같은 자연적인 의미로서의 자연 조각이기도 하고, 물질적 재료로서 형성되는 의미를 함축하

한편, 작가는 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상실되거나 제거되었던 기억으로서 '숲'을 주목하고 자신의 기억 층 속에 이를 다시 각인시키고 있다. 불에 타고 남은 목탄의 짧은 심처럼 보이는 작가의 '숲'은 현대미술의 선택과 변화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자연 혹은 생명과의 '관계'와 '균형'에 관한 창조적 기억일 것이다. 아마도 이 용어가 '순수' 지향의 선택 밖에 존재했던 비주류를 지칭한다는 사실로 인해 사건의 내면적 '소통'에 관한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관계의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주목은 이전 모더니즘 계열에서 한발 비켜선 자신의 태도를 대변할지도 모른다. 모더니즘의 진화적 형식 맥락을 따르면서도 다른 성격의 사건으로서 '숲'을 주목하여 작업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는 '숲'의 존재를 자신의 작업 태도에 견주어 기억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물결-Wave', '고드름-Icicle', '흐름-Flow'으로 이어지는 주관적이고 서사적인 사건의 기억 스펙트럼을 펼친다. 본능적이라 할 만한 이 기억 설정은 전시에 의해 다시 공작되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과 만난다.

작가의 '숲'과 '하얀 흐름'은 끊임없이 변하고 재배열되지만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정돈된 순수 표면층과 그 위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어떤 회화의 기억으로 제안된다. 구속이 없는 자율성의 기억, 아주 단순한 돌기의 상태와 그룹화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의 기억을 떠올린다. 세상은 끊임 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변화를 잇는 한 순간의 고요하고 미묘한 긴장을 기억한다. 이 기억 속에 온몸으로 들어간 '바라보기'는 새로운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기억공작소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Flow-하얀 그림자를 찾아서... 포맥스에 혼합재료, 244.5×122×1.8cm, 28ea, 2017

Kikuchi Takashi 기쿠치 다카시

2018 기억공작소 I
애매한 기억

2018. 01. 16 Tue ~ 04. 01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 I 「기쿠치 다카시」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사건, 이후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5년 갤러리M에서 선보였던 기쿠치 다카시(機軸)의 조각은 정지해 있으면서도 움직임의 감각하게 하는 자연의 에너지를 다루었던 것 같다. 당시 전시소개 글에는 너무 조각으로 공간을 연출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기쿠치는 자연의 근원에 존재하는 에너지, 특히 나무를 휘면서 시각화되는 탄성과 중력의 긴장감을 탐구하며, 자연의 이치와 그 원리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라 추측된다. 그 이후 오랜만에 기쿠치가 ‘애매한 기억’이라는 전시로 대구에 다시 나타났다. 30대 후반에 불상 만드는 일을 수련한 때문인지, 2013년 즈음부터 미륵彌勒과 범자梵字를 자신의 작업설계에 포함하기 시작했고, 이번

전시에서 전적으로 소개한다. 기쿠치에게 있어서 미술행위는 근원적인 자연에 접근하려는 작가 자신의 탐구로부터 나아가 인간이 가능할 수 없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 등에 관한 예술가로서의 생각이며, 그 생각의 흔적 혹은 기억을 일깨우는 장치로서 미륵과 범자를 설계하는 행위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미륵보살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태어나기까지의 56억 7천만년이라는 시간과 거리를 사유하고 시각화한다. 그는 현세의 미륵보살을 입체로 형상화하고 그 주위 벽면에 범자를 프린트한 긴 천을 설치하여 세상과 우주 –도솔천Tuska 兜率天– 사이의 거리를 시각적으로 사유한다. 미륵은 구원의 불佛이며, 그 구원의 세상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우리를 내려다보듯이 전시실의 천장 가까이 설치된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머물다가 잠시 먼 미래를 생각하며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인데, 그의 애매한 미소가 잔정 우리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와 이상의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애매한 기억」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범종 소리와 함께 미륵을 뜻하는 범자가 먼저 보인다. 다시 보니, 32개의 점이 범자 형상 위에 부조처럼 솟아있다. 이 서예 작업은 전시실 내부 4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23m 길이의 천에 576만개의 점을 프린트한 작업 ‘576 million dots’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서의 글자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서면 범종소리가 울리는 자리에 실제 범종의 일부를 본떠 제작한 ‘소리의 오마주’가 우뚝 서 있다. 2.5m 높이에 폭이 좁은 이 작업은 나라시의 ‘동대사’ 절에 있는 범종과 그 소리를 채집하여 이를 다시 시청각적으로 그려내는 기억이다. 위를 올려다보면, 1m 폭의 천을 종이접기 하듯 정교하게 접어서 벽면에 두 단 혹은 세단으로 설치한 ‘576 million dots’ 작업과 이를 배경으로 벽면의 좌측 상단 높은 곳에 작은 황금색 미륵보살반가사유상 ‘perfume’이 설치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벽면 위의 천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글자 형상이 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글자가 프린트 되어 있고, 그 글자는 32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계는 이해와 접근이 불편한 이런 낯선 상태 속



Perfume, 니트, EPS, 50×22×25cm, 2014

Exhibition View

에서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시간과 거리의 규모가 재생되는 듯 현기증이 느껴지는 공간 연출이며, 대가(大家)를 사이에 두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이상이 가득해지는 공간 차원의 ‘애매한 기억’이다. 다른 반대편 공간의 좌측 벽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억하고 그리는 ‘Meeting’, 바람이 닿는 촉감의 기억을 상징하는 ‘질풍’, 둥근 얼굴의 여인을 기억하는 ‘여성’ 등 나무작업의 기억을 떠올리는 조각들이 보인다. 그리고 가운데 벽에는 금색 ‘유비무환의 지팡이’ 2점들 사이에 두고 얼굴 사진 2점 ‘많이 먹어’와 ‘더 먹어’가 걸려있다. 이는 미술가 홍현기의 어머니가 작가에게 베풀었던 애정에 대한 기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 우측 벽면에는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의 손 10개를 겹쳐서 불확실한 기억의 사유를 표현한 ‘기억의 잔상’이 보이고, 그 옆으로 생명체의 근원을 기억하는 염색체를 털실과 나무로 표현한 ‘XY’ 작업이 보인다. 또 전시장 밖, 지하와 1층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 공간에는 2011년 3월11일, 32m 지진 해일로 인한 재해와 대자연의 힘을 기억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염원했던 애드벌룬 작업 ‘Requiem’을 이 곳 장소에 맞게 재현한 작업을 볼 수 있다.

작가노트

최근에 나는 예술의 가치가 사람의 기억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예술이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서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 작품이 완성될 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이 아닐까 한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미륵이라는 구세주가 있다. 미륵은 아주 저 멀리 우주의 저편, 도솔천에서 5억 7600만년의 시간을 들여 이 지구를 구제하기 위해 내려온다. 정말 광대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 계획은 쿠산 제국에서 형성된 태양신(Maitreya)에서 파생된 미래불이 그 원형이다.

각각 다른 기억의 단편이지만, 그 관계가 유기적으로 체결된 이번 전시 ‘애매한 기억’은 기억으로 그린 커다란 공간적 회화처럼 보인다. 이 공간은 표면 위에 질료가 만나는 사건으로서 회화의 본질적 특성이 적용된 공간이지만, 더 나아가 예술가가 현실의 보편적인 일상의 장(場)에서 표출하는 생각과 행위, 인연(因緣)에 가치를 두며, 공간에 ‘그리워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행위를 회화의 질료처럼 대치시키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우주, 시간, 공간, 거리, 기억, 기록 등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이 애매한 개념들을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더하여 작가 자신만의 서사를 집적하는 또 다른 차원의 회화이기도 하다. 기쿠치 다카시는 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상실되거나 제거되었던 서사적 기억을 주목하고 자신과 우리의 애매한 기억 층 속에 이를 다시 각인시키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자연 혹은 생명, 평화, 기쁨, 치유와 그 관계에 관한 창조적 기억일 것이다. 본능적이라 할 만한 이 기억 설정은 전시에 의해 다시 공작되어 우리의 기억과 만난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을 DNA 속에 품고, 생명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간다. 미륵의 탄생, 참으로 예술적인 감성이다. 5억 7600만년 우주, 어떻게든 시각화하고 싶다! 이 눈으로 보고 싶다! 혹시 이 지구에 탄생한 생물이 전부 미래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인가...?

Kikuchi Takashi

Ryu, Biho 유비호

2018 기억공작소 II
영원한 기억

2018. 04. 13 Fri ~ 07. 01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 II 「유비호」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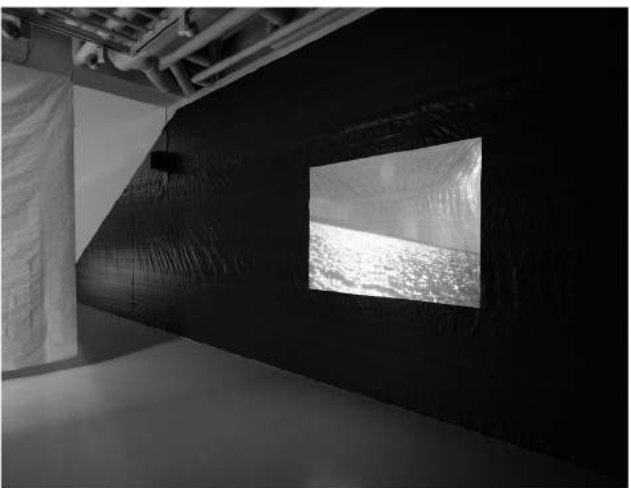
영원한 기억, 난민 8인의 노인분장 사진. 타포린설치, 2018
보이드, 사운드설치, 00:06:26, 2018

그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용,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바다로, 노인으로 분扮한

질푸른 바다의 수평선과 무표정한 하늘, 불안과 기약 없는 나날, 분쟁과 갈등과 분열에 이은 폐쇄와 격리와 이별의 가슴 먹먹한 기억, 파란색과 흰색의 방수포방수포를 임시방편인 듯 둘러싼 공간을 멈칫멈칫 주저하며 동선에 따라 내몰리다보면 바다 속에서나 들을 수 있을법한 소리가 가슴을 울적하게 짓누르며 온몸을 감싼다. 동선 방향의 오른쪽에는 파도소리와 함께 방수포 벽면에 투사한 바다의 영상이미지가 보인다. 이 영상을 무심하게 건너뛰고 흰색 방수포로 가려져 있던 원편의 빛 공간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 가까이까지 벽면에 투사된 노인의 얼굴과 마주한다. 천천히 인물의 상반신 아래에 적힌 설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베를린에서 살고 있지만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難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차적으로 투사되는 8장의 노인 이미지는 바닥에 반사된 역상의 이미지와 함께 아직 분쟁지역에 가족을 두고 온 난민의 깊은 '그리움'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인 듯 펼쳐져 철나철나적 공감共感이 전해진다. 그렇구나, 이 공감을 통해 바다를 닮은 여기, 임시적 공간의 정체성이 이해되고, 공간을 들어설 때부터의 먹먹했던 심정이 다소 해소되기도 하는 순간이다.

'영원한 기억'이라는 명제의 이 사진 작업은 최근 베를린에 정착한 20~30대 시리아 난민 8명을 섭외하여 나이든 노인으로 분장扮裝을 한 후 촬영한 사진이다. 이 작업의 아이디어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70여년 이산가족으로



Scene #. 2017년 12월 4일의 아키알라 해변, 단채널영상, 00:11:21, 2018

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노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시작되었다. 전쟁발발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인터뷰 당시 이미 늙은 노인이 되어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모를 무척 그리워하며 눈물짓고 있었다고 한다. 작가는, 죽은 뒤에야 자신의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인터뷰 속 노인의 운명에 무척 슬펐고, 동시에 가족구성원 모두 심지어 인터뷰 상황 속의 어린아이마저 잃어버린 그의 가족사진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다고 한다. 현재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의 가족 대다수는 뿔뿔이 흩어져있다. 이들은 서로 만나서 함께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아 그들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영원한 기억'이 되고 있다.

나오면서, 다시

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 떠도는 시리아 난민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주변국들이 점차 국경을 봉쇄했고, 이에 시리아인들이 유럽으로 향하면서 유럽 난민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2015년 9월 2일 터키 남부에 위치한 보드룸의 아키알라 해변에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란 세누Aylan Shenu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던져주었다. 2017년 겨울, 작가는 시신이 발견되었던 아키알라 해변을 찾아 이 아이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을 해변가의 파도, 모래톱, 나무, 버려진 오브제, 이름 모를 개, 쓸쓸한 이곳의 풍경을 11분짜리 영상, 'Scene #. 2017년 12월 4일 아키알라 해변'으로 담았다. 전시실에 들어올 때 스쳐 지나쳤던 방수포 위의 영상이 이 작업이며, 에필로그처럼 영화 속 한 장면을 보여주듯 아키알라 해변의 여러 단편적 장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영원한 기억'의 한축으로 구성된다.

작가노트

어떤 상념

망각의 지혜(물), 신비한 돌(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 슬픔의 문, 어두운 향해, 안개 같은 잠, 바다의 노래, 물고기의 비늘, 피 묻은 작살, 오후의 새, 달에서 오는 총알 같은 어떤 충격, 돌연한 정지, 꿈으로부터의 희미한 먼지, 밤의 소금, 가슴을 가로질러 흘러내리는 모든 것, 정다운 무관심, 예의 없는 공적 공간(2014년)

외로움

생명을 삼킨/깊은 어둠/가날픈 숨과 온기마저 용납하지 않는 저 너머/세상 깊은 구멍의/울부짖음
칠 흙같은 어둠/세상의 공허
희미한 빛은 스스로를 숨기고/조용히 어둠이 된다.(2015년 1월 16일)

오래된, 영원한 기억

이곳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다의 파도소리와 함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운드 작업, '보이드'도 역시 아키알라 해변에서 채집한 사운드를 변조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 작업의 아이디어는 그리스 신화 속의 비극적 인물 중 하나인 오르페우스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지하세계에서 사랑받는 애인의 영혼을 데리고 지상으로 나오려는 오르페우스의 심리적 상황-공포, 불안, 기대, 희망 등이 복합적으로 일렁이는- 가족과 애인을 죽음의 세계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는 시리아 난민의 마음과 닮았을 것이리라라는 착안에서이다. 작가는 이들 난민의 그리움을 상상하며, 고독한 동굴 혹은 우주 속 인간 본연의 영원한 기억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유비호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시각예술에 관해 영리한 설계자이다. 그의 미술행위는 지금, 여기 삶의 구조와 현상들에 대한 사변을 바탕으로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심과 미적 사유 사이에서 시각적인 구체성과 서사를 드러내는 것이며, 관객으로 하여금 작가 자신이 설정한 인물로 분扮하도록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원한 기억'은 다름 아닌 자아와 현실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감성적 분扮의 설계이며, 이때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도외시되었던 생명 경외의 반성시기에 앞서 삶을 응시하고 인간의 깊은 본성을 드러내어 공감하려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현실 삶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에 대한 예지豫知적 해석과 미묘하지만 생생한 예술적 장치에 관한 유효성의 추출이다. 현실REALITY를 인간 스스로의 생동生動 공감으로 확장하려는 이번 전시 '영원한 기억'은 낯선 일상에 반응하는 '공감'의 기억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환기시켜준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현실의 바위에 한 발을 굳건히 내딛고 나머지 한 발은 흐르는 물의 표면에 살포시 담그며 존재를 성찰하다"(2015년)

"物質과 靈을 感覺化하여 經驗空間으로 構築! 死鏡을 비춰주어 實存的 思惟와 美의 世界로 案内하라!!"(2015년 12월 14일)

"얼어붙은 마음을 '죽음' 또는 '미(美)'로서 깨부수고 녹일 수 있을까?"(2014년)

"작가의 행위는 세계의 단면을 드러내 보이는 개념의 칼날과 같다"(2014년)

"패턴인식을 하면 숨겨진 차원 혹은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2014년)

유비호

Seo, Ok soon 서옥순

2018 기억공작소Ⅲ
눈물 The tear

2018. 07. 13 Fri ~ 09. 30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Ⅲ「서옥순」展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눈물, 450x470cm, 천에 자수, 2018
눈물, 500x400cm, 실, 2018
눈물, 158x130cm, 패브릭, 솜, 실, 2018

그러나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눈물’

서옥순은 전시장 입구에서 보이는 전면의 높이5.14x폭4.96m 벽면에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자화상, ‘눈물’을 바느질로 그렸다. 흰색 천 바탕에 검은색 목실로 바느질한 흑백 선묘 방식의 얼굴 그림이다. 특이한 점은 얼굴의 검은 눈동자에서 흘러내린 두 줄기의 눈물인데, 그 눈물 중에서 한 줄기는 검은 실의 선이 길게 수직으로 흘러내려 얽힌 듯 자유롭게 바닥 면에 이어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얼굴은 나 자신이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담은 그릇”이라는 작가의 말에서처럼 이 얼굴은 자신과 현실세계 사이의 관계가 흔적으로 남는 장소로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벽면 얼굴의 아래에는 좌우벽면 사이를 검은 실로 촘촘히 이어 만든 세로 4.9x가로4.9m 정도의 사각 수평면이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띄워져 설치되어 있다. 이 풍경은 가까운 쪽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검은 색의 변화로 인해 신성함을 주기도 하며, 고요한 밤의 수면처럼 평안한 명상冥想 meditation의 상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어진 실을 묶어 이은 몇 개의 매듭 때문인지, 정색한 듯 반듯하지만 내면의 굴곡과 희로애락의 걱정을 숨겨 가리려는 막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작업의 형식면에서, 평면의 캔버스 천 표면을 바느질하는 작가의 행위가 이곳 장소에 특징적으로 설계되어 성립하면서 공간을 바느질하는 행위로 확장된 상황이 흥미롭다. 그리고 그 촘촘히 엮은 수평면의 검은 실 사이 아래로 울긋불긋한 천 재질의 실제 인물크기 인형이 보인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오른손은 편 채로 누워 있으며, 흰 머리카락과 함께 얼굴에는 검은 나비 문양이 바느질되어있고 몸에는 꽃, 나뭇잎들이 프린트된 화려한 색상의 천이 여기저기 꿰매져 있는 입체 자화상이다. 평면에서 입체로 확대된 바느질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작업은 작가 자신의 삶과 생을 시각화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세상에 내던져진 모든 인간의 존재를 다룬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얼굴, ‘눈물’이 설치된 벽의 반대편에는 바느질 행위의 흔적을 담은 9점의 평면작업이 시선을 머물게 한다. 그릇에 넘쳐흐르는 물, 뭉쳐진 실, 손바닥 위에 세워진 식물과 흐르는 흙, 벌레, 기울어진 그릇에 담긴 꽃잎과 흐르는 물, 입으로 물을 쏟아내는 얼굴, 식물의 액이 흐르도록 세게 친 손 등 작가의 기억에 남는 인생의 순간을 단순하게 시각화한 은유적 그림들이다. 앞

서 본 ‘눈물’에서처럼 이 그림들도 몇 가닥의 검은 실들이 흘러내린다. 이 흘러내린 선을 두고 린하르트 폰 몽키비취Lienhard von Monkiewitsch는 이렇게 말했다. “캔버스에 서로 엉키고 또한 풀리면서 끝없이 뻗어 내리는 선들은 고정된 완벽성과 절대성에 대한 반어이며, 또한 짜인 공간을 소멸시키고 제거하는 힘의 역동성을 화면에 실어준다. 그리고 흘러나온 실은 또다시 머무르지 않고 어디론가 가는 인간의 여정에 대한 암시로서 표현된다. 이러한 확고부동한 흑백의 대비와 한면을 흘러내리는 듯한 유연함의 조화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 지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영원불멸이라는 인간의 원천적인 욕구에 대한 반문으로 나타나는데, 그녀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허상이 하나의 자연 법칙에 의해 흘러간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바느질 ‘행위’

얼굴, ‘눈물’은 세로80x가로70cm 캔버스 천위에 바느질했던 2001년 작업을 확대하여 제작한 것이다. 서옥순의 다른 작업들이 그렇듯이 이 ‘눈물’은 작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으로 조직된 개인의 역사를 떠올리며, 자신이 흘린 눈물과 바느질 행위가 겹쳐지면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듯 상처의 치유와 봉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지향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밤, 바느질로 복주머니를 만들어주시던 할머니에 관한 아득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완고한 아버지와 여린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기에 겪었던 상처와 억압, 불안 그리고 1996년 낯선 유학생활에서의 두려움 등을 비롯하여 살아가는 동안의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의 사연들이 개인의 역사이며, 눈물은 개인의 역사가 거처하는 냉랭한 관념들을 감성적으로 전환 혹은 해소

작가노트

2001년 초여름, 모두가 잠든 고요한 한밤중에 세수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본 나의 얼굴.
나의 얼굴과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넌 누구지?

유학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터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 기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울 저편에 있는 나의 얼굴은 이날따라 지켜보었고 우물했다.

전시를 앞두고 하얀 캔버스 위에 바늘과 검정색실로 정면을 응시하듯 바라보는 나의 얼굴을 수놓기 시작했다. 손을 놓으며,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 무얼 하고 있고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데 관여한다. 또 눈물은 명상과 사색의 스펙트럼처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꼼꼼히 생각하고 여러 방향으로 고찰하며 자신을 되새기는 바느질 행위와 겹쳐지고 그 행위의 지속과 함께 감수성의 영역에 머물도록 한다. 이 때 고통과 상처와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미세한 감성의 울림과 함께 정화淨化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서옥순의 작업의 본질은 천위에 그림을 실과 바늘로 떠서 놓는 바느질 needlework ‘행위’이다. 무엇을 잇고 덧대고 꿰매고 수놓는 이 바느질 행위가 우리에게 울림을 전하는 것은 그 ‘행위’ 안에 정성을 더해 사려悤悤와 심사숙고深思熟考하는 사색思索의 태도가 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옥순의 바느질 행위는 낯선 세계를 향한 두려움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유思惟와 정확 행위이며, 그 행위는 ‘살아가기’이고 생존의 지혜로 구축해가는 세계 ‘그리기’이다. 이 바느질 ‘행위’야말로 작가의 존재방식이다. 이것은 행위와 감성이 만나 현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생의 지속적인 시도인 것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눈물’은 다름 아닌 자아와 현실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감성적 ‘자신되기’의 설계이며, 이때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삶을 응시하고 인간의 깊은 본성을 드러내어 공감하려는 태도이며, 현실의 삶이 예술에 관계하는 예지靈覺적 해석과 미묘하지만 생생한 예술적 유효성의 추출이다. 현실REALITY를 인간 스스로의 생동生動 공감으로 확장하려는 이번 전시 ‘눈물’은 낯선 두려움에 반응하는 ‘행위’의 기억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환기시켜준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수많은 기억의 저장소에서는, 바늘귀에 실을 꿰어 캔버스 위아래를 바느질하는 반복된 과정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듯 기억들이 하나, 둘 나와 내 주위를 맴돌아 살아가기 시작했고, 한숨과 기쁨, 슬픔,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교차하면서 기억과 망각을 오고갔다.

이런 생각이 거의 지나갈 무렵 마음은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고, 나의 얼굴 중에 거의 완성단계인 눈동자를 수놓으며, 마지막 매듭을 위해 실을 길게 뽑아 올리는 그 순간, 나의 시선은 눈동자에서 흐르는 듯한 뜻밖의 발견 serendipity,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나의 기억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상황과 오버랩 되어 진짜 눈물이 되어버렸다.

서옥순

Inhwan Oh 오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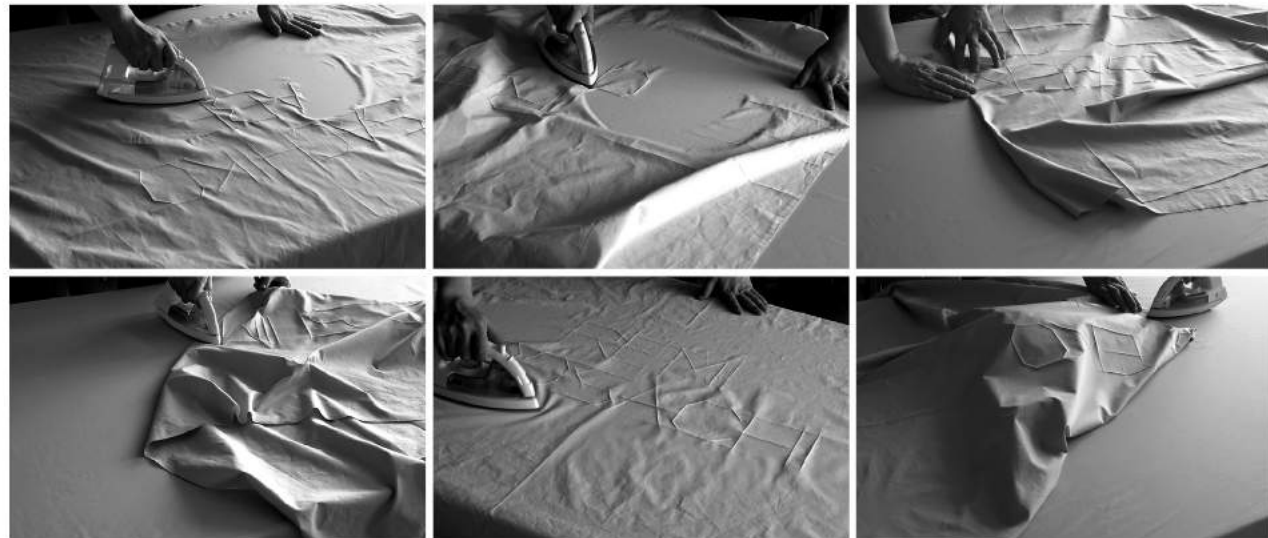
2018 기억공작소IV
나는 하나가 아니다/ Am Not One

2018. 10. 19 Fri ~ 12. 30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IV「오인환」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My Names- Writing Names by Ironing 1,2,3, 2018, documentary video of performance (still images)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용,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차이, 정체성

전시장에는 '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글자와 대형스크린에 투사된 여성의 얼굴 영상, 다림질하는 장면이 담긴 3개의 모니터가 있다. 여기에는 심미적審美的이거나 문학적 서사敘事와 형상의 재현再現으로서 미술은 없다. 대신에 전시된 작업들이 작동하여 의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구조構造, 즉 오인환이 설계한 문화 비판적 성격의 동시대미술이 이곳에 있다.

일반적으로 미적審美的 형상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創造 활동이 미술작업이라면, 그 창조 행위(行爲)는 차이差異로부터 가능하고, 차이는 정체성identity의 담론에서 구할 수 있다. 오인환은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미술작업을 지배적인 주류문화가 허용하지 않는 다양한 '문화적인 사각지대' 찾기로 설정하고, 쿼어 입장에 서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개념적 미술작업으로 기억된다. 전시장 바닥에 그 도시의 게이바 이름을 향 가루로 쓰고 태우는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2001)', 초청한 남성 참여자의 옷을 세탁해서 돌려주는 '나의 이름다운 빨래방 사루비아(2002)', 친구와 공통적으로 소유한 물건을 촬영해서 관계를 드러내는 '우정의 물건(2000)', 주간신문에 자신을 GKM(케이 한국 남성)으로 소개하고 '진짜 백남준' 등 작가를 찾는 광고를 게재한 '퍼스널 애드(1996)', CCTV가 감시하지 못하는 전시 구역에 핑크색 테이프를 붙여 사각지대를 시각화한 '사각지대 찾기(2015)' 등이 그것이다.

하나가 아닌 이름, 나

관객이 첫 번째로 만나는 작품은 철판으로 만든 입체조각 문자의 후면에 화려하게 변하는 색상의 LED배경조명을 설치한 '나는 하나가 아니다'이다. 전시의 제목이기도한 이 작업에서 작가는 개인의 정체성이 '복수plural'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이 '단일한' 또는 '공통의 것'임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전시켜 나 또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중적'이고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상태임을 전달하고, 나아가 하나로 귀결되는 보편적 삶의 방식 너머에 있는 타자의 경험들을 확장하여 표준화된 일상과 문화적 규범을 탈고정화 시킬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에 매달린 가로3.36×세로1.93m의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을 만난다. 2012년 일본 교토아트센터에서의 레지던스 기간에 시작한 작업, '나의 이름들' 중의 하나인 이 영상에서 작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로서 이름에 주목한다.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이 영상은 이름(성名, surname)을 여러 번 변경했던 일본 여성들과의 인터뷰이다. 이름을 변경했던 경험을 소개할 때마다 인터뷰이 여성의 자리는 변하지 않지만 장면이 전환되며 인물의 배경이 달라지는 화면처리는 특히 주목해야 할 시각적 장치이다. 이름은 한 사람을 대표하는 기호이지만,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성(주로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일본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이 자신이나 부모의 결혼과 이혼에 의해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가부장제 문화가 그녀들에게 부여한 타자로서의 위치를 드러낸다. 하지만 작가는, 그녀들에게 있어서 타자의 위치는 '나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름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하기'를 가능케 하고, 부여된 정체성을 당연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숙고熟考할 수 있는 열린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읽어낸다. 억압의 구조 속에서 타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기보다 그 억압의 구조를 오히려 자기발견의 조건으로 재

작가노트

전시 제목 "나는 하나가 아니다"는 개인의 정체성이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복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상태임을 함축한다. 정체성을 포함하여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란 결론이 아니라 다원적인 해석을 수용해야 하는 대기 상태일 것이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유동적이거나 보편화되지 않은 타자의 경험을 통해 정체성과 그 수행이 고정되지 않는 변화의 과정임을 제시하고, 나아가 주체와 달리 상대적이거나 불안정하기까지 한 타자의 상황이 오히려 개인을 규범화하는 문화 구조를 자각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The exhibition title, "I am Not One", implies that an individual's identity is unfixed and fluid, rather than suggesting that one's

설정하는 사례로서 '나의 이름들'의 인터뷰 영상은 한 개인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문화적 '당연성'을 해체할 수 있는 대안적 타자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편 공간에 설치된 3개의 모니터 작업은 '나의 이름들'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소개한 이름들을 작가가 다림질을 이용해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퍼포먼스의 영상기록이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변경된 이름들을 쓰고 지우는 다림질하기는 '이름'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기표임을 시각화하고, 현재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나의 정체성 역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즉, 하나의 이름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의 나'는 없음을 시각화 한다.

이번 전시 "나는 하나가 아니다"에서 오인환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강화하는 일상적인 활동과 고정화된 관행에 작동하는 문화적 구조를 재해석하고 해체하는 문화 비판적인 발언으로서 미술을 시도하며, 이러한 문화비판적인 미술을 실천하기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작업이 미술상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물질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온전히 경험적으로 감상되도록 하려는 설계자이다. 그의 미술행위는 지금, 여기 현실사회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관심과 미적 사유를 바탕으로 개념과 미술작업이 작동하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며, 작가에 의해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전달되기보다는 협업자로서 관객이 선택 혹은 감상의 차이에 의해 의미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설계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전시는 주류나 보편적인 문화 체계에 상반되는 타자의 입장이나 차이의 공간이 지니는 가능성을 드러내어 교감하려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현실 삶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의 예술적 장치에 관한 '공감'의 기억으로서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환기시켜준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identity is multiple, which cannot be regulated to a single one. It does not conclude to the fact that, including identity, it is single and fixed, but rather it is in a standby-state in which one has to accept plural interpretations. Two works that will be presented in the exhibition suggest that identity and its performance is an unstable, changing procedure, shown through the Other's experience that is not generalized or flexible. It further reveals that the relative or unstable situation of the Other, which differs with the subject, can become a positive condition in which one can realize the cultural structure that standardizes an individual.

오인환

Kim, Seoung ryong 김성룡

2019 기억공작소 I
흔적 - 비실체성

2019. 01. 17 Thu ~ 03. 31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 | 「김성룡」展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성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지 있게 살려 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흔적-비실체성

예사롭지 않다. 전시장 입구의 천장 높이 벽면에 걸린 어두운 색 부엉이 그림 ‘새벽’이 그렇고, 조금 더 안쪽의 정면 높은 벽에 걸린 3점의 그림, 날렵한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매를 품으며 꿈틀거리는 나무와 숲과 바다를 그린 ‘새벽’, ‘바농오름-깊은 잠’, ‘공의 뜰’이 그렇다. 그 좌측 벽면에는 숲의 정령이 흰 비둘기를 안고 왼손을 쳐들어 주문을 외는 그림 ‘숲의 사람’,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면 해골무늬 표피의 표범이 석류나무 가지 위를 걷고 있는 그림 ‘첫알오름’과 그 좌측으로는 발기한 고흐가 해골을 품은 숲을 바라보고 있는 ‘반 고흐의 숲 2’가 그렇다. 그 아래에는 섬세하고 연약한 감수성의 ‘소년’ 그림이, 그 우측에는 발광하는 노랑 빛을

배경으로 몸속의 혈관이 나뭇가지처럼 뻗어 숲으로 확장하는 듯한 ‘반 고흐의 숲’이 그렇다. 어느 그림과는 아주 다른 그림들이다. 심미적審美的 재현再現이기 보다는 몽환夢幻처럼 초현실적인 심상의 사실적인 서사敘事를 떠 올릴만한 비실체성의 생생한 흔적으로서 회화이며, 이 회화들은 비실체성非實體性, 정령精靈, 기운 등을 은모으로 전율하게 하는 구조構造로서 김성룡이 생각하는 리얼리즘 혹은 초이성적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대미술이다.

김성룡은 필기구인 유성 볼펜을 이용하여 형상 이미지를 집요하고 정밀하게 그려온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몇몇 알려진 평문을 통하여 작가의 독자적인 시각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김종길에 의하면, 김성룡은 “현실이라는 리얼리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부조리한 세계의 찰나를 붙잡으려는 세계 인식을 통하여 슬픔, 공포, 죽음, 어둠의 색채들로 구성된 회화들이 기쁨, 환희, 삶,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했으며, 강성원은 “김성룡 작업들의 주된 예술적 계기들은 오욕汚辱에 의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잃어버린 생의 신화를 통해 개인의 역사의 서기書寫들에 대한 동경을 회복시키고자하는 의지에서 출발한다.”고 했고, 고충환은 “김성룡의 그림에 나타난 폭력성은 그 실체가 희미하기만 한 존재의 심해를 건너가는 도구이자 무기다. 작가의 그림은 그대로 그 심해 한가운데서 만난 풍경을 현실의 표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고 했다. 또 이영철은 김성룡의 작업에 대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도화선으로서 존재의 폭력성과 자연의 마성魔性을 언급하며, “예술의 인습적 역사 너머 초이성의 공간을 걷고 있는 작가의 그림 속에는 과거에 겪었거나 현재 자신을 심부에서 휘젓는 어떤 것이 숨 쉬고 있다.”고 그 태도를 평한바 있다.

독자적인 태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관습적인 회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가의 형상 이미지는 기이한 상상력으로부터 분노와 좌절, 고통과 절망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 내면의 시적이고 영적인 감성들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또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하여,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장소에서 그 형태를 본다는, 시선의 집중적이고 완고한 정신적 비물질적 의미는 시선을 존재론적 사유의 비실체적 세계의 경계 너머까지 걷게 하는 것”

반고흐의 숲2, 180x130cm, 종이에 유성볼펜과 아크릴릭, 2014
소년, 109x79.5cm, 종이에 유성볼펜과 혼합재료, 2003
첫알오름, 181.8x227.3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
반고흐의 숲, 158x110cm, 종이에 혼합재료, 2008
숲의 사람, 110x80cm, 종이에 유성볼펜과 혼합재료, 2007



새벽, 107.5x78.2cm, 종이에 유성볼펜과 먹, 2008

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비실체성’에 관한 그림들은 산 것과 죽은 것, 현실과 비현실, 실체와 비실체의 몽환적 경계 상태에서 숲과 사물을 살펴보면 걷는 행위의 ‘흔적’을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석류와 표범이 그려진 ‘첫알오름’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민간인 학살터에서 풍기는 비극적인 현대사의 서기 흔적과 더불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헤매며 어슬렁거리는 표범의 흔적으로 비유하여 그 녀의 비실체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바농오름-깊은잠’은 숲의 정령과 기운을 간직한 흔적들과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매의 지태를 통하여 비실체성을 드러낸다. 볼펜 선으로 그린 ‘숲의 사람’, ‘고흐의 숲’, ‘소년’ 등은 최소한 수만 번의 선을 그었던 편집증적인 신체 행위의 응집력을 통하여 회화적 성과를 넘어선, 인간 영혼이 연계하는 비실체성을 담아 생생한 날것의 이미지로 신화화 하려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고흐의 숲’ 언젠은 순수 영혼으로서 인간 고흐와 그의 회화에 대한 경외심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회화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역사의 축으로 재편했던 비실체적인 힘에 관한 탐구의 흔적들이다.

작가노트

생전의 내 아버지는 나고야에서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마친 후 한국으로 왔다. 그러저런 이유로 나는 다시 나고야에서 전철을 타고 낫선 일본 사골마을에 내렸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금빛잉어들이 놀고 있는 오래된 석조다리를 건너간다. 하룻길의 남부 고등학교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간다. 순간 그들의 교복에서 풀빛냄새가 난다. 이 마을은 온통 짙은 강물냄새와 천리향 냄새가 가득하고 햇살은 따스하다. 무심하게 마을길을 걷다가 가장 낮은 일본 전통가옥의 뒤뜰에서 마른 나뭇잎을 주어서 손으로 부벼 본다. 나는 이 마을의 집들과 나무들과 길들을 스케치하거나 사물들을 흔적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곧 저물 무렵이어서 할머니가 주인인 식당에서 따뜻한 덮밥을 먹고 .30대 여성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멋진 인테리어의 옷 샵에 들렀었지,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들은 흑백의 절제된 모노톤의 모던한 디자인이어서 좋았다. 나는 인생의 위대한 계절들을 솔하게 지

숲의 기묘한 징후들을 감성과 이성으로, 다시 초이성적으로 드러내려는 이번 전시, ‘흔적-비실체성’에서 김성룡의 미술행위는 공간의 틈새마다 느껴지는 푸른 공기의 흐름처럼 작가의 시선 속에 포착되어진 역사적, 신화적, 현재적으로 감도는 정령의 숨결 같은 대상들과의 조우로서 작동한다. 또한 김성룡의 숲은 자연과 이어지고 자연과 통하게 하는 비실체성으로서의 통로이며, 인간의 초월적 영역에 관한 경외심의 또 다른 흔적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한 점의 그림은 그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의 내부 속에서 들어간 채, 그 보는 자와 함께 하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김성룡의 숲은 숲을 보는 자, 즉 관객에게 이미 체화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관객은 초이성적이고 몽환적인 회화들로 인한 사실적인 시각체험을 통하여, 상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객 스스로 이미지에 대한 감수성과 의미와 힘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리얼리즘의 기억공작소를 경험함으로써 예술에 관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나쳐온 노인들이 많은 이 마을에서 심신이 편안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루가 덧붙여지는 가까운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을을 만날 때마다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발견한다.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닌 혹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것의 이질감이 낯설고 소유해 보지 못한 장소의 입구에서 서성거린다. 지금 나는 나무로 만든 목조의 육교 위를 걷다가 마을을 내려다본다. 낫선 마을은 내 손에 그어진 손금들처럼 굽고 선 굵고 횡단하고 잘리고 이어지며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의 연속이다.

나는 본 일이 없다. 앞서가는 나의 저녁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생명론 앞에서 어떤 이유도 있고 서성거리는 내 모습은 천리향 나뭇가지에 걸린 채 펄럭거리다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검은 비닐봉지였다.

김성룡

Kim, Tae heon 김태현

2019 기억공작소 II
놀자

2019. 04. 12 Fri ~ 06. 30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 II「김태현」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리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라!*



놀자
53x72.5cm
캔버스에 오일, 2015

그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용,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놀자의 놀姿, 놀자

전시실 입구에는 그동안 작가의 그림과 글을 함께 펴낸 출판물들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작은 아카이브 공간이 있다. 그 곳을 지나 마주보이는 흰색의 높고 넓은 전시실 벽면에는 그림 1점, 53x72.5cm크기 2015年作 ‘놀자’가 전시되어 있다. 이 ‘놀자’는 19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의 표지 이미지 일부를 고쳐 그린 것이다. 작가는 언제부터가 우리가 배우는 지식도 소비재가 되었고, 국내 학교에서 배우는 대개의 지식은 가치관과 실천적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치장으로밖에 역할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주제이자 전시 제목의 의미이기도 하다. ‘태극기’ 대신에 ‘놀자기’로 바꾼 ‘놀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면 읽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려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그림들이 빼곡히 전시된 광경을 맞볼 수 있다. 머리 위 높은 벽면에 ‘Big Boy’, ‘나는 거짓말쟁이 화가’, 큐빅으로 장식한 ‘여인누드’, 빨간 풍으로 놓고 있는 개의 ‘똥발’ 등 7점이 걸려있고, 그 아래 천장 낮은 공간의 세 벽면에는 205점의 작은 그림이 꽉 차있다. 그림은 나의 오랜 친구라는 의미의 ‘그림아 놀자’, ‘그림 장사 안하고 어딜 놀러 가냐’라고 말하는 개 그림, ‘수놓은 꽃과 말 오브제’, 한판 붙자며 ‘빨간 글러브를 낀 놀자’, ‘파란 캔버스를 갈로 찢은 여자 전사’, 구겨진 산수화를 배경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놀자’ 등등의 작은 그림들이 하나의 작업처럼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의미들을 산출하고 있다. 전시된 작업 중에는 오래된 물건이 많이 보인다. 우연한 기회에 몸 미술관 관장의 권유로 작업을 위해 기부 받은 상당한 분량의 가구와 물건들을 하루 종일 털고, 닦고, 해체하고, 버리고, 재조립하여 거기에 그림을 끼워 넣으며 오브제를 붙이고 잘 놀았다고 한다. 이 작업들이 ‘붕붕-놀자’, ‘잠화-빅보이’, ‘빅보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일부가 여기에 소개된 것이다. 전시 작업 혹은 자료집과 관련하여, 작가의 태도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사건 중의 하나인 ‘연주야 출근하지 마’는 여행하며 그리고 쓴 것을 전시와 함께 출판한 책 이름이다. 이 책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인의 삶을 살던 아내에게 그녀가 자신을 찾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작가 자신과 함께 105일의 동남아 배낭여행을 실천한 ‘놀자’ 행위의 흔적이다.

기존 미술에 관해 점점 소진泯滅되어가는 공감 가치를 스스로 비판하고 대체하거나 확장하려는 생각일 것이다. 김태현, 그는 자신의 작업을 잘 기구어진 정원이기보다 잡초들과 뒤섞인 ‘마당’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하늘 아래 산그늘 사이로 등성등성 잡초가 보이고, 담벼락 곁에 감나무나 살구나무가 서있고, 그 옆의 거름더미 사이로 콩이나 호박, 채소를 심기도하고,

비바람과 서리, 눈, 어떤 때는 태풍을 제뫼인양 순순히 받아들이고, 식구들의 빨래와 추수한 곡식을 말리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동네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는 그런 마당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시는 조경 전문잡지의 화보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답거나 반듯이 정돈된 관념적인 정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복잡하고 충만한 실제 현실에 내 몸이 감각하고 정서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우리네 마당을 닮은 김태현의 태도와 그 미술행위를 엿보는 사건으로서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적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비가시적 요소를 포착하고 이미지와 언어를 작용시켜 낯설듯이 조형하는 미술 행위를 한다. 우리는 2001년, ‘김태현의 화난중일기韓亂中日記’를 소개하며 황신원 큐레이터가 작가의 태도를 언급한 “비딱하게 바라보기’의 방식을 그림을 눈으로 바라보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작품으로 변모시킨다.”를 기억한다. 작가가 지금까지 일기처럼 그려온 작은 그림들에는 동시대의 ‘역사성’과 ‘시대성’과 ‘사회성’이 녹아든 삶에서 ‘미술이 무엇인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대중과는 소통되는가?’, ‘삶과 예술의 결합이 가능한가?’ 등을 자문해온 작가 자신만의 ‘작가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이미 삶과 유리되어 양식화된 주류 미술을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의 차이差異로부터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른 영역 즉, 민중미술, 공공미술, 드로잉, 여행스케치, 동화책 그림 등 다양한 작업 영역에 서서 미술행위의 폭을 넓히는 작가로 기억되어왔고,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까지 자신의 미술행위를 관통하는 ‘놀자’를 선보인다.

작가노트

많은 게 넘치는 세상이다. 물질이 넘치고 정보가 넘치고 정신까지 차고 넘친다. 과잉의 시대에 대안으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처럼 끼어들다. 점점 피로하다.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소통하는 일 역시 피로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기가 좋아 작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돌이켜보니 까마득하다. 생각해보니 그림 전공자가 되고부터 작업에 목적을 앞세워 오랜 시간 치열하게 동행했다. 그림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게 아닌데요”란 말도 배웠다. 시간이 더 흘러 화가로서의 포부를 세워도 보았고, 나는 ‘실체는 있으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작가가 되고도 싶었다. 시간이 더 더 흐른 요사이 그림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자주 내려놓는다. 그러자 삶이 머~영 때리기 시작했다, 피로와 영이 덤불처럼 자라 일상을 뒤덮었다. 덤불을 뒤집어쓴 그 속에서 가끔 뭔가 해야겠다는 욕망이 죄책감과 함께 꿈들대면, 그때마다 나는 목적 잃은 작업을 일으켜 세워 놓는다. 맥락 없는 멍한 작업이 모이면 이것들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데, 역시나 정신없다. 그래서 좋다.

어느새 나의 삶이 ‘선택과 집중’으로부터 자유로워 작업형식과 내용이 흔들리다 못해 바람처럼 되었다. 이쯤 되면 작업은 잘 기구어진 정원이기보다

장자莊子를 좋아해서 자신을 ‘놀이’로 칭하기도 하는 작가가 말하는 ‘놀자’는 자유롭게 이리저리 술술 거닐며 돌아다니는 소요遊適, 산책散策, 산보散步인데, 작가 자신을 은유하는 팔색조이자 꿈틀거리는 욕망, 그림을 가볍게 해주는 장치거나 이미지를 연결하는 접속사, 화면을 흔드는 작은 울림, 손오공의 근두운, 말풍선, 장자莊子의 봉으로서 ‘붕붕’이 붕-붕- 하늘로 날아올라 이놈저놈, 이것저것, 오기조기 여행을 다니며 기웃거리고, 수다를 떨거나 활자 속을 걸어 자신 안의 나를 건드리며 노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작가는 ‘붕붕’에 대하여 “현실은 막강한 중력과 같아 철없이 세상 위를 날고자하는, 맥락에서 자유롭고자하는 나를 항상 아래로 끌어내린다. 그래도 내 작은 그림을 빌려 타고 나는 매일매일 탈주한다. 현실이란 거대한 그놈, 거인을 향해 뺨을 날리며 붕붕 날아올라 논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삶과 미술의 비가시성을 연결한 213점의 작은 그림들을 드러내려는 이번 전시, ‘놀자’에서 김태현의 미술행위는 미술을 그대로의 삶으로 느끼는 작가의 시선 속에 포착되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감도는 대상들과의 조우遭遇로서 작동한다. 이번 전시에서 관객은 기존의 관행적인 회화들과는 다른 사실적인 조우로서의 시각체험을 통하여, 상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객 스스로 이미지에 대한 감수성과 의미와 힘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우리그림의 기억공작소를 경험함으로써 예술에 관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잡초들과 뒤섞인 마당이다. 그중 어떤 작업은 잡초에 가까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나도 알 수 없는 별거 아닌 것들이 새로운 무언가로 불쑥 내안으로 들어오면 땡큐다. 그것들과 함께 멀리 떠날 수 있다면 더더욱 땡큐다. 요 몇 년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것들을 작업으로 만들어 놀다보니, 넘치는 세상처럼 어느새 내 작업실도 그 모양이다.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이 모여 세상 밖으로 나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이야길 한다.

LP판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바늘이 튀며 노래가 반복된다. 반복되는 인생 역시 어딘가에 스크래치가 생겨 문제가 발생한 거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은 지루한 반복’이라 말한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인생은 노래 몇 곡으로 끝나는 LP판이 아니다. 자신에게 들려줘야할 인생의 달콤 씹새로운 곡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벌써부터 판이 튀면 한마디로 X된 거다. 다행히도 나는 이 점에서 계속 나의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뭔가에 끌리면 그림으로 별별 짓으로 저지레하며 논다. 그렇게 짓하며 놀다 대구까지 왔다.

김태현

kwonjunggho 권정호

2019 기억공작소Ⅲ
뉴욕 1985

2019. 07. 12 Fri ~ 09. 29 Sun
4전시실

기억공작소Ⅲ「권정호」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켜보고 기억하래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가장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과 그 또 다른 가능성의 기억을 공작하래!*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 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해골 87-1(skeleton 87-1), 133.5x179.3cm, acrylic on canvas, 1987

「스피커, 뉴욕 1985」

1984년 어느 날, 동시대미술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머물던 뉴욕의 학교 주변을 여슬경거리다가 길가에 버려진 작은 스피커 세 개를 우연히 발견하고, 대도시의 소음 공해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에 견주어 회화의 새로운 구조를 착안했던 그 순간의 기억, '뉴욕 1985'는 이 기억을 호출한다. 권정호는 증폭된 전기신호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향에너지로 변환하는 '스피커'와 우연히 마주하면서, 평소에 고민하던 '그림에서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가 가시적인 외형의 매체로서 '육체'이며, 생각이나 감성을 음성기호로 구성한 '소리'가 비가시적인 내용으로서 '정신'에 대체될 수 있겠다는 착상構想이다. 말하자면, 스피커는 소리를 상징하는 그릇인 셈이다. 스피커를 재발견한 이 사건은 '개념과 의미'가 대중에게 잘 전달되는 미술을 원했던 작가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곧장 그것을 개인 작업장으로 들고 왔다. 그리고 화판 한복판에 스피커를 붙이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로질러 붓질을 이어갔다. 그 순간 나는 이 행위가 소리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의 형식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화판 위의 붓 자국은 바람을 연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즉 소리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존재다. 작품도 음陰과 양陽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나는 스피커와 행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이것은 전달이라는 개념 자체를 작품으로 본 마살 맥루한의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내가 관심을 가졌던 동양의 이기이원론과도 무관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스피커와 행위의 개념적인 결합을 통해 소리를 작품으로 시각화한 나의 '소리' 시리즈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자연히 추상과 구상의 결합, 나아가 현대미술에서 형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신표현주의'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번 '뉴욕 1985'전에서는 1984년 당시의 스피커 작업 2점과 이후에 제작한 대표작 1점을 소개한다. 전시장 정면의 천장 높은 벽에 걸린 1985년 작 '소리 85'는 스피커를 오브제가 아닌 이미지로 차용한 대표작이다. 인간이 이론 과학기술적 성취를 대변하는 '이성'과 '양'의 요소로서 스피커 이미지를 그려 넣고 그 주변에 종이를 붙여서 다시 찢고 거친 붓질을 가미해서 '음'의 요소로서 비가시적인 소리의 영역을 정서적 감성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 뒤돌아서 보이는 반대편 벽면에 설치한 입체작업 '소리는 그 당시에 발견한 스피커와 철자, 악보, 나무박스 등으로 구성한 1984년 작품을 올해 새로 제작한 것이다. 소리의 수치를 재려는 듯이 쇠로 만든 자를 붙인 이 작업은 자신을 억누르던 소음으로 고생스럽던 뉴욕 생활의 현실이 스며있다. 그 우측 아래 벽면에 걸린 '소리는' 1984년에 시작해서 1985년 완성한 회화 작업이다. 화면에 스피커와 깨진 유리조각을 붙이고 그 표면에 붓질을 한 이 작업은 인간을 억압하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실험과 작가 자신이 찾던 뭔가를 발견한 충만함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작업들은 비가시성과 시각형상, 내용과 형식, 비실체성과 실체성, 음과 양 등을 인지하게 하는 구조構造로서 작가가 뉴욕에서 접한 동시대미술의 언

어와 현실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리얼리즘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소리와 해골」

전시실에는 '소리' 작업에 이어, 세 개의 캔버스를 연결하여 그린 1985년 작 '해골 85'와 악다문 이를 드러내어 현실의 모순과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1987년 작 '해골 87-1', 그리고 석고로 본떠서 만든 해골을 마치 하얀 바닥 속에서 발굴해낸 듯이 설치하여 전시실 바닥 전체를 세계의 상상 덩어리처럼 작품화한 최근작 '해골'을 볼 수 있다. 권정호는 '해골'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평면 회화와 입체 혹은 설치미술 형식으로 소개하는 그의 해골骸骨skelton은 '소리'를 상징하는 '스피커'처럼 세계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리로서 얼과 마음, 감성을 담은 그릇이자 전달매체이며, 실존적 인간의 삶과 죽음, 사회적 사건과 모순, 억압에 대하여 반응하고 소통하려는 한국적인 리얼리티와 사유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외형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두개골은 삶과 죽음, 시간을 나타내는 소통의 대상이자, 인간이 기피하는 충격적 대상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충격을 통해 절대적인 파국을 초시간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나이가 이를 명상에 이르도록 하여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적인 리얼리티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간은 무엇이 되어..."

"인간은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인간 존재에 대한 기본적 성찰로, "억압, 그리고 행복한 죽음"과 삶에 대한 질문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 보임... 1970년대부터, 본인은 한국의 산업사회와 디지털시대(Digital & Smart)를 살아 왔다. 현대인은 누구나 사회적 환경 속에 존재하고 살아간다. 그 현대인은 문명의 발달로 미쳐 보완하지 못한 사회 제도적 미비로 모순, 갈등, 억압,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다. 나는 인간정서 즉, 억압, 갈등 근원적 죽음을 내포한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 현대인은 인간정서를 대신한 상징적 두개골을 제작함으로써, "반성적 거울이미지"와 조형적 표현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근대 우리문화에 잊어 버렸던 어떤 사물에 토렘적 영을 되살리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이러한 신념이 두개골을(덕나무로 캐스팅 하여 아우라를 추출하는 방식) 표현하고, 그 일환으로 명상과 반복을 통하여 매트릭스의 사실성을 구현하는 노동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예술 창작은 하나의 정신적 활동이며, 시간과 공간, 영원성에 관계한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심성에 있는 환상과 신비의 한 산물이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가는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 어떻게 인식자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번 전시 '뉴욕 1985'는 뉴욕 한국문화원 개인전에서 발표하기도 했던 '소리'와 '해골' 시리즈의 일부를 살펴 보면서 추상미술, 미니멀리즘, 하이퍼 리얼리즘 등 서양미술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1970~80년대 초반 한국 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과 뉴욕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서 자신의 미술을 성장시키려했던 미술가 권정호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의 미술행위는 '소리와 얼'처럼 시각예술로 드러내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사유의 흐름들과 '스피커와 해골' 등 상징적인 외형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그 균형과 공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장치이다. 또한 작가 자신이 바라본 인간 억압과 실존 세계의 구조로서 '음과 양'의 사유를 떠올리고 그 시각화에 의해 자신의 공감을 확장하는 미술의 구축에 관한 것이며, '정신과 육체', '음과 양', '생성과 소멸', '생과 사'의 불확실한 경계를 인식하고 그 분리와 통합을 실험 조형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정호의 미술은 형상으로 구체화된 '양'의 구조에 기대어 비가시적인 '음'의 구조를 구현하려는 색, 드로잉, 붓질 등 감성적 신체 행위의 응집력을 통하여 세계의 시대성 속에서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가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통합하는 일체를 통한 자연인간 그대로의 진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2. 어떻게 하면 도교와 불교적인 미의 개념을 하나의 구조적 조직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인식자에게 작품에서 표현의 강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 10여 년간 추상적 미니멀 스타일에 속하는 시간과 공간을 함축하는 점의 반복으로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 반복은 동양의 심형문자에서 보여지는 모든 형의 기본이며 이러한 반복의 확대를 통하여 형이 창조되어진 것들이었다.

그에 반해 새로운 아이디어는 페인팅이 어떤 대상을 그려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 상황을 표현하는 십자가상을 만들 때 대상에 환원했다.

나는 개인적인 작품을 만들지만 형식주의자는 아니다. 정신 속에 형식을 만들고 형식 속에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지배하는 사고요, 나의 신앙이고 나의 확신이다.

나는 사회에 대하여 나의 이야기를 읊조린다. 이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변화되어 가는 주변과 대상들 가운데 묘사되어지는 마음속의 환상적 세계에 존재한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나의 주관적 해석이며 감상자에게 마치 상징을 넘어서 의미론적 구조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임과 같이, 생활과 정신에 다양성과 풍부함을 준다.

권정호

2008

홍현기 洪鉉旗 Hong, Hyun ki

1947 경북예천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7 天野畫齋(오사카, 日本)
2006 두산아트센터(大邱)
2003 Aoya 和紙 展示室(日本)
2000 SPACE129(大邱)
1997 天野畫齋(오사카, 日本)
大阪現代美術센터(오사카, 日本)
1996 天野畫齋(오사카, 日本)
1995 天野畫齋(오사카, 日本)
是空畫齋(大邱)
1993 天野畫齋(오사카, 日本)
人工畫齋(大邱)
1990 樹畫齋(서울)
1987 人工畫齋(大邱)
1985 Gallery Scope(LA, U.S.A)
1984 壽齋(대구)
1983 寬勳美術館(서울)

2008

최병소 崔秉昭 Choi, Byung so

1943 대구 출생
197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1985 계명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2006 갤러리M, 대구
2005 IBU갤러리, 파리
2003 시공갤러리, 대구
2002 Space129, 대구
1997 시공 갤러리, 대구
1979 무라미츠화랑, 도쿄
1978 서울 화랑, 서울
1975 시립도서관화랑, 대구

단체전

2002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00 정신의 풍경, 갤러리M, 대구
뒤죽박죽, 토탈 미술관, 서울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 광주비엔날레
1999 한 시대의 연금술 엮보기, 시립미술관, 부산
1997 FIAC(시공갤러리), Paris
1996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금호미술관, 서울
1978 한국 현대미술 20년 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6 ~79 에콜 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5 ~79 서울 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4 ~78 대구 현대미술제, 계명대학교, 대구
1974 ~77 양대광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4 한국 실험작가전, 대백화랑, 대구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sarangbi@yahoo.co.kr

2008

이건용 李健鏞 Lee, Kun yong

196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졸업
1970 홍익대학교 대학원 중퇴
1983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8 이건용 드로잉 언더그라운드 2008-1, 아산 갤러리, 아산
2007 이건용 LA전, 더 모던아트 갤러리, LA, USA / 이건용 퍼포먼스, 인모 갤러리, LA, USA
2002 이건용 미술 35년전(1967-2002),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 전주
1999 이건용의 논리·삶·일상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주최 '99한국현대미술기획 초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마니프극제전, 예술의 전당, 서울
1996 10개의 현신(現身) 퍼포먼스, 진포 문화원, 군산
1991 인간향(人間項), 에맥 화랑, 서울
1990 지식의 의자 설치, 일 화랑, 전주
1989 망각의 물(水) 설치, 나우 갤러리, 서울
1987 이건용 신체 드로잉, PPP 갤러리, 서울
1986 이건용 설치, 관훈 미술관, 서울
1985 이건용 신체 드로잉, 윤 갤러리, 서울
1984 이건용 설치와 드로잉, 수 화랑, 대구
1983 이건용 설치와 드로잉, 관훈 미술관, 서울
1980 이건용 EVENT, 분도 소극장, 대구
1979 이건용 EVENT, 남계 화랑, 대전 / 이건용 신체드로잉, 태인 화랑, 서울
1977 동일면적(평면), 태인 화랑, 서울
1976 이건용 EVENT, 다사랑(문화공간), 서울

주요 단체전

2007 Text in Bodyscape(신체의 사유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행위예술 40년 기념전 (1967-200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매(SOMA) 미술관, 작가 재조명전, 소마미술관, 서울
2005 긴 호흡전-국제적 거장과 그 장면 (The Long Breath, Meister der internationalen performansszene, Maschinenhaus Essen), 메치넨하우스 에센, (유럽 퍼포먼스 연구소 NRW) 이어진 삶, 달팽이 걸음 발표, 독일
2004 대구미술 다시보기-대구 현대미술제 '74~'79,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3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전,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서울
2000 광주 국제비엔날레-한.일 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1996 '86 서울 - 요코하마 현대미술전, 가와나와 현립미술관, 일본
1984 한국현대미술-70년대의 조류, 대백시립미술관, 대만
1979 제15회 상파울로 국제비엔날레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 발표 상파울로 현대미술관, 브라질
1978 한국현대미술 20년 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서울
1976 서울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서울
3인(이건용, 성능경, 김용민)의 이벤트, 프레스 센터, 서울
1972 제1회 양대광당전 관계항 발표,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서울
A.G전,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서울
1971 A.G전,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서울
한국미술협회전, 신체향(身體項) 발표,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서울
1969 S.T(Space & Time), 조형미술회 조직, 서울
등 200여회 단체전 참가

2010

정병국 鄭炳國 Jung, Byung guk

1948 대구 출생
197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과(서양화전공) 졸업
1976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학과(서양화전공) 졸업
1990 독일 브라운 슈바이크 미술대학 초청교수, 한국미협회원, 대구시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1998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장, 한국미협 회원 대구시전 초대작가(심사위원)
현재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서양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이사

SOLO EXHIBITIONS

2010 봉산문화회관, 대구 / 누오보갤러리, 대구
2008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대구
2007 맥향화랑, 대구 / 갤러리보우, 울산
2004 신라갤러리, 대구 / BIBI Space, 대전
2003 한기숙갤러리, 대구 / 노화랑, 서울
2002 시공갤러리, 대구
2001 갤러리M, 대구
1997 신라갤러리, 대구
199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신라갤러리, 대구
1994 인공갤러리, 대구
1993 인공갤러리, 서울
1992 인공갤러리, 대구 / 신라갤러리, 대구 / 공간화랑, 부산
1991 인공갤러리, 서울,
1988 인공갤러리, 대구 / 인공갤러리, 서울
1987 두손갤러리, 서울
1986 그로리치화랑,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미술-사람을 보다,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6 시카고ART FAIR, 시카고, 미국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서울
2005 ART COLOGNE, 쾰른, 독일
2004 대구현대미술가협회 기금미련전, 스페이스129
중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3 대구밀라노미술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뉴프론티어전, 대구미술가협회
2002 대구아트엑스포 2002, 대구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초대작가전, 영남대학교박물관, 경산
2001 대구현대미술의 시선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0 대구현대미술가협회전, 대구문화예술회관
Size A4전, 스페이스129, 대구

www.jungbyungguk.com

2010

김호득 金浩得 Kim, Ho deuk

197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현재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교수

개인전

2010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시안미술관, 영천
 2008 학교재, 서울
 2006 갤러리분도, 대구
 2004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 동산방화랑, 서울
 2003 이현갤러리, 대구
 2002 일민미술관, 서울 / 조현갤러리, 부산
 2001 시공갤러리, 대구 / 현대예술관갤러리, 울산
 1998 시공갤러리, 대구
 1997 금호미술관, 서울 / 아트스페이스서울, 서울 / 학교재, 서울
 1996 동산방화랑, 서울 / 갤러리신라, 대구
 1993 갤러리포럼, 서울 / 시공갤러리, 대구
 1992 갤러리서미, 서울 /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 갤러리신라, 대구
 1990 공간미술관, 서울 / 갤러리서미, 서울
 1988 토갤러리, 서울
 1986 관훈갤러리, 서울

초대전

2010 시가공간 치우금속공예관, 서울 / 4채공간 : 아주 가까운 풍경, 신미술관, 청주
 OFF THE WALL : 건축 도자, 경계에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다, 덕수궁미술관, 서울
 물보다 깊은물, 인터알리아아트스페이스, 서울
 젊은 모색 三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코노텍스트 : 미술과 언어사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09 미술과 문자, 갤러리육공사, 부산
 스펙트럼전리듬, 조형, 고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본관, 서울
 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영천창작스튜디오, 영천
 신 오감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8 오늘로 걸어 나온 겸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고양
 2007 최소한의 흔적, 스페이스뭉미술관, 청주
 비평적 시각 130여 명의 작가들근 - 현대에서 최근까지, 가나아트센터, 서울
 Hommage 100한국현대미술 1970~2007,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2006 잘 굿기, 소미미술관, 서울
 한국의 향기전통의 맛과 향,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자연의 숨결, 생명을 노래함, 갤러리분도, 대구
 Aestheticism & Communication전,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외 다수

수상

2004 제15회 이중섭미술상 수상
 1995 제2회 토탈미술상 수상
 1993 제4회 김수근문화상 미술상 수상

2010

이명미 李明美 Lee, Myung mi

1950 대구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0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리안갤러리, 대구
 2003 현대예술관, 울산
 2002 갤러리 M, 대구 / 갤러리 신라, 대구
 2000 갤러리 인데코, 서울
 1999 시공갤러리, 대구
 1997 갤러리 신라, 대구
 1996 갤러리 신라, 대구
 1995 인공갤러리, 서울
 1993 동경화랑, 도쿄
 1990 진화랑, 서울
 1987 인공갤러리, 서울 / 갤러리 THAT, 대구
 1985 '놀이'전, 수화랑, 대구 / 관훈미술관, 서울
 1982 '놀이'전, 문예진흥원미술관, 서울 / '놀이'전, 맥향화랑, 대구
 '놀이'전, Catholic Center화랑, 부산
 1981 '놀이'전, 전촌화랑, 도쿄
 1979 '놀이'전, 코마이화랑, 도쿄
 1978 '놀이'전, 서울화랑, 서울
 1977 '놀이'전, 그로리치 화랑, 서울

그룹전

2003 '영남, 호남, 충청',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내안의 풍경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0 갤러리 M 개관전 '정신의 풍경', 갤러리 M, 대구
 1995 '한국여성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포스코 갤러리 개관전, 포스코 갤러리, 서울
 1993 한국현대미술전, 궁성미술관, 일본
 1989 80년대의 여성미술전, 금호미술관, 서울
 1988 '88 한국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아트페어- 진화랑, 예술의 전당, 서울
 1986 한국현대미술-어제와 오늘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9개의 지점, 일.여류작가의 표현전, 춘송화랑, 도쿄
 1983 청년작가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0 서울 Paris 방법전, 서울 / 파리
 한국판화 Drawing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76-81 서울 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75-80 35/128 그룹전, 대구
 1974-76 대구현대미술제, 계명대학교 미술관, 대구
 서울 Biennale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74 한국실험작가전, 대구백화점 화랑, 대구
 1973-79 한국 여류화가회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72-79 Independant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외 다수

2010

류재하 柳宰夏 Lyu, Jae ha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졸, 박사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교수

개인전 11회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대구아트페어 특별전
 2008 이미지의 반란 전, KT&G 대구별관
 2007 Turning boloni, boloni gallery beijing
 2006 미술관 연합전, 市立美術館慶熙宮別館, Si-an美術館
 KIAF, Sejul Gallery
 A Parall History-한국현대미술속, 시안미술관
 Remake KOREA, Space C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고전과 전통의 재해석, 에비뉴엘백화점, 서울옥션미술관
 2004 미술 밖 미술, 국립현대미술관
 韓國現代美術-Art and playing, 예술의 전당
 2003 상상전, 포스코 미술관
 사각전, 금산갤러리
 2001 한국미술2001 : 회화의 복권 전, 국립현대미술관
 외 다수

INSTALLATION WORK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행사장 "미디어침실대"작품설치, 코엑스
 2009 서울시 테헤란로 아이파크빌딩 미디어조형작품 설치
 2008 LG텔레콤(상암동) 본관 영상컨텐츠 제작
 2006 대구시 청사 내 미디어 조형작품 설치
 대구은행 본점 미디어 조형작품 설치
 대구시 중구청 미디어 조형작품 설치

2011

김성수 金星洙 Kim, Sung soo

1985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96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1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아트갤러리 청담, 청도
 2008 전 갤러리, 대구
 2007 대구MBC 갤러리 M, 대구
 2006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05 분도 갤러리, 대구
 SILKBORG BAD(ART CENTER), DENMARK
 2004 맥향 화랑, 대구
 2003 두산갤러리, 대구
 2002 맥향 화랑, 대구
 2000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1998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1997 벽아미술관, 대구

그룹전

2010 국제조각 심포지움, 신천둔치, 대구
 2009 5월은 푸르구나, 전북미술관, 전북
 2008 꽃이다 전, 대안공간충정각, 서울
 청마야 놀자, 거제문예회관, 거제
 쟁이전, 고토갤러리, 대구
 2007 대구미술 어제와 오늘,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대구
 현대조각초대전, 동재미술관, 대구
 오픈스튜디오전, 봉산문화회관갤러리, 대구
 분지의 바람전, 호수빌딩전시장, 대구
 환우들을 위한 조각전, 대구카톨릭병원, 대구
 대구은행갤러리초대전, 대구은행갤러리, 대구
 조각가의 드로잉전, 고토갤러리, 대구
 2006 한일현대미술작가 126인전, 동경, 일본
 나무를 만나다, 고토갤러리, 대구
 토탈아트세트전, 대구MBC 갤러리 M, 대구
 2005 대구 · 경북 현대미술전, 시안미술관, 영천
 The Second Box Show, 대구MBC 갤러리 M, 대구
 2004 MBC 현대미술초대전, 춘천MBC, 춘천
 부산조각제, 부산문화예술회관, 부산
 2003 경주문화엑스포 조각심포지움, 경주아사달공원, 경주
 그 외 단채전 170여회

작품소장

경주엑스포 조각공원, 경주
 달서구 첨단문화센터,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 퍼블릭아트 조각작품설치, 대구

2011

임창민 林昌敏 Lim, Chang min

뉴욕시립대학교(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원졸업
 뉴욕대학교(NYU) 대학원졸업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

개인전

- 2011 임창민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 Transformed Identity, 고토갤러리
- 2010 임창민_뉴미디어아트展, 한기숙갤러리
- 2009 베아트센터기획 초대전, 베아트센터
- 2008 Into Another Space, 갤러리 인더박스
- 2007 베아트센터기획 초대전, 베아트센터
- 2006 몽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몽갤러리
- 2005 문예진흥기금 공모선정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4 임창민_미디어아트전, SPACE129
- 2003 갤러리룩스기획 초대전_Out Of Control, 갤러리 룩스

그룹전

- 2011 Another Landscape, 봉산문화회관
- 2010 창조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산업대학교 100주년 기념관갤러리
 Digital Artexmoda, 경북대학교 미술관
- 2009 청년미술프로젝트, KT&G / 미술 사람 보다展, 봉산문화회관
 Deconstruction vs Construction, 김영섭화랑
- 2008 Colorful Convergence, 경북대학교 미술관
- 2007 오픈 스튜디오 페스티벌, 봉산문화회관
 현대조각과 뉴미디어展, 의정부 예술의전당
 미디어아트展 이미지, 삶, 반영, 대구시민회관 전시실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Le Monde New Media Art Exhibition, 베아트센터
 대구문화예술회관기획 無로부터展,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6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
 뉴프론티어전 시민예술, 영상, 행위, 율곡공원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SPECTRUM Light전,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분당)
 미술관 페스티벌, 서울시립미술관 / Navigate展, 대구문화예술회관
 Daegu Contemporary Art Exhibition, 대구시민회관 전시실
 Seoul remains, 인사동 선아트센터 / Contemporary Art 2006, 홍강갤러리
- 2005 디지털 센스&센세이션, 필로갤러리
 Temptation in December 2005, 한기숙갤러리
 청계천을 거닐다展, 서울시립미술관
 The Decisive Moment_결정적 순간, 호암아트홀
 A Parallel History 2005 시민미술관 특별展, 시민미술관
 30YEARS MESSAGE展,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4 SPACE129 기획 현대미술 24인展, SPACE129
 현대미술가협회 기획展 SUM,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3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기념 영상 설치展, 대구문화예술회관

외 다수

2011

오상택 吳尙澤 Oh, Sang taek

1996 M.F.A, 샌프란시스코 예술대학교 (San Francisco Art Institute) 대학원 졸업
 1994 B.F.A, 시카고 예술대학교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졸업
 1990 서울예술대학 (Seoul Institute of Arts) 졸업
 현재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진전공 출강 /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전공 출강
 서울예술대학 사진전공 출강

개인전

- 2011 오상택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SportsII, Gallery JinSun, 서울 / City Romance, Trunk Gallery, 서울
- 2008 Sports, Brain Factory, 서울
 Process (2008 Contact Photo Festival), Lee Ka-Sing Gallery, 토론토, 캐나다
- 2007 Process,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5 Necessaries, 주영화랑, 서울
- 1999 Self-Portrait, 샘터화랑, 서울
- 1996 Self-Portrait, Diego Rivera Gallery, 샌프란시스코

그룹전

- 2011 Art in Fighting, 대구문화회관, 대구 / Art Road 77 본전시, Gallery 이레, 경기도
 Inspiration,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gallery, 서울
- 2009 정직한 거짓말, 자하미술관, 서울
 NanJi Air Project3,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인천 아트플랫폼 개관기획전 '다시 개항', 인천 아트플랫폼, 인천
 숨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한국 현대 사진 60년, 경남도립미술관, 경상남도
 Fleeting Landscape, 서울대미술관, 서울
- 2008 Open Studio4, 국립 창작 스튜디오, 고양
 한국 현대 사진 6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창작해부학,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 2007 견고한 정면, ArtBit Gallery, 서울
 G+Screening Photography from Korea, INDEXG, 토론토, 캐나다
- 2006 사람, 사람들,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4 Looking Inside, 백상 기념관, 서울
- 2000 The Next Generation, 아르코 미술관, 서울
- 1999 '99 젊은 사진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5 Spring Show, Walter Mac bean Gallery, 샌프란시스코
- 1994 Object, South Ashland Gallery, 시카고

외 다수

출판

- 2010 City Romance & Process - Publishing BODA

수상, 기금

- 2010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지원 선정
- 2009 제9회 숨은미술대상 장려상 수상 / 2009 단원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2008 2008 Brain Factory 전시지원작가 선정

레지던시

- 2008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3기 장기 입주작가
- 2007 국립고양미술창작 스튜디오 4기 장기 입주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교환 레지던스 프로그램 선정작가- Instituto Sacatar, Brazil

2011

임현락 林賢洛 Lim, Hyun lak

198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B.F.A)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M.F.A)
 현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개인전

- 2011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렉서스갤러리, 대구
- 2007 갤러리 분도, 대구
- 2003 창동미술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 갤러리현대 원도우갤러리, 서울
- 2002 금호미술관, 서울 / 갤러리 우덕, 서울
- 2001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1999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8 아르코미술관, 서울
- 1996 갤러리 보다, 서울

Installation and stage art project

- 2008 THINK/Da'ak-설치미술, 드로잉퍼포먼스(주영한국문화원개원기념, 런던)
- 2006 프랑스문화원, 뉴욕(Korean Tea Music-Daak)
 Monument National, 몬트리올(CINARS 2006) / 선재아트센터, 다악(茶樂), 서울
- 2005 국립극장,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
- 2004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서울 /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전주
- 2003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0 아트로드77 '11인의 발견'(아트팩토리, 피주 헤일리)
- 2009 퍼블릭 아트 2009-Running City(중구 도심, 대구)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2009(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 2008 동아시아작가초대전(대한민국 상해영사관, 상하이)
 아트인 대구2008-이미지의 반란(대구광역시, KT&G)
- 2007 아트 인 대구-분지의 바람(대구광역시)
 '바람이 일다'-복합예술 프로젝트(페아프르분도, 대구)
- 2006 Sounding around 38N(Canvas International Art, 암스테르담)
 Aestheticism & Communication(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 2005 A Parallel History(시민미술관, 영천)
- 2004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추임새'(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 2002.3 창동미술스튜디오 개관기념전 & 오픈스튜디오(창동미술스튜디오, 서울)
- 2002 동양화 새천년(공평아트센터, 서울)

외 다수

awards

- 1993 제16회 중앙미술대전 '최우수상'(중앙일보사)
- 1999 국제화지원 '우수작가11인' 선정(한국화랑협회 & 문화관광부)

residency

- 2002-3 창동미술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

Collections

중앙일보사, 삼성문화재단, 금호미술관, 한국산업은행 본점, 한국아쿠르트, 우덕문화원, 경북대미술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원암문화재단 등

2011

배종헌 裴宗憲 Bae, Jong heon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전공) 졸업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서양화전공) 졸업
 현재 위덕대학교 초빙(강의)교수

개인전

- 2011 배종헌-야생 野生/Wildlife,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8 도시농부_유유자적, MBC갤러리M, 대구
- 2005 시간의 스펙트럼_유물프로젝트, 목민갤러리, 서울
 번방으로의 욕망_잡초프로젝트,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02 제7전시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B를 바라볼, 대안공간풀, 서울
- 2001 S를 바라볼, 예술마당술, 대구

주요단체전

- 2011 서울시창작공기페스티벌_Slow Mobile, 선유도공원, 서울
 이 작가를 추천한다 31, 갤러리 숲, 서울
 Made in Daegu,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INDAF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인천
 에르메스재단미술상 노미네이트전, 에르메스, 서울
- 2009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미술: 악동들 지금/여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8 대구사진비엔날레-특별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부산비엔날레-현대미술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6 잘긋기, 소마미술관, 서울
 드로잉에너지,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3 buffering_주차장프로젝트, 아트선재센터, 서울
 d.u.m.b.o. art under the bridge festival, DUMBO Art Center, 뉴욕
 물 위를 걷는 사람들_청계천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0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 1998 그림보다 역자가 더 좋다, 금호미술관, 서울

외 다수

작품소장

아르코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

2011

정은주 鄭恩燾 Jeong, Eun ju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서양화 전공)
독일 국립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Diplom, Meisterschueler-Prof. Walter Dahn, Prof. John Armlieder)

개인전

- 2011 정은주-Tetris, 봉산문화회관, 대구
into the color, 아트파크갤러리, 서울
- 2010 사물을 거부하는 색들, 시안미술관, 영천
- 2009 정은주 개인전, 한기숙 Gallery, 대구
- 2006 정은주 개인전, BiBspace, 대전
- 2004 정은주 개인전, Gallery M, 대구
Manif Seoul 2004전, 예술의 전당-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3 2003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1 대산포럼기획초대작가전, 시공갤러리, 대구
- 1999 단넬펠트 브라세리,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 1998 엑스하이머 헤르체베르크박물관, 바텐스테트시, 독일

단체전

- 2010 차세대 여성미술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Inside Out전-현대미술을 틀추어보다, 봉산문화회관, 석갤러리, 대구
- 2009 청년미술프로젝트, KT&G별관, 대구
8 artist, yfo gallery, 대구
- 2007 오픈 2007 스튜디오 페스티벌,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6 NOV-DEC 22, BiBspace, 대전
- 2005 광복60주년기념초대전, 시안미술관, 영천
- 2004 뉴 프론티어 & 시민예술, 월곡역사박물관, 대구
김인경, 최병소, 이교준, 정은주 전, 시공갤러리, 대구
- 2002 남춘모, 이교준, 정은주, 홍승혜 전, 시공갤러리, 대구
- 2001 Mug 전, Space129, 대구
- 1998 브라운슈바이크 기포른전, 기포른 시립미술관, 독일
Hallo 블라라전, 퀴버갤러리, 뉘른베르그시, 독일
- 1997 Meisterschueler전, Artmax관, 브라운슈바이크시, 독일
- 1996 The easient thing to row in a garden is tired, 페터스버렌브룩 갤러리, 브라운슈
바익시 / VOXXX갤러리, 캄라츠시, 독일
공기와 공간전, 독일 연방경제기획부, 본시, 베를린시, 독일

외 다수

수상

- 1998 DAAD Kontakt 장학금 수상
- 2003 2003 올해의 청년작가 선정

2012

이지현 李支鉉 Lee, Ji hyun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 2012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1 이즘 갤러리, 대전
- 2010 아트사이드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 2009 갤러리 인, 서울
- 2007 Gaallery Nii Tokyo,동경, 일본/ 고양Studio, 고양
- 2006 Shimada Gallery, 고베, 일본/ 한기숙갤러리, 대구
- 2005 Kita Gallery, 니라, 일본
- 2002 한기숙갤러리, 대구
- 2001 박영덕화랑, 서울

단체전

- 2012 The New beginning, 표갤러리 시우스, 서울
- 2011 無限, 無限-十四位韓國藝術家聯展, Kwail Fung Hin Art Gallery, HongKong
열한개의 환상시, 닷 미술관, 광주
시화일률 時畫一律, 가나아트센터/가나아트부산, 서울 부산
- 2010 SH 컨템포러리10, Shanghai Exhibition Centre, Shanghai, China
순수거리_뛰어넘고 흐르면서 융합하기, 피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피주
- 2009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 garden5, 서울
P.E.A.R.L 2009 미래를 열다, 갤러리박영, 파주
연금의 손, 인터알리아 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8 미술과 놀이-놀이의방법, 예술의전당, 서울
- 2007 책, 예술가의 뮤즈, 갤러리 윌리엄모리스, 헤이리
한국계획(Korean project), C5 Gallery, Beijing, China
Open Studio 3, 고양스튜디오, 고양
- 2005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동영시민문화회관등
- 2003 샌프란시스코아트페어, 포트메이슨센터,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02 시카고아트페어, 페스티벌홀, 시카고, 미국
- 2001 제10회 인도트리엔날레, Lalit Kala Akademi, New Delhi, 인도
- 2000 2000청년작가 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외 다수

수상

- 2007 제1회 인사미술제 인사미술대상, 인사미술제운영위원회, 서울
- 2001 박영덕화랑 신인작가공모 대상, 박영덕화랑, 서울
- 1998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96 96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95 제3회 매일미술대전 대상, 매일신문사, 대구

레지던시

- 2010.9-현 가나아트 장홀아틀리에 입주작가
- 2010.3-7 아트싸이드 갤러리 북경스튜디오 입주작가
- 2009-10 피주출판도시 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 2008-9 스튜디오 박영 1기 입주 작가
- 2006-7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장기입주 작가

2012

김영진 金永鎭 Kim, Young jin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 2012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갤러리604, 부산
- 2009 신라갤러리, 대구
- 2002 스페이스129, 대구
- 2000 시공갤러리, 대구
- 1984 제3미술관, 서울
- 1980 리화랑, 대구

그룹전

- 2007 AMGB 경주 Expo
Project for instalation studios, 대구문화예술회관
- 2005 A Parallel History, 시안미술관, 영천
- 2004 대구미술 다시보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SUM of the Contemporary art, 대구
- 2003 New/Frontier展,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예술의전당 특별기획전, 빛과 색채의 탐험, 서울
- 2002 부산비엔날레, 부산
한국현대조각특별전, 예술의 전당, 서울
- 2001 대구현대미술의 시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9 김영진, 박현기, 최병소전, 스페이스129, 대구
- 1988-2008 대구현대미술협회전, 대구
- 1986 비디오 스페이스300, 오사카현대미술센터, 일본
- 1984 1984전, 대구
한국현대미술전, 대만
- 1982 삼식 · 김수성 또는 여감전, 관훈미술관기획, 서울
- 1981 대구판화가협회전, 대구
- 1979-82 에펠드서울전, 서울
- 1976-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 1976-77 35/128전, 대구
- 1975-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 1975 이벤트-낙동강, 대구
- 1975-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 1975-79 전개전, 대구
- 1974-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잉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외 다수

kimy0829@naver.com

2012

정용국 鄭容國 Jeong, Yong ko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현재 영남대학교 조교수

개인전

- 2012 Anywhere,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Cliff Hanger, 이브갤러리, 서울
Trans, 분도갤러리, 대구
- 2008 뿌리없는 나무, 표갤러리, 서울
- 2007 유기적 정원, 신세계갤러리, 인천
- 2006 The Gray Forest, 표갤러리, 서울
- 2004 빈틈에 서다, 금호미술관, 서울

주요단체전

- 2011 메이드 인 대구 - 차이들의 동경, 대구미술관, 대구
창원아시아미술제 「셀프카메라: 근대적 자아 지리 바꿔보기」, 성산아트홀, 창원
- 2010 백색의 봄, 서울대학교미술관MoA, 서울
Digital Artexmoda,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 2009 Being Absorbed, 차갤러리, 서울
Bloom in Color, 신세계갤러리, 서울
- 2008 아트 인 대구 2008 "이미지의 빈린", KT&G 별관참고, 대구
양평프로젝트 현대미술전, 마나스아트센터 외, 양평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Open Studio 4, 국립고양미술스튜디오, 고양
비밀의 화원전, 샐터화랑, 서울
그림의 대면전-동양화와 서양화의 접경, 소마미술관, 서울
- 2007 아트 인 대구 2007 "분지의 비름",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심덕맨션 외, 대구
한국화1953-2007,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6 차도살인지계, 카이스갤러리, 서울
- 2005 ATTENTION전, 표갤러리, 서울
현실과 이상, 의재미술관, 광주
- 2004 사유와 생성-산수풍경의 시간전, 제비울미술관, 과천
외 다수

공모전

- 2006 금강미술대전 대상,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05 제2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예술의 전당, 서울
제5회 송은미술대전 미술상, 예술의 전당, 서울

작품소장

금호미술관, 미술은행, 송은문화재단, 대전MBC, 서울시립미술관, 한화63시티, 서울대미술관MoA, 경북대미술관, 대구미술관, (주)이브자리

레지던시

- 2007-2008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스튜디오 4기 장기입주작가

cheter0@paran.com

2012

하광석 河光石 Ha, Kwang suk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New York University, Art in Media 전공, 대학원 졸업
현재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출강

개인전

- 2012 "Truth in Non-Reality",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Panopticon"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전, 서울시립미술관 난지갤러리 1관, 서울
- 2008 "봉산젊은작가상 수상 기념 초대전", 예술갤러리, 대구
- "하정웅 청년작가상 수상 초대 빛 전", 하정웅 청년작가상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7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유리상자" 봉산문화회관 기획초대전, 봉산문화회관 아트스페이스, 대구
- 2005 "On & Off Space", MASS 기획초대전, space MASS, 서울
- 2004 "Spatial Sojourn",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1 "Spatial Sojourn", Solo Show, 80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ies, New York City
- "POND", Video Installation, Solo Show, Observation Space, New York City

주요 단체전

- 2011 2011현대미술 영상 설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진경의 맥, 포항시립미술관 기획,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2010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레지던시 퍼레이드 IV,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교류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빛 2010, 광주시립미술관 특별 기획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1세기의 첫 10년,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No... , 광주시립미술관 특별 기획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9 미술-사랑을 보다, 봉산문화회관 기획 특별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Desire & Restriction, 리안갤러리, 대구
- 2008 리_뷰하다, 경남도립미술관 기획 특별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이미지의 반란, 대구현대미술전 기획, KT&G 별관참고, 대구
- 2008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7 2007 오픈 스튜디오 페스티벌, 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7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6 영상-자연을 그리다, 봉산문화회관 2주년 기획전초대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젊은 작가전, MBC방송 Gallery M 기획 초대전, Gallery M, 대구
- 2004 2004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3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외 다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9-2010 서울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장기)
- 2007-2008 가칭미술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수상

- 2009 송은미술대상공모, 입상, 송은문화재단
- 2008 하정웅 청년작가상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 2007 제2회 봉산 젊은 작가상 수상, 봉산문화협회
- 올해의 청년작가상 수상, 대구문화예술회관

kha8182117@hanmail.net

2012

윤영화 尹永華 Yoon, Young hw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BFA)
파리 국립 제8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석사 졸업(MFA)
파리 국립 제1대학교 광대옹-소르본느 조형예술학과 DEA학위(박사수료)
현재 고신대학교 조형미술전공교수

개인전

- 2012 봉산문화회관(대구), Heritage/유산
- 2011 아트스페이스 소울(부산), "아생, 우포늪의 하루"
- 2009 불란서 문화원(부산)
- 2008 롯데회랑 부산본점(부산), "Ray 神 Hera" / 갤러리 모아(해이리), "Grid-Flame"
- 세줄갤러리(서울), "A boat in a storm"
- 2006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서울), "Photo-drawing & Photo-painting"
- 2005 갤러리 우덕(서울) / 아르스날 레작위 국제예술가촌(파리)
- 2004 부산시립미술관 M갤러리(부산)
- 2001 에스파스 아르스날(파리)
- 1998 에스파스 아르스날(파리)
- 1996 베르나노스 화랑 기획(파리) '파리미술대학협의회 공모선정
- 에스파스 바포라바르 기획(파리) '공모선정

외 다수

단체전

- 2012 아시아작가미술교류2012展(빅토리아 메모리얼뮤지엄, 퀼커터, 인도)
- <비밀, 오차의 범위> 지역네트워크展(아르고 미술관, 서울/ 광주시립미술관)
- 2011 <비밀, 오차의 범위> 지역네트워크전(부산시립미술관)
- 제10회 송은미술대상 수상작가展(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8 화음프로젝트(CJ문화재단): '바다로부터'-피아노4중주(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들展(부산시립미술관)
-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특별展·남해안비경베스트100선(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07 제5회 BIEAF 부산국제환경미술제2007: 예고 국제현대미술전
- (중국전: 태달도서관, 천진/ 부산전: 을숙도문화회관)
- 2006 대구시진비엔날레특별展- "사진속의 예술, 예술속의 사진"(대구문화회관)
- 2001 아르스날의 예술가들(가나 보부르화랑, PARIS)
- 제2회 Montagnis 현대미술 비엔날레(France)
- 1995.6 제36, 37회 현대의 거장과 신인展(에스파스 에펠-브랑리, PARIS)
- 1995 살롱드 몽후즈展(몽후즈시, 프랑스)
- 제14회 지중해청년미술 비엔날레(NICE 현대미술관, France)

외 다수

아트페어 2005-2012

- 2012 칼스루에 아트페어(칼스루에, 독일)
- 2005-2009 아트 싱가포르(선택 싱가포르, 싱가포르) / 북경아트페어(세계무역센터전시장, 베이징)
- 아트큐리얼하우스: 커팅엣지1展(닷소호텔, 파리)

외 다수

입주작가

- 2002-2012 프랑스 아르스날 레작위 국제예술가촌 장기입주

yoon-xart@hanmail.net

2012

박종규 朴鍾圭 Park, Jong kyu

계명대학교 미술 대학 서양화과 졸업
파리 국립 미술학교 졸업 D.N.S.A.P

개인전

- 2012 Layers&Dimensions, 봉산문화회관, 대구
- Layers&Dimensions, 갤러리분도, 대구
- 2011 Layers, Dimensions, kunstdoc, 서울
- Layers, Dimensions, TUVRhlerland, 서울
- 2009 Layers, Dimensions, BIBI 스페이스, 대전
- Layers, Dimensions, 갤러리 신라, 대구
- 2008 가와후네 화랑, 도쿄
- 2004 빛,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시립미술관, 광주
- 갤러리 신라, 대구
- 2003 대구 카톨릭대 초대전, 예술학부 전시장
- 대구 아트엑스포 패션 퍼포먼스, 패션 센터, 대구
- 2001 갤러리 신라, 대구
- 1999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후쿠오카
- 1998 먼 나누기, 갤러리 신라, 대구
- 1995 Gallery Area, 파리
- 1993-5 Galerie des Beaux-Art (CROUS), 파리
- 1990 그림자 그리기, 지우기 퍼포먼스, 계명대학교, 대구 단공갤러리, 대구

주요단체전

- 2012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달성군 감정보 일대, 대구
- 2011 Made in Daegu, 대구미술관, 대구
- Summer Drawing Festival, Kunstdoc, 서울
- in side out, 봉산문화회관, 갤러리 석, 대구
- 2010 빛 2010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10주년 기념,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8 ART in Daegu "이미지의 반란展", KT&G, 대구
- 해설이 있는 현대 미술 기획전, 포항문화예술회관
- 2007 project for installing studios, 문화예술회관, 대구
- 미디어아트전-이미지, 삶, 반영, 대구시민회관, 대구
- 2007오픈스튜디오 페스티벌,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6 Space Project, 시안미술관, 영천
- La difference d'heures, 한국일보 미술관, 서울
- 브로노이 다이어그램, 아트피크 갤러리, 서울
- 광주 비엔날레 제3섹터, 광주
- ART in CASO OSAKA, 오사카

외 다수

작품소장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 대구 미술관, 대구 / 서울시립 미술관, 서울 / 시안 미술관, 영천
광주 시립 미술관, 광주 / KIMI ART, 서울 / 삼성 그룹 본사, 서울 / 대구 시청,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 / 워커힐 미술관, 서울 / 파리 국립 미술학교, 파리

2012

유영환 劉永煥 Yoo, Young hwa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석사)

개인전

- 2012 Contemplation, 봉산문화회관, 대구
-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1995 개인전, 청남아트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1 ART DAEGU 2011, EXCO, 대구
- 2009 대구기톨릭대 교수미전
- 2006 E.H.S Project 전
- 1995 한국현대조각 초대전, 춘천MBC, 춘천
- 동서현대미술연구회 4인전
- 1994 젊은 시각전, 갤러리미간, 서울
- 1989 공간의 언어전, 관훈갤러리, 서울
- 1999-2000 한국조각가협회전
- 1996-1997 한국조각의 비상전
- 1989-1997 로고스와 파토스전
- 1988-2012 서울조각회전

작품소장 및 공공조각

우강 송중익 선생상 제작 (대구홍사단 회관)
도산 안창호 선생 여록비 제작
윤임지 수변공원 (대구 철곡)
김천시 환경공원
롯데백화점 (대구 상인)
대구 반야월 이마트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월성 GS하이 아파트
월성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표석 제작
대림 e편한세상 (대구 성당)
삼성 래미안 (대구 봉덕)

2013

김희선 金希宣 Kim, Hee seo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Magdalena Jetelova 교수 마이스터 취득, 독일
켈른 미디어아트아카데미 대학원 졸업-Vaile Export /Anthony Moore교수
현재 영남대학교 미술학부 부교수

개인전

- 2013 기억공작소 - Feedback,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1 well-being Project, Opakta Ateliers Cologne, 독일
- 2009 HOME, 대구아트페어초대전, 대구
- 2008 CRYSTAL_seeing, 브레인 팩토리, 서울
- 2008 Embeded Memories, 한지연 컨템퍼러리 스페이스, 베이징, 중국
- 2006 RECOVER_seoul ballad no.1,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서울
- 2005 무언가, Do Art 갤러리, 서울
- 2002 non-self situation, 비스바덴 미술회관, 비스바덴, 독일
- 2000 맛에 대한 기억, 갤러리 프로젝트 공간, 켈른, 독일
- 1999 Public Works -Project /a, Literatur by Rudolf Mueller, 뒤셀도르프, 독일

단체전

- 2013 Video & Media,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 2012 페스티벌 외 광주 미디어아트2012전, 광주, 한국
디아티스트,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한국
산수, 디지털을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 2011 모나디즘, 시테 인터내셔널 데 자르, 파리, 프랑스
홈 스위트 홈, 나사우리쉬 콘스트페어라인, 비스바덴, 독일
서울+도시탐색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10 랜덤 액세스,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 한국
미술 속 삶의 풍경,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비지올로지 2010: 비정후적 풍경, 상상마당, 서울, 한국
- 2009 인천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Inca), 인천, 한국
금호 20주년 개관 기념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 2008 Openstudio 4, 국립고양창작미술스튜디오(국립현대미술관 주최), 고양, 한국
- 2007 뉴미디어와 공간전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2007, 구 서울역사, 서울, 한국
- 2006 art-cinema:Art Work1999-2003 project, 갤러리 페리퍼리, 튀빙엔, 독일
- 2005 Berlin에서 DMZ까지, 서울 올림픽 미술관 / 전주 미술관, 한국
- 2004 유럽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오스나부르크, 독일

외 다수

수상경력

- 2010 Prix Ars Electronica, 인터랙티브아트부문 'Honorary Mention', 린츠, 오스트리아
- 2003 KHM 여성작가상 수상, 켈른, 독일
Hector 예술상(2위) 수상, 만하임미술관, 독일
- 2002 NRW 젊은 미디어 아트 작가상 수상, 뒤셀도르프, 독일
- 2001 ZKM 칼스루에 국제 미디어 아트 상 Top50선정, 칼스루에, 독일
- 1996 NRW 뒤셀도르프 미술회관 여행장학금 수상, 뒤셀도르프, 독일

sunislna@gmail.com

2013

권부문 BOOMOON

1955 대구 출생

개인전

- 2013 기억공작소-군인들 1978, 봉산문화회관, 대구 / 권부문 · 성좌, 대구미술관, 대구
- 2012 숲에서, 리안 갤러리, 대구
- 2011 산수, 요코하미시민갤러리_아지미노, 요코하마 / 산수와 낙산, 학교재 갤러리, 서울
- 2010 프레즌스, 갤러리신라, 대구
- 2009 프레즌스, 조현화랑, 서울 / 북풍경, 조현화랑, 부산
- 2008 가까이서 멀리서, 갤러리신라, 대구 / 구름 위에서, 박영덕화랑, 서울
북풍경, 박영숙화랑, 서울
- 2007 돌에게, C-Fine Art, 서울 / 권부문, 사진 2000-2007, 아르코 미술관, 서울
- 2006 구름 위에서, 조현화랑, 부산 / 구름 위에서, 갤러리신라, 대구
- 2002 별보기, 시공갤러리, 대구
- 2000 갤러리신라, 대구
- 1999 갤러리 싸이드2, 동경 / 인동 하회마을, 갤러리 아티누스, 서울
- 1997 권부문, 태도, 쉐페트리에르 뽕루이 성당, 파리 / 권부문 근작전, 전갤러리, 서울
- 1996 전갤러리, 서울
- 1994 인공화랑, 서울
- 1993 수화랑, 서울
- 1989 권부문, 사진, 인공화랑, 서울
- 1984 시골, 맥항화랑, 대구
- 1975 포토 포엠, 대백갤러리, 대구 / 포토 포엠, 프레스센터, 서울

주요 그룹전

- 2013 아시아코드-空, 소미미술관, 서울
- 2012 소장품 특별기획전: 침묵의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7 한국미술_여백의 발견, 삼성미술관_리움, 서울
- 물의 정경 - 모네와 다이칸에서 현재까지, 요코하마 미술관, 일본
- 2004 오피치나 아시아, 볼로냐 시립현대미술관, 이태리
- 2001 수평과 지평: 바다와 하늘, 베리니 갤러리, 바르셀로나, 스페인
- 2000 반기억: 현대사진 기획전 2부, 요코하마 미술관, 일본
- 내츄럴 블루, 아르테 콘템포라네아 제로 갤러리, 피아첸자, 이태리
- 1999 드림 컬렉션 4부: 사진, 마이애미 미술관, 미국

외 다수

사진집

- In the Garden of Cézanne, 아티스트북, 서울, 2013
- Naksan, 나즈라엘리 프레스, 포틀랜드, 미국, 2010
- To the Stones, 나비장, 경기도 파주, 2007 / Naksan, 나비장, 경기도 파주, 2007
- Boomoon-On the Clouds, 나비장, 파주, 2006
- Stargazing at Sokcho, 나즈라엘리 프레스, 투스콘, 미국, 2006
- On the Clouds, One Picture Book 시리즈, 나즈라엘리 프레스, 투스콘, 미국, 2004
- Boo Moon, 나즈라엘리 프레스, 투스콘, 미국, 1999 / Hahoe Village, 아티누스, 서울, 1999

www.boomoon.net

2013

송광익 宋光翼 Song, Kwang ik

1976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1979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1984 일본 규슈산업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졸업

개인전

- 2013 기억공작소-지물紙物, 봉산문화회관, 대구 / 맥항화랑, 대구
- 2012 인사갤러리, 서울 / 한갤러리, 파주
- 2010 인사갤러리, 서울 /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9 갤러리 신라, 대구
- 2008 후지갤러리, 오사카, 일본 / 구로가와 Inn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2006 갤러리 신라, 대구 / 봉산문화회관, 대구
- 1990 공간 미술관, 서울
- 1984 서울 미술회관, 서울 / 수화랑, 대구
- 1983 갤러리 888, 북규슈, 일본 / 동경, 오사카 From 화랑, 동경, 일본
- 1982 갤러리 토일레,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 현립미술관 특별8실, 후쿠오카, 일본
- 1980 삼보화랑, 대구

단체전

- 2013 대구미술사색전, 대구미술관
- 2012 송광익, 이토 마사유키 2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0 한일 예코전, 아마나시 현립미술관, 일본 아마나시현
- 2009 송광익, 이토 마사유키 2인전, Gallery-Sol, 동경, 일본
- 2008 일,미 현대미술교류원, 후쿠오카-ASIA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2007 11회 한일 현대미술교류원, 후쿠오카 현립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2004 봉산문화회관 개관기념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2 10회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1 9회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9 투명체전, Space 129, 대구
8회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구미시립문화예술회관, 구미
- 1998 한일 현대 ART전, 북규슈시립미술관, 북규슈, 일본
- 1995 대구 ASIA FINE ART EXHIBITION, 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3 시공화랑 개관전, 시공화랑, 대구 / 대구 비형상대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2 2인전, 화랑-21, 북규슈, 일본
- 1991 대구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한, 중, 일 미술교류전, 대중시립문화센터, 대중지, 대만
- 1990 6회 한일 작가교류전, 북규슈시립미술관, 북규슈, 일본
한국 신구상전, 프랑스 한국 문화원, 파리, 프랑스
대구 미술대전 초대출품, 시민회관, 대구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서울국립미술관, 과천

외 다수

수상

- 2013 27회 금복문화상 수상 (금복문화재단)
- 1982 3회 북규슈 Biennale수작상 (일본, 북규슈시립미술관)
- 11회 Salon de Rupa 은상 (일본, 후쿠오카현립미술관)
- 1981 10회 Salon de Rupa 은상 (일본, 후쿠오카현립미술관)

2014

안창홍 安昌鴻 Ahn, Chang hong

1952 밀양 출생

개인전

- 2013 제25회 이종섭 미술상 수상 기념 안창홍 작품전 (조선일보 미술관 / 서울)
안창홍 작품전, 발간 (대안공간 루프 / 서울)
- 2012 제30회 안창홍 작품전, 아리랑 (메이지 갤러리 / 서울)
제29회 안창홍 작품전, 쿠리에서 고비까지 (갤러리 룩스 / 서울)
- 2011 제28회 안창홍 작품전, 인도 여행스케치 (공간화랑 / 부산)
제27회 안창홍 작품전, 불편한 진실 (가나화랑 초대 / 서울)
- 2010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 초대전 (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 / 대구)
- 2009 제26회 안창홍 작품전, 흑백가을 (사비나 미술관 초대 / 서울)
제25회 안창홍 작품전, 시대의 초상 (시립미술관 기획 / 부산)
- 2006 제24회 안창홍 개인전 (공간화랑초대 / 부산)
제23회 안창홍 작품전 (사비나 미술관 초대 / 서울)
- 2004 제22회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초대 / 부산)
- 2003 제21회 안창홍 작품전, 안창홍의 인도 여행기 (공간화랑초대 / 부산)
제20회 제1회 부일 미술대상 수상 기념전 (코리아 아트 갤러리 / 부산)
- 2002 제19회 안창홍 작품전 (사비나 미술관 초대 / 서울)
- 2001 제18회 안창홍 작품전, 모래바람-고비사막 가는 길 (이목화랑 초대 / 서울)
- 2000 제17회 안창홍 작품전 (남산화랑 초대 / 부산)
제16회 안창홍 작품전 (갤러리 그림시 초대 / 수원)

외 다수

단체전

- 2013 사람이! 사람이! 신학철, 안창홍 2인전 (경기도립미술관 / 경기도)
- 2011 코리아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 미술관useum / 서울)
- 2009 인간의 거울 - The Head (킴스아트 필드 미술관 / 부산)
괴물시대 (시립미술관 / 서울)
- 2007 한국미술의 리얼리즘 - 민중의 고통 (만다지아, 후쿠오카, 미야코조노시립미술관 등 5개 미술관 순회전 / 일본)
그림 보는 법 (사비나 미술관 / 서울)
도큐멘타부산3 / 일상의 역사 (시립미술관 / 부산)
- 2001 한국미술2001: 현대 회화의 복권 (국립 현대 미술관 / 서울)
-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인간과 성 (시립미술관 / 광주)

외 다수

수상

- 2013 제25회 이종섭미술상 수상
- 2009 제1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 (대구시)
- 2001 제1회 부일 미술 대상 수상 (부산 일보사 / 부산)
- 2000 제10회 봉생문화상 전시부분 수상 (봉생 문화재단 / 부산)
- 1989 카뉴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카뉴 / 프랑스)

www.ahnchanghong.com

2014

김영진 金永鎭 Kim, Young jin

1946년생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故박현기 朴炫基 Park, Hyun ki

1942-2000

196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수료,

196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건축과 졸업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이강소 李康昭 Lee, Kang so

1943 대구 출생

196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최병소 崔秉昭 Choi, Byung so

1943 대구 출생

197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85 계명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양테평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1982 에콜드서울전, 서울

1976-1979 부산현대미술제, 부산

1976-1977 35/128전, 대구

1975-1978 대구현대작가전, 대구

1975 이벤티-낙동강, 대구

1975-1981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1975-1979 전개전, 대구

1974-19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2014

김구림 金丘林 Kim Kulim

1936 상주 출생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4 기억공작소〈김구림-Wiping Cloth〉봉산문화회관, 대구
〈김구림전〉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서울
- 2013 김구림 초대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2 〈A Bigger Splash〉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 2011 〈추상하라〉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10 타이완 국제실험영화제, 타이완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필방미인〉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7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2 〈김구림의 작은 회화전〉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 2000 〈한존과 흔적〉문예진흥원 초대전, 문예진흥원, 서울
- 1995 개인전, John and Joe갤러리, LA, 미국
- 1988 〈1970-1979 한국의 모더니즘, 현대예술의 장〉무역센터 현대미술관, 서울
- 1987 〈오늘의 미술가 6인〉갤러리 뉴욕, 뉴저지, 미국
- 1986 개인전, 돌로레스안 갤러리, 뉴욕, 미국
- 1985 개인전, 링컨 센터, 뉴욕, 미국
- 1984 개인전, Riverdale 갤러리, 뉴욕, 미국 / 개인전, 아마노 갤러리, 오사카, 일본
- 1975 제4회 국제 OPEN ENCOUNTER ON VIDEO 초대전, 알렌천
〈관화개인지전〉백록화랑, 서울 / 김구림 설치작품 개인전, 백록화랑, 서울
- 1974 개인전, 갤러리 16, 교토, 일본
- 1973 〈김구림 개인전〉시로따 화랑, 일본
- 1972 〈제3회 A.G전 : 탈 관념의 세계〉경북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1 〈제2회 A.G전 : 현실과 실현〉경북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7회 파리비엔날레, 파리 시립미술관, 파리, 프랑스
- 1970 대지예술 〈현상에서 흔적으로〉 발표, 살갓이 다리 독방, 서울
- 1969 실험영화 〈문명, 여자, 돈〉연출 / 한국최초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 제작
백남준과 제1회 서울현대음악제 음악 해프닝 〈피아노 위의 정사〉연출, 국립극장
- 1968 한국최초 일렉트릭 아트 〈공간구조〉 발표
- 1967 개인전, 공보관화랑, 부산
- 1965 〈신작가 협회 창립전〉서울신문회관 화랑, 서울
- 1963 〈앙그리 창립전〉경북공보관화랑, 대구
- 1962 개인전, U.S.I.S 화랑, 대구
- 1958 첫 개인전, 공보관화랑, 대구

저서

관화 콜렉션(서문당), 동화집-별 하나 나 하나(동화 출판사), 서양관화가 100인과 관화감상(미진사)

수상

제7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2006),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수상(2014)외 무용, 연극 미술상 수상

2014

권오봉 權五峯 Kwon, O bong

1954년생

개인전

- 2014 기억공작소-권오봉,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3 누오보갤러리, 대구
- 2011 조은숙 ART & LIFESTYLE, 서울
- 2009 리안갤러리, 대구
- 2006 서정갤러리, 포항
- 2005 시공갤러리, 대구 / 우손갤러리, 대구
- 2001 갤러리 M, 대구
- 1999 시공갤러리, 대구
- 1992 인공갤러리, 대구
- 1990 인공갤러리, 대구
- 1989 인공갤러리, 대구 / 갤러리 THAT, 대구 / 인공갤러리, 서울
- 1987 수화랑, 서울 / 갤러리 THAT, 대구
- 1986 갤러리 THAT, 대구 / 윤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4 아트 파리 2014, 파리, 프랑스
아트 칼스루에 2014, 칼스루에, 독일
- 2013 아트 파리 2014, 파리, 프랑스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About to Start...6인전, 누오보갤러리, 대구
- 2011 메이드 인 대구, 대구미술관
- 2009 옥망의 정원, KT&G, 대구
Spectrum 진,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현대미술 6인전, 장 프루니에 갤러리, 파리
- 2005 A Parallel History, 시안미술관, 영천
회화의 내면중경, 우손갤러리, 대구
- 2004 시공 콜렉션, 시공갤러리, 대구
화우분분, 문화예술회관, 대구
6인전, 스페이스 129, 대구
- 2002 SEPTEMBER 9, BIBI SPACE, 대전
대구 화랑협회 창립전, 시공갤러리, 대구
- 2001 대구현대미술: 오늘을 넘어서, 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0 Paradigm Shift, 문화예술회관, 대구
시공갤러리 기획 5인전, 시공갤러리, 대구
갤러리M 개관 기획전, 갤러리M, 대구
- 1999 현대의 신화, 문화예술회관, 대구
회화의 지평에서, 시공갤러리, 대구
- 1997 일상의 신화, 선재미술관, 경주
- 1995 현대미술의 동향, 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3 의식과 체험의 다양성, 박영덕화랑, 서울
현대작가 14인전, 시공갤러리, 대구
- 1992 대구현대미술 14인의 시각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1 3인전, 인공갤러리, 대구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 선재미술관, 경주

외 다수

2015

유근택 柳根澤 Yoo, Geun taek

- 1965 충남 아산 출생
- 1997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현재 성신여대 교수

주요 개인전

- 2014 OCI미술관, 서울
- 2013 풍, 경, 두가헌갤러리, 서울
- 2012 현대갤러리, 서울
- 2010 아트사이드갤러리, 베이징, 중국 / 갤러리 분도, 대구
- 2009 사비나미술관, 서울 / LA Art Core Gallery, 캘리포니아, 미국
- 2008 21+YO 갤러리, 동경, 일본
- 2007 동산방화랑, 서울
- 2005 21+YO 갤러리, 동경, 일본
- 2004 사비나미술관, 서울
- 2003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 동풍전, 관훈미술관, 서울
- 2002 동산방 화랑, 서울 / 동풍전, 관훈갤러리, 서울 / 인간-내면적 사유전, 도올 갤러리, 서울
- 2001 21+YO 갤러리, 동경, 일본
- 2000 석남미술상 수상기념전, 모란 갤러리, 서울
- 1999 원서 갤러리, 서울
- 1997 당신이 있는 이곳에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서울관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 금호미술관, 서울
- 1996 일상의 힘, 체험이 옮겨질 때, 관훈미술관, 서울
- 1994 금호갤러리, 서울
- 1991 관훈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 2014 East Bridge, 798아트팩토리, 베이징, 중국
정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 2013 미술의 생기, 대구예술 발전소, 대구
한국미술 대 항해의 시대를 열다, 부산시립미술관
House & Home,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1 삶과 풍토,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 2010 한국 드로잉 30년 1970-2000, 소미미술관, 서울
- 2009 신호탄, 기무사 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07 그림 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아시아현대미술프로젝트, City-Net Asia,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4 한국 모더니즘의 시선, 금호미술관, 서울
- 2003 진경,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수상

- 2000 석남미술상
- 2003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2009 하중현미술상

yoogeuntaek@naver.com

2015

권순철 權純哲 Kwun, Sun cheol

- 1944 경남 의창 출생
- 197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15 기억공작소〈권순철-얼굴Face〉, 봉산문화회관, 대구
시대의 얼굴들, 갤러리 세습, 창원
- 2012 가나아트센터, 서울 / 아라아트센터, 서울 / 갤러리 손, 베를린
- 2010 가나아트 뉴욕, 뉴욕
- 2007 가나아트 부산, 부산
- 2004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03 두산갤러리, 대구 / 현대미술관, 트루아, 프랑스
- 2001 갤러리 가나 보부르, 파리
- 2000 갤러리 가나 보부르, 파리 / 인사아트센터, 서울

외 다수

주요 단체전

- 2014 사유로서의 형식-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소나무, 그의 영혼은 어디에, 예술공동체 갤러리, 파리
Moment, 갤러리 움, 뉴욕
소나무 작가전, LA 한국문화원, LA
- 2013 OCI 미술관 정전60주년 기념 특별기념전, OCI 미술관, 서울
- 2012 한국현대미술-거대서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70-80년대 한국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80년대 인간 전 그 이후, 오늘의 동향, 정문규미술관, 안산
- 2011 삶과 풍토전,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 2010 황색산을 넘어, 경향 갤러리, 서울
- 2009 성령의 불꽃전, 루멘 갤러리, 파리
이중섭 미술상 수상 작가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 2006 경계선-소나무협회전, 몽파르나스미술관, 파리
- 2004 평화선인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경남도립미술관 개관 초대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현대미술의 시선,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03 얼굴표현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베이징 비엔날레, 베이징
아트 파리, 그랑 팔레, 파리
- 2002 한중작가 30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 2001 오디세이, 한국문화원, 워싱턴
- 2000 우리들의 상상, 세종문화회관, 서울

수상

- 1992 4회 이중섭 미술상

http://kwunsuncheol.com
kwunsc@gmail.com

2015

이교준 李敎俊 Lee, Kyo jun

1955 대구 출생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15 기억공작소,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2 리안갤러리, 대구 / 서울
- 2011 BIBI Space, 대전
- 2009 yfo 갤러리, 대구
- 2008 석갤러리, 대구
- 2005 한기숙갤러리, 대구 / BIBI Space, 대전
- 2004 박여숙화랑, 서울
- 2003 시공갤러리, 대구
- 2002 서화갤러리, 서울
- 2001 갤러리 M, 대구 / BIBI Space, 대전
- 1999 Space 129, 대구
- 1998 신라갤러리, 대구
- 1995 인공갤러리, 대구
- 1994 인공갤러리, 대구
- 1992 인공갤러리, 대구
- 1990 인공갤러리, 대구 / 갤러리 THAT, 대구
- 1989 인공갤러리, 대구
- 1987 윤 갤러리, 서울 / 갤러리 THAT, 대구
- 1986 갤러리 THAT, 대구
- 1984 수 화랑, 대구
- 1982 수 화랑, 대구

주요 그룹전

- 2013 1970년대 그 기억의 재생과 해석,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2 감성 대구현대미술제, 4대강문화관 디아크 The ARC, 대구
- 2011 메이드 인 대구,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Inside Out-현대미술을 들추어 보다,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6 사각의 색채, 갤러리 M, 대구
- 2005 A Paralel History-한국현대미술 속 대구경북미술, 시안미술관, 영천
- 2004 나가사키 현대미술제, 나가사키, 일본
- 2000 대구미술 100년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1989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한국현대미술의 오늘, 토탈미술관, 서울
- 1988 독립 작가 리그전, 태백 화랑, 대구
- 1987 서울 현대미술제, 미술회관, 서울
- 1982 현장에서의 논리적 Vision, 김정, 대구
- 1980 Independants 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한국미술 대상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9 대구 현대미술제, 유진 화랑, 대구
- Independants 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6 전개(展開) 그룹전, 대구시립도서관 갤러리, 대구

lkj0087@naver.com

2015

안수진 安秀振 Ahn, Soo jin

1962 경기 출생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현재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겸임교수

개인전

- 2015 기억공작소 <안수진-그림자>(봉산문화회관 기획전, 대구)
- 2014 현대자동차 디자인연구소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 2010 움직임의 시학 (뉴욕 링컨센터 초청, 서울문화재단 전시) Time Box (부티크 모나코미술관)
- 2009 Frame (김중영미술관)
- 2004 Metronome (일민미술관 기획전)
- 1999 헛바늘 (인화랑 초대전)
- 1996 Neo Kinetic Arts installation show (토탈미술관 기획전)
- 1994 潛行 (금호갤러리 기획전)

단체전

- 2015 김중영탄생100주년기념전 (김중영미술관)
- 2013 국제조각패스타 (예술의전당) / 스틸아트전 (포항시립미술관) 행복의 나라-양평 (양평군립미술관)
- 2012 시간의 풍경전 (artcenter NABI)
- 2011 움직이는 미술_kinetic art (제주도립미술관) / 조각의 외연 (소마미술관)
- 2009 장티갤리의 공구 상자 (경남도립미술관) 김중영미술관 오늘의 작가 (김중영미술관)
- 2008 과학정신과 현대미술 (KAIST)
- 2006 EHS project (세종문화회관미술관) / 메르츠의 방 (서울시립미술관)
- 2005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 (모란미술관)
- 2003 물 위를 걷는 사람 (서울시립미술관) / 인천영상아트비엔날레 (인천예총회관)
- 2002 움직임의 시학 (인천, 광주 신세계미술관) / 황금날개 (모란미술관) Media city (서울시립미술관)
- 2001 기초/전망 예술의 힘, 청년 작가전 (서울미술관) 미술에 담긴 과학 (대전시립미술관)
- 2000 Virtually yours (세종문화회관) / 놀이공원 전 (성곡미술관) 말을 걸어오는 성 (동덕화랑)

외 다수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일산 유승중합건설 주상복합아파트, 안양과학대학, 보령제약 회사, 토탈미술관, 금호미술관, 벽산건설, 분당 한국학원, 모란미술관, 송도 경제특구 주상복합아파트 The #, 경기도 현대미술관, 비건 갤러리

www.ahnsoojin.com
dkstnws@gmail.com

2015

안정주 安正柱 An, Jung ju

1979 광주 출생
20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선대학원 졸업

주요개인전

- 2015 2015 기억공작소 <안정주 Lip-sync>, 봉산문화회관기획전, 대구, 한국 행운의 편지,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2014 아득한세계, 메이크업 아트 스페이스, 파주, 한국
- 2013 열 번의 충성, 갤러리 잔다리, 서울, 한국
- 2012 정직한 사람, 프로젝트 스페이스 시루비아, 서울, 한국
- 2009 Harmony-Lip Sync Project 2, 콘스트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 2007 Turn Turn Turn,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 2005 Video Music, 아트포럼 뉴계이트,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15 미친광장, 문화역서울광장, 서울, 한국
장미로 엮은 이 왕관,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한국
미래는 지금이다!, 로마국립21세기현대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 2014 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여가의 기술, 문화역 284, 서울, 한국
- 2013 그늘진 미래 -한국비디오아트전, 부카레스트 현대미술관,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지각과 경험, 모란미술관, 경기, 한국
- 2012 언바운드 아카이브,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Hello stranger, 시드니문화원, 시드니, 호주
계속되는 예술 불가능한 공동체, 금천예술공정, 서울, 한국
생각여행-길떠난 예술가 이야기,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
- 2010 조각난 풍경,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젊은모색 3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2009 신호탄전, 기무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후쿠오카 아시아 트리엔날레,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감각의 몽타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5 cubed: Multiplicity of Contemporary Art from Korea, Mary Ryan Gallery, 뉴욕, 미국
- 2007 유클리드의 산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NYRJAHDYSY, Klub, 라디, 핀란드
ARCO 07, Canal de Isabel, 마드리드, 스페인
- 2006 젊은모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레지던시

- 2009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레지던스, 후쿠오카, 일본
- 2008-2009 콘스트하우스 베타니엔 레지던스, 베를린, 독일
- 2007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헬싱키, 핀란드

수상

- 2014 두산 연강 예술상

anjungju@gmail.com
http://www.anjungju.com

2016

박철호 朴徹鎬 Park, Chel Ho

1989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1992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졸업
1997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후기대학원 수료

개인전

- 2016 2016기억공작소 <박철호 순한-깃>,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5 갤러리 DA, 구미 / 금오공과대학교 갤러리, 구미
- 2014 갤러리 전, 대구
- 2013 스페이스 빈, 서울
- 2011 시오갤러리, 대구
- 2010 갤러리 G, 대구 / 마놀린갤러리, 서울
- 2008 한기숙갤러리, 대구 / 문화예술회관, 울산
- 2007 석갤러리, 대구
- 2004 두산아트페어, 대구
- 2001 갤러리신라, 대구
- 2000 토탈미술관, 장흥
- 1999 문화예술회관 청년작가전, 대구
- 1998 Gallery of Art, Iowa, 미국
- 1997 Meyerson Gallery, Philadelphia, 미국
- 1994 기림갤러리, 대구
- 1991 태백화랑, 대구

단체전

- 2015 현대미술의 오디세이전, 문화예술회관, 울산
Post Printmaking-Tokyo, Kawasaki-Art garden, 일본
공간-세가지방법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Shadows Moting, 포스코갤러리, 포항
감각의 전이, 수성아트피아, 대구 / 한국현대미술초대전, 문화예술회관, 울산
- 2014 전국관화가 협회전, 양림미술관, 광주 / 삶머, 예술하며, 문화예술회관, 대구
뜻밖의 풍경, 오산미술관, 경기도 / 존재의 꿈,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3 영성의 자연, 시간의 비늘, 시안미술관, 영천
예술, 창조공간에 들다, 문화예술회관, 대구
아시아 현대 관화교류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2 현대미술의 장, 서울미술관, 서울
- 2011 Addition No, 갤러리 M, 대구
- 2010 Tool Tool Tool Print!,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조화 속에 조화,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 오늘의 청년작가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55인의 명품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A-One 국제현대미술제, 문화예술회관, 대구

외 다수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시안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은행본관, 대구중구청, 계명대학교, TBC대구방송국, 침저축은행, 대구검찰청 등

cchelho@hanmail.net

2016

정재철 丁宰澈 Jeoung, Jae choul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2016 기억공작소 〈실크로드 프로젝트-기록 2016〉,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블루오션 프로젝트 2015-간석지대, JM갤러리, 경기
2011 오늘의 작가 〈실크로드 프로젝트〉, 김종영미술관, 서울
이스탄불에서 런던까지,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2010 3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위드아티스트 갤러리, 경기
2008 바자르-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금산갤러리, 경기
2007 나무조각, 드로잉, 듀플렉스 갤러리, 서울 / FLOWRING LINE, 한전 아트 갤러리, 서울
2006 카이스트 초대전, 카이스트, 서울
2005 실크로드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페이스 집, 서울
2004 섹탁, 포장, 국립고양스튜디오, 경기
외 10회

주요 단체전

2015 조각가 김종영과 그 시대, 경남도립미술관, 경남
김종영과 그의 빛, 김종영미술관, 서울 / 모멘텀-아트 오마이, 토탈미술관, 서울
2014 건축적인 조각, 소마미술관, 서울
With Art, With Artist!, 아트로드 77 조직위원회, 경기
2013 미술관속사진페스티벌,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7 공통경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남도사색,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분지의 바람, 대구국채보상공원, 대구 / 유클리드의 산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재활용 주식회사, 아르코미술관, 서울 / 창원2007 아시아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2006 부드러움, 소마미술관, 서울 / 김세중조각상 창립20주년기념전, 성곡미술관, 서울
2010-1997 120여 회 그룹전 참가

수상

2011 오늘의 작가상,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0 경기문화재단 우수창작지원 선정
2008 문예진흥기금 지원 선정
2005 문예진흥기금 지원 선정
1997 Vermont Studio Center's Freeman Foundation Asian Award
1996 김세중 청년조각상
1988 중앙미술대전 대상
1987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4 아르코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바이칼 (러시아)
2010 노마딕 아트 레지더스 프로그램, 타임앤스페이스 (제주)
2009 from'S 레지던스 프로그램 (서울)
2008 몽골 노마딕 아트레지던스 프로그램 (몽골)
2004-2005 국립고양스튜디오 (서울)
2002 아트오마이 (뉴욕, 미국)
1997 버몬트 스튜디오센터 (버몬트, 미국)
1996 에스칼레스튜디오 프로그램 (모리서스)

jjch0880@hanmail.net
http://blog.daum.net/bidan-gil

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展 참고자료

2016

KAYIP 이우준 李羽濬

1977 서울 출생
2007 - 2008 왕립음악원 석사과정, 영국
2003 - 2007 버밍엄 국립음악원 학사, 영국

개인전

2016 기억공작소 〈landscape in between〉,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in the land of nowhere〉, Lou and Lou Gallery, Paris, France

주요 단체전 / 위촉

2015 〈Journey to Nowhere〉, 아트스페이스 휴, 피주, 한국
〈APMAP: Researcher’s way〉,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경기, 한국
〈열은 공기 속으로〉, 금호 미술관, 서울, 한국
〈궁중 문화축전 창경궁〉, 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4 〈마음의 기억〉, 단원 미술관, 안산, 한국
〈치유의 기술〉,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궁중 문화축전 창경궁〉, 문화재단, 서울, 한국
두산아트센터 아트랩 〈타트와 토〉 연출
〈Art of healing〉,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한국
〈여가의 기술〉, 문화역 서울284, 서울, 한국
2013 〈아트 피스〉, 금호 미술관, 서울, 한국
2012 국립 국악관현악단 〈시나위 프로젝트 1〉
2009 런던 과학박물관 기획 〈아폴로 11호 달착륙 40주년 행사〉 브라이언 이노
〈Apollo〉 앨범 재해석 프로젝트 (2009년 7월 초연)
2008 BBC Scottish Symphony 를 위한 새 관현악 곡 (2008년 10월 초연)
Kings Place (런던) 개관 기념행사로 SPNM 실내악곡 위촉 (2008년 8월 초연)
2007 앙상블 Noszferatu 실내악곡 위촉 (2007년 12월 13일 런던 the warehouse 에서 초연)
외 다수

수상

2010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문
Brighton 페스티벌 〈베스트 뮤직 이벤트상〉
2007 2회 Aberdeen University Music prize (BBC Scottish Symphony 공동 주관)
작곡콩쿨 우승

음반

2011 〈Theory of Everything〉
2008 〈motet〉
2007 〈Slow moves〉
2005 〈Kayip〉

djkayip@hanmail.net
http://djkayip.tumblr.com

2016 기억공작소 〈실크로드 프로젝트-기록 2016〉,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블루오션 프로젝트 2015-간석지대, JM갤러리, 경기
2011 오늘의 작가 〈실크로드 프로젝트〉, 김종영미술관, 서울
이스탄불에서 런던까지,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2010 3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위드아티스트 갤러리, 경기
2008 바자르-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금산갤러리, 경기
2007 나무조각, 드로잉, 듀플렉스 갤러리, 서울 / FLOWRING LINE, 한전 아트 갤러리, 서울
2006 카이스트 초대전, 카이스트, 서울
2005 실크로드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페이스 집, 서울
2004 섹탁, 포장, 국립고양스튜디오, 경기
외 10회

주요 개인전

2016 기억공작소 〈landscape in between〉,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in the land of nowhere〉, Lou and Lou Gallery, Paris, France

2016

이명호 李明豪 Myoung Ho Lee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경일대학교 예체능대학 사진영상학부 교수

주요 개인전

2016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 봉산문화회관 기억공작소, 대구, 한국
2014 李明豪, 798 Photo Gallery, Beijing, China
2013 사진-행위 프로젝트: 밝은 방, 어두운 방..., 갤러리현대 본관, 서울, 한국
2012 이명호, 갤러리정미소, 서울, 한국
2010 내일의 작가: 이명호,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2009 Myoung Ho Lee, Yossi Mllo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2007 이명호, 갤러리팩토리, 서울, 한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6 Nirvana, VDNH, Moscow, Russia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자연, 그 안에 있다, 뮤지엄산, 원주, 한국
2014 옆으로 자라는 나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금강자연미술센터, 공주, 한국
Horizontes, Centro Cultural Recoleta, Buenos Aires, Argentina
호.흙.,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2012 개념적 발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 침묵의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2011 침,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 MoA Invites,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2010 수상한 집으로의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서울, 뉴욕, 뮌헨 포토 프로젝트,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한국
다빈치의 꿈: 아트 & 테크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세상을 드로잉 하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09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씨더.넷 아시아 2009,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The Tree, James Cohan Gallery, Shanghai, China
2008 요술 이미지,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한국
Photo on Photography,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07 學園之光, CAFA Art Museum, Beijing, China
외 다수

주요 소장

The Jean Paul Getty Museum, Los Angeles, United State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France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s, Kiyosato, Japan
Museo Arte Contemporáneo, Salta, Argentina
Fotografie Museum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The Pushkin State Museum of Fine Arts, Moscow, Russi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 미술은 행, 서울, 한국
Hermès International, Paris, France / LVMH Foundation, Paris, France
Deutsche Bank, Frankfurt, Germany / Banco Espírito Santo, Lisbon, Portugal
Progressive Insurance, Cleveland, USA / Fidelity Investment, New York, USA
Statoil, Oslo, Norway / Amana, Tokyo, Japan
외 다수

2016

오쿠보 에이지 大久保英治 Okubo Eiji

1944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출생
1967 니혼대학 체육교육학부 졸업
1975 고토교육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졸업

1986 영국문화원 연구지원 수혜
현재 오사카 거주

주요 개인전

2016 기억공작소-지구를 걷는다,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아와의 길을 걷는다-사카이 아조우×오쿠보 에이지 전, 도쿠시마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2015 진해-심망의 정원, Space ChoA(Club House of Art), 창원, 한국
2014 아카게초 합병 60주년기념-오쿠보 에이지 전 환경·아카게-2014, 아카게항토미술관, 오카야마, 일본
2013 오쿠보 에이지-다변과 과묵, 갤러리 카제, 오사카, 일본
2011 오쿠보 에이지-일상의 보행에서 태어나는 것, 갤러리 카제, 오사카, 일본
오쿠보 에이지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돗토리현립박물관, 돗토리, 일본
2010 태풍 뒤에서, 이미주 갤러리, 서울, 한국
오쿠보 에이지 전, 이와미초민홀, 돗토리, 일본
2009 오쿠보 에이지 드로잉 전, 갤러리 카제, 오사카, 일본
2008 오쿠보 에이지- 하늘의 강, 시나의 강 그리고 계곡 사이에서, 마쓰다이 노부타이갤러리, 니가타, 일본
2007 오쿠보 에이지·적의 공간-대나무, 풀, 소나무, 흙의 세계, 난바 파크 홀, 오사카, 일본
오쿠보 에이지와 걷는다 모쿠지키 쇼닌의 길 II , 돗토리현립박물관, 돗토리, 일본
2006 오쿠보 에이지와 걷는다 모쿠지키 쇼닌의 길 I 도큐멘트전, 돗토리현립박물관, 돗토리, 일본
오쿠보 에이지-국경 사이트 / TOTTORI-OKAYAMA-, 치즈(돗토리) 나가초현대미술관 등, 오카야마, 일본
2005 행각 민속 오쿠보 에이지 전, 오우텐인, 오사카, 일본 / 사이트-영한-2005, 시안 미술관, 영천, 한국
빛·수변의 공-오쿠보 에이지 전, 니시노미야시 오모타니기념미술관, 니시노미야, 일본
오쿠보 에이지와 추적 모쿠지키 쇼닌의 길 I , 돗토리현립박물관, 돗토리, 일본
그림자 시리즈·계절 사이에, 한기숙 갤러리, 대구, 한국
일의 기억·흙의 기억,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2004 오쿠보 에이지, 오사카부립현대미술센터, 오사카, 일본
유라시아 아트 프로젝트 한국·강화도 프로젝트-일문과 대지예술, 강화도, 한국
외 다수

주요 그룹전

2016 걷는 시안- 워즈워드와 바쇼, 가키모리문고, 효고, 일본
2015 아시아현대미술전2015,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한국
2014 시간의 흔적, 시안 미술관, 영천, 한국
2013 긴바 아트 발견학 만들고 보는 것의 교류전 · 오쿠보 에이지와 계절을 찾아서, 도쿠시마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2011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2011, 태백 등, 한국
2010 이와미 국제 현대 미술전-돗토리 사람과 자연, 돗토리, 일본
2010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익스팬션, 류미재 갤러리 하우스, 서울, 한국
2009 물과 흙 예술제 2009, 니가타시, 니가타, 일본
대지의 예술제-에치고 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2009, 니가타, 일본
청주 공예 아트 비엔날레 2009, 청주, 한국
2008 양평 프로젝트 2008-예코+아트 : 자연과 미의 공감 『대지예술 여행』 , 양평, 한국
2007 국제 미술전,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한국 / 아시아 아트 페스티벌 창원 2007, 창원, 한국
2006 오쿠보 에이지와 돗토리의 현대 미술 작가전-돗토리의 자연에서, 갤러리 CASO, 오사카, 일본
2003 L'amore per la Terra, Michetti 박물관, 피렌체, 이탈리아
외 다수

realimng@gmail.com

2017

서용선 徐庸宣 Suh, Yong sun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B.F.A)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M.F.A)

개인전

2017 〈기억공작소, 생각이 그려지는-서용선〉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서용선〉 류미재갤러리, 양평
〈色과 空 - 서용선〉 김중영미술관, 서울
〈서용선의 인광산〉 누크갤러리, 서울
〈확장하는 선-서용선 드로잉〉 2016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서용선의 마산〉 마산청과시장 아트스튜디오, 마산
2015 〈서용선_자화상〉 갤러리 이미지, 서울
〈서용선의 도시 그리기_유포피즘과 그 현실사이〉 금호미술관, 서울 /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14 〈삼처 난 색채〉 아트센터 쿠, 대전
〈서용선〉 이유헌 갤러리, 서울
〈서용선의 신화_또 하나의 장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체화된 것들-자화상과 풍경들〉 후쿠즈미 갤러리, 오사카, 일본
〈역사적 상상-서용선의 단종실록〉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서용선〉 독일학술교류처(DAAD) 본, 독일
2013 〈서용선〉 킵스갤러리, 뉴욕, 미국
〈서용선〉 베를린 주독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기억 재현 서용선과 6.25〉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움직이는, 움직이지 않는〉 갤러리이미주, 서울
2012 〈오대산 풍경〉 동산방 화랑 / 리씨 갤러리, 서울
〈영토〉 킵스 갤러리, 뉴욕, 미국
2011 〈지리산〉 리씨갤러리, 서울
〈서용선〉 RMIT 갤러리, 멜버른, 호주
〈The man who paints〉 Shinwha 갤러리, 홍콩
〈서용선〉 son 갤러리, 베를린, 독일
〈Touch〉 Fukuzumi 갤러리, 오사카, 일본
〈시선의 정치〉 학교재갤러리, 서울

외 다수

단체전

2016 〈O상 공화국〉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광주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년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5 〈백제의 재발견_현대미술리포트〉 전북도립미술관, 원주
2014 〈사유로서의 형식-드로잉의 재발견〉 유지엄 산, 원주
2013 〈제3회 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_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코리안 랩소디〉 삼성미술관리움, 서울
2010 〈한국 드로잉 30년_1970-2000〉 소미미술관, 서울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예정지, 서울
2001 〈한국미술2001; 회화의 복권〉 광동미술관, 중국 광저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9 〈새천년 특별기획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미술관, 서울
1990 〈'90 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사람들이 땅(土)에서〉 금호미술관, 서울
1988 〈갤러리 서미개관기념-한국성, 현대성, 표현성〉 서미갤러리, 서울
1985 〈'85청년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외 다수

2017

윤석남 尹錫男 Yun, Suk nam

1966-67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수학
1983-84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수학(미국 뉴욕),
아트 스튜디오 리그 수학(미국 뉴욕)

개인전

2017 기억공작소 사람과 사람 없이-윤석남, 봉산문화회관, 대구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중선농원 갤러리2, 제주
2016 The Hollow, 학교재 갤러리, 상하이, 중국
2015 윤석남-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카미쿠라 갤러리, 카미쿠라, 일본
윤석남전-심장,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
2015 SaMA Green : 윤석남-심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윤석남 개인전_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1 윤석남 개인전_ 핑크룸 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윤석남 _사람과 사람없이 - 282, 송파구립 갤러리 水, 서울
2009 윤석남 108, 부산 아트센터(김재선 갤러리), 부산 / 윤석남 108, 갤러리 학교재, 서울
2008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4 윤석남전, 열린화랑, 부산
2003 늘어나다, 일민미술관, 서울 / 윤석남전 : 늘어나다, 카미쿠라 갤러리, 카미쿠라, 일본
1998 빛의 파중, 가미쿠라 갤러리, 카미쿠라, 일본
1997 빛의 파중, 조선일보 미술관 / 아트스페이스 서울 / 갤러리 학교재, 서울
1996 윤석남전, 가미쿠라 갤러리, 카미쿠라, 일본 / 윤석남전, 조현화랑, 부산
1993 어머니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1982 윤석남전, 미술회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16 아틀리에 STORY,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5 코리아 무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2014 Retro_’86-’88 "한국 다원주의 미술의 기원", 소미미술관, 서울
2012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1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코리안 랩소디-역사와 기억의 몸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2009 새로운 예술의 시작 -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기무사, 서울
2008 이중섭 미술상 20년 발자취 - 역대수상작가 20인,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7 경기, 1번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5 성곡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콜 앤 워, 성곡미술관, 서울
2000 人+間: 광주비엔날레 2000,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 광주
1998 타이페이 비엔날레: 염원의 장, 타이페이 미술관, 타이페이
1995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특별전, 베니스
1994 민중미술 15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 태평양을 넘어서, 컨즈미술관, 뉴욕 / 금호미술관, 서울
1987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외 다수

수상

2015 제29회 김세중 조각상
2007 제4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1996 제8회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사 주최)

http://www.yunsuknam.com
suknamy5@gmail.com

2017

홍명섭 洪明燮 Hong, Myung seop

197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B.F.A)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M.F.A)

주요 개인전

2017 기억공작소 홍명섭 - 러닝 레일로드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탈제 (소스갤러리, 헤이리, 파주)
2015 탈제 (인디프레스, 서울)
2012 shadowless/artless/mindless (OCI미술관, 서울)
running railroad (노비사드문화예술센터, 세르비아)
rainbow mapping project:ART PROJECT IN DESSAU, GERMANY
SUMMER-2007 (데시우, 독일)
2007 horizontality (문예진흥원 마로니예미술관, 표화랑, 서울)
2004 동충하초 시리즈: 여기저기, 어디에나 (이공갤러리, 대전)
2001 Level game (신재미술관, 경주)
1998 ASIANA-Preview show (기인화랑, 서울)
1994 like a snake (기인화랑, 서울)
1993 회향낙; on the meta-pattern (제3갤러리, 빈켈, 서울 / 현대화랑, 대전)
1988 meta Sculpture (반화랑, 오사카, 일본)
1987 meta Sculpture (반화랑, 오사카, 일본)
1985 Developing; 間 (현대화랑, 대전)
1983 사각변주 (수화랑, 대구)
1982 Running Rail Road (문화원화랑, 대전)
1979 (前, 現, 變身 (그로리치화랑, 서울)
1978 면벽전(面壁展) (문화원화랑, 대전)
등 30여회

주요 단체전

2016 부산비엔날레: 아시아 안방가르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 건축적 조각 (SOMA미술관, 서울)
2012 FLOW (Kunstbad, 그라츠, 오스트리아) / 히든 트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팔방미인:개념미술 1970-80 (경기도 미술관, 안산)
2009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8 낭비 - 부산 비엔날레 ; 현대미술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6 잘 곳기 (소미미술관, 서울)
2000 미디어 시타-서울 2000, 지하철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광장, 광화문 지하철 입구)
1997 국제 콘스트 포럼: 파티 5 (드레벤, 독일)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삶의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1996 금호미술관 개관기념전: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1970-90 근대의 초국 (금호미술관, 서울)

1990 제4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출품 (베니스, 이탈리아)
1982 Ecole de Seoul (관훈갤러리, 서울)
1979 금강현대미술전 (금강, 공주/문화원 화랑, 대전)
외 다수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2017

노병열 盧炳烈 No, Byung yeol

1991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93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수료

개인전

2017 기억공작소-노병열, 허안 흐름, 봉산문화회관, 대구
FLOW-경계 속으로 스며들다, 아트클럽 삼덕, 대구
2016 갤러리 DM, 대구
갤러리 DM, 창녕
2015 예술공간 거인, 영천
2012 누오보 갤러리, 대구
2011 구지 갤러리, 대구
2010 Flow-Autum, AA갤러리, 대구
2008 단절된 시간 속으로, 한기숙 갤러리, 대구
2006 갤러리M, 대구
2005 Gallery Fo, 대구
2002 석 갤러리, 대구
2001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0 Gallery LAKESIDE, 대구
1998 대안공간 SPACE129, 대구
1996 인공갤러리, 대구
1993 삼덕 갤러리, 대구

단체전

2017 대구예술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재생, 새로운 탄생,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6 강정대구현대미술제, 강정, 대구
2015 살며 예술하며 'Art &Life, Life &Art',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The experimental art project 2015',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2 사이사이 예술 'Between of Life',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맥아트미술관 개관전, 유리섬 박물관, 안산
2011 제3회 ARTROAD 77 아트페어, 2011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2010 Inside-Out,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Painted Painting, ART PARK 갤러리, 서울
2006 광주 비엔날레 제 3섹션, 열린 아트마 전, 광주
부산 비엔날레 Living Furniture전, 부산
2004 동시대 미술의 섬,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1 대구현대미술의 시선, 문화예술회관, 대구
1998 FROCKET따라잡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1997 삼천포 야외설치전, 노산공원, 삼천포
울산 환경 미술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1993 가능성 11인의 작업전, 벽이GALLERY, 대구
외 다수

소장

대구 MBC, 대구 문화예술회관

nobyungyeol@naver.com

2019

김성룡 金成龍 Kim, Seoung ryong

개인전

- 2019 기억공작소-김성룡, '혼적·비실체성',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4 '김성룡 개인전', 복합문화공간 꿀, 풀, 서울
'김성룡 개인전', 갤러리 청담, 청도
- 2009 '김성룡 개인전', 아리랑 갤러리, 부산
- 2007 '김성룡 개인전', 수가 갤러리, 부산
'김성룡 개인전', 갤러리 화수목, 서울
- 2004 '김성룡 개인전', 사비나 미술관, 서울
- 1999 '김성룡 개인전',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김성룡 개인전', 사비나 미술관, 서울

단체전

- 2018 '한국 미술의 정신', Artveras 갤러리, 스위스
- 2017 '부산리턴즈', F1963 고려제강 석천홀, 부산
코리아 투모로우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 2016 '없는법',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 2015 '사유의 공간', 가나아트갤러리, 부산
- 2014 '공성훈, 김성룡 2인전', 문앤백 갤러리, 부산
- 2013 구글 아시아 프로젝트, 구글 웹
홍콩아트페어, 홍콩
- 2009 '한국 미술의 약동들', 경기미술관, 경기
'세계의 명화들', 레디움 갤러리, 부산
- 2007 '한국 미술의 파워', 카로스 현대 미술관, 프랑스
- 2004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현대미술24인, 갤러리 조현, 부산
- 2003 한국현대미술 44인, 갤러리 라메르, 서울

등재

'청산에 눕다', 인문계 고등부 미술교과서, 시공사
2000년대를 달리는 한국의 예술가들, 월간 신동아 특집

2019

김태헌 金泰憲 Kim, Tae heon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 2019 기억공작소-김태헌, 놀자(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8 밖(한뼘 갤러리) 인천 / 김태헌展(무국적 갤러리) 서울
연주야 출근하지 마(근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2018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김태헌 개인전(창생재미) 성남
- 2016 연주야 출근하지 마(스페이스웜 미술관/2관) 청주
그리고 · 쓰고 · 놀자(갤러리양산) 양산 / 葦畫-BIG BOY(스페이스웜 미술관/3관) 청주
- 2013 뽕뽕-놀자(스페이스웜 미술관) 청주
- 2010 천개의 강(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 뽕뽕(그문화) 서울
- 2007 그림 밖으로 걷다(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 2004 김氏의 하루(갤러리 피쉬) 서울
- 2001 이야기가 가는 느티나무展(철학마당 느티나무) 서울
'화난중얼기'전(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 1998 '공간의 파괴와 생성' 성남과 분당 사이(성곡미술관/내일의 작가) 서울
- 1993 '감춰진 역사'의 숨은그림 찾기(삼정미술관) 서울

단체전

- 2018 2018 공공하는 예술 / 흰상벨트(돈의문 박물관미술) 서울 / DMZ 10년 특별전(김포문화예술회관) 김포
- 2010 경기도의 힘(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8 대구인아트 2008: 이미지의 반란(대구KT&G 별관창고) 대구
- 2007 경기, 1번 국도를 가다(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드로잉 에너지(아르코 미술관) 서울 / 잘못기(소마미술관) 서울
- 2005 사이에서 놀다(LA Andrewshire Gallery, Santa Monica Art Space) 미국 LA
- 2004 광주비엔날레 / 현장3 / 그 밖의 어떤 것, 마이너리티(5.18자유공원 상무대) 광주
- 2000 이미지 미술관(문예진흥원) 서울
- 1999 영화와 미술 / 투사와 반사(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1994 평론가가 선정한 작가전 '이 작가를 주목한다'(동아갤러리) 서울

기타활동

- 2015 전시기획-광복 70주년 특별전 "성남 도시공간을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다", 성남시청
- 2007 경기, 1번 국도를 가다, 경기일보 그림연재 / 전시기획-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 아트센터, 빛의 계단
중앙일보 공지영 연재소설 '즐거운 나의 집' 그림작업
- 2005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예술지(1번 국도)작업
- 1999-2000 분당뉴스(이미지, 글 연재)
- 1998 성남시 환경조형물 실태조사 자료집 / 마인황, 김태헌

출판

- 2016 BIG BOY / 김태헌 글, 그림 / UPSETPRESS(얼마)
연주야 출근하지 마 / 김태헌 글, 그림 / UPSETPRESS(얼마)
- 2010 뽕뽕 / 김태헌 글, 그림 / 그림문자
- 2007 그림 밖으로 걷다 / 김태헌 그림책
- 2006 김태헌 드로잉 / 아르코미술관 기획 드로잉 에너지
- 2005 1번국도 / 김태헌 마인황 글, 김태헌 그림 / 그림문자
- 2004 천지유정 / 갤러리 피쉬 출판
- 1998 공간의 파괴와 생성 / 성남과 분당 사이 문화과학사 / 김태헌 편저

ktaisan@hanmail.net www.nolza1000.com

2019

권정호 權正浩 kwonjungho

계명대학교 회화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뉴욕 프랫 인스티튜터 대학원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19 기억공작소-권정호, 뉴욕1985, 봉산문화회관, 대구
권정호, 시로다갤러리, 동경
- 2017 송고한 공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15 시간의 축적, 오스갤러리/아원/어울림/오스퀘어(전북대학교), 완주/전주
- 2014 시간이동(대구사진비엔날레), SPACE129, 대구
- 2013 삶을 비추는 죽음의 거울, 시안미술관, 영천
- 2010 미래를 통하는 문, 콘스트독갤러리, 서울
저 신비하고 경이로운 하늘을 보라, 갤러리소현&소현컨템포러리, 대구
- 2009 행복한 죽음, 호반 갤러리&미디어실,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07 분자의 아픔, 고통 그리고 희망, 인시아트센터, 서울
- 2006 모더니즘적 환원주의, 대구문화예술회관1.2전시실, 대구
- 2005 Shanghai Art Museum 3Fno.12 Exhibition hall, 상해

주요 단체전

- 2018 Fire Art Festa, 2018평창문화올림픽 강릉문화재단, 경포대, 강릉
NICAF 제34회 대한민국남부 현대미술제 "움직임에서 모멘텀으로", 갤러리 조이, 부산
- 2017 바다미술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대대포, 부산
바코드전, 양평미술관, 양평, 경기도
- 2016 대구의 추상미술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5 아트프로젝트울산 2015 "시간의 거울, 어느 병원", 문화의 거리일대, 울산
- 2014 CMCP(Collective Memory Collective Power), 반월당역/봉산문화회관 온아트, 대구
대구현대미술2014,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나는 세계의 눈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미술관, 서울
- 2013 Fashion with Pattern 특별기획전, 63스카이아트 미술관, 서울
대구현대미술 예술창조공간에 틀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3대구현대미술제 "1970년대, 그 기억의 재생과 해석",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1 강익중 권정호 전수천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특별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대구미술의 빛과 정신 "Now in Daegu", 구상업은행 대구지점, 대구
대구미술관 개관 주재전 2부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콘스트독 아티스트 클러스터 2010, Gallery KUNSTDOC, 서울
- 2009 봉황137, 동방에서 날아오다, 상삼미술관(북경-C'KOAS), 북경
외 다수

소장

- 2018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엄원작)
- 2014 시안미술관 (시간의 거울작)
- 2002 상해시청 (상해심상-1작, 상해심상-2작)
- 2001 부산시립미술관 (인간은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갈 것인가?작)
- 1987 국립현대미술관 (soundⅢ작, 어느 날 밤작, 해골작)

www.kwonjungho.com
jhwon2009@gmail.com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작가 프로필

전시발문_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自然設計, 물과 나무의 정치 정종구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권효정 權孝貞 Kwon, Hyojung

경북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 졸업

주요 개인전

- 2017 GLASS BOX ARTSTAR Ver.3 권효정-Oasis: Fountain of life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6 Art&Artist Eoul Project 1 (어울아트센터, 대구)
INTERSECTION (조양갤러리, 대구)
- 2015 어루만질 멸滅 믿고 의지할 처뎀 (비영리 전시공간 싹, 대구)

주요 단체전

- 2019 스테어스 아트페어 (영무예다음 모델하우스, 대구)
- 2018 도리언 그레이와 9개의 방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7 스완송 (봉산문화회관, 대구)
로맨틱벗서바이벌프로젝트 결과전 (예술공간거인, 청통)
아시아, 예술이 묻는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 여름밤의 꿈 (어울아트센터, 대구)
Sencond Apri (아트클럽삼덕, 대구)
대구예술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6 싹, 숲을 이룬다 (범어도서관 Gallery Ars`S, 대구)
청년미술페스티벌 (Artspace-GIANT, 영천)
드로잉클럽 (아트클럽삼덕, 대구)
살며, 예술하며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구)
신진작가초대展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 2015 오픈스페이스배 '안녕예술가' a sap (낙타의부엌, 부산)
curriculum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시선 The Veiw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Real Peace (아양아트센터, 대구)
DEBUTANT S (Gallery sun, 대구)

rgw5764@naver.com

김성수 金星洙 Kim, Sungsoo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 2015 Hello! Contemporary Art-김성수,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4 김성수전, 일본 유예갤러리(Galleiry Yuei), 오사카
- 2011 나무에 희망을 새기다, 동승아트센터, 꼭두박물관, 서울
김성수전, 일본사가, 시나구로갤러리
기억공작소-김성수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9 아트갤러리청담, 청도
- 2008 전 갤러리, 대구
- 2007 대구MBC 갤러리M, 대구
- 2006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 2005 분도갤러리, 대구
실크보그베드아트센터, 덴마크
- 2004 맥향화랑, 대구
- 2003 두산갤러리, 대구
- 2002 맥향화랑, 대구
- 2000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8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1997 백아미술관, 대구

주요 단체전

-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전-희망을 봄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천안)
20193-5인 (갤러리 문 101, 대구)
토마에서 놀자 (갤러리토마, 대구)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STAR WAS BORN (대백프라자 갤러리, 대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기념 파이어 아트페스타 (강릉 경포대)
맥심전 (철곡문화원, 철곡군)
- 2017 닭의 해 기념초대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아트숲 (달서구 문화재단, 대구)
SNS로 놀자 (스페이스22, 서울)
- 2016 대구미술 아우르기 (한가람미술관, 서울)
수원 고색 NEWSEUM 국제예술제 CROSS-POINT NAN ZARII (고색동폐수처리장, 수원)
- 2015 Korean Art Compact전 (시나지나, 샤프트, 일본)

- 서울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서울)
꿈의 나라 양평 (양평미술관, 양평)
MY FAMILY (울산현대미술관, 울산)
- 2014 강정현대미술제 (강정보 디아크일원, 대구)
웃으며 예술하자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약동하는 힘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 2013 대구미술의 사색 (대구 미술관, 대구)
- 2012 수창동에서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1 땅따먹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0 국제조각심포지움 (신천둔치, 대구)
- 2009 5월은 푸르구나 (전북미술관, 전주)
3인의 조각초대전 (이수갤러리, 대구)
55인 명품전 (경북디자인센터, 대구)
대구 중구 퍼블릭아트 조각작품설치 (미소시티아파트, 대구)
- 2008 유쾌한 미술 (거제 문화예술회관, 거제)
꽃이다 (서울 충정각, 서울)
- 2007 수성아트피아 개관기념 초대전 (수성아트피아 갤러리, 대구)
- 2006 나무를 만나다 (고토갤러리, 대구)
- 2005 한일 현대미술작가 126인전 (동경, 일본)
- 2004 구현과 재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mbc 현대미술초대전 (춘천 mbc, 춘천)
부산조각제 (부산문화예술회관, 부산)
- 2003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조각 심포지움 (아사달 조각공원, 경주)
- 2001 화랑미술제 (서울 예술의 전당, 서울)
- 그 외 단체전 및 초대전 200 여회

작품소장

- 대구시 중구청
- 대구 문화예술회관
- 달서구 웃는 얼굴 아트센터
- 경주 엑스포 조각공원

sungsoo218@hanmail.net

김현준 金鉉埈 Kim, Hyunjoon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 2017 and, after (KOSA space, 서울)
- 2014 응시 그리고 상념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 2019 HARBOUR ART FAIR (마르코폴로 호텔, 홍콩)
미야자키공항 국제조각전 (미야자키, 일본)
- 2018 강정현대미술제 "예술의 섬-강정" (강정보 디아크광장, 대구)
2018현대미술의 조망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조형아트서울 (코엑스, 서울)
한국조각의 현장 속으로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17 미술의 숲 조각전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국제조각페스타2017 (한가람미술관, 서울)
아트부산2017 (벡스코, 부산)
동촌조각축제 (아양아트센터, 대구)
- 2016 두드리다-2016 (웃는얼굴아트 센터, 대구)
SOAF<100인 때 조각전> (코엑스, 서울)
달성, 조각 꽃피다 전 (참꽃 갤러리, 대구)
한국조각가협회 제주 초청전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제주)
한국의 조각가전 (석당미술관, 부산)
조각 오감도전 (KOSA space, 서울)

joon22sa@naver.com

instagram : hjoon_sculptor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신강호 申剛浩 Shin, Kangho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개인전

- 2017 신강호 개인전 (SPACE129, 대구)
LINK ([b]스페이스, 대구)
- 2014 커브2410 - LINK, 두 개의 문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 초대 'LINK, 연결되다'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3 GLASS BOX ARTSTAR Ver.2 신강호-LINK (봉산문화회관, 대구)
- 1997 신강호 개인전 (영남대학교 전시실, 경산)

단체전

- 2019 영남문화의 원류를 찾아서-김해 (대구신세계갤러리, 대구)
- 2018 Daegu Contemporary Art meet with Belgium (갤러리 해원, 대구)
2018현대미술조망-FLEXIBLE IDENTITY 정.중.동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KAFA 대형조각전 (일산킨텍스 전시장, 경기도)
동촌아외조각전 (아양아트센터, 대구)
현대미술의 자화상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Koreanse Kunstenaars op bezoek (De Markten, Brussel, Belgium)
WAK-Kunst Buiten (Leopold park, Leopold, Belgium)
현대미술의 다양성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FUN INTERNATIONAL ART FAIR (대만)
- 2017 방천아트페스티벌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야외무대, 대구)
작가미술장터-BUY, 예술가의 방 (신세계갤러리, 대구)
감성도시 (로코코 갤러리, 울산)
대구현대미술-대구, 몸 그리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嶺南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
Collaboration6 (SPACE129, 대구)
함께하는 집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S_S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함께하는 A4 (SPACE129, 대구)
- 2016 2016 창작과 비평-삶, 해석으로서의 예술II (봉산문화회관, 대구)
대구현대미술축제-2016봉산아트길 (봉산문화거리, 대구)
2016 봉산미술제 (봉산문화거리, 대구)
대구현대미술-LIFE PAINTING ARTIST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5 봉산아트길 (봉산문화거리/제이원 갤러리, 대구)

- 봉산미술제 (봉산문화거리, 대구)
 - 예술 도시에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love love love (SPACE 129, 대구)
 - 리사이클링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함께하는 A4 (SPACE 129, 대구)
 - 2014 대구현대미술축제 2014 봉산아트길 (봉산문화거리 일원, 대구)
2014 울산 대구 현대미술 교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대구현대미술의 오늘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대구강정현대미술제 (강정보 디아크 일대, 대구)
1973년 8월 13일 종료에서 경상감영길 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GAP (봉산문화회관, 대구)
DYNAMIC PLACE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3 시각과 소통 (봉산문화회관, 대구)
대구현대미술-함께, 움직이다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창작과 비평-평론가 선정 7인 (아양아트센터, 대구)
대한민국 남부국제현대 미술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현대미술-예술창조공간에 들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그 외 단체전 및 기획초대전 다수

레지던시

- 2013 Ten-topic Project, 대구예술발전소
- 2018 대구해외레지던시, Leopoldbug, Belgium

kanghoart.tistory.com
depcon@naver.com

이상헌 李相憲 Lee, Sangheon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박사 수료

주요 개인전

- 2018 WOOD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대구)
Time and memory (무학갤러리, 대구지방경찰청)
- 2017 With (Kunsten Hojer, 덴마크)
국제조각페스타 부스 개인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황금 닭과 남자 (갤러리C, 대구)
- 2016 국제조각페스타 부스 개인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5 Mills Pond House 갤러리 초대전 (뉴욕)
The Inner Room-Part2 (Houmura갤러리, 삿포르, 일본)
The Inner Room-Part1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3 기억 속을 거닐다 (하슬라아트뮤지엄, 강릉)
서랍장 속의 기억 (갤러리M, 대구)
- 2011 피에로는 나를 보고 웃지 (제이원갤러리, 대구)
- 2009 GLASS BOX ARTSTAR Ver.6 이상헌-기억 잡기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8 꿈꾸는 하루 (KMG문화공간, 대구)
나무, 의자, 바람-기다리다 (전갤러리, 청도)
- 2007 바람을 기다리다 (수갤러리, 대구)
- 2006 바람을 꿈꾸다 (동체미술전시관, 대구)
- 2005 사유의 숲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4 꿈꾸는 나무 (고토갤러리, 대구)
- 2003 무의식의 방 (리브갤러리, 대구)

주요 단체전

- 2019 아트잼 인 니콜라이 (니콜라이 아트센터, 콜딩, 덴마크)
아트잼 인 호이어 (갤러리 쿤스텐, 호이어, 덴마크)
교토에서 놀자 (소무시갤러리, 교토)
서울국제예술박람회 (COEX, 서울)
- 2018 조각2인 초대전-Freedom Time (갤러리쿤스텐, 덴마크)
야외조각 초대전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대한민국 미술축제-KFAA 국제아트페어 (킨텍스, 고양)
행복 ZOOM (어울아트센터, 대구)
100 Beyond Sculpture (COEX, 서울)
한국조각가협회 지부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17 열정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현대조각 4인전 (수지미술관, 남원)
Street Sculpture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SPACE22에서 놀자 (SPACE22, 서울)
- 2016 달성-조각으로 꽃피다 (참꽃갤러리, 대구)
Fantasy Pile (사사마재단 스페이스, 뉴욕)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 (강정 디아크, 대구)
대구아티스트, 선-삶의 비용 (대구미술관, 대구)
봄에서 놀자 (문화공간 봄, 대구)
수에서 놀자 (문화공간 수, 부산)
- 2015 국제조각전-오늘 (갤러리오늘, 대구)
7인의 한국조각가초대전 (Shinajina갤러리, 삿포르 일본)
실험적 예술 프로젝트-생활기행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강릉대학교 교수 작품전 (강릉미술관, 강릉)
- 2014 하슬라 피노키오 (세종문화회관, 서울)
국제 입체조형전 (Shinajina갤러리, 삿포르, 일본)
강릉대학교 교수 작품전 (강릉미술관, 강릉)
- 2013 Childhood Memories (Mills Pond House갤러리, 뉴욕)
2005-2019 미야자키공항 국제조각전 (미야자키, 일본)
그 외 국내외 단체전 및 기획초대전 다수 참여

조각심포지움, 레지던시 및 수상

- 2019 덴마크 '콜딩' 국제 조각 심포지움 (콜딩, 덴마크)
- 2017,18,19 덴마크 '호이어' 국제 조각 심포지움 및 레지던시 (호이어, 덴마크)
- 2014, 2018 대만국제조각 공모전 입선 (산이미술관, 대만)
- 2017, 2018 모산조형미술관 국제레지던시 (보령, 한국)
- 2016 덴마크 '손더보그' 국제 조각 심포지움 (손더보그, 덴마크)
- 2013 'Childhood Memories'전 1등상 수상 (Mills Pond House갤러리, 뉴욕)
터키 '카르탈' 국제 조각 심포지움 (이스탄불, 터키)
하슬라아트월드 레지던시 참가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 2012 프랑스 'taches/taches' 국제 회화&조각 심포지움 (생로, 프랑스)
대만국제조각 공모전 '우수상 수상' (산이미술관, 대만)
- 2008, 09, 11 러시아 '펜자' 국제 조각 심포지움 (펜자, 러시아)
- 2009 독일 '엡스테인' 국제 조각 심포지움 (엡스테인, 독일)

breton0116@naver.com
www.sculptorleesang.com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自然設計, 물과 나무의 정치

'Hello! Contemporary Art'는 동시대성의 참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개별적 사실들의 시각적 축적을 선보이면서 세계 인식을 상호 공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시이다. 봉산문화회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동시대 미술의 실험정신과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고, 현재까지 그 가치에 관한 신뢰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을 위한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부터 이미 미술사적 가치가 평가된 역사적인 작품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의 전시 성과들은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공공분야에서 동시대 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는 봉산문화회관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전시의 명제 'Hello! Contemporary Art'에 스며있듯이, 우리가 예술 분야에서 진정 해결해야 할 과제는 동시대성의 공유와 대중과의 상호 소통, 즉 서로 간의 공감과 호흡일 것이다.

이번 전시, "2019 Hello! Contemporary Art –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自然設計"는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넘어서서 미술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실험하는 동시대 미술가의 상상과 독자적 설계를 기억하며 이제 10년을 맞는 '기억공작소' 전시의 역사성과 그 태도를 공유하면서 동시대 미술의 '원림^{원림}'을 그리려는 '자연설계^{自然設計}'의 호출 장치이다. 이 장치는 설치미술에 관심을 가졌던 "2018 Hello! Contemporary Art :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와 야외 설치 미술의 실험성에 주목했던 "2017 Hello! Contemporary Art – 야외설치 1977로부터"展, 비디오키트의 실험성에 흥미를 가졌던 지난 2014년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 1978로부터"展 등을 비롯하여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며, 1977년 5월 1일,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설치행위가 있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부터 현재의 이곳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 Contemporary Art'이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기억에 연대하여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의 경계를 드러내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우리 시대 예술의 공감을 다양하게 실험하려는 태도의 시각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4년 봉산문화회관의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로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미디어 아티스트 류재하와 조각가 이기철의 야외 설치와 실내 전시, 영상 등을 함께 소개했던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 1978로부터"는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을 향해 반기워하는 관객의 손짓이며, 동시에 관객과 친숙해지려는 미술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야외광장에 비닐 물주머니 3600개를 설치한 흥순환과 나무조각으로 조성한 실내정원을 선보였던 조각가 김성수에 의해 진행했던 2015년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 컴퓨터 부속품으로 사이버 야외정원을 설치한 리우와 실내에 조성하는 협력 정원을 주제로 영상, 소리, 미디어 작업을 소개했던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3인의 2016년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 자연에 대하여 '실험정신'을 싹 틔우는 인간의 터전이란 의미로서 '정원^{정원}'을 염두에 두었던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3인의 야외전시와 실내 정원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하게 했던 박정기와 도심의 에스컬레이터를 무지개 폭포로 은유한 정재범의 실내 전시 등 2017년의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 그리고 그동안 설치미술을 주로 다루어왔던 유리상자 아트스페이스의 역사성을 기록하며 '유리상자-아트스타 11년 설치미술로부터'를 주제로 정혜숙의 야외 설치와 한호, 김재경의 설치미술, 정지현의 연극적인 회화 작업을 통하여 설치미술의 특성을 되돌아보려는 2018년의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 등은 동시대 예술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시각예술의 실험 기록들일 것이다.

이어서, 기억공작소 10년 전시의 기록으로부터 동시대 미술의 일면과 예술가의 실험적인 인식의 태도를 소개하려는 올해 2019년 전시는 인간의 실험정신을 발현시키는 근원이 '자연설계'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미술이 인간의 본능적 감성과 소통하는 우리 시대의 '원림^{원림}'을 상상하고 있다. 집터에 딸린 돌, 숲, 혹은 공원의 수풀을 이르는 '원림'은 인위적인 조경작업을 통하여 분위기를 연출한 보통의 주택 '정원'과는 다르게, 교외에서 동산과 숲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조경의 일부로 삼아 인공적인 조경을 삼가면서 적절한 장소에 기대어 집과 정자를 배치한 것으로 일본식 정원을 당연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던 미적 장소의 개념이다. 인공적으로 가꾼 정원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숲이 간직한 본성적 가치를 알아채고 그 자연스러움에 이끌려 그 장소 혹은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원림을 인식하고 상상하는 것이다. 혹시, 자연 설계의 호출에 의해 일상적인 도시의 전시공간에서 우리 시대의 삶과 예술에 관한 질문을 시각화하는 동시대 미술이 이러한 '원림'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번 전시의 부제로 설정한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는 천고 5.2m와 3.7m에 면적 68.40㎡의 4전시실 '기억공작소'를 실험성 강한 동시대 미술의 소개 공간으로 설정하고, 10년의 기간 동안 독자적인 새로운 미술의 가치와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담론을 생성하고 실험적인 설계와 실천들을 지지해왔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 주제의 일부로서 '자연설계'를 기억하려는 장치인 것이다. 또한 이 전시는 정형화된 평면과 입체 작업의 경계 또는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여 자연 상태의 강변 모래벌판과 숲에서 해프닝 행위를 시도했던 이전

시대 미술가들의 태도를 떠올리면서, 야외광장과 거리, 몇 개의 전시공간을 연결하여 대중과의 소통과 동시대성의 실마리를 자연 설계의 실험정신에서 찾으려는 신체 행위의 현재적 기록들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전시는 야외 공간인 'Spot1'과 실내 공간인 'Spot2, 3, 4, 기록전시'의 경계를 드러내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우리 시대 예술의 다양한 실험성 속에서 '자연설계'를 감지하려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이 전시를 지탱하는 '기록전시,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와 'Spot1.야외원림 권효정의 분수와 김성수, 이상헌, 신강호, 김현준의 나무조각', 'Spot2.실내원림 이상헌', 'Spot3.실내원림 신강호', 'Spot4.실내원림 김성수와 김현준'의 미술적 태도에 관련된 '원림'의 설계는 세계 혹은 우리 삶의 현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연설계' 상태의 균형과 변화, 소리의 질서에 기대어 배치하고 머무르며 감상하는 다양한 경험의 확장과 공감으로서 '명원^{명원}'의 상상에 관한 것이다.

Spot1.야외원림 권효정의 '분수' 설계와 김성수, 이상헌, 신강호, 김현준의 '나무조각' 설계

한여름, 대구 도심의 야외 광장 중심부에 설치한 권효정의 분수 'Fountain of life; WaterPark'는 삶 속의 예술과 도시생활에서 잊고 지냈던 자연의 초월성을 기억하도록 설계한다. 층층이 쌓은 스테인리스 그릇의 꼭대기와 샤워헤드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플라스틱 생활용품과 드럼통, 저울, 비닐 공 사이로 떨어져 흐르면서 경쾌하고 시원한 시청각적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과는 무관한 공산품 오브제에도 불구하고 물의 생명성과 에너지의 순환에 관한 '자연설계'의 근원적 이치^{이치}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작가는 자연을 대체하는 인공 분수를 영위^{영위}하며 위안을 삼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물의 본성인 생명성을 확인하고, 자연에 반^반하는 인간 행위들에 대해 부드럽지만 설득력 있는 신념을 담아낸다. 그리고 '분수'의 주변에는 자연 원림의 풍경인 듯, 실내원림으로 진입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건물 입구에 매단 김성수의 '꽃과 새', 춤추는 사람을 조각한 이상헌의 'dance', 굵은 나뭇가지로 만든 인체를 연결한 신강호의 'Link-나무 정령', 거대한 나무를 무릎 꿇은 인체로 조각한 김현준의 '나를 너라고 부르는 너는 누구니?' 등이 연대하여 자리하고 있다. 이 야외 '분수'와 '나무조각'은 주변의 거리와 건물, 자동차, 행인, 날씨, 시간 등 상황과 환경 전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대한 자연 환경적 작업이며, 주변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있는 자연설계의 미술 원림이다.

Spot2.실내원림 이상헌의 설계

이상헌의 자연설계는 전시실을 가득 채운 나무의 짙은 향으로부터 감지된다. 입구에서부터 가슴에 못을 박은 채 둔중한 대형 망치를 끌고 있는 '못을 박다', 2점의 평면 드로잉, 거꾸로 된 팔 다리과 함께 길게 늘어져 날리는 넥타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실감 나게 살려주는 '떨어지다-두 번째', 기우에 놀리는 몸부림을 표현한 '기우놀림', 억압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Flying man' 조각 등이 전시되어있다. 6.75m 높이 천장의 3전시실에 순차적인 서사를 담은 연극 무대를 연출하듯이 슬픔이나 절망, 불안, 희망, 꿈 등 순수한 인간의 정서들을 시각화하려는 이상헌의 나무조각들은 나무에 투영된 작가 자신의 불안한 현실적 삶을 담고 있다. 나무와 일체가 되면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직면하게 된 작가는 자신의 삶과 예술 사이의 괴리 속에서 경험한 심리적인 정서들을 드러내려고 나무의 결을 살리거나 전기 톱날 조각의 거친 자국이 느껴지도록 조각하였다. 나무를 깎는 작가의 조각 행위와 나무의 질감, 향에서 치유 에너지와 더불어 거대한 자연의 설계를 읽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Spot3.실내원림 신강호의 설계

1층 'Spot1.야외원림' 전시에서 광장에 서있는 가로수를 잡아당기는 인체 형상의 나무조각 군락은 작가 스스로의 고정 관념 때문에 자연의 설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씨름하는 신강호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성 탐구는 2전시실의 실내원림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자연과 사람 사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계성을 'ink'로 치형하고 그 매개체로 '나무 정령'을 설정하여 작업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작가는 자연의 숲이나 군락을 지은 나무를 관찰하면서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자연과 사람의 'ink'에 대하여 나뭇가지 그대로의 형태를 따라 인체를 조각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군상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성장 줄기를 따라 자라는 나무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선을 주목하고, "나는 그저 잘 빛어낸 선들을 선택하고 조합할 뿐이다."라는 자신의 말처럼 자연이 설계한 나무 본연의 자연스러운 선과 생태적인 형태, 감성을 최대한 드러내는 인체의 군상을 조각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변화와 균형, 조화로 소리를 따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계를 시각화한다.

Spot4.실내원림 김성수와 김현준의 설계

1전시실은 김성수의 투박한 나무 꼭두와 김현준의 나무 자각상으로 구성된 실내원림이다. 출입구에는 실제 사람 크기로 조각한 김현준의 'somewhere'가 대뜸 관객과 마주 서있다. 낯선 당혹감도 잠시, 부드러운 자연의 질감과 결, 향으로 인해 이내 호감으로 바뀐다. 작가에 의하면, 이 조각은 해답이 없는 오랜 질문으로부터 현실 삶에 관한 조금의 실마리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가려는 그 순간 움직임의 표현이라고 한다. 김현준은 기성 사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어지는 해답 없는 질문과 자극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들이 동시대인의 고민이라고 생각했고, 동시대인의 심리적 혼란의 순간을 자각상으로 표현한 '응시', 갈등의 몸부림을 표현한 '60 상념', 온몸에 힘을 빼고 누워서 공중에 부양하는 인체로 혼란의 외부 대상을 표현한 'Who', 시간과 공간이 멈춘 명상의 상황을 표현한 '?' 조각 등을 통하여 그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기준에 맞추려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세계와 연결된 자신의 감각을 차단하여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자신을 맡기는 상태를 나무조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또 작가는 스스로와 대화하는 신중한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 관한 또 다른 가능성의 싹을 틔우는 상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불분명하거나 소외되어 설명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어 이해시키려는 긍정하고 평등하며 균형 잡힌 자연 설계의 시각화이다.

전시실 중간 벽에 걸린 '꽃을 든 남자'의 우측부터는 나무조각으로 자연설계를 읽어내는 김성수의 태도가 엿보인다. 그것은 한 덩어리의 나무가 작가의 손을 거치며 완벽하고 매끈하기보다는 모자라고 비어있는 대로 거칠고 무심하지만 나무 본연의 생김새를 따라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설계이며, 중심이 아닌 주변과 소외된 것 설명되지 못한 것들을 존중하여 사실과 진실을 회복시키려는 균형 감각이다. 김성수는 시대의 현실에 대응하는 서민의 해학을 담았던 '꼭두'의 조형성과 강한 원색, 회화적 감수성에 주목한다. 전통 장례의 상어를 장식했던 '꼭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보호하고, 생로병사, 회로애락 등 고단한 현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욕망을 담아 내세의 이상 세계로 이어주는 매개였다. 작가는 이 '꼭두'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의 설계를 읽어내는 조각들, 목적 없이 걸어가는 무표정한 인물, 꽃을 들고 서있는 남자, 바쁘게 걷는 남자, 꽃바구니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 멍하니 서있는 사람, 말을 탄 여자와 천장에 매단 300개의 '사람을 만나다' 군상을 인도하며 어디론가 새를 타고 날아가는 남자 등 현대인의 상처와 긴장을 다독이며, 도시민의 일상과 그러운 사람들을 시각화하여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들 자신의 삶과 꿈을 돌아보게 설계한다.

기록전시,기억공작소10년-미술의 태도 설계

2층 로비 벽면에 설치한 53점의 이미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더 정확히는 2008년에 시작된 싹 틔우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10년을 맞은 4전시실의 '기억공작소'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들의 태도들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의 설치 장면이 담긴 포스터를 전시하며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넘어서서 미술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실험하는 동시대 미술을 기록하려는 설계이다.

이 기록전시에는 4전시실이 지금처럼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라고 불리기 전의 기록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정식 개관에 앞서 프리 오픈 전시로서 2010년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했던 사진전시,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프로젝트 대구'는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팀이 주관하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빵이 아니라 카메라를 나누어주어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그들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전시였다. 이 전시 이후부터 '기억 깨우기'와 '기억공작소'라는 부제로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게 되지만, 사실 동시대 미술의 태도와 미래의 꿈, 가치의 소통을 통한 변화의 공감으로서 '싹 틔우기'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3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3전시실에서 진행했던 3개의 전시, "예술이 도심을 재생하다" 프로젝트"는 도심의 재생과 변화를 지원하는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예술은 지팡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홍현기의 3월 전시, '기억 공간으로서 도심과 미술 작업'에 관한 최병소의 4~5월 전시, 퍼포먼스와 함께 '나, 지금, 여기'의 가치를 제안했던 이건용의 6~7월 전시 등은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을 곰곰이 생각하고,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한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2010년 9월 2일 개관 기념전부터는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기억의 보고寶庫이자,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며, 예술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어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또 다른 환경으로서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 내려는 '기억공작소'임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2010년도에는 '기억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정병국,'

'김호득', '이명미', '류재하'의 전시, 2011년도에는 '기억공작소'라는 제목으로 '김성수', '임창민', '오상택', '임현락, 1초 수목-들풀', '배종현, 아생', '정은주, Tetris'의 전시, 2012년도에는 '이지현, dreaming book', '김영진, Nega-Posi', '정용국, Anywhere', '하광석, Truth in Non-Reality', '윤영화, 유산 Heritage', '박종규, Layers & Dimensions', '유영환, contemplation'의 전시, 2013년도에는 '이기칠, 거주', '김주연, 유기체적 풍경', '장준석, Fantasiless', '안규철, 단 하나의 책상', '김희선, Feed back', '권부문, 군인들1978', '송광익, 지물'의 전시, 2014년도에는 '안창홍, 남과 북', '비디오 아티스트 1978'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진, 고 박현기, 이강소, 최병소' '김구림, wiping cloth', '권오봉'의 전시, 2015년도에는 '유근택, A Passage-창문 밖을 나선 풍경', '권순철, 얼굴 Face', '이교준, metal & tableau', '안수진, 그림자', '안정주, Lip-sync'의 전시, 2016년도에는 '박철호, 순환-깃', '정재철, 실�크로드 프로젝트-기록', 'KAYIP, landscape in between', '이명호, 공작의 기억: 나무와 신기루', '오쿠보 에이치, 지구를 걷는다'의 전시, 2017년도에는 '서용선, 생각이 그려지는', '윤석남, 사람과 사람 없이', '홍명섭, running railroad', '노병열, 하얀 흐름'의 전시, 2018년도에는 '기쿠치 다카시, 애매한 기억', '유비호, 영원한 기억', '서옥순, 눈물', '오인환, 나는 하나가 아니다'의 전시, 2019년도에는 '김성룡, 흔적-비실체성', '김태현, 놀자', '권정호, 뉴욕 1985'의 전시 등 현재까지 53건의 기억공작소 전시를 진행했고, 그 10년 전시의 기억들을 이번 벽면 전시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기억공작소'를 매개로 미술가의 기억이 관객의 기억으로 전이轉移되어, 그 기억의 일부에서 '자연설계'를 추측하며 '원림'을 떠올리고 곧 이어서 '물과 나무'의 가치를 시각예술로 제시하는 것.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원림'으로서 동시대 '기억공작소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의 기억은 1977년 4월 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 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혹은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 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와 실험 행위의 일면을 소개하며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의미 있는 기억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박현기가 강변에 늘어선 포들러 나무 몇 그루의 그림자를 핏가루로 그린 '무제'는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는 캔버스 그림보다는 자연의 비비람과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쉽게 지워져 버릴 자연설계에 의한 그림의 생명 이 더욱 강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다. 또 이강소가 넓은 모래 바닥에 구두를 벗고 상의와 넥타이, 와이셔츠, 양말을 일렬로 벗어 놓은 채 직경 5m의 모래성을 쌓아 올린 작업도 일상과 다른 자연의 상태에서 자연설계 차원의 시각과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당시의 신문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문범의 '긴 천 이벤트', 정재규의 모래톱 평행선 굿기와 이종윤, 장성진, 이상남, 백미혜, 최병소의 다양한 신체 행위들은 자연설계의 실마리를 구하려는 태도와 관련지을 수 있다.(1977년 야외 설치 행위의 상세 내용은 2004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발행한 "대구미술 다시보기" 전시 도록과 2016년 민속원에서 펴낸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도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시 '2019 Hello! Contemporary Art'는 1970년대 대구 실험미술과 기억공작소 10년을 연대하여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동시대 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 행위', '물입'의 경험 양상으로 현상되는 '자연설계'이며, '실험'을 생육해온 '서식지'로서 이곳 지역과 장소를 다시 기억하고, 1977년의 야외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 소통하려 했던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을 '자연설계'의 차원으로 가능하며, 또한 자연의 설계를 따르는 태도로서 '나무조각'의 '나무'를 도심의 일상적인 돌 앞에서 '분수'의 '물'과 관계 짓는 매력적인 전시의 설계로 동시대 미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해석하려는 제안과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자연설계'의 태도는 세계와 인간 정서에 대한 관찰, 진실과 사실의 탐구, 허위와 가식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 미술의 공감과 경험의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자연으로서 '물과 나무'의 탁월한 정치성政治性이다. 따라서 미술가의 작업 모태로서 이번 자연 설계에 대한 공유는 명확하고 새로워질 동시대 미술의 어느 순간을 위한 우리들의 'Hello!'일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2019 Hello! Contemporary Art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10년으로부터 자연설계 自然設計

2019. 7. 19 Fri - 8. 10 Sat

주최 **부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부산문화회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작가 권효정, 김성수, 김현준, 신강호, 이상현
기획&진행 정종구
평문&글 배태주, 정종구
진행지원 김영숙, 이정은
연계워크숍 에듀케이터 신재희, 이해운, 김동앵, 김민지, 박지현, 임은경
사진 이재영
디자인 애드갤러리

발행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편집인 부산문화회관 옥동화
행정총괄 전시공연팀장 장미숙, 관리운영팀장 황종규
행정지원 조이순, 김은영, 박연삼, 이정희, 류소연, 박경호, 류두형
정연덕, 진은경
발행일 2019. 9. 13
발행부수 500부

Copyright © 2019 Bongsan Cultural Center

본 자료집은 부산문화회관의 기획으로 제작&발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부산문화회관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전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 문예회관 전시기획 프로그램' 사업이며,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비매품

93600



9 791195 393145



ISBN 979-11-953931-4-5